

2015년 강원도 생명사랑 사업
“마음나눔 공동체”

GANGWON
PROVINCIAL
MENTAL
HEALTH
CENTER

2015 마음건강 검진 분석 보고서

강릉, 태백, 삼척, 홍천, 고성



강원도
GANGWON PROVINCE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Gangwon provincial mental health center

발 간 사

공동체[共同體]

1.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2. 혈연, 지연(地緣), 우정 등과 같이 인간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가족, 이웃, 동료 등 사회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즉,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높은 자살률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자살 문제는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고 재생하는 것으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은 지난 2014년 화천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 강원도에 적용 가능한 자살예방 사업의 모델개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화천군에서의 사업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에는 강원도 내 5개 지역(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고성군)으로 확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르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자살위험군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자살위험군에 대해서는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심층상담, 각종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행정기관,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내의 생명존중과 생명사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자살 예방 교육 등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각 지역 내에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은 단순히 강원도의 자살률 저하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강원도 내에 심각한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은 그 시작이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김명남 강릉시 보건소장님, 황정우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 지명선 태백시보건소장님, 김민혁 태백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 이한준 삼척시보건소장님, 김시균 삼척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 변도화 홍천군보건소장님, 서영은 홍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 박옥희 고성군보건소장님, 김진국 고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장님과 5개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보건정책과 김중근 과장님, 박원섭 계장님, 윤금연 주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쉽지 않은 마음 검진에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검진요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통계분석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해 준 우리센터의 박호숙 팀장님, 김정유 선생님, 이동하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5. 12.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 이 강 욱

C / O / N / T / E / N / T / S

강원도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65
-------------------------	----

I . 검진개요 67

1. 검진 목적	67
2. 검진 범위	67
3. 검진 대상 및 방법	67
4. 검진 내용	69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69
6. 응답자 현황	70
1) 일반적 특성	70
2) 경제적 특성	73
3) 보건학적 특성	74
4) 사회관계적 특성	75

II .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78

1. 우울점수(SGDS)	78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78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80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82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83
2. 우울군 분포 현황	86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86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88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89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91

III .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93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93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 시도 유무	95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95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97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98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99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01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03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04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05
3. 강원도 5개 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108
1)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108
2)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109

강릉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111

I. 검진개요 113

1. 검진 범위 113
2. 검진 대상 및 방법 113
3. 검진 내용 115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16
5. 응답자 현황 116
 - 1) 일반적 특성 116
 - 2) 경제적 특성 119
 - 3) 보건학적 특성 120
 - 4) 사회관계적 특성 121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124

1. 우울점수(SGDS) 124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124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127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128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130
2. 우울군 분포 현황 132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133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135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137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138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140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140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42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42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45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46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47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49
 -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52
 -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53
 -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54
3.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156
 - 1)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156
 - 2)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157

태백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159

I . 검진개요 161

1. 검진 범위	161
2. 검진 대상 및 방법	161
3. 검진 내용	163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63
5. 응답자 현황	163
1) 일반적 특성	163
2) 경제적 특성	166
3) 보건학적 특성	167
4) 사회관계적 특성	169

II .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171

1. 우울점수(SGDS)	171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17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173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175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176
2. 우울군 분포 현황	179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179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18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182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184

III .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186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186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87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87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90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9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92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94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96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97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199
3.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201
1)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01
2)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02

삼척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203

I. 검진개요 205

1. 검진 범위 205
2. 검진 대상 및 방법 205
3. 검진 내용 207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07
5. 응답자 현황 208
 - 1) 일반적 특성 208
 - 2) 경제적 특성 210
 - 3) 보건학적 특성 212
 - 4) 사회관계적 특성 213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216

1. 우울점수(SGDS) 216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216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218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220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221
2. 우울군 분포 현황 223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224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226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227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229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231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231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 시도 유무 233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33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35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36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37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239
 -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241
 -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243
 -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244
3.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246
 - 1)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46
 - 2)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47

홍천군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249

I. 검진개요 251

1. 검진 범위 251
2. 검진 대상 및 방법 251
3. 검진 내용 253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53
5. 응답자 현황 253
 - 1) 일반적 특성 253
 - 2) 경제적 특성 256
 - 3) 보건학적 특성 257
 - 4) 사회관계적 특성 259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261

1. 우울점수(SGDS) 261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261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264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265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266
2. 우울군 분포 현황 269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270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272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273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274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276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276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시도 유무 278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78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80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81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83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285
 -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287
 -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288
 -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290
3.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292
 - 1)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92
 - 2)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93

고성군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295

I. 검진개요 297

1. 검진 범위 297
2. 검진 대상 및 방법 297
3. 검진 내용 299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299
5. 응답자 현황 299
 - 1) 일반적 특성 299
 - 2) 경제적 특성 302
 - 3) 보건학적 특성 303
 - 4) 사회관계적 특성 304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307

1. 우울점수(SGDS) 307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307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309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311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312
2. 우울군 분포 현황 314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315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317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318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319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322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322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 시도 유무 324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324
 -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326
 -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327
 -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328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330
 -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332
 -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333
 -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335
3.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337
 - 1)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337
 - 2)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338

표 목차

〈표 1〉 전체 응답자 성별 분포	70
〈표 2〉 전체 응답자 연령 분포	70
〈표 3〉 전체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71
〈표 4〉 전체 응답자 종교 분포	71
〈표 5〉 전체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71
〈표 6〉 전체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72
〈표 7〉 전체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72
〈표 8〉 전체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72
〈표 9〉 전체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73
〈표 10〉 전체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73
〈표 11〉 전체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73
〈표 12〉 전체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73
〈표 13〉 전체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74
〈표 14〉 전체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74
〈표 15〉 전체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74
〈표 16〉 전체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75
〈표 17〉 전체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75
〈표 18〉 전체 응답자 가족여부 빈도 분포	76
〈표 19〉 전체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76
〈표 20〉 전체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76
〈표 21〉 전체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77
〈표 22〉 전체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77
〈표 23〉 전체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77
〈표 24〉 전체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78
〈표 25〉 전체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79
〈표 26〉 전체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80
〈표 27〉 전체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81
〈표 28〉 전체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82
〈표 29〉 전체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84
〈표 30〉 전체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85
〈표 31〉 강원도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86
〈표 32〉 전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87
〈표 33〉 전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88
〈표 34〉 전체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89
〈표 35〉 전체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90
〈표 36〉 전체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91

표 목차

〈표 37〉 전체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92
〈표 38〉 전체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93
〈표 39〉 전체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자살 계획	93
〈표 40〉 전체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93
〈표 41〉 전체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가족/가까운 지인 자살경험	94
〈표 42〉 전체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력	94
〈표 43〉 전체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횟수	94
〈표 44〉 전체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방법	94
〈표 45〉 전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95
〈표 46〉 전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96
〈표 47〉 전체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97
〈표 48〉 전체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98
〈표 49〉 전체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99
〈표 50〉 전체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101
〈표 51〉 전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101
〈표 52〉 전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102
〈표 53〉 전체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103
〈표 54〉 전체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105
〈표 55〉 전체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106
〈표 56〉 전체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107
〈표 57〉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108
〈표 58〉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109
〈표 59〉 강릉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113
〈표 60〉 강릉시 주요 검진 내용	115
〈표 61〉 강릉시 응답자 성별 분포	116
〈표 62〉 강릉시 응답자 연령 분포	116
〈표 63〉 강릉시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117
〈표 64〉 강릉시 응답자 종교 분포	117
〈표 65〉 강릉시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118
〈표 66〉 강릉시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118
〈표 67〉 강릉시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118
〈표 68〉 강릉시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118
〈표 69〉 강릉시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119
〈표 70〉 강릉시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119
〈표 71〉 강릉시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119
〈표 72〉 강릉시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119

표 목차

〈표 73〉 강릉시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120
〈표 74〉 강릉시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120
〈표 75〉 강릉시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120
〈표 76〉 강릉시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121
〈표 77〉 강릉시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121
〈표 78〉 강릉시 응답자 가족여부 분포	122
〈표 79〉 강릉시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122
〈표 80〉 강릉시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122
〈표 81〉 강릉시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123
〈표 82〉 강릉시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123
〈표 83〉 강릉시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123
〈표 84〉 강릉시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123
〈표 85〉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124
〈표 86〉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126
〈표 87〉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127
〈표 88〉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129
〈표 89〉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130
〈표 90〉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131
〈표 91〉 강릉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32
〈표 92〉 강릉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133
〈표 93〉 강릉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135
〈표 94〉 강릉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136
〈표 95〉 강릉시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137
〈표 96〉 강릉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138
〈표 97〉 강릉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140
〈표 98〉 강릉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40
〈표 99〉 강릉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계획	141
〈표 100〉 강릉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 이유	141
〈표 101〉 강릉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가까운 지인 자살경험	141
〈표 102〉 강릉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력	141
〈표 103〉 강릉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횟수	142
〈표 104〉 강릉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방법	142
〈표 105〉 강릉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143
〈표 106〉 강릉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144
〈표 107〉 강릉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145
〈표 108〉 강릉시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146

표 목차

〈표 109〉 강릉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148
〈표 110〉 강릉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149
〈표 111〉 강릉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149
〈표 112〉 강릉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151
〈표 113〉 강릉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152
〈표 114〉 강릉시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153
〈표 115〉 강릉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155
〈표 116〉 강릉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156
〈표 117〉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157
〈표 118〉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158
〈표 119〉 태백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161
〈표 120〉 태백시 주요 검진 내용	163
〈표 121〉 태백시 응답자 성별 분포	164
〈표 122〉 태백시 응답자 연령 분포	164
〈표 123〉 태백시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164
〈표 124〉 태백시 응답자 종교 분포	165
〈표 125〉 태백시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165
〈표 126〉 태백시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165
〈표 127〉 태백시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165
〈표 128〉 태백시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166
〈표 129〉 태백시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166
〈표 130〉 태백시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166
〈표 131〉 태백시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167
〈표 132〉 태백시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167
〈표 133〉 태백시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167
〈표 134〉 태백시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167
〈표 135〉 태백시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168
〈표 136〉 태백시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168
〈표 137〉 태백시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168
〈표 138〉 태백시 응답자 가족여부 분포	169
〈표 139〉 태백시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169
〈표 140〉 태백시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169
〈표 141〉 태백시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170
〈표 142〉 태백시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170
〈표 143〉 태백시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170
〈표 144〉 태백시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171

표 목차

〈표 145〉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172
〈표 146〉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173
〈표 147〉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174
〈표 148〉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175
〈표 149〉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177
〈표 150〉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178
〈표 151〉 태백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79
〈표 152〉 태백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180
〈표 153〉 태백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181
〈표 154〉 태백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182
〈표 155〉 태백시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183
〈표 156〉 태백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184
〈표 157〉 태백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185
〈표 158〉 태백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186
〈표 159〉 태백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계획	186
〈표 160〉 태백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 이유	186
〈표 161〉 태백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가까운 지인 자살경험	186
〈표 162〉 태백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력	187
〈표 163〉 태백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횟수	187
〈표 164〉 태백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방법	187
〈표 165〉 태백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188
〈표 166〉 태백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189
〈표 167〉 태백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190
〈표 168〉 태백시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191
〈표 169〉 태백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192
〈표 170〉 태백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194
〈표 171〉 태백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194
〈표 172〉 태백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196
〈표 173〉 태백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197
〈표 174〉 태백시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198
〈표 175〉 태백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199
〈표 176〉 태백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200
〈표 177〉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01
〈표 178〉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02
〈표 179〉 삼척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205
〈표 180〉 삼척시 주요 검진 내용	207

표 목차

〈표 181〉 삼척시 응답자 성별 분포	208
〈표 182〉 삼척시 응답자 연령 분포	208
〈표 183〉 삼척시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209
〈표 184〉 삼척시 응답자 종교 분포	209
〈표 185〉 삼척시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209
〈표 186〉 삼척시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210
〈표 187〉 삼척시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210
〈표 188〉 삼척시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210
〈표 189〉 삼척시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211
〈표 190〉 삼척시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211
〈표 191〉 삼척시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211
〈표 192〉 삼척시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211
〈표 193〉 삼척시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212
〈표 194〉 삼척시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212
〈표 195〉 삼척시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212
〈표 196〉 삼척시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213
〈표 197〉 삼척시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213
〈표 198〉 삼척시 응답자 가족여부 분포	213
〈표 199〉 삼척시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214
〈표 200〉 삼척시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214
〈표 201〉 삼척시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214
〈표 202〉 삼척시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215
〈표 203〉 삼척시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215
〈표 204〉 삼척시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215
〈표 205〉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216
〈표 206〉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218
〈표 207〉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219
〈표 208〉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220
〈표 209〉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221
〈표 210〉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223
〈표 211〉 삼척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224
〈표 212〉 삼척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224
〈표 213〉 삼척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226
〈표 214〉 삼척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227
〈표 215〉 삼척시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228
〈표 216〉 삼척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229

표 목차

〈표 217〉 삼척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230
〈표 218〉 삼척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31
〈표 219〉 삼척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계획	231
〈표 220〉 삼척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 이유	231
〈표 221〉 삼척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가까운 지인 자살경험	232
〈표 222〉 삼척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력	232
〈표 223〉 삼척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횟수	232
〈표 224〉 삼척시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방법	232
〈표 225〉 삼척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233
〈표 226〉 삼척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234
〈표 227〉 삼척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235
〈표 228〉 삼척시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236
〈표 229〉 삼척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238
〈표 230〉 삼척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239
〈표 231〉 삼척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240
〈표 232〉 삼척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241
〈표 233〉 삼척시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242
〈표 234〉 삼척시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243
〈표 235〉 삼척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244
〈표 236〉 삼척시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246
〈표 237〉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47
〈표 238〉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48
〈표 239〉 홍천군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251
〈표 240〉 홍천군 주요 검진 내용	253
〈표 241〉 홍천군 응답자 성별 분포	254
〈표 242〉 홍천군 응답자 연령 분포	254
〈표 243〉 홍천군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254
〈표 244〉 홍천군 응답자 종교 분포	255
〈표 245〉 홍천군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255
〈표 246〉 홍천군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255
〈표 247〉 홍천군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255
〈표 248〉 홍천군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256
〈표 249〉 홍천군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256
〈표 250〉 홍천군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256
〈표 251〉 홍천군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257
〈표 252〉 홍천군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257

표 목차

〈표 253〉	홍천군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257
〈표 254〉	홍천군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257
〈표 255〉	홍천군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258
〈표 256〉	홍천군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258
〈표 257〉	홍천군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258
〈표 258〉	홍천군 응답자 가족여부 분포	259
〈표 259〉	홍천군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259
〈표 260〉	홍천군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259
〈표 261〉	홍천군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260
〈표 262〉	홍천군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260
〈표 263〉	홍천군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260
〈표 264〉	홍천군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261
〈표 265〉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262
〈표 266〉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263
〈표 267〉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264
〈표 268〉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265
〈표 269〉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267
〈표 270〉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268
〈표 271〉	홍천군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269
〈표 272〉	홍천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270
〈표 273〉	홍천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271
〈표 274〉	홍천군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272
〈표 275〉	홍천군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273
〈표 276〉	홍천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274
〈표 277〉	홍천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275
〈표 278〉	홍천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276
〈표 279〉	홍천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계획	276
〈표 280〉	홍천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 이유	277
〈표 281〉	홍천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가까운 지인 자살경험	277
〈표 282〉	홍천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력	277
〈표 283〉	홍천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횟수	277
〈표 284〉	홍천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방법	278
〈표 285〉	홍천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278
〈표 286〉	홍천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279
〈표 287〉	홍천군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281
〈표 288〉	홍천군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282

표 목차

〈표 289〉 홍천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283
〈표 290〉 홍천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284
〈표 291〉 홍천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285
〈표 292〉 홍천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286
〈표 293〉 홍천군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287
〈표 294〉 홍천군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289
〈표 295〉 홍천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290
〈표 296〉 홍천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291
〈표 297〉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92
〈표 298〉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293
〈표 299〉 고성군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297
〈표 300〉 고성군 주요 검진 내용	299
〈표 301〉 고성군 응답자 성별 분포	300
〈표 302〉 고성군 응답자 연령 분포	300
〈표 303〉 고성군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300
〈표 304〉 고성군 응답자 종교 분포	300
〈표 305〉 고성군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301
〈표 306〉 고성군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301
〈표 307〉 고성군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301
〈표 308〉 고성군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301
〈표 309〉 고성군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302
〈표 310〉 고성군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302
〈표 311〉 고성군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302
〈표 312〉 고성군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302
〈표 313〉 고성군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303
〈표 314〉 고성군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303
〈표 315〉 고성군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303
〈표 316〉 고성군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304
〈표 317〉 고성군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304
〈표 318〉 고성군 응답자 가족여부 분포	305
〈표 319〉 고성군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305
〈표 320〉 고성군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305
〈표 321〉 고성군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306
〈표 322〉 고성군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306
〈표 323〉 고성군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306
〈표 324〉 고성군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307

표 목차

〈표 325〉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308
〈표 326〉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309
〈표 327〉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310
〈표 328〉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311
〈표 329〉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312
〈표 330〉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314
〈표 331〉 고성군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315
〈표 332〉 고성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315
〈표 333〉 고성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317
〈표 334〉 고성군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317
〈표 335〉 고성군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318
〈표 336〉 고성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320
〈표 337〉 고성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321
〈표 338〉 고성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322
〈표 339〉 고성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계획	322
〈표 340〉 고성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 이유	322
〈표 341〉 고성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가까운 지인 자살경험	323
〈표 342〉 고성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력	323
〈표 343〉 고성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횟수	323
〈표 344〉 고성군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 방법	323
〈표 345〉 고성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324
〈표 346〉 고성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325
〈표 347〉 고성군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326
〈표 348〉 고성군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327
〈표 349〉 고성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328
〈표 350〉 고성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330
〈표 351〉 고성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330
〈표 352〉 고성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331
〈표 353〉 고성군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333
〈표 354〉 고성군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334
〈표 355〉 고성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335
〈표 356〉 고성군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336
〈표 357〉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337
〈표 358〉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338

그림 목차

〈그림 1〉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68
〈그림 2〉 강원도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연령별	68
〈그림 3〉 강원도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거주지역	69
〈그림 4〉 강원도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79
〈그림 5〉 강원도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80
〈그림 6〉 강원도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81
〈그림 7〉 강원도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83
〈그림 8〉 강원도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84
〈그림 9〉 강원도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85
〈그림 10〉 강원도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86
〈그림 11〉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114
〈그림 12〉 강릉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연령별	114
〈그림 13〉 강릉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거주지역(읍,면)	115
〈그림 14〉 강릉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거주지역(동)	115
〈그림 15〉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 성별/연령별	125
〈그림 16〉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 거주지역	126
〈그림 17〉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127
〈그림 18〉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128
〈그림 19〉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129
〈그림 20〉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131
〈그림 21〉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132
〈그림 22〉 강릉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33
〈그림 23〉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162
〈그림 24〉 태백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연령별	162
〈그림 25〉 태백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거주지역	162
〈그림 26〉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172
〈그림 27〉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173
〈그림 28〉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174
〈그림 29〉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176
〈그림 30〉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177
〈그림 31〉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178
〈그림 32〉 태백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79
〈그림 33〉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206
〈그림 34〉 삼척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연령별	206

그림 목차

〈그림 35〉 삼척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거주지역	207
〈그림 36〉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217
〈그림 37〉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218
〈그림 38〉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219
〈그림 39〉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221
〈그림 40〉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222
〈그림 41〉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223
〈그림 42〉 삼척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224
〈그림 43〉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252
〈그림 44〉 홍천군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연령별	252
〈그림 45〉 홍천군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거주지역	252
〈그림 46〉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262
〈그림 47〉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263
〈그림 48〉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265
〈그림 49〉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266
〈그림 50〉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268
〈그림 51〉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269
〈그림 52〉 홍천군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269
〈그림 53〉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298
〈그림 54〉 고성군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연령별	298
〈그림 55〉 고성군 인구 및 검진응답자수 비교 : 거주지역	298
〈그림 56〉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308
〈그림 57〉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309
〈그림 58〉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310
〈그림 59〉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312
〈그림 60〉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313
〈그림 61〉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314
〈그림 62〉 고성군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315

마음건강 검진 보고서(요약)

강원도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개요

- 검진대상 : 강원도 5개 시·군(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 79,655명
- 검진기간 : 2015. 3. 1. ~ 7. 31.
- 분석 :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한 응답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쳐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15,445명 분석 실시.
- 검진도구 : 단축형 노인우울검사(SGDS)와 자살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살생각과 가족/지인의 자살 여부, 자살시도력, 자살시도방법에 대한 문항과 그 외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그리고 사회관계적 특성 등 포함.

II 일반적 특성

- 성별 : ‘여성’ 72.6%(11,218명), ‘남성’ 26.5%(4,097명)로 나타남.
- 연령 : ‘75~79세’ 27.3%(4,210명), ‘70~74세’ 24.0%(3,706명), ‘80~84세’ 19.8%(3,055명), ‘65~69세’ 13.8% (2,131명), ‘85세 이상’ 13.4%(2,073명)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 ‘강릉시’ 22.9%(3,544명), ‘고성군’ 22.0%(3,384명), ‘홍천군’ 19.5%(3,017명), ‘삼척시’ 18.3% (2,821명), ‘태백시’ 17.3%(2,679명) 순으로 나타남.
- 독거여부 : ‘독거’ 67.7%(10,471명), ‘동거’ 31.8%(4,904명)로 나타남. 독거노인 중 독거기간은 ‘5년~15년 미만’ 31.6%(3,303명)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사유로는 ‘사별’이 82.4%(8,627명)로 가장 많았음.

III 경제학적 특성

- 사회보장상태 : ‘일반’ 74.5%(11,513명), ‘기초생활수급자’ 14.7%(2,268명), ‘차상위계층’ 6.9%(1,068명)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 : 경제활동을 ‘안한다’ 78.0%(12,043명), ‘한다’ 20.7%(3,198명)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 : ‘지원처가 없다’ 50.7%(7,827명), ‘지원처가 있다’ 46.7%(7,221명)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 : ‘보통’ 52.0%(8,039명), ‘가난하다’ 35.8%(5,526명), ‘매우 가난하다’ 7.0% (1,088명), ‘부유하다’ 2.8%(427명), ‘매우 부유하다’ 0.2%(25명) 순으로 나타남.

IV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정상 94.2%(14,550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3.7%(577명), 들 것에 실려야 이동할 수 있는 정도는 0.7%(103명)순으로 나타남.
- 약 복용 : 3개월 이상 약 복용을 하는 경우는 81.5%(12,594명), 복용하지 않는 경우는 12.5%(1,929명)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 : 여러 질병 중 ‘고혈압’ 69.9%(9,433명), ‘기타 질병’ 37.9%(5,117명), ‘만성통증’ 36.9%(4,980명)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문제성 음주 : ‘전혀 없다’ 80.5%(12,433명), ‘주 1회’ 6.2%(959명), ‘월 1회 미만’ 4.8%(739명), ‘월 1회’ 3.8%(580명), ‘거의 매일’ 3.0%(468명) 순으로 나타남.

V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자녀’ 90.3%(13,946명), ‘형제/자매’ 53.0%(8,193명), ‘배우자’ 18.9%(2,924명), ‘없음’ 2.9%(450명), ‘기타’ 0.6%(97명) 순으로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 :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과는 58.1%(8,978명), 친구와는 50.9% (7,865명), 이웃과는 75.4%(11,639명)로 나타남.
- 경로당 이용 : ‘안함’ 50.4%(7,788명), ‘자주(월 3회 이하)’ 31.5%(4,857명), ‘가끔(월 2회 이하)’ 15.2%(2,350명) 순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 ‘이용안함’ 74.0%(11,423명), ‘이용’ 21.3%(3,292명)로 그중 이용하는 응답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보면 ‘정서서비스’ 47.0%(1,546명), ‘가사서비스’ 33.2%(1,094명), ‘기타’ 16.4%(539명), ‘간병서비스’ 4.9%(160명), ‘결연서비스’ 2.0%(67명) 순으로 나타남.

VI 우울(SGDS) 평균비교 및 우울군 현황

1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SGDS) 평균비교

● 일반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5.53)이 ‘남성’(5.0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삼척시’(5.91)가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종교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5.52)가 없는 경우(5.25)보다 높게 나타남.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독거'(5.62)가 '동거'(4.87)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7.39)가 다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5.76)가 하는 경우가 (3.98)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5.93)가 지원처가 있는 경우(4.8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거동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5.58)가 없는 경우(4.00)보다 높게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문제성 음주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문제성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없는 경우(6.95)가 있는 경우(5.34)보다 높게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2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종교유무,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31.5%로 ‘남성’ 28.1%보다, ‘삼척시’가 36.2%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32.2%로 종교가 없는 경우 28.9%보다, 그리고 ‘독거’가 32.6%로 ‘동거’ 26.5%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에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경제적 특성의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48.0%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33.8%로 하는 경우 18.9%보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35.6%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25.5%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약 복용, 앓고 있는 질병의 수, 문제성 음주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32.4%로 없는 경우 19.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동상태가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문제성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가 44.1%로 있는 경우 30.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VII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 : ‘있다’ 6.4%(985명). ‘없다’ 93.4%(14,424명)
- 자살시도력 : ‘있다’ 3.4%(525명), 시도횟수는 1회가 45.1%(237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시도 방법으로는 ‘약물복용’ 39.4%(207명), ‘익수’ 15.0%(79명), ‘살충제’ 14.9%(78명), ‘익수’ 14.5%(76명), 기타 8.8%(4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VIII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1 | 자살생각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성별, 거주지역,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7.9%로 여성 5.9%보다 높게 나타났고, ‘강릉시’가 7.0%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독거’가 6.7%로 ‘동거’ 5.8%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1.3%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6.8%로 하는 경우 4.8%보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7.7%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4.9%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약 복용,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6.7%로 없는 경우 4.0%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동상태가 거동하기 어려울수록,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가 10.0%로 있는 경우 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2 | 자살시도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연령별, 거주지역,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태백시’가 5.8%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독거’가 4.0%로 ‘동거’ 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아 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6.2%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4.0%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2.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가 8.9%로 있는 경우 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IX 강원도 5개 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가 높고, 종교가 없고,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으며, 친구,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이고, 연령대가 낮으며,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강릉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개요

- 검진대상 : 강릉시 19개 읍면동 65세 이상 노인 36,009명
- 검진기간 : 2015. 3. 1. ~ 7. 31.
- 분석 :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한 응답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쳐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3,544명 분석 실시
- 검진도구 : 단축형 노인우울검사(SGDS)와 자살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살생각과 가족/지인의 자살 여부, 자살시도력, 자살시도방법에 대한 문항과 그 외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그리고 사회관계적 특성 등 포함.

II 일반적 특성

- 성별 : ‘여성’ 76.1%(2,696명), ‘남성’ 22.8%(807명)로 나타남.
- 연령 : ‘75~79세’가 26.4%(936명), ‘80~84세’ 23.6%(837명), ‘70~74세’ 20.1%(710명), ‘85세 이상’ 17.8%(631명), ‘65~69세’ 8.8%(313명)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 ‘주문진읍’ 17.1%(605명), ‘포남동’ 11.6%(412명), ‘강남동’ 10.2%(362명), ‘성덕동’ 10.0%(355명), ‘강동면’ 8.9%(3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독거여부 : ‘독거’ 73.8%(2,615명), ‘동거’ 25.7%(910명)로 나타남. 독거노인 중 독거기간은 ‘5년~15년 미만’ 32.2%(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사유로는 ‘사별’이 84.8%(2,217명)로 가장 많았음.

III 경제학적 특성

- 사회보장상태 : ‘일반’ 73.4%(2,601명), ‘기초생활수급자’ 14.2%(504명), ‘차상위계층’ 9.2%(326명)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 : 경제활동을 ‘안한다’ 88.6%(3,142명), ‘한다’ 9.3%(329명)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 : ‘지원처가 없다’ 56.4%(2,000명), ‘지원처가 있다’ 39.6%(1,402명)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 : ‘보통’ 51.4%(1,823명), ‘가난하다’ 34.6%(1,228명), ‘매우 가난하다’ 6.6%(235명), ‘부유하다’ 4.1%(144명), ‘매우 부유하다’ 0.5%(16명) 순으로 나타남.

IV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정상’ 94.0%(3,330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3.3%(118명), 들 것에 실려야 이동할 수 있는 정도는 0.2%(6명)로 나타남.
- 약 복용 : 3개월 이상 약 복용을 하는 경우는 75.7%(2,682명), 복용하지 않는 경우는 10.3%(366명)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 : 여러 질병 중 ‘고혈압’ 69.6%(2,215명), ‘만성통증’ 48.9%(1,554명), ‘기타 질병’ 38.2%(1,216명)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문제성 음주 : ‘전혀 없다’ 79.9%(2,832명), ‘주 1회’ 5.7%(201명), ‘월 1회 미만’ 4.9%(175명), ‘월 1회’ 4.3%(154명), ‘거의 매일’ 2.0%(70명) 순으로 나타남.

V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자녀’ 87.2%(3,087명), ‘형제/자매’ 54.7%(1,937명), ‘배우자’ 14.8%(524명), ‘없음’ 4.4%(157명), ‘기타’ 0.4%(13명)로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 :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과는 42.8%(1,516명), 친구와는 33.0%(1,169명), 이웃과는 55.7%(1,972명)로 나타남.
- 경로당 이용 : ‘안함’ 53.8%(1,905명), ‘자주(월 3회 이하)’ 22.5%(797명), ‘가끔(월 2회 이하)’ 20.5%(725명)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 ‘이용안함’ 60.8%(2,155명), ‘이용’ 30.8%(1,090명)로 그중 이용하는 응답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보면 ‘정서서비스’ 66.7%(727명), ‘가사서비스’ 14.9%(162명), ‘기타’ 8.3%(90명), ‘간병서비스’ 3.0%(33명), ‘결연서비스’ 1.1%(12명) 순으로 나타남.

VI 우울(SGDS) 평균비교 및 우울군 현황

1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SGDS) 평균비교

● 일반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5.50)이 ‘남성’(5.30)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구정면’(12.85)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종교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5.85)가 종교가 없는 경우(5.33)보다 높게 나타남.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독거'(5.75)가 '동거'(4.62)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7.10)가 다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5.55)가 하는 경우(4.30)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5.78)가 지원처가 있는 경우(4.9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거동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어려움'(8.34)이 '정상'(5.32)보다 높게 나타남.
- 약 복용 여부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5.54)가 없는 경우(4.31)보다 높게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6.70)가 있는 경우(5.38)보다 높게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2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연령별, 거주지역, 종교유무,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구정면’이 94.4%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32.7%로 종교가 없는 경우 27.2%보다, 그리고 ‘독거’가 30.6%로 ‘동거’ 22.7%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5.0%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29.5%로 하는 경우 18.0%보다,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32.2%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23.0%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약 복용,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어려움’인 경우가 62.6%로 ‘정상’인 경우 27.0%보다 높게 나타났고,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29.7%로 없는 경우 18.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가 41.0%로 있는 경우 2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VII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 : ‘있다’ 7.0%(249명). ‘없다’ 93.0%(3,294명)
- 자살시도력 : ‘있다’ 4.0%(143명), 시도횟수는 1회가 45.4%(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시도 방법으로는 ‘약물복용’ 32.3%(21명), ‘익수’ 18.9%(27명), ‘살충제’ 16.8%(24명), ‘목맴’ 13.3%(19명), ‘투신’ 9.1%(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VIII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1 | 자살생각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이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이 9.0%로 여성 6.5%보다, ‘옥천동’이 19.0%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이 13.2%(43명)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7.9%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5.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어려움인 경우가 13.7%로 정상인 경우 6.8%보다 높게 나타났고,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가 10.2%로 있는 경우 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2 | 자살시도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5.7%로 여성 3.6%보다, ‘옥천동’이 16.3%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그리고 ‘독거’가 4.5%로 ‘동거’ 2.8%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8.4%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이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가 10.8%로 있는 경우 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IX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경제적 지원처가 없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렵고,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으며, 친구와의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우울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이고, 사회보장상태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고,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가족과의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자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태백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개요

- 검진대상 : 태백시 9개동 65세 이상 노인 8,716명
- 검진기간 : 2015. 3. 1. ~ 7. 31.
- 분석 :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한 응답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쳐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679명 분석 실시
- 검진도구 : 단축형 노인우울검사(SGDS)와 자살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살생각과 가족/지인의 자살 여부, 자살시도력, 자살시도방법에 대한 문항과 그 외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그리고 사회관계적 특성 등 포함.

II 일반적 특성

- 성별 : ‘여성’ 68.3%(1,829명), ‘남성’ 31.2%(835명)로 나타남.
- 연령 : ‘70~74세’가 28.1%(752명), ‘75~79세’ 26.3%(706명), ‘65~69세’ 20.5%(549명), ‘80~84세’ 15.1%(404명), ‘85세 이상’ 7.1%(189명)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 황지동 29.0%(776명), 장성동 18.4%(493명), 삼수동 15.3%(410명), 철암동 11.4%(305명), 상장동 8.3%(223명)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독거여부 : ‘독거’ 71.9%(1,927명), ‘동거’ 27.1%(728명)로 나타남. 독거노인 중 독거기간은 ‘5년~15년 미만’ 31.3%(604명)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사유로는 ‘사별’이 83.4%(1,607명)로 가장 많았음.

III 경제학적 특성

- 사회보장상태 : ‘일반’ 71.6%(1,919명), ‘기초생활수급자’ 16.3%(435명), ‘차상위계층’ 9.7%(260명)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 : 경제활동을 ‘안한다’ 69.4%(1,859명), ‘한다’ 28.4%(761명)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 : ‘지원처가 있다’ 55.1%(1,477명), ‘지원처가 없다’ 41.6%(1,114명)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 : ‘보통’ 55.7%(1,493명), ‘가난하다’ 35.5%(950명), ‘매우 가난하다’ 3.5%(95명), ‘부유하다’ 3.0%(79명), ‘매우 부유하다’ 0.1%(2명) 순으로 나타남.

IV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정상’ 93.2%(2,498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4.0%(106명), 들 것에 실려야 이동할 수 있는 정도는 1.1%(30명)로 나타남.
- 약 복용 : 3개월 이상 약 복용을 하는 경우는 72.7%(1,946명), 복용하지 않는 경우는 13.3%(357명)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 : 여러 질병 중 ‘고혈압’ 65.9%(1,531명), ‘기타 질병’ 40.3%(936명), ‘만성통증’ 34.1%(791명) 등의 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문제성 음주 : ‘전혀 없다’ 79.7%(2,135명), ‘주 1회’ 8.0%(215명), ‘월 1회’ 5.1%(137명), ‘월 1회 미만’ 3.4%(92명), ‘거의 매일’ 2.3%(61명) 순으로 나타남.

V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자녀’ 91.3%(2,446명), ‘형제/자매’ 64.8%(1,736명), ‘배우자’ 12.5%(334명), ‘없음’ 2.0%(54명), ‘기타’ 0.8%(22명) 순으로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 :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과는 70.9%(1,900명), 친구와는 69.9% (1,873명), 이웃과는 82.6%(2,214명)로 나타남.
- 경로당 이용 : ‘안함’ 59.5%(1,595명), ‘자주(월 3회 이하)’ 26.2%(701명), ‘가끔(월 2회 이하)’ 12.7%(341명) 순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 ‘이용안함’ 68.0%(1,822명), ‘이용’ 28.7%(768명)로 그중 이용하는 응답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보면 ‘정서서비스’ 41.7%(333명), ‘가사서비스’ 39.1%(312명), ‘기타’ 12.3%(98명), ‘결연서비스’ 3.1%(25명), ‘간병서비스’ 2.1%(17명) 순으로 나타남.

VI 우울(SGDS) 평균비교 및 우울군 현황

1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SGDS) 평균비교

● 일반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삼수동’(5.93)가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종교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4.72)가 있는 경우(4.39)보다 높게 나타남.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독거’(4.85)가 ‘동거’(4.43)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6.21)가 다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5.09)가 하는 경우(3.32)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5.18)가 지원처가 있는 경우(4.1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거동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거동하기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약 복용 여부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4.64)가 없는 경우(3.47)보다 높게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문제성 음주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6.25)가 있는 경우(4.53)보다 높게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2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연령별,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고, ‘동거’가 26.8%로 ‘독거’ 21.2%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5.5%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27.3%로 하는 경우 12.5%보다,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27.5%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19.7%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약 복용, 앓고 있는 질병의 수, 문제성 음주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23.4%로 없는 경우 13.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동상태가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문제성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연락,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가 39.6%로 있는 경우 2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VII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 : ‘있다’ 6.4%(172명). ‘없다’ 93.5%(2,506명)
- 자살시도력 : ‘있다’ 5.7%(154명), 시도횟수는 1회가 45.5%(65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시도 방법으로는 ‘약물복용’ 32.3%(21명), ‘목맴’ 21.5%(14명), ‘익수’ 18.5%(12명), ‘살충제’ 12.3%(8명), ‘투신’ 12.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VIII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1 | 자살생각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종교유무, 그리고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1.0%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7.1%로 하는 경우 4.5%보다,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8.6%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4.7%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거동하기 어려울수록,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가 13.5% 있는 경우 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2 | 자살시도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주지역,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삼수동’이 8.3%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독거’가 6.6%로 ‘동거’ 3.6%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9.5%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8.1%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4.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이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그리고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IX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렵고,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고, 친구와의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우울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연령대가 높으면 우울군에 속할 위험도가 올라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가족과의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자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삼척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개요

- 검진대상 : 삼척시 12개 읍면동 65세 이상 노인 13,642명
- 검진기간 : 2015. 3. 1. ~ 7. 31.
- 분석 :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한 응답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쳐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821명 분석 실시
- 검진도구 : 단축형 노인우울검사(SGDS)와 자살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살생각과 가족/지인의 자살 여부, 자살시도력, 자살시도방법에 대한 문항과 그 외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그리고 사회관계적 특성 등 포함.

II 일반적 특성

- 성별 : ‘남성’ 23.9%(673명), ‘여성’ 75.7%(2,135명)로 나타남.
- 연령 : ‘75~79세’가 26.4%(745명), ‘70~74세’ 22.2%(626명), ‘80~84세’ 21.3%(600명), ‘65~69세’ 14.7%(415명), ‘85세 이상’ 14.6%(412명)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 ‘도계읍’ 27.2%(768명), ‘근덕면’ 21.4%(604명), ‘청내동’ 12.5%(352명), ‘남양동’ 10.0%(283명), ‘정라동’ 9.8%(276명)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독거여부 : ‘독거’ 70.5%(1,989명), ‘동거’ 29.4%(830명)로 나타남. 독거노인 중 독거기간은 ‘25년 이상’ 31.0%(616명)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사유로는 ‘사별’ 88.7%(1,763명)로 가장 많았음.

III 경제학적 특성

- 사회보장상태 : ‘일반’ 74.0%(2,087명), ‘기초생활수급자’ 19.8%(559명), ‘차상위계층’ 4.2%(119명)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 : 경제활동을 ‘안한다’ 84.6%(2,386명), ‘한다’ 15.0%(423명)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 : ‘지원처가 없다’ 64.5%(1,821명), ‘지원처가 있다’ 33.3%(939명)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 : ‘가난하다’ 44.7%(1,261명), ‘보통’ 42.3%(1,193명), ‘매우 가난하다’ 10.8%(304명), ‘부유하다’ 1.3%(37명), ‘매우 부유하다’ 0.0%(1명) 순으로 나타남.

IV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정상’ 93.3%(2,632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4.9%(139명), 들 것에 실려야 이동할 수 있는 정도는 1.1%(32명)로 나타남.
- 약 복용 : 3개월 이상 약 복용을 하는 경우는 88.3%(2,490명), 복용하지 않는 경우는 10.7%(301명)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 : 여러 질병 중 ‘고혈압’ 71.6%(1,786명), ‘만성통증’ 39.8%(992명), ‘기타’ 35.1%(876명), ‘당뇨병’ 21.9%(547명), ‘우울증’ 3.1%(78명)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제성 음주 : ‘전혀 없다’ 76.3%(2,152명), ‘주 1회’ 7.7%(203명), ‘월 1회 미만’ 7.2%(203명), ‘월 1회’ 4.3%(120명), ‘거의 매일’ 3.0%(84명) 순으로 나타남.

V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자녀’ 88.9%(2,507), ‘형제/자매’ 46.6%(1,315), ‘배우자’ 21.6%(608), ‘없음’ 4.7%(133), ‘기타’ 0.9%(24) 순으로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 :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과는 51.4%(1,451명), 친구와는 55.5%(1,565명), 이웃과는 81.5%(2,300명)로 나타남.
- 경로당 이용 : ‘안함’ 44.0%(1,240명), ‘자주(월 3회 이하)’ 37.5%(1,058명), ‘가끔(월 2회 이하)’ 17.4%(491명) 순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 ‘이용안함’ 79.0%(2,231명), ‘이용’ 18.9%(531명)로 그중 이용하는 응답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보면 ‘가사서비스’ 55.1%(293명), ‘기타’ 30.3%(161명), ‘정서서비스’ 21.4%(114명), ‘간병서비스’ 9.6%(51명), ‘결연서비스’ 1.7%(9명) 순으로 나타남.

VI 우울(SGDS) 평균비교 및 우울군 현황

1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SGDS) 평균비교

- 일반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6.01)이 ‘남성’(5.58)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원덕읍’(7.99)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독거’(6.23)가 ‘동거’(5.13)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8.12)가 다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6.20)가 하는 경우(4.25)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6.52)가 지원처가 있는 경우(4.79)보다 높게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거동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거동하기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약 복용 여부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6.18)가 없는 경우(3.76)보다 높게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문제성 음주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8.07)가 있는 경우(5.80)보다 높게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2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연령별, 거주지역, 종교유무,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고, ‘가곡면’이 53.6%로 다른지역보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41.0%로 있는 경우 31.8%보다, ‘독거’가 39.2%로 ‘동거’ 29.0%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4.2%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38.5%로 하는 경우 22.5%보다,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41.6%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25.9%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약 복용,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38.4%로 없는 경우 18.6%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동상태가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문제성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다’가 53.5%(69명)로 ‘있다’ 35.2%(934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VII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 : ‘있다’ 6.0%(169명). ‘없다’ 93.9%(2,649명)
- 자살시도력 : ‘있다’ 2.9%(81명), 시도횟수는 1회가 48.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시도방법으로는 ‘약물복용’이 37.0%(30명), ‘익수’가 16.0%(13명), ‘목맴’ 14.8%(12명), ‘살충제’ 12.3%(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VIII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1 | 자살생각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8.2%로 ‘여성’ 5.3%보다, 연령대가 ‘65~69세’인 경우가 8.5%로 다른 연령대보다, ‘노곡면’이 12.5%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리고 ‘독거’가 6.6%로 ‘동거’ 4.6%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이 15.1%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불편인 경우가 12.9%로 다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2 | 자살시도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연령별, 거주지역,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성내동’이 8.9%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독거’가 3.6%로 ‘동거’ 1.1%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차상위 계층’이 11.9%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약 복용, 앓고 있는 질병의 수, 문제성 음주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는 경우가 7.6%로 있는 경우 2.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 연락(가족, 이웃)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IX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가 높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렵고,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으며, 친구와의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우울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가 낮고, 사회보장상태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고,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으며, 가족과의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자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홍천군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개요

- 검진대상 : 홍천군 10개 읍면동 65세 이상 노인 14,400명
- 검진기간 : 2015. 3. 1. ~ 7. 31.
- 분석 :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한 응답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쳐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3,017명 분석 실시
- 검진도구 : 단축형 노인우울검사(SGDS)와 자살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살생각과 가족/지인의 자살 여부, 자살시도력, 자살시도방법에 대한 문항과 그 외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그리고 사회관계적 특성 등 포함.

II 일반적 특성

- 성별 : ‘여성’ 71.9%(2,170명), ‘남성’ 28.1%(847명)로 나타남.
- 연령 : ‘75~79세’가 27.8%(839명), ‘80~84세’ 22.3%(674명), ‘70~74세’ 21.6%(651명), ‘85세 이상’ 14.0%(421명), ‘65~69세’ 13.2%(399명)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 ‘홍천읍’ 35.4%(1,068명), ‘남면’ 9.9%(300명), ‘화촌면’ 9.6%(289명), ‘내면’ 7.7%(231명), ‘서석면’ 5.9%(1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독거여부 : ‘독거’ 76.5%(2,309명), ‘동거’ 23.5%(708명)로 나타남. 독거노인 중 독거기간은 ‘5~15년 미만’ 35.9%(828명)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사유로는 ‘사별’ 79.3%(1,831명)로 가장 많았음.

III 경제학적 특성

- 사회보장상태 : ‘일반’ 73.2%(2,209명), ‘기초생활수급자’ 17.3%(523명), ‘차상위계층’ 9.3%(282명)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 : 경제활동을 ‘안한다’ 82.7%(2,495명), ‘한다’ 17.3%(522명)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 : ‘지원처가 있다’ 50.0%(1,507명), ‘지원처가 없다’ 49.9%(1,506명)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 : ‘보통’ 55.4%(1,670명), ‘가난하다’ 35.7%(1,076명), ‘매우 가난하다’ 6.4%(193명), ‘부유하다’ 2.3%(70명), ‘매우 부유하다’ 0.2%(6명)순으로 나타남.

IV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정상’ 95.7%(2,886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3.5%(107명), 들 것에 실려야 이동할 수 있는 정도는 0.8%(23명)로 나타남.
- 약 복용 : 3개월 이상 약 복용을 하는 경우는 84.0%(2,534명), 복용하지 않는 경우는 16.0%(482명)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 : 여러 질병 중 ‘고혈압’ 69.3%(1,753명), ‘기타’ 40.0%(1,012명), ‘만성통증’ 28.0%(707명), ‘당뇨병’ 23.1%(583명), ‘심장질환’ 13.6%(3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제성 음주 : ‘전혀 없다’ 80.9%(2,442명), ‘주 1회’ 6.8%(205명), ‘월 1회 미만’ 6.0%(181명), ‘거의 매일’ 3.7%(113명), ‘월 1회’ 2.5%(76명) 순으로 나타남.

V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자녀’ 93.7%(2,827명), ‘형제/자매’ 65.7%(1,983명), ‘배우자’ 18.3%(553명), ‘없음’ 2.3%(70명), ‘기타’ 0.7%(22명) 순으로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 :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과는 55.7%(1,680명), 친구와는 52.4% (1,581명), 이웃과는 79.4%(2,397명)로 나타남.
- 경로당 이용 : ‘안함’ 47.2%(1,423명), ‘자주(월 3회 이하)’ 42.0%(1,268명), ‘가끔(월 2회 이하)’ 10.8%(325명) 순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 ‘이용 안함’ 87.6%(2,644명), ‘이용’ 12.4%(373명)로 그중 이용하는 응답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보면 ‘가사서비스’ 37.5%(140명), ‘정서서비스’ 33.2%(124명), ‘기타’ 26.5%(99명), ‘간병서비스’ 10.5%(39명), ‘결연서비스’ 4.0%(15명) 순으로 나타남.

VI 우울(SGDS) 평균비교 및 우울군 현황

1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SGDS) 평균비교

● 일반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6.02)이 ‘남성’(5.29)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남면’(7.15)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7.50)가 다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안한다’(6.14)가 ‘한다’(4.29)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6.34)가 ‘지원처가 있다’(5.29)보다 높게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거동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거동하기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약 복용 여부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6.03)가 없는 경우(4.70)보다 높게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문제성 음주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외부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2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연령별, 거주지역이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서면’이 49.4%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49.7%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38.4%로 하는 경우 23.4%보다,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40.7%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30.9%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상태는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약 복용, 앓고 있는 질병의 수, 문제성 음주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37.5%로 없는 경우 26.9%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동상태가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문제성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외부와 연락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VII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 : ‘있다’ 5.7%(171명), ‘없다’ 94.3%(2,945명)
- 자살시도력 : ‘있다’ 1.8%(53명), 시도횟수는 1회가 52.8%(28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시도 방법으로는 ‘약물복용’이 47.2%(25), ‘목맴’이 18.9%(10명), ‘살충제’ 17.0%(9명), ‘익수’ 11.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VIII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1 자살생각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성별, 거주지역이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7.1%로 여성 5.1%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내면’이 10.4%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9.9%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7.3%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4.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불편인 경우가 16.8%로 다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외부와 연락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2 | 자살시도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연령별, 거주지역이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그리고 ‘내촌면’이 3.8%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외부와의 연락빈도,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외부(가족)와의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IX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가 높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렵고,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으며, 친구와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우울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렵고,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자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고성군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개요

- 검진대상 : 고성군 5개 읍면(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65세 이상 노인 6,888명
- 검진기간 : 2015. 3. 1. ~ 7. 31.
- 분석 :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한 응답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쳐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3,384명 분석 실시
- 검진도구 : 단축형 노인우울검사(SGDS)와 자살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살생각과 가족/지인의 자살 여부, 자살시도력, 자살시도방법에 대한 문항과 그 외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그리고 사회관계적 특성 등 포함.

II 일반적 특성

- 성별 : ‘여성’ 70.6%(2,388명), ‘남성’ 27.6%(935명)로 나타남.
- 연령 : ‘75~79세’가 29.1%(984명), ‘70~74세’ 28.6%(967명), ‘80~84세’ 16.0%(540명), ‘65~69세’ 13.4%(455명), ‘85세 이상’ 12.4%(420명) 순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 : 거진읍 26.1%(882명), 토성면 23.3%(788명), 죽왕면 19.6%(663명), 간성읍 18.1%(615명), 현내면 12.9%(436명) 순으로 나타남.
- 독거여부 : ‘동거’ 51.1%(1,728명), ‘독거’ 48.2%(1,631명)로 나타남. 독거노인 중 독거기간은 ‘5년~15년 미만’ 28.0%(457명)로 가장 많았으며, 독거사유로는 ‘사별’ 74.1%(1,209명)로 가장 많았음.

III 경제학적 특성

- 사회보장 : ‘일반’ 79.7%(2,697명), ‘기초생활수급자’ 7.3%(247명), ‘차상위계층’ 2.4%(81명)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 : 경제활동을 ‘안한다’ 63.9%(2,161명), ‘한다’ 34.4%(1,163명)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 : ‘지원처가 있다’ 56.0%(1,896명), ‘지원처가 없다’ 41.0%(1,386명)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 : ‘보통’ 55.5%(1,860명), ‘가난하다’ 29.9%(1,011명), ‘매우 가난하다’ 7.7%(261명), ‘부유하다’ 2.9%(97명), ‘매우 부유하다’ 0.0%(0명) 순으로 나타남.

IV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정상’ 94.7%(3,204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3.2%(107명), 들 것에 실려야 이동할 수 있는 정도는 0.4%(12명)로 나타남.
- 약 복용 : 3개월 이상 약 복용을 하는 경우는 87.0%(2,943명), 복용하지 않는 경우는 12.5%(422명)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 : 여러 질병 중 ‘고혈압’ 72.2%(2,148명), ‘기타’ 36.2%(1,049명), ‘만성통증’ 31.5%(936명), ‘당뇨병’ 19.7%(585명), ‘우울증’ 12.0%(3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제성 음주 : ‘전혀 없다’ 84.9%(2,872명), ‘거의 매일’ 4.1%(140명), ‘주 1회’ 3.5%(120명), ‘월 1회’ 2.7%(93명), ‘월 1회 미만’ 2.6%(88명) 순으로 나타남.

V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자녀’ 90.9%(3,077명), ‘형제/자매’ 36.1%(1,222명), ‘배우자’ 26.7%(905명), ‘없음’ 1.1%(36명), ‘기타’ 0.5%(16명) 순으로 나타남.
- 외부와의 연락빈도 :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과는 71.8%(2,431명), 친구와는 49.6% (1,677명), 이웃과는 81.4%(2,756명)로 나타남.
- 경로당 이용 : ‘안함’ 48.0%(1,625명), ‘자주(월 3회 이하)’ 30.5%(1,033명), ‘가끔(월 2회 이하)’ 13.8%(468명) 순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 ‘이용 안함’ 76.0%(2,572명), ‘이용’ 15.6%(529명)로 그중 이용하는 응답자가 받고 있는 서비스를 파악해보면 ‘정서서비스’ 49.0%(259명), ‘가사서비스’ 38.8%(205명), ‘기타’ 17.4%(92명), ‘간병서비스’ 3.8%(20명), ‘결연서비스’ 1.1%(6명) 순으로 나타남.

VI 우울(SGDS) 평균비교 및 우울군 현황

1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SGDS) 평균비교

- 일반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5.45)이 ‘남성’(4.35)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거진읍’(5.96)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독거’(5.92)가 ‘동거’(4.38)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차상위계층’(8.39)이 다른 상태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5.70)가 하는 경우(4.08)보다 높게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5.51)가 지원처가 있는 경우(4.88)보다 높게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거동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거동하기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약 복용 여부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5.34)가 없는 경우(3.54)보다 높게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문체성 음주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평균비교

-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2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32.3%로 ‘남성’ 23.0%보다, ‘거진읍’이 37.9%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그리고 ‘독거’가 36.8%로 ‘동거’ 23.1%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이 61.3%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34.9%로 하는 경우 20.1%,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가 33.4%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27.2%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약 복용, 앓고 있는 질병의 수, 문제성 음주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31.5%(921명)로 없는 경우 17.1%(72명)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동상태가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문제성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우울군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우울군 현황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다’가 48.6%(17명)로, ‘있다’ 29.5%(940명)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 연락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 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VII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 : ‘있다’ 6.6%(224명). ‘없다’ 92.5%(3,130명)

- 자살시도력 : ‘있다’ 2.8%(94명), 시도횟수는 1회가 42.6%(40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살시도 방법으로는 ‘약물복용’이 38.3%(36명), ‘살충제’ 19.1%(18명), ‘기타’ 19.1%(18명), ‘익수’ 14.9%(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VIII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및 시도력의 유무

1 | 자살생각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8.5%로 ‘여성’ 6.1%보다, ‘토성면’이 8.7%로 다른 거주지역보다, 그리고 ‘독거’가 8.2%로 동거 5.2%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13.8%로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8.0%로 하는 경우 4.3%보다,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8.7%로 지원처가 있는 경우 5.1%(95명)보다 높게 나타남. 그리고 경제적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거동상태, 약 복용,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7.1%로 없는 경우 3.8%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동상태가 거동하기 어려울수록,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생각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외부와의 연락빈도(가족, 친구, 이웃)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2 | 자살시도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연령별, 독거여부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가 3.8%로 ‘동거’ 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사회보장상태,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차상 위계층’이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가 3.7%로 ‘지원처가 있다’ 2.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보건학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

- Chi-square검정 : 검진응답자의 사회관계적 특성 중 어떠한 문항이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정을 한 결과, 가족유무, 외부와의 연락빈도,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정도가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남.
- 자살시도의 유무 :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다가 11.1%로 있다 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외부와 연락하는 빈도가 낮을수록, 경로당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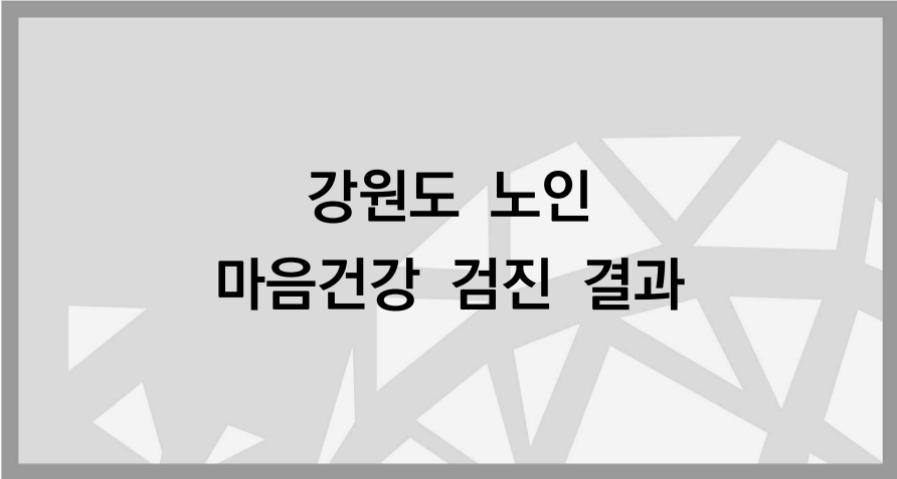
IX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대가 높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렵고,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으며, 친구와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적을수록 우울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결과

-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이고,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자살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강원도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 검진개요

1 | 검진 목적

- 강원도의 자살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노인 우울 및 자살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강원도 자살률 저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 검진 범위

- 지역적 범위 : 강원도 5개 시·군(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고성군)
- 검진기간 : 2015. 3. 1. ~ 7. 31.
- 응답자 범위 : 65세 이상 노인
- 내용적 범위 : 일반적인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 우울증 평가, 자살위험성

3 | 검진 대상 및 방법

1) 검진 대상

- 강원도 성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지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검진응답자수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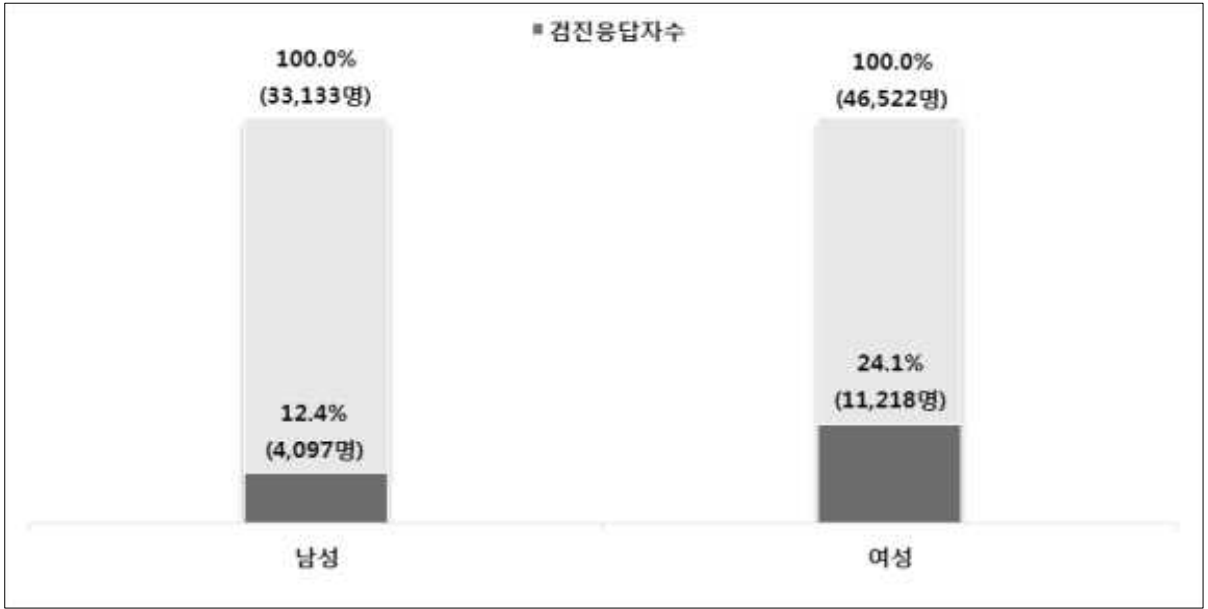
〈강원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구분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명)	검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성별	남성	33,133	4,097	12.4	
	여성	46,522	11,218	24.1	
	무응답	-	130		
연령별	65 - 69세	23,034	2,131	9.3	
	70 - 74세	22,397	3,706	16.5	
	75 - 79세	17,610	4,210	23.9	
	80 - 84세	9,518	3,055	32.1	
	85세 이상	7,096	2,073	29.2	
	무응답	-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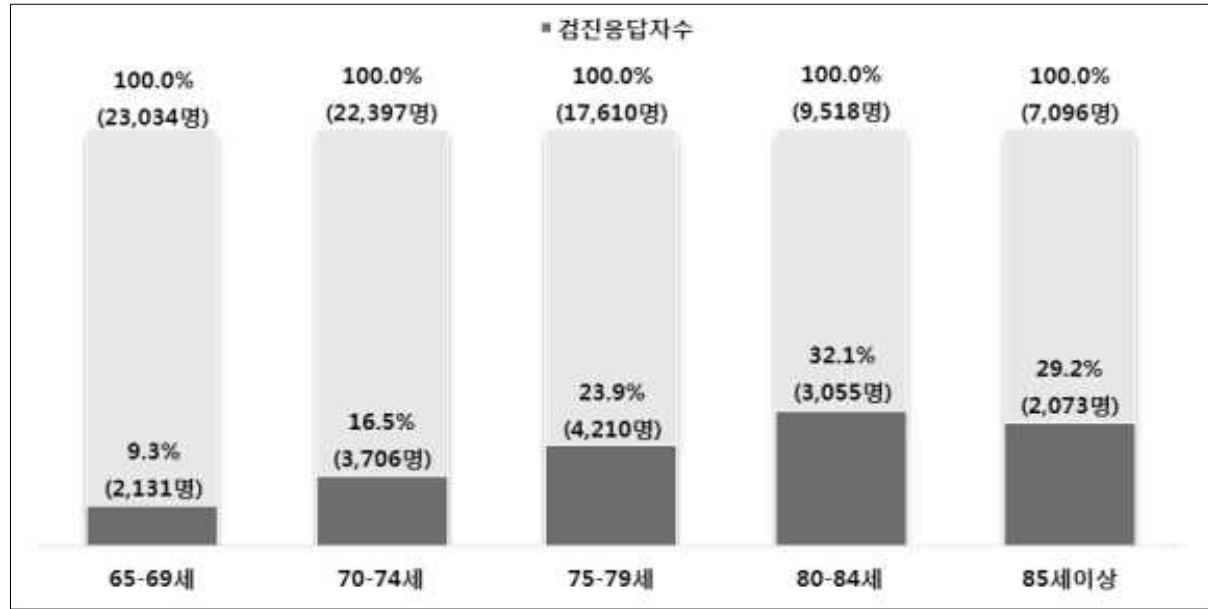
구분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명)	검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거주지역	강릉시	36,009	3,544	9.8	
	태백시	8,716	2,679	30.7	
	삼척시	13,642	2,821	20.7	
	홍천군	14,400	3,017	21.0	
	고성군	6,888	3,384	49.1	
전체		79,655	15,445	19.4	

※ 출처 : 통계청(2014) - 2014년 12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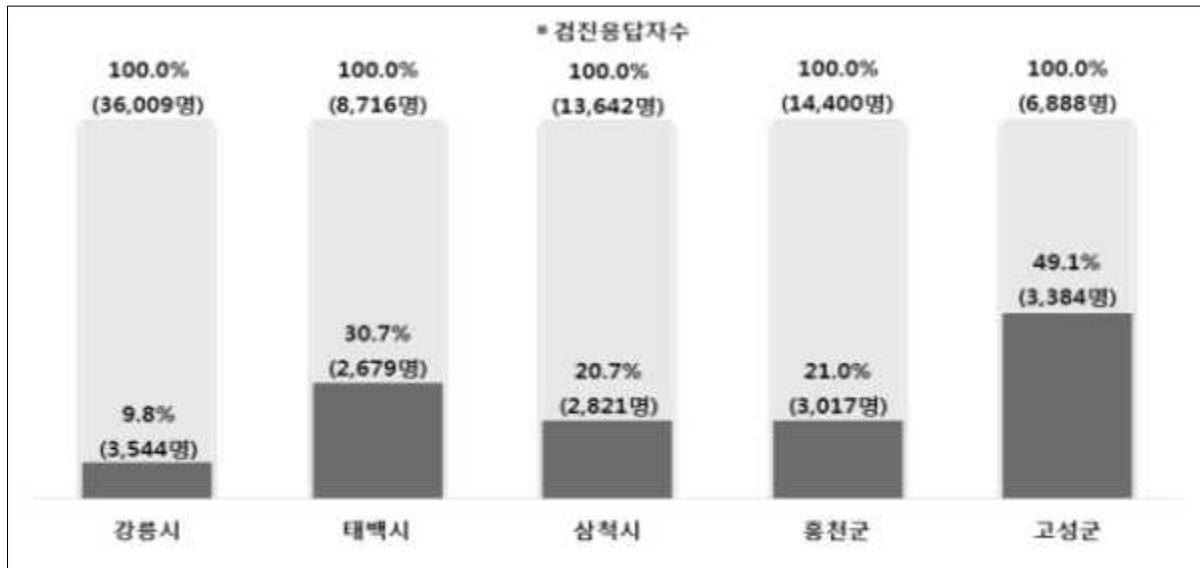
〈그림 1〉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그림 2〉 강원도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연령별



〈그림 3〉 강원도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거주지역



2) 검진방법

- 검진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검진요원들이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검진 실시

4 | 검진 내용

- 검진의 주요 내용은 특성에 따른 응답자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우울평가(SGDS), 자살 위험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검진 내용〉

검진 분야	검진내용
①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거주지, 종교, 독거, 주거유형
② 경제적 특성	사회보장, 경제활동, 경제적 지원, 주관적 경제상태
③ 보건학적 특성	거동상태, 약 복용, 질병, 음주여부
④ 사회관계적 특성	가족여부, 가족과의 연락, 친구와의 연락, 이웃과의 연락,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⑤ 우울평가(SGDS)	현재 생활 만족, 기분, 불안, 기억력, 기력 등
⑥ 자살위험성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한 지인의 유무, 자살시도력

5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 처리

- 설문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 자료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유효 자료에 대해 통계처리 함.

2) 자료 분석방법

- 검진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평균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 빈도분석을 제외한 그 외의 통계분석은 각 문항의 무응답을 결측값으로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문항별 응답자 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6 | 응답자 현황

1) 일반적 특성

- 성별
 -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마음건강검진 검진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72.6%(11,218명), ‘남성’ 26.5%(4,097명)로 나타남<표 1>.

〈표 1〉 응답자 성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4,097	26.5
	여성	11,218	72.6
	무응답	130	0.9
	전체	15,445	100.0

- 연령별
 - 검진응답자의 연령별을 살펴보면 ‘75~79세’가 27.3%(4,210명), ‘70~74세’ 24.0%(3,706명), ‘80~84세’ 19.8%(3,055명), ‘65~69세’ 13.8%(2,131명), ‘85세 이상’ 13.4%(2,07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76.9±6.5세’로 나타남<표 2>.

〈표 2〉 응답자 연령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연령별	65~69세	2,131	13.8
	70~74세	3,706	24.0
	75~79세	4,210	27.3
	80~84세	3,055	19.8
	85세 이상	2,073	13.4
	무응답	270	1.7
	전체	15,445	100.0

● 거주지역

- 검진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강릉시’ 22.9%(3,544명), ‘고성군’ 22.0%(3,384명), ‘홍천군’ 19.5%(3,017명), ‘삼척시’ 18.3%(2,821명), ‘태백시’ 17.3%(2,679명) 순으로 나타남<표 3>.

〈표 3〉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주지역	강릉시	3,544	22.9
	태백시	2,679	17.3
	삼척시	2,821	18.3
	홍천군	3,017	19.5
	고성군	3,384	22.0
	전체	15,445	100.0

● 종교

- 검진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45.6%(7,043명) ‘불교’ 22.0%(3,403명), ‘기독교’ 15.6%(2,404명), ‘천주교’ 4.6%(712명), ‘기타’ 0.8%(128명) 순으로 나타남<표 4>.

〈표 4〉 응답자 종교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종교	기독교	2,404	15.6
	불교	3,403	22.0
	천주교	712	4.6
	무교	7,043	45.6
	기타	128	0.8
	무응답	1,755	11.4
	전체	15,445	100.0

● 주거유형

- 검진응답자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자가’가 71.1%(10,990명), ‘월세’ 11.9%(1,846명), ‘기타’ 11.5%(1,771명), ‘전세’ 3.7%(566명) 순으로 나타남<표 5>.

〈표 5〉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유형	자가	10,990	71.1
	전세	566	3.7
	월세	1,846	11.9
	기타	1,771	11.5
	무응답	272	1.8
	전체	15,445	100.0

● 독거여부

- 검진응답자의 독거여부를 살펴보면 ‘독거’ 67.7%(10,471명), ‘동거’ 31.8%(4,904명)로 나타남<표 6>.

〈표 6〉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여부	독거	10,471	67.7
	동거	4,904	31.8
	무응답	70	0.5
	전체	15,445	100.0

● 독거기간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기간을 살펴보면 ‘5년~15년 미만’ 31.6%(3,303명), ‘25년 이상’ 26.7%(2,793명), ‘15년~25년 미만’ 23.2%(2,433명), ‘5년 미만’ 15.5%(1,62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독거기간은 ‘17.5±13.2년’으로 나타남<표 7>.

〈표 7〉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기간	5년 미만	1,627	15.5
	5년~15년 미만	3,303	31.6
	15년~25년 미만	2,433	23.2
	25년 이상	2,793	26.7
	무응답	315	3.0
	전체	10,471	100.0

● 독거사유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사유를 살펴보면 ‘사별’이 82.4%(8,627명), ‘이혼’ 5.7%(593명), ‘기타’ 3.6%(374명), ‘별거’ 3.4%(355명), ‘미혼’ 1.2%(130명) 순으로 나타남<표 8>.

〈표 8〉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사유	사별	8,627	82.4
	이혼	593	5.7
	미혼	130	1.2
	별거	355	3.4
	기타	374	3.6
	무응답	392	3.7
	전체	10,471	100.0

2) 경제적 특성

● 사회보장

- 검진응답자의 사회보장을 살펴보면 ‘일반’ 74.5%(11,513명), ‘기초생활수급자’ 14.7%(2,268명), ‘차상위계층’ 6.9%(1,068명) 순으로 나타남<표 9>.

〈표 9〉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2,268	14.7
	차상위계층	1,068	6.9
	일반	11,513	74.5
	무응답	596	3.9
	전체	15,445	100.0

● 경제활동

- 검진응답자의 경제활동여부를 살펴보면 ‘안한다’ 78.0%(12,043명), ‘한다’ 20.7%(3,198명)로 나타남<표 10>.

〈표 10〉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활동	한다	3,198	20.7
	안한다	12,043	78.0
	무응답	204	1.3
	전체	15,445	100.0

● 경제적 지원(1) : 경제적 지원여부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지원여부를 살펴보면 ‘지원처가 없다’ 50.7%(7,827명), ‘지원처가 있다’ 46.7%(7,221명)로 나타남<표 11>.

〈표 11〉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 (1)	지원처가 있다	7,221	46.7
	지원처가 없다	7,827	50.7
	무응답	397	2.6
	전체	15,445	100.0

● 경제적 지원(2) : 정기적 지원 & 비정기적 지원

-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검진응답자를 살펴보면 ‘비정기적 지원’ 59.4%(4,286명), ‘정기적 지원’ 32.9%(2,378명)로 나타남<표 12>.

〈표 12〉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 (2)	정기적 지원	2,378	32.9
	비정기적 지원	4,286	59.4
	무응답	557	7.7
	전체	7,221	100.0



● 주관적 경제상태

- 검진응답자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보통’ 52.0%(8,039명), ‘가난하다’ 35.8%(5,526명), ‘매우 가난하다’ 7.0%(1,088명), ‘부유하다’ 2.8%(427명), ‘매우 부유하다’ 0.2%(25명) 순으로 나타남 <표 13>.

〈표 13〉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1,088	7.0
	가난하다	5,526	35.8
	보통	8,039	52.0
	부유하다	427	2.8
	매우 부유하다	25	0.2
	무응답	340	2.2
	전체	15,445	100.0

3)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검진응답자의 거동상태를 살펴보면 ‘정상’ 94.2%(14,550명), ‘불편’ 3.7%(577명), ‘불능’ 0.7%(103명) 순으로 나타남<표 14>.

〈표 14〉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동상태	정상 ¹⁾	14,550	94.2
	불편 ²⁾	577	3.7
	불능 ³⁾	103	0.7
	무응답	215	1.4
	전체	15,445	100.0

1) 정상 : 도움 없이 혼자 방을 나올 수 있다.

2) 불편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이 있어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3) 불능 : 들 것에 실리거나 업혀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 3개월 이상 약 복용

- 검진응답자의 ‘3개월 이상 약 복용’ 여부를 살펴보면 ‘있음’ 81.5%(12,594명), ‘없음’ 12.5%(1,929명)로 나타남<표 15>.

〈표 15〉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3개월 이상 약 복용	있음	12,594	81.5
	없음	1,929	12.5
	무응답	922	6.0
	전체	15,445	100.0

● 앓고 있는 질병

- 검진응답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살펴보면 ‘고혈압’ 69.9%(9,433명), ‘기타’ 37.9%(5,117명), ‘만성통증’ 36.9%(4,980명), ‘당뇨병’ 22.8%(3,076명), ‘심장질환’ 11.0%(1,48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16>.

〈표 16〉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앓고 있는 질병	암	281	2.1
	만성통증	4,980	36.9
	뇌혈관질환	934	6.9
	고혈압	9,433	69.9
	당뇨병	3,076	22.8
	심장질환	1,487	11.0
	간질환	107	0.8
	신장질환	198	1.5
	호흡기질환	651	4.8
	우울증	636	4.7
	기타	5,117	37.9
	전체	26,900	199.3

※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13,500명 중 8,634명이 다중응답

● 문제성 음주 : 소주 1병 or 맥주 4병 이상

- 검진응답자의 문제성 음주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80.5%(12,433명), ‘주 1회’ 6.2%(959명), ‘월 1회 미만’ 4.8%(739명), ‘월 1회’ 3.8%(580명), ‘거의 매일’ 3.0%(468명) 순으로 나타남<표 17>.

〈표 17〉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2,433	80.5
	월 1회 미만	739	4.8
	월 1회	580	3.8
	주 1회	959	6.2
	거의 매일	468	3.0
	무응답	266	1.7
	전체	15,445	100.0

4)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검진응답자의 가족여부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90.3%(13,946명),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53.0%(8,193명), ‘배우자’ 18.9%(2,924명), ‘없음’ 2.9%(450명), ‘기타’ 0.6%(97명) 순으로 나타남<표 18>.

〈표 18〉 응답자 가족여부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여부	없음	450	2.9
	배우자	2,924	18.9
	자녀	13,946	90.3
	형제/자매	8,193	53.0
	기타	97	0.6
	무응답	355	2.3
	전체	25,965	168.1

※ 검진응답자 중 9,056명 다중응답

● 가족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58.1%(8,978명), ‘월 1~2회’ 20.3%(3,142명), ‘분기 1~2회’ 7.1%(1,100명), ‘연 1~2회’ 6.8%(1,041명), ‘없음’ 6.6%(1,018명) 순으로 나타남<표 19>.

〈표 19〉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연락	없음	1,018	6.6
	연 1~2회	1,041	6.8
	분기 1~2회	1,100	7.1
	월 1~2회	3,142	20.3
	주 1회 이상	8,978	58.1
	무응답	166	1.1
	전체	15,445	100.0

● 친구연락

- 검진응답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50.9%(7,865명), ‘없음’ 29.2%(4,503명), ‘월 1~2회’ 12.6%(1,948명), ‘분기 1~2회’ 3.5%(540명) ‘연 1~2회’ 1.8%(278명) 순으로 나타남<표 20>.

〈표 20〉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친구연락	없음	4,503	29.2
	연 1~2회	278	1.8
	분기 1~2회	540	3.5
	월 1~2회	1,948	12.6
	주 1회 이상	7,865	50.9
	무응답	311	2.0
	전체	15,445	100.0

● 이웃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75.4%(11,639명), ‘월 1~2회’ 10.9%(1,677명), ‘없음’ 8.4%(1,299명), ‘분기 1~2회’ 1.9%(294명), ‘연 1~2회’ 1.3%(203명) 순으로 나타남<표 21>.

〈표 21〉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이웃연락	없음	1,299	8.4
	연 1~2회	203	1.3
	분기 1~2회	294	1.9
	월 1~2회	1,677	10.9
	주 1회 이상	11,639	75.4
	무응답	333	2.1
	전체	15,445	100.0

● 경로당 이용

- 검진응답자의 경로당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안함’ 50.4%(7,788명), ‘자주(월3회 이하)’ 31.5%(4,857명), ‘가끔(월2회 이하)’ 15.2%(2,350명) 순으로 나타남<표 22>.

〈표 22〉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로당 이용	안함	7,788	50.4
	가끔(월 2회 이하)	2,350	15.2
	자주(월 3회 이상)	4,857	31.5
	무응답	450	2.9
	전체	15,445	100.0

● 사회서비스 이용(1) : 사회서비스 이용여부

- 검진응답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이용안함’ 74.0%(11,423명), ‘이용’ 21.3%(3,292명)로 나타남<표 23>.

〈표 23〉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3,292	21.3
	이용안함	11,423	74.0
	무응답	730	4.7
	전체	15,445	100.0

● 사회서비스 이용(2) : 서비스 종류

- 검진응답자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서서비스’ 47.0%(1,546명), ‘가사서비스’ 33.2%(1,094명), ‘기타’ 16.4%(539명), ‘간병서비스’ 4.9%(160명), ‘결연서비스’ 2.0%(67명) 순으로 나타남<표 24>.

〈표 24〉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2)	가사서비스	1,094	33.2
	정서서비스	1,546	47.0
	결연서비스	67	2.0
	간병서비스	160	4.9
	기타	539	16.4
	무응답	254	7.7
	전체	3,660	111.2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검진응답자 중 313명 다중응답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1 | 우울점수(SGDS)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¹⁾ 또는 로버스트검정²⁾(welch)을 실시하였고 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5.53)이 ‘남성’(5.0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5>, <그림 4>.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4.34 -> ‘85세 이상’ 6.8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5>, <그림 4>.
- 연령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 실시. 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1) 분산이 동일한 경우 분석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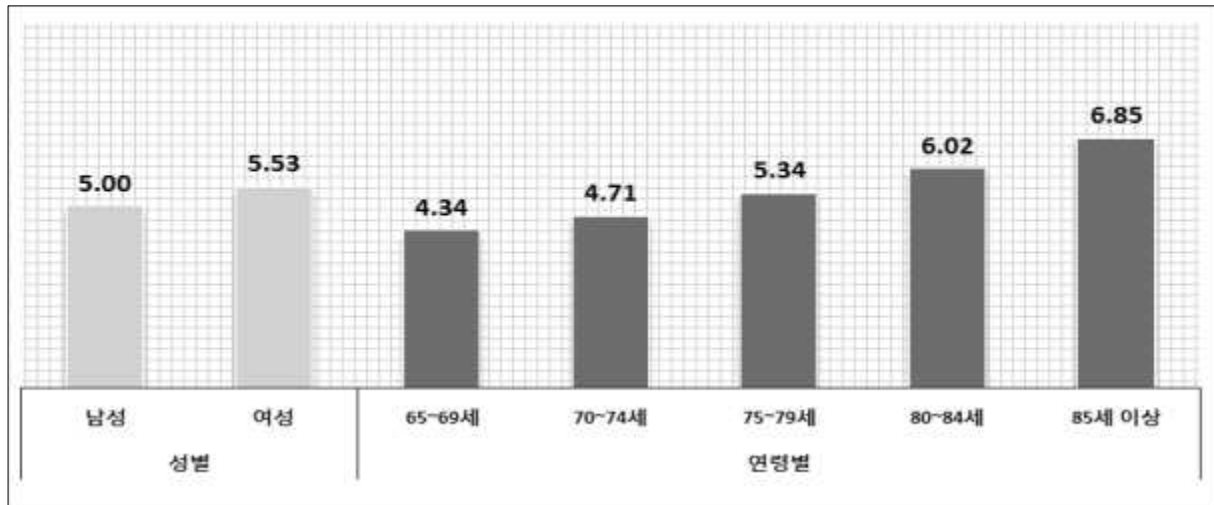
2) 분산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분석 실시

〈표 25〉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4,019	5.00	4.32	(45.017)***	-
	여성	10,958	5.53	4.23		
	전체	14,977	5.38	4.26		
연령별	65~69세(A)	2,094	4.34	4.23	134.909***	A < B < C < D < E
	70~74세(B)	3,621	4.71	4.20		
	75~79세(C)	4,116	5.34	4.21		
	80~84세(D)	2,989	6.02	4.15		
	85세 이상(E)	2,009	6.85	4.14		
	전체	14,829	5.39	4.26		

* : p<.05, ** : p<.01, *** : p<.001

〈그림 4〉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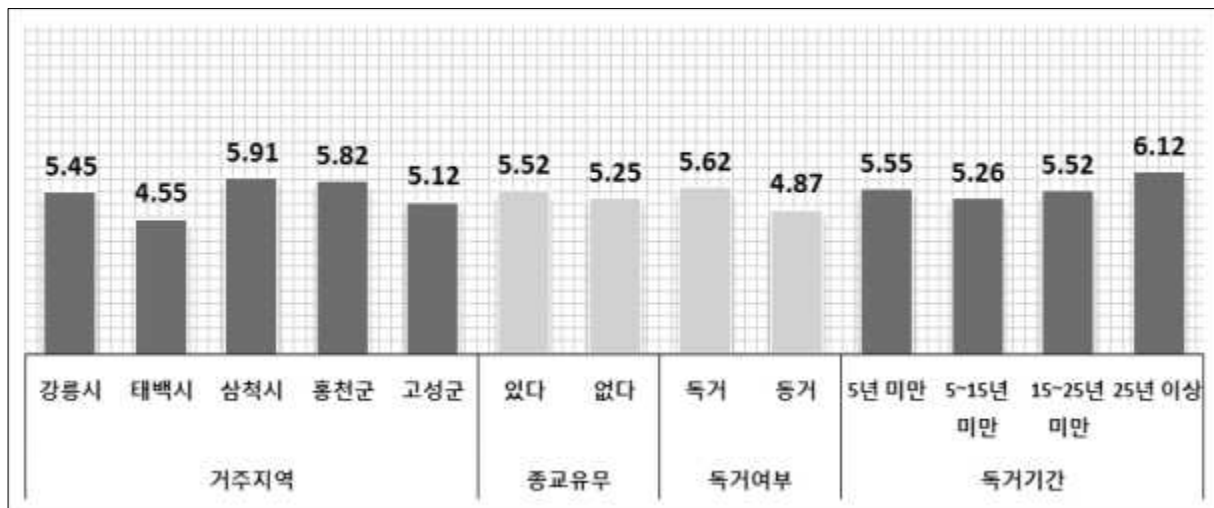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삼척시’(5.91)가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5>, <그림 4>.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 실시. 그 결과 ‘삼척시’와 ‘홍천군’, ‘강릉시’, ‘태백시’, ‘고성군’ 순으로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 종교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5.52)가 없는 경우(5.2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 <그림 5>.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독거’(5.62)가 ‘동거’(4.8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 <그림 5>.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 중 독거기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5.55 -> ‘25년 이상’ 6.1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6>, <그림 5>.
 - 독거기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 실시. 그 결과 독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그중 ‘25년 이상’이 다른 독거기간보다 가장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표 2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거주 지역	강릉시(A)	3,412	5.45	3.94	(48.747)***	B < E < A < C,D
	태백시(B)	2,621	4.55	3.93		
	삼척시(C)	2,759	5.91	4.62		
	홍천군(D)	3,016	5.82	4.35		
	고성군(E)	3,285	5.12	4.32		
	전체	15,093	5.38	4.26		
종교 유무	있다	6,884	5.52	4.26	12.792***	-
	없다	6,508	5.25	4.23		
	전체	13,392	5.39	4.25		
독거 여부	독거	10,235	5.62	4.23	102.846***	-
	동거	4,792	4.87	4.28		
	전체	15,027	5.38	4.26		
독거 기간	5년 미만(A)	1,595	5.55	4.26	21.086***	(A~C) < D
	5~15년 미만(B)	3,235	5.26	4.19		
	15~25년 미만(C)	2,377	5.52	4.18		
	25년 이상(D)	2,726	6.12	4.21		
	전체	9,933	5.61	4.22		

* : p<.05, ** : p<.01, *** : p<.001

〈그림 5〉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7.50)가 다른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7>, <그림 6>.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순으로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안한다’(5.76)가 ‘한다’(3.9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7>,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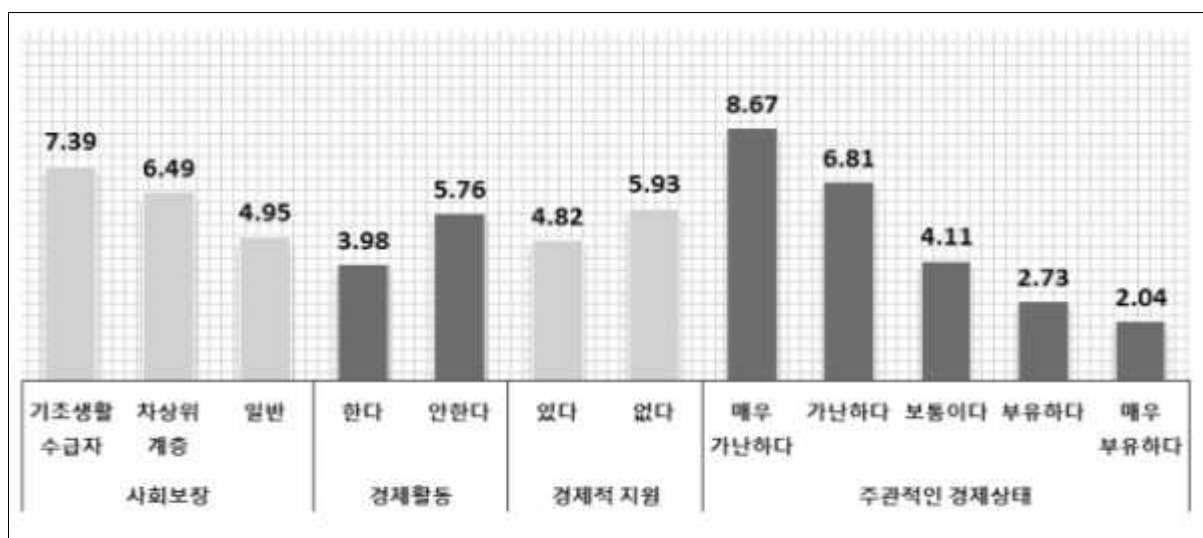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지원처가 없다’(5.93)가 ‘지원처가 있다’(4.82)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7>, <그림 6>.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매우 부유하다’ 2.04 -> ‘매우 가난하다’ 8.6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 <그림 6>.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표 2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사회 보장	기초생활수급자(A)	2,206	7.39	4.40	(325.349)***	C < B < A
	차상위계층(B)	1,045	6.49	4.35		
	일반(C)	11,267	4.95	4.11		
	전체	14,518	5.43	4.27		
경제 활동	한다	3,135	3.98	3.81	(510.377)***	-
	안한다	11,765	5.76	4.30		
	전체	14,900	5.38	4.26		
경제적 지원	있다	7,094	4.82	4.00	(255.415)***	-
	없다	7,622	5.93	4.42		
	전체	14,716	5.40	4.26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가난하다(A)	1,067	8.67	4.26	(606.543)***	E < D < C < B < A
	가난하다(B)	5,393	6.81	4.24		
	보통이다(C)	7,879	4.11	3.73		
	부유하다(D)	417	2.73	3.05		
	매우 부유하다(E)	24	2.04	3.10		
	전체	14,780	5.38	4.26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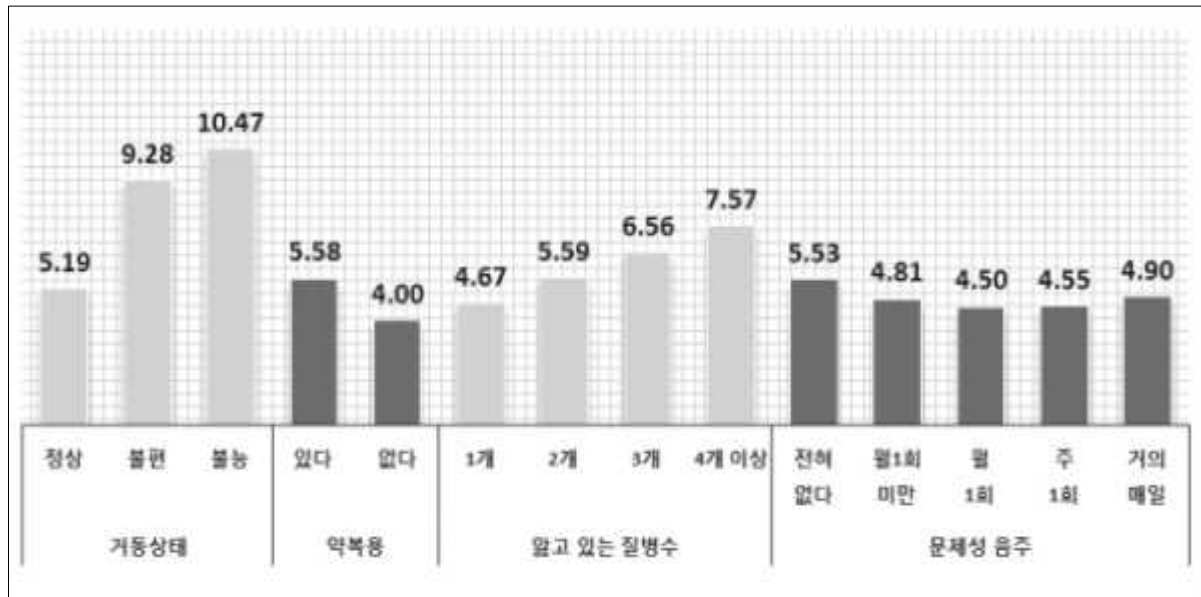
- 거동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5.19 -> ‘불능’ 10.4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8>, <그림 7>.
 - 거동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3개월 이내 약 복용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있다’(5.58)가 ‘없다’(4.0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8>, <그림 7>.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1개’ 4.67 -> ‘4개 이상’ 7.5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8>, <그림 7>.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문제성 음주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문제성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거의 매일’ 4.90 -> ‘전혀 없다’ 5.5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8>, <그림 7>.
 - 문제성 음주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문제성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전혀 없다’가 다른 음주정도보다 가장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거동 상태	정상(A)	14,226	5.19	4.17	335.642***	A < B < C
	불편(B)	561	9.28	4.01		
	불능(C)	101	10.47	4.07		
	전체	14,888	5.38	4.26		
약 복용	있다	12,318	5.58	4.29	(257.428)***	-
	없다	1,895	4.00	3.95		
	전체	14,213	5.37	4.28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A)	4,763	4.67	4.08	(187.637)***	A < B < C < D
	2개(B)	4,899	5.59	4.17		
	3개(C)	2,569	6.56	4.24		
	4개 이상(D)	957	7.57	4.47		
	전체	13,188	5.59	4.26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A)	12,156	5.53	4.27	(25.488)***	(B~E) < A
	월 1회 미만(B)	717	4.81	4.15		
	월 1회(C)	566	4.50	4.02		
	주 1회(D)	945	4.55	4.06		
	거의 매일(E)	460	4.90	4.29		
	전체	14,844	5.38	4.26		

* : p<.05, ** : p<.01, *** : p<.001

〈그림 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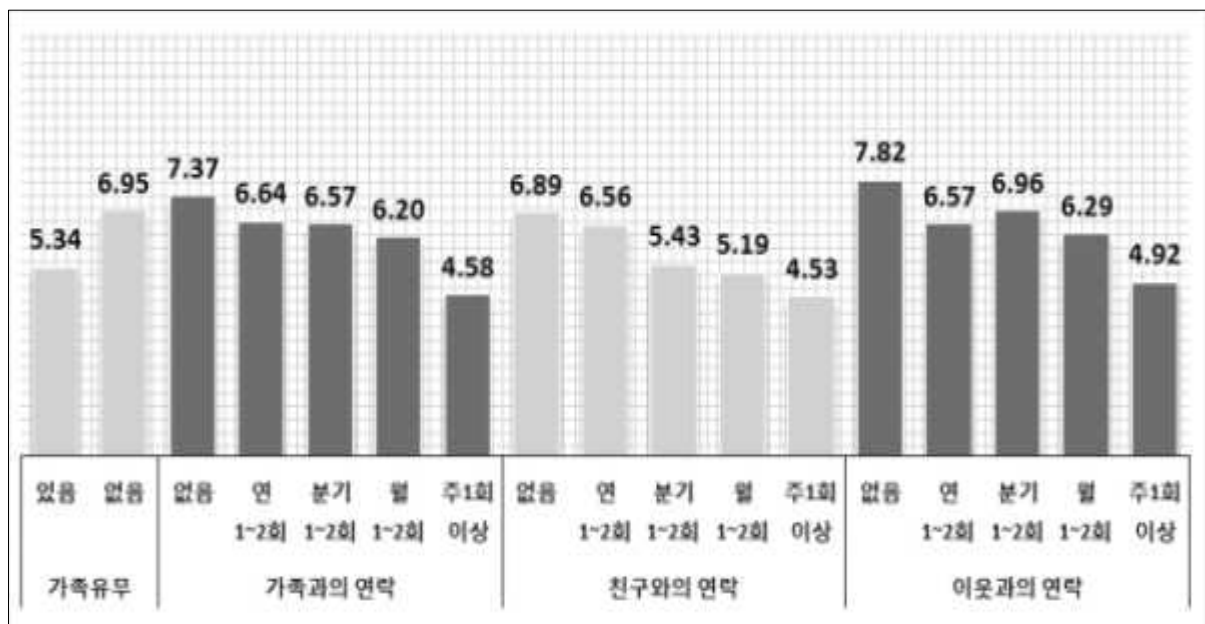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없음’(6.95)이 ‘있음’(5.3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9>, <그림 8>.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58 -> ‘없음’ 7.3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 <그림 8>.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이 다른 연락빈도보다, ‘연 1~2회’, ‘분기 1~2회’,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그리고 ‘연 1~2회’가 ‘월 1~2회’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53 -> ‘없음’ 6.8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 <그림 8>.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과 ‘연 1~2회’가 다른 연락빈도보다, ‘분기 1~2회’와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92 -> ‘없음’ 7.8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 <그림 8>.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이 다른 연락빈도보다, ‘연 1~2회’, ‘분기 1~2회’,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가족 유무	있음	14,328	5.34	4.25	60.224***	-
	없음	433	6.95	4.48		
	전체	14,761	5.39	4.26		
가족 연락	없음(A)	989	7.37	4.55	(205.176)***	E < (B~D) < A
	연 1~2회(B)	1,019	6.64	4.31		
	분기 1~2회(C)	1,063	6.57	4.29		
	월 1~2회(D)	3,062	6.20	4.24		D < B
	주 1회 이상(E)	8,806	4.58	4.02		
	전체	14,939	5.38	4.26		
친구 연락	없음(A)	4,394	6.89	4.36	(222.434)***	E < C,D < A,B
	연 1~2회(B)	271	6.56	4.24		
	분기 1~2회(C)	521	5.43	3.95		
	월 1~2회(D)	1,886	5.19	4.04		
	주 1회 이상(E)	7,726	4.53	4.02		
	전체	14,798	5.38	4.26		
이웃 연락	없음(A)	1,267	7.82	4.58	(158.404)***	E < (B~D) < A
	연 1~2회(B)	197	6.57	3.92		
	분기 1~2회(C)	283	6.96	4.42		
	월 1~2회(D)	1,615	6.29	4.08		
	주 1회 이상(E)	11,415	4.92	4.12		
	전체	14,777	5.38	4.26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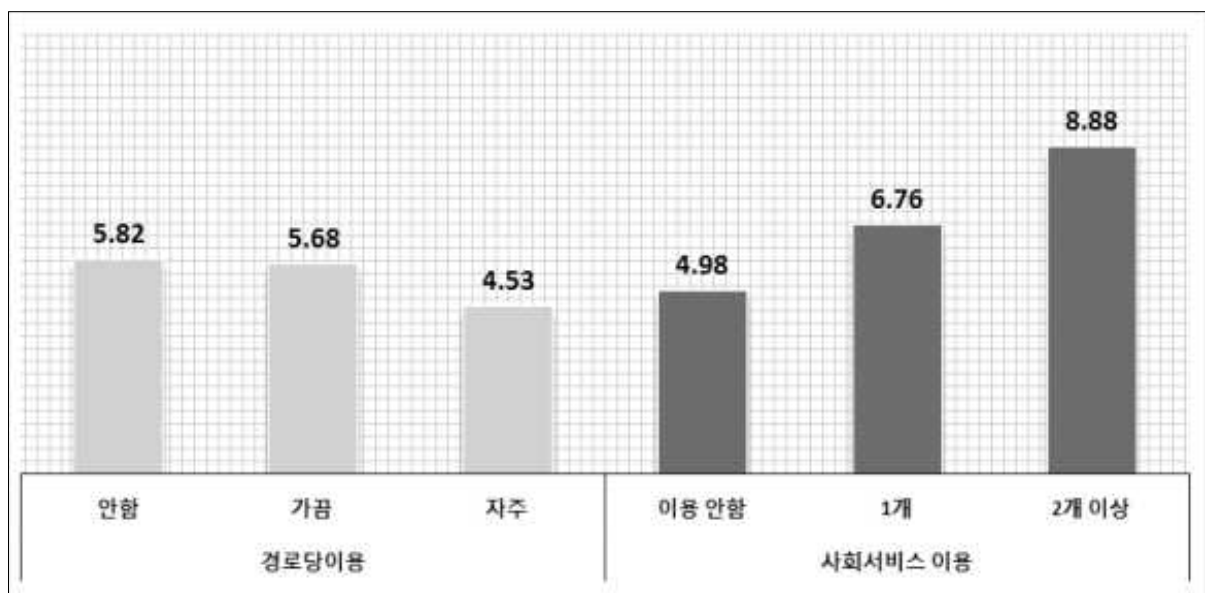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4.53 → ‘안함’ 5.8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0>, <그림 9>.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안함’과 ‘가끔’이 ‘자주’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없음’ 4.98 → ‘2개 이상’ 8.8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0>, <그림 9>.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3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경로당 이용	안함(A)	7,586	5.82	4.39	(154.305)***	C < A,B
	가끔(B)	2,292	5.68	4.20		
	자주(C)	4,789	4.53	3.95		
	전체	14,667	5.38	4.26		
사회 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A)	11,198	4.98	4.14	(293.057)***	A < B < C
	1개(B)	2,644	6.76	4.33		
	2개 이상(C)	304	8.88	4.19		
	전체	14,146	5.40	4.27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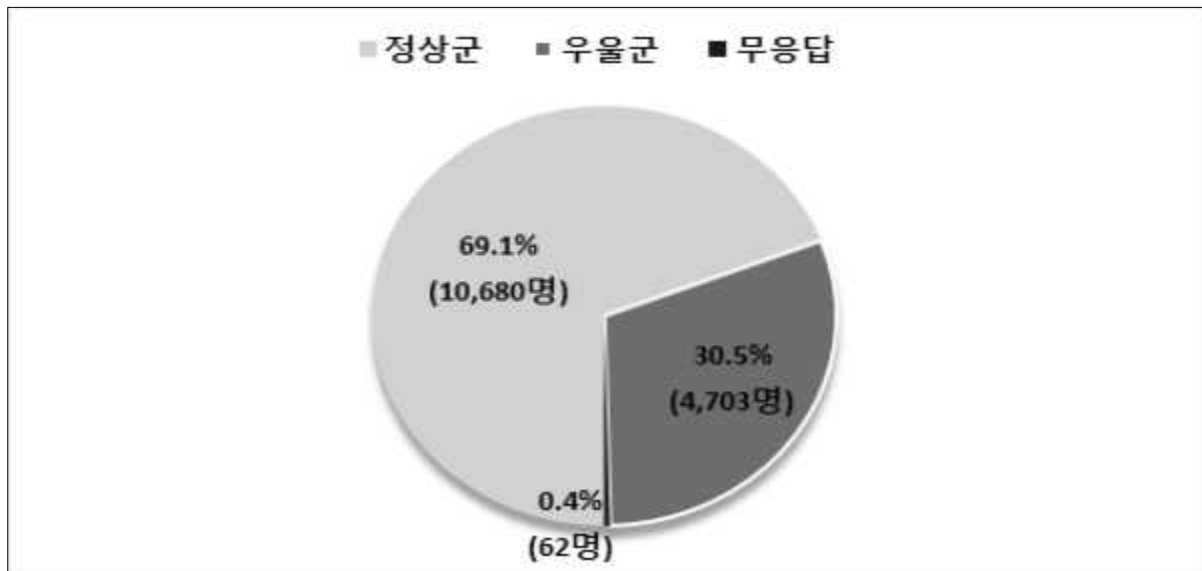
2 | 우울군 분포 현황

- 조맹제 등의 연구에 따르면 SGDS 점수의 총합이 8점 이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 강원도 검진응답자의 SGDS 점수를 7점을 기준으로 정상군(0~7점), 우울군(8~15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상군’ 비율이 69.1%(10,680명), ‘우울군’ 비율이 30.5%(4,703명)로 나타남<표 31>, <그림 10>.

〈표 31〉 강원도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우울군	정상군	10,680	69.1
	우울군	4,703	30.5
	무응답	62	0.4
	전체	15,445	100.0

〈그림 10〉 강원도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성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우울군 비율(31.5%)이 ‘남성’의 우울군 비율(28.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
- 연령별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 연령대의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23.0% -> ‘85세 이상’ 42.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
- 거주지역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삼척시’의 우울군 비율(36.2%)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

〈표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성별	남성	2,938 (71.9)	1,149 (28.1)	4,087 (100.0)	16.193	.000***
	여성	7,649 (68.5)	3,518 (31.5)	11,167 (100.0)		
	전체	10,587 (69.4)	4,667 (30.6)	15,254 (100.0)		
연령별	65~69세	1,636 (77.0)	489 (23.0)	2,125 (100.0)	257.586	.000***
	70~74세	2,749 (74.5)	940 (25.5)	3,689 (100.0)		
	75~79세	2,927 (69.8)	1,269 (30.2)	4,196 (100.0)		
	80~84세	1,980 (65.0)	1,067 (35.0)	3,047 (100.0)		
	85세 이상	1,192 (58.0)	864 (42.0)	2,056 (100.0)		
	전체	10,484 (69.4)	4,629 (30.6)	15,113 (100.0)		
거주지역	강릉시	2,518 (71.5)	1,005 (28.5)	3,523 (100.0)	37.956	.000***
	태백시	2,065 (77.3)	605 (22.7)	2,670 (100.0)		
	삼척시	1,792 (63.8)	1,016 (36.2)	2,808 (100.0)		
	홍천군	1,937 (64.2)	1,080 (35.8)	3,017 (100.0)		
	고성군	2,368 (70.4)	997 (29.6)	3,365 (100.0)		
	전체	10,680 (69.4)	4,703 (30.6)	15,383 (100.0)		

* : p<.05, ** : p<.01, *** : p<.001

- 종교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32.2%)가 없는 경우(28.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
- 독거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2.6%)이 ‘동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6.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
- 독거기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33.3% -> ‘25년 이상’ 36.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

〈표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4,757 (67.8)	2,255 (32.2)	7,012 (100.0)	16.668	.000***
	없다	4,708 (71.1)	1,917 (28.9)	6,625 (100.0)		
	전체	9,465 (69.4)	4,172 (30.6)	13,637 (100.0)		
독거여부	독거	7,034 (67.4)	3,396 (32.6)	10,430 (100.0)	57.200	.000***
	동거	3,589 (73.5)	1,295 (26.5)	4,884 (100.0)		
	전체	10,623 (69.4)	4,691 (30.6)	15,314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1,082 (66.7)	541 (33.3)	1,623 (100.0)	39.013	.000***
	5~15년 미만	2,327 (70.8)	960 (29.2)	3,287 (100.0)		
	15~25년 미만	1,656 (68.3)	770 (31.7)	2,426 (100.0)		
	25년 이상	1,763 (63.4)	1,019 (36.6)	2,782 (100.0)		
	전체	6,828 (67.5)	3,290 (32.5)	10,118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우울군 비율(48.0%)이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우울군 비율(33.8%)이 ‘한다’의 우울군 비율(18.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의 우울군 비율(35.6%)이 ‘경제적 지원처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5.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매우 부유하다’ 8.0% → ‘매우 가난하다’ 61.9%)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34>.

〈표 34〉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1,172 (52.0)	1,083 (48.0)	2,255 (100.0)	451.844	.000***
	차상위계층	625 (58.9)	436 (41.1)	1,061 (100.0)		
	일반	8,406 (73.2)	3,073 (26.8)	11,479 (100.0)		
	전체	10,203 (69.0)	4,592 (31.0)	14,795 (100.0)		
경제활동	한다	2,586 (81.1)	604 (18.9)	3,190 (100.0)	260.805	.000***
	안한다	7,942 (66.2)	4,049 (33.8)	11,991 (100.0)		
	전체	10,528 (69.3)	4,653 (30.7)	15,181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5,363 (74.5)	1,831 (25.5)	7,194 (100.0)	179.693	.000***
	없다	5,025 (64.4)	2,773 (35.6)	7,798 (100.0)		
	전체	10,388 (69.3)	4,604 (30.7)	14,992 (100.0)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413 (38.1)	672 (61.9)	1,085 (100.0)	1466.489	.000***
	가난하다	3,153 (57.3)	2,349 (42.7)	5,502 (100.0)		
	보통이다	6,470 (80.8)	1,539 (19.2)	8,009 (100.0)		
	부유하다	387 (90.6)	40 (9.4)	427 (100.0)		
	매우 부유하다	23 (92.0)	2 (8.0)	25 (100.0)		
	전체	10,446 (69.4)	4,602 (30.6)	15,048 (100.0)		

* : p<.05, ** : p<.01, *** : p<.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거동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28.8% -> ‘불능’ 74.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2.4%)이 복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19.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5>.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24.6% -> '4개 이상' 49.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
- 문제성 음주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거의 매일' 27.2% -> '전혀 없다' 31.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

〈표 35〉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10,318 (71.2)	4,178 (28.8)	14,496 (100.0)	480.708	.000***
	불편	186 (32.5)	386 (67.5)	572 (100.0)		
	불능	26 (25.5)	76 (74.5)	102 (100.0)		
	전체	10,530 (69.4)	4,640 (30.6)	15,170 (100.0)		
약 복용	있다	8,476 (67.6)	4,067 (32.4)	12,543 (100.0)	134.656	.000***
	없다	1,553 (80.7)	372 (19.3)	1,925 (100.0)		
	전체	10,029 (69.3)	4,439 (30.7)	14,468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3,656 (75.4)	1,191 (24.6)	4,847 (100.0)	359.436	.000***
	2개	3,418 (68.4)	1,581 (31.6)	4,999 (100.0)		
	3개	1,541 (58.9)	1,077 (41.1)	2,618 (100.0)		
	4개 이상	494 (50.5)	484 (49.5)	978 (100.0)		
	전체	9,109 (67.8)	4,333 (32.2)	13,442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8,444 (68.2)	3,936 (31.8)	12,380 (100.0)	49.320	.000***
	월 1회 미만	539 (73.3)	196 (26.7)	735 (100.0)		
	월 1회	434 (74.8)	146 (25.2)	580 (100.0)		
	주 1회	737 (76.9)	222 (23.1)	959 (100.0)		
	거의 매일	340 (72.8)	127 (27.2)	467 (100.0)		
	전체	10,494 (69.4)	4,627 (30.6)	15,121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가족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없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44.1%)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0.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6>.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3.7% -> ‘없음’ 47.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6>.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3.0% -> ‘없음’ 45.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6>.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6.7% -> ‘없음’ 52.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6>.

〈표 3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10,186 (69.8)	4,404 (30.2)	14,590 (100.0)	39.538	.000***
	없다	248 (55.9)	196 (44.1)	444 (100.0)		
	전체	10,434 (69.4)	4,600 (30.6)	15,034 (100.0)		
가족연락	없음	526 (52.1)	484 (47.9)	1,010 (100.0)	521.607	.000***
	연 1~2회	600 (57.9)	437 (42.1)	1,037 (100.0)		
	분기 1~2회	650 (59.4)	444 (40.6)	1,094 (100.0)		
	월 1~2회	1,966 (62.9)	1,162 (37.1)	3,128 (100.0)		
	주 1회 이상	6,827 (76.3)	2,124 (23.7)	8,951 (100.0)		
	전체	10,569 (69.4)	4,651 (30.6)	15,220 (100.0)		
친구연락	없음	2,459 (54.9)	2,023 (45.1)	4,482 (100.0)	676.341	.000***
	연 1~2회	171 (61.7)	106 (38.3)	277 (100.0)		
	분기 1~2회	383 (71.2)	155 (28.8)	538 (100.0)		
	월 1~2회	1,407 (72.7)	529 (27.3)	1,936 (100.0)		
	주 1회 이상	6,038 (77.0)	1,805 (23.0)	7,843 (100.0)		
	전체	10,458 (69.4)	4,618 (30.6)	15,076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이웃연락	없음	612 (47.3)	683 (52.7)	1,295 (100.0)	443.061	.000***
	연 1~2회	117 (57.9)	85 (42.1)	202 (100.0)		
	분기 1~2회	168 (57.1)	126 (42.9)	294 (100.0)		
	월 1~2회	1,053 (63.4)	607 (36.6)	1,660 (100.0)		
	주 1회 이상	8,503 (73.3)	3,099 (26.7)	11,602 (100.0)		
	전체	10,453 (69.4)	4,600 (30.6)	15,053 (100.0)		

* : p<.05, ** : p<.01, *** : p<.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22.8% -> ‘안함’ 35.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7>.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27.2% -> ‘2개 이상’ 37.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7>.

〈표 37〉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5,036 (65.0)	2,717 (35.0)	7,753 (100.0)	213.918	.000***
	가끔	1,592 (68.1)	745 (31.9)	2,337 (100.0)		
	자주	3,744 (77.2)	1,104 (22.8)	4,848 (100.0)		
	전체	10,372 (69.4)	4,566 (30.6)	14,938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8,285 (72.8)	3,102 (27.2)	11,387 (100.0)	384.112	.000***
	1개	1,566 (57.8)	1,143 (42.2)	2,709 (100.0)		
	2개 이상	116 (37.1)	197 (62.9)	313 (100.0)		
	전체	9,967 (69.2)	4,442 (30.8)	14,409 (100.0)		

* : p<.05, ** : p<.01, *** : p<.001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 검진응답자의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 ‘있다’ 6.4%(985명), ‘없다’ 93.4%(14,424명)로 나타남<표 38>.

〈표 38〉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	있다	985	6.4
	없다	14,424	93.4
	무응답	36	0.2
	전체	15,445	100.0

- 검진응답자의 현재 자살 계획의 유무에 대해 살펴봤을 때 ‘있다’ 1.3%(199명), ‘없다’ 98.4%(15,197명)로 나타남<표 39>.

〈표 39〉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현재 자살 계획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계획	있다	199	1.3
	없다	15,197	98.4
	무응답	49	0.3
	전체	15,445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문제’가 27.2%(240명), ‘경제적 어려움’ 21.1%(186명), ‘외로움’ 15.5%(1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0>.

〈표 40〉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의 이유	건강문제	240	27.2
	경제적 어려움	186	21.1
	외로움	137	15.5
	가정불화	32	3.6
	친구/동료와의 불화	4	0.5
	기타	62	7.0
	무응답	446	50.6
	전체	1,107	125.5

※ 자살생각이 있는 응답자 985명 중 43명 중복응답

- 검진응답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자살한 사람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4.4%(674명), ‘없다’ 95.3%(14,716명)로 나타남<표 41>.

〈표 41〉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까운 사람의 자살	있다	674	4.4
	없다	14,716	95.3
	무응답	55	0.4
	전체	15,445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3.4% (525명), ‘없다’ 96.0%(14,832명)로 나타남<표 42>.

〈표 42〉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귀하께서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있다	525	3.4
	없다	14,832	96.0
	무응답	88	0.6
	전체	15,445	100.0

-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 중 자살시도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45.1% (237명), ‘2회’ 21.0%(110명), ‘3회 이상’ 11.4%(60명) 순으로 나타남<표 43>.

〈표 43〉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과거에 자살시도한 횟수”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횟수	1회	237	45.1
	2회	110	21.0
	3회 이상	60	11.4
	무응답	118	22.5
	전체	525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 시도했을 때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약물복용’이 39.4% (207명), ‘익수’ 15.0%(79명), ‘살충제’ 14.9%(78명), ‘익수’ 14.5%(76명), 기타 8.8%(4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44>.

〈표 44〉 자살관련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했을 때의 방법”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했을 때의 방법	목매	76	14.5
	살충제	78	14.9
	투신	42	8.0
	가스	14	2.7
	자해	12	2.3
	익수	79	15.0
	약물복용	207	39.4
	기타	46	8.8
	무응답	41	7.8
	전체	595	113.3

※ 자살시도자 중 525명 중 62명 중복응답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자살위험군을 선별할 때 중요시 되는 문항인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와 ‘과거 자살시도의 유무’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7.9%)이 여성(5.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5>.
- 연령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85세 이상’인 경우(7.3%)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45>.

〈표 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323 (7.9)	3,766 (92.1)	4,089 (100.0)	20.517	.000***
	여성	657 (5.9)	10,533 (94.1)	11,190 (100.0)		
	전체	980 (6.4)	14,299 (93.6)	15,279 (100.0)		
연령별	65~69세	145 (6.8)	1,983 (93.2)	2,128 (100.0)	6.857	.144
	70~74세	247 (6.7)	3,447 (93.3)	3,694 (100.0)		
	75~79세	247 (5.9)	3,954 (94.1)	4,201 (100.0)		
	80~84세	181 (5.9)	2,866 (94.1)	3,047 (100.0)		
	85세 이상	151 (7.3)	1,918 (92.7)	2,069 (100.0)		
	전체	971 (6.4)	14,168 (93.6)	15,139 (100.0)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강릉시’(7.0%)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6>.
- 종교유무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6.6%)가 없는 경우(6.1%)보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46>.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일 때(6.7%)가 ‘동거’일 때 (5.8%)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6>.
- 독거기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6.3% -> ‘25년 이상’ 7.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46>.

〈표 4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강릉시	249 (7.0)	3,294 (93.0)	3,543 (100.0)	6.223	.183
	태백시	172 (6.4)	2,506 (93.6)	2,678 (100.0)		
	삼척시	169 (6.0)	2,649 (94.0)	2,818 (100.0)		
	홍천군	171 (5.7)	2,845 (94.3)	3,016 (100.0)		
	고성군	224 (6.7)	3,130 (93.3)	3,354 (100.0)		
	전체	985 (6.4)	14,424 (93.6)	15,409 (100.0)		
종교유무	있다	463 (6.6)	6,567 (93.4)	7,030 (100.0)	1.481	232
	없다	403 (6.1)	6,227 (93.9)	6,630 (100.0)		
	전체	866 (6.3)	12,794 (93.7)	13,660 (100.0)		
독거여부	독거	697 (6.7)	9,747 (93.3)	10,444 (100.0)	4.437	.037*
	동거	283 (5.8)	4,612 (94.2)	4,895 (100.0)		
	전체	980 (6.4)	14,359 (93.6)	15,339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103 (6.3)	1,521 (93.7)	1,624 (100.0)	9.835	.020*
	5~15년 미만	197 (6.0)	3,101 (94.0)	3,298 (100.0)		
	15~25년 미만	161 (6.7)	2,260 (93.3)	2,421 (100.0)		
	25년 이상	221 (7.9)	2,565 (92.1)	2,786 (100.0)		
	전체	682 (6.7)	9,447 (93.3)	10,129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11.3%)가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7>.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경우(6.8%)가 ‘한다’의 경우(4.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7>.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7.7%)가 ‘있다’의 경우(4.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7>.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매우 부유하다’ 0.0% → ‘매우 가난하다’ 17.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47>.

〈표 47〉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255 (11.3)	2,006 (88.7)	2,261 (100.0)	144.417	.000***
	차상위계층	109 (10.2)	957 (89.8)	1,066 (100.0)		
	일반	592 (5.2)	10,894 (94.8)	11,486 (100.0)		
	전체	956 (6.5)	13,857 (93.5)	14,813 (100.0)		
경제활동	한다	152 (4.8)	3,037 (95.2)	3,189 (100.0)	17.321	.000***
	안한다	816 (6.8)	11,201 (93.2)	12,017 (100.0)		
	전체	968 (6.4)	14,238 (93.6)	15,206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350 (4.9)	6,846 (95.1)	7,196 (100.0)	49.542	.000***
	없다	599 (7.7)	7,219 (92.3)	7,818 (100.0)		
	전체	949 (6.3)	14,065 (93.7)	15,014 (100.0)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194 (17.9)	890 (82.1)	1,084 (100.0)	408.867	.000***
	가난하다	468 (8.5)	5,042 (91.5)	5,510 (100.0)		
	보통이다	277 (3.5)	7,746 (96.5)	8,023 (100.0)		
	부유하다	14 (3.3)	413 (96.7)	427 (100.0)		
	매우 부유하다	0 (0.0)	25 (100.0)	25 (100.0)		
	전체	953 (6.3)	14,116 (93.7)	15,069 (100.0)		

* : p<.05, ** : p<.01, *** : p<.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거동상태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6.0% -> ‘불능’ 11.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48>.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한 경우 (6.7%)가 ‘없다’고 한 경우(4.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8>.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4.6% -> ‘4개 이상’ 15.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48>.
- 문제성 음주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문제성 음주정도가 ‘거의 매일’인 경우(8.8%)가 다른 음주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48>.

〈표 48〉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872 (6.0)	13,645 (94.0)	14,517 (100.0)	71.071	.000***
	불편	83 (14.5)	491 (85.5)	574 (100.0)		
	불능	12 (11.7)	91 (88.3)	103 (100.0)		
	전체	967 (6.4)	14,227 (93.6)	15,194 (100.0)		
약 복용	있다	837 (6.7)	11,722 (93.3)	12,559 (100.0)	19.374	.000***
	없다	78 (4.0)	1,850 (96.0)	1,928 (100.0)		
	전체	915 (6.3)	13,572 (93.7)	14,487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221 (4.6)	4,633 (95.4)	4,854 (100.0)	175.847	.000***
	2개	299 (6.0)	4,709 (94.0)	5,008 (100.0)		
	3개	246 (9.4)	2,376 (90.6)	2,622 (100.0)		
	4개 이상	147 (15.0)	834 (85.0)	981 (100.0)		
	전체	913 (6.8)	12,552 (93.2)	13,465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769 (6.2)	11,631 (93.8)	12,400 (100.0)	7.193	.126
	월 1회 미만	48 (6.5)	689 (93.5)	737 (100.0)		
	월 1회	31 (5.4)	548 (94.6)	579 (100.0)		
	주 1회	69 (7.2)	890 (92.8)	959 (100.0)		
	거의 매일	41 (8.8)	427 (91.2)	468 (100.0)		
	전체	958 (6.3)	14,185 (93.7)	15,143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가족유무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다’의 경우(10.0%)가 ‘있다’의 경우(6.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49>.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4.7% → ‘없음’ 13.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49>.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4.7% → ‘없음’ 9.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49>.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5.0% → ‘없음’ 14.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49>.

〈표 49〉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927 (6.3)	13,678 (93.7)	14,605 (100.0)	9.741	.002***
	없다	45 (10.0)	404 (90.0)	449 (100.0)		
	전체	972 (6.5)	14,082 (93.5)	15,054 (100.0)		
가족연락	없음	137 (13.5)	879 (86.5)	1,016 (100.0)	167.412	.000***
	연 1~2회	110 (10.6)	927 (89.4)	1,037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연락	분기 1~2회	95 (8.6)	1,005 (91.4)	1,100 (100.0)		
	월 1~2회	212 (6.8)	2,923 (93.2)	3,135 (100.0)		
	주 1회 이상	423 (4.7)	8,532 (95.3)	8,955 (100.0)		
	전체	977 (6.4)	14,266 (93.6)	15,243 (100.0)		
친구연락	없음	408 (9.1)	4,074 (90.9)	4,482 (100.0)	102.215	.000***
	연 1~2회	28 (10.1)	250 (89.9)	278 (100.0)		
	분기 1~2회	42 (7.8)	498 (92.2)	540 (100.0)		
	월 1~2회	120 (6.2)	1,826 (93.8)	1,946 (100.0)		
	주 1회 이상	367 (4.7)	7,491 (95.3)	7,858 (100.0)		
	전체	965 (6.4)	14,139 (93.6)	15,104 (100.0)		
이웃연락	없음	182 (14.0)	1,115 (86.0)	1,297 (100.0)	197.582	.000***
	연 1~2회	18 (8.9)	184 (91.1)	202 (100.0)		
	분기 1~2회	37 (12.6)	257 (87.4)	294 (100.0)		
	월 1~2회	144 (8.6)	1,530 (91.4)	1,674 (100.0)		
	주 1회 이상	583 (5.0)	11,027 (95.0)	11,610 (100.0)		
	전체	964 (6.4)	14,113 (93.6)	15,07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4.1% → ‘안함’ 7.8%)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50>.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5.3% → ‘2개 이상’ 15.0%)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50>.

〈표 50〉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609 (7.8)	7,168 (92.2)	7,777 (100.0)	69.559	.000***
	가끔	145 (6.2)	2,203 (93.8)	2,348 (100.0)		
	자주	199 (4.1)	4,645 (95.9)	4,844 (100.0)		
	전체	953 (6.4)	14,016 (93.6)	14,969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601 (5.3)	10,800 (94.7)	11,401 (100.0)	104.268	.000***
	1개	254 (9.4)	2,462 (90.6)	2,716 (100.0)		
	2개 이상	47 (15.0)	266 (85.0)	313 (100.0)		
	전체	902 (6.3)	13,528 (93.7)	14,430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3.8%)이 여성(3.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51>.
- 연령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85세 이상’ 1.8% → ‘65~69세’ 5.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51>.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태백시’(5.8%)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1>.

〈표 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154 (3.8)	3,919 (96.2)	4,073 (100.0)	2.091	.158
	여성	368 (3.3)	10,786 (96.7)	11,154 (100.0)		
	전체	522 (3.4)	14,705 (96.6)	15,227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연령별	65~69세	121 (5.7)	1,994 (94.3)	2,115 (100.0)	61.110	.000***
	70~74세	149 (4.0)	3,540 (96.0)	3,689 (100.0)		
	75~79세	134 (3.2)	4,052 (96.8)	4,186 (100.0)		
	80~84세	77 (2.5)	2,962 (97.5)	3,039 (100.0)		
	85세 이상	38 (1.8)	2,021 (98.2)	2,059 (100.0)		
	전체	519 (3.4)	14,569 (96.6)	15,088 (100.0)		
거주지역	강릉시	143 (4.1)	3,377 (95.9)	3,520 (100.0)	80.298	.000***
	태백시	154 (5.8)	2,517 (94.2)	2,671 (100.0)		
	삼척시	81 (2.9)	2,733 (97.1)	2,814 (100.0)		
	홍천군	53 (1.8)	2,961 (98.2)	3,014 (100.0)		
	고성군	94 (2.8)	3,244 (97.2)	3,338 (100.0)		
	전체	525 (3.4)	14,832 (96.6)	15,35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종교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3.5%)가 있는 경우(3.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52>.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경우(4.0%)가 동거인 경우(2.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2>.
- 독거기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2.8% -> ‘25년 이상’ 5.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52>.

〈표 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227 (3.2)	6,786 (96.8)	7,013 (100.0)	3.354	.070
	없다	252 (3.8)	6,353 (96.2)	6,605 (100.0)		
	전체	479 (3.5)	13,139 (96.5)	13,618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독거여부	독거	420 (4.0)	10,000 (96.0)	10,420 (100.0)	35.994	.000***
	동거	104 (2.1)	4,765 (97.9)	4,869 (100.0)		
	전체	524 (3.4)	14,765 (96.6)	15,289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46 (2.8)	1,577 (97.2)	1,623 (100.0)	23.027	.000***
	5~15년 미만	115 (3.5)	3,174 (96.5)	3,289 (100.0)		
	15~25년 미만	94 (3.9)	2,329 (96.1)	2,423 (100.0)		
	25년 이상	151 (5.4)	2,621 (94.6)	2,772 (100.0)		
	전체	406 (4.0)	9,701 (96.0)	10,10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6.2%)가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53>.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한다’의 경우(3.6%)가 ‘안한다’의 경우(3.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53>.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4.0%)가 ‘있다’의 경우(2.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3>.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매우 부유하다’ 0.0% → ‘매우 가난하다’ 8.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53>.

〈표 53〉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140 (6.2)	2,111 (93.8)	2,251 (100.0)	94.910	.000***
	차상위계층	65 (6.1)	998 (93.9)	1,063 (100.0)		
	일반	306 (2.7)	11,141 (97.3)	11,447 (100.0)		
	전체	511 (3.5)	14,250 (96.5)	14,761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제활동	한다	115 (3.6)	3,059 (96.4)	3,174 (100.0)	0.618	.442
	안한다	400 (3.3)	11,580 (96.7)	11,980 (100.0)		
	전체	515 (3.4)	14,639 (96.6)	15,154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197 (2.7)	6,981 (97.3)	7,178 (100.0)	19.137	.000***
	없다	315 (4.0)	7,471 (96.0)	7,786 (100.0)		
	전체	512 (3.4)	14,452 (96.6)	14,964 (100.0)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89 (8.3)	989 (91.7)	1,078 (100.0)	140.112	.000***
	가난하다	245 (4.5)	5,252 (95.5)	5,497 (100.0)		
	보통이다	169 (2.1)	7,824 (97.9)	7,993 (100.0)		
	부유하다	8 (1.9)	418 (98.1)	426 (100.0)		
	매우 부유하다	0 (0.0)	25 (100.0)	25 (100.0)		
	전체	511 (3.4)	14,508 (96.6)	15,019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거동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불능’인 경우 (3.5%)가 다른 거동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54>.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있다’의 경우(3.5%)가 ‘없다’의 경우(2.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54>.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증가(‘1개’ 2.4% → ‘4개 이상’ 7.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54>.
- 문제성 음주정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음주정도가 ‘주 1회’인 경우(4.2%)가 다른 음주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54>.

〈표 54〉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497 (3.4)	13,972 (96.6)	14,469 (100.0)	1.890	.389
	불편	20 (3.5)	552 (96.5)	572 (100.0)		
	불능	1 (1.0)	102 (99.0)	103 (100.0)		
	전체	518 (3.4)	14,626 (96.6)	15,144 (100.0)		
약 복용	있다	443 (3.5)	12,070 (96.5)	12,513 (100.0)	3.533	.063
	없다	52 (2.7)	1,872 (97.3)	1,924 (100.0)		
	전체	495 (3.4)	13,942 (96.6)	14,437 (100.0)		
알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116 (2.4)	4,720 (97.6)	4,836 (100.0)	85.878	.000***
	2개	153 (3.1)	4,834 (96.9)	4,987 (100.0)		
	3개	132 (5.0)	2,488 (95.0)	2,620 (100.0)		
	4개 이상	74 (7.6)	900 (92.4)	974 (100.0)		
	전체	475 (3.5)	12,942 (96.5)	13,417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405 (3.3)	11,953 (96.7)	12,358 (100.0)	2.793	.593
	월 1회 미만	28 (3.8)	707 (96.2)	735 (100.0)		
	월 1회	18 (3.1)	556 (96.9)	574 (100.0)		
	주 1회	40 (4.2)	917 (95.8)	957 (100.0)		
	거의 매일	16 (3.4)	452 (96.6)	468 (100.0)		
	전체	507 (3.4)	14,585 (96.6)	15,092 (100.0)		

* : p<.05, ** : p<.01, *** : p<.001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 가족유무에 따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가족이 없는 경우(8.9%)가 있는 경우(3.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5>.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4% -> ‘없음’ 8.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55>.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3.1% -> ‘없음’ 3.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55>.
- 이웃과의 연락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9% -> ‘없음’ 6.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55>.

〈표 55〉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476 (3.3)	14,081 (96.7)	14,557 (100.0)	41.911	.000***
	없다	40 (8.9)	408 (91.1)	448 (100.0)		
	전체	516 (3.4)	14,489 (96.6)	15,005 (100.0)		
가족연락	없음	83 (8.2)	928 (91.8)	1,011 (100.0)	115.001	.000***
	연 1~2회	59 (5.7)	975 (94.3)	1,034 (100.0)		
	분기 1~2회	43 (3.9)	1,052 (96.1)	1,095 (100.0)		
	월 1~2회	115 (3.7)	3,011 (96.3)	3,126 (100.0)		
	주 1회 이상	217 (2.4)	8,708 (97.6)	8,925 (100.0)		
	전체	517 (3.4)	14,674 (96.6)	15,191 (100.0)		
친구연락	없음	174 (3.9)	4,296 (96.1)	4,470 (100.0)	20.228	.000***
	연 1~2회	20 (7.2)	256 (92.8)	276 (100.0)		
	분기 1~2회	11 (2.0)	527 (98.0)	538 (100.0)		
	월 1~2회	64 (3.3)	1,880 (96.7)	1,944 (100.0)		
	주 1회 이상	246 (3.1)	7,578 (96.9)	7,824 (100.0)		
	전체	515 (3.4)	14,537 (96.6)	15,052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이웃연락	없음	83 (6.4)	1,204 (93.6)	1,287 (100.0)	50.946	.000***
	연 1~2회	8 (4.0)	194 (96.0)	202 (100.0)		
	분기 1~2회	17 (5.8)	274 (94.2)	291 (100.0)		
	월 1~2회	67 (4.0)	1,603 (96.0)	1,670 (100.0)		
	주 1회 이상	340 (2.9)	11,237 (97.1)	11,577 (100.0)		
	전체	515 (3.4)	14,512 (96.6)	15,02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2.0% -> ‘안함’ 4.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56>.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2.8% -> ‘2개 이상’ 8.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56>.

〈표 5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342 (4.4)	7,409 (95.6)	7,751 (100.0)	52.331	.000***
	가끔	74 (3.2)	2,266 (96.8)	2,340 (100.0)		
	자주	97 (2.0)	4,729 (98.0)	4,826 (100.0)		
	전체	513 (3.4)	14,404 (96.6)	14,917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320 (2.8)	11,044 (97.2)	11,364 (100.0)	71.043	.000***
	1개	150 (5.5)	2,561 (94.5)	2,711 (100.0)		
	2개 이상	25 (8.0)	287 (92.0)	312 (100.0)		
	전체	495 (3.4)	13,892 (96.6)	14,38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3 강원도 5개 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1)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종교유무, 앓고 있는 질병의 수, 친구와의 연락빈도,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우울군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57>.
- 연령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65~69세를 기준으로 75~79세인 경우가 1.268배, 80~84세인 경우가 1.378배, 85세 이상인 경우가 1.798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종교유무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0.841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1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2개인 경우가 1.250배, 3개인 경우가 1.660배, 4개 이상인 경우가 2.443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없음인 경우가 주 1회 이상인 경우보다 1.617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주 1회 이상을 기준으로 없음인 경우가 1.687배, 분기 1~2회인 경우 1.524배, 월 1~2회인 경우 1.269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57〉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¹⁾	
				χ^2	p
연령별		.000		9.531	.300
연령별(1) : 70~74세	.051	.530	1.053		
연령별(2) : 75~79세	.238	.002	1.268		
연령별(3) : 80~84세	.321	.000	1.378		
연령별(4) : 85세 이상	.587	.000	1.798		
종교유무(1) : 없다	-.173	.000	.841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223	.000	1.250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507	.000	1.660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893	.000	2.443		
친구와의 연락빈도		.000			
친구와의 연락빈도(1) : 없음	.480	.000	1.617		
친구와의 연락빈도(2) : 연 1~2회	.077	.644	1.081		
친구와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031	.813	1.032		
친구와의 연락빈도(4) : 월 1~2회	-.006	.940	.994		
이웃과의 연락빈도		.000			
이웃과의 연락빈도(1) : 없음	.523	.000	1.687		
이웃과의 연락빈도(2) : 연 1~2회	.187	.365	1.206		
이웃과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422	.010	1.524		
이웃과의 연락빈도(4) : 월 1~2회	.238	.002	1.269		

1) 모형의 적합도 검정 : 유의확률의 값이 > 0.05 여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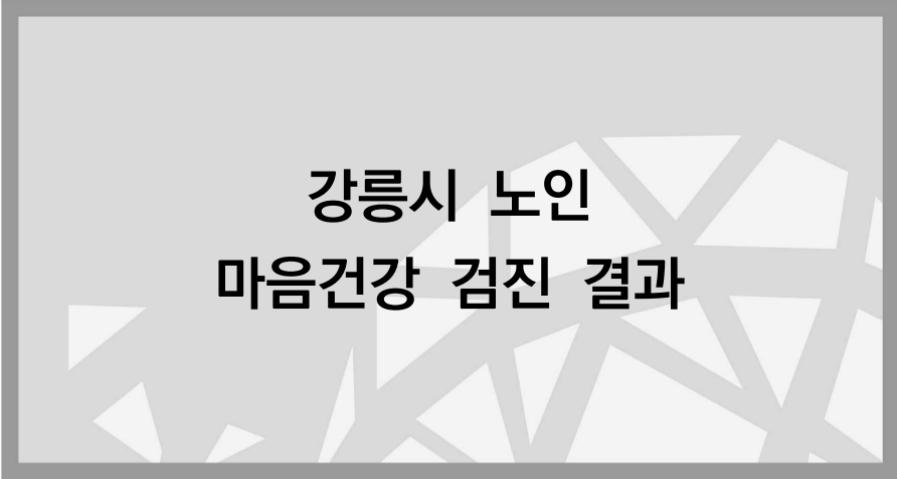
2)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별,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자살 고위험군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58>.
- 성별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상태가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보다 0.348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65~69세를 기준으로 75~79세인 경우가 0.608배, 80~84세인 경우 0.491배, 85세 이상인 경우가 0.530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1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3개인 경우가 1.496배, 4개 이상인 경우 2.304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58〉 강원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χ^2	p
성별(1) : 여성	-1.057	.000	.348	9.562	.215
연령별		.000			
연령별(1) : 70~74세	-.178	.200	.837		
연령별(2) : 75~79세	-.498	.000	.608		
연령별(3) : 80~84세	-.711	.000	.491		
연령별(4) : 85세 이상	-.635	.000	.53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155	.161	1.168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403	.001	1.496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835	.000	2.304		

*: p<.05, **: p<.01, ***: p<.001



**강릉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강릉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 검진개요

1 | 검진 범위

- 지역적 범위 : 강릉시
- 대상자 범위 : 65세 이상 노인
- 내용적 범위 :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 우울증 평가, 자살위험성

2 | 검진 대상 및 방법

1) 검진 대상

- 강릉시 성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지별 65세이상 노인 인구수와 검진응답자수는 아래와 같음.

〈표 59〉 강릉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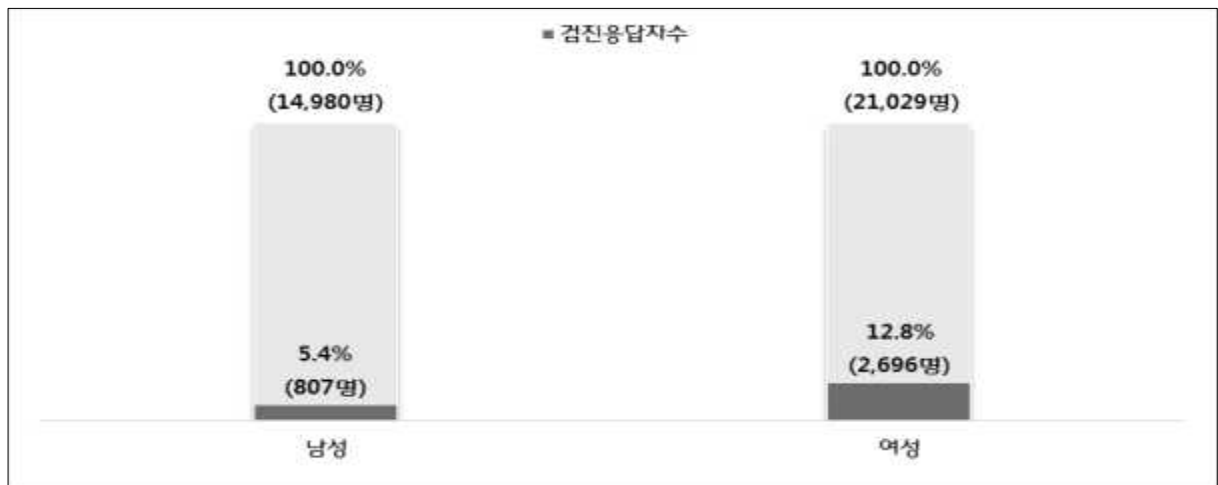
구분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명)	검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성별	남성	14,980	807	5.4	
	여성	21,029	2,696	12.8	
	무응답	-	41	-	
연령별	65 - 69세	10,785	313	2.9	
	70 - 74세	10,089	710	7.0	
	75 - 79세	7,656	936	12.2	
	80 - 84세	4,134	837	20.2	
	85세 이상	3,345	631	18.9	
	무응답	-	117	-	
거주지역	주문진읍	4,404	605	13.7	
	성산면	975	65	6.7	
	왕산면	573	63	11.0	
	구정면	1,028	89	8.7	
	강동면	1,506	314	20.8	
	옥계면	1,170	93	7.9	
	사천면	1,109	27	2.4	
	연곡면	1,446	73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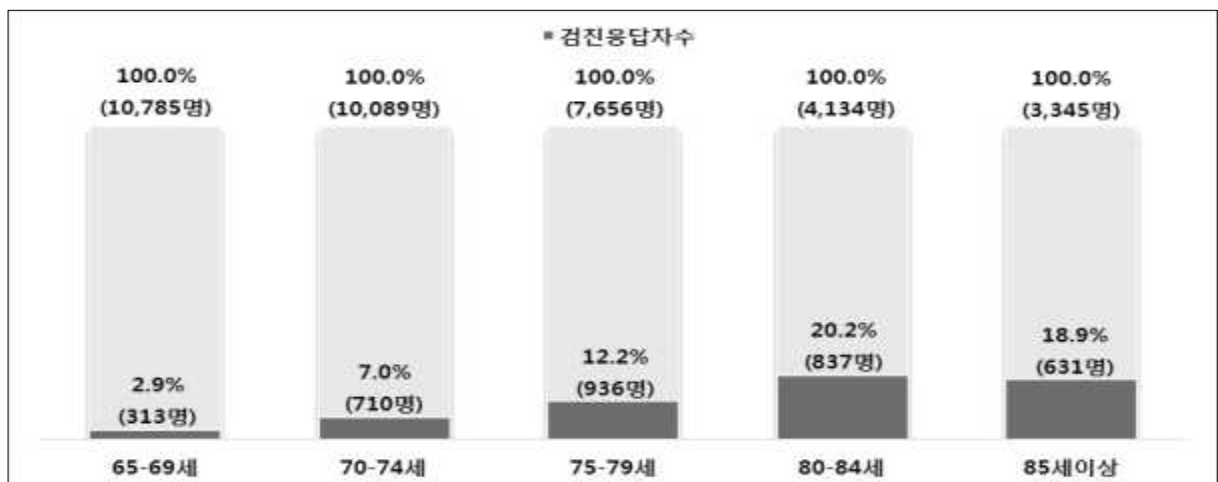
구분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명)	검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거주지역	홍제동	1,470	211	14.4	
	중앙동	1,444	169	11.7	
	옥천동	1,000	142	14.2	
	교동	4,798	234	4.9	
	포남동	4,006	412	10.3	
	초당동	698	69	9.9	
	송정동	959	25	2.6	
	내곡동	1,509	124	8.2	
	강남동	3,773	362	9.6	
	성덕동	3,097	355	11.5	
	경포동	1,044	71	6.8	
	무응답	-	41	-	
합계		36,009	3,544	9.8	

※ 출처 : 통계청(2014) - 2014년 12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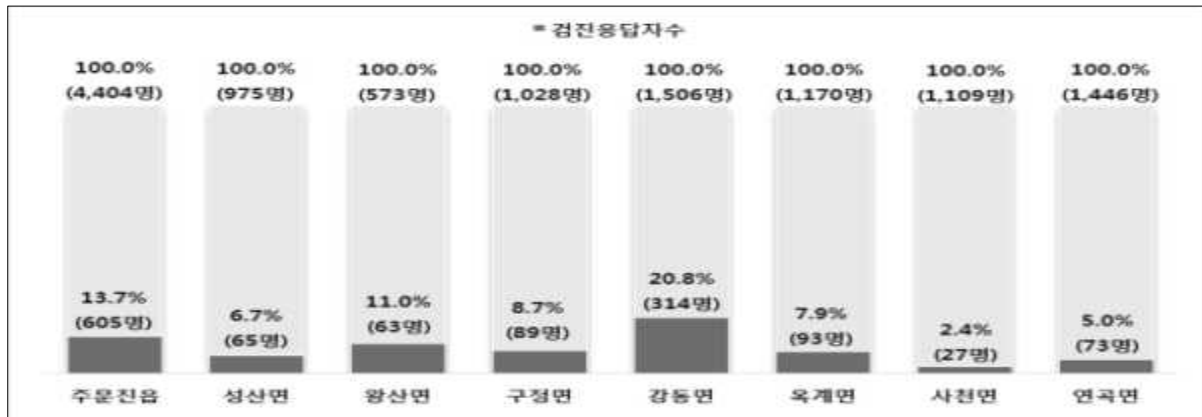
〈그림 11〉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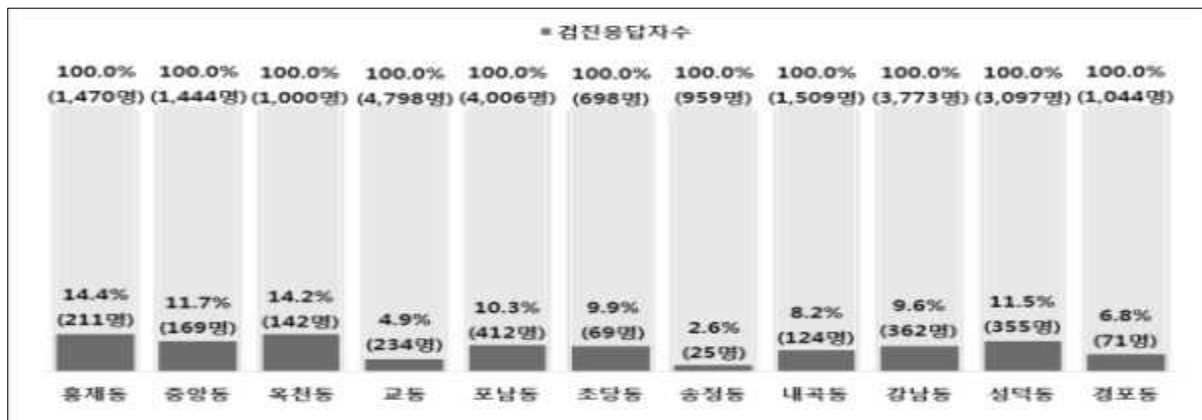
〈그림 12〉 강릉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연령별



〈그림 13〉 강릉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거주지역(읍,면)



〈그림 14〉 강릉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거주지역(동)



2) 검진방법

- 검진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검진요원들이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검진 실시

3 | 검진 내용

- 검진의 주요 내용은 특성에 따른 응답자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우울증평가(SGDS), 자살 위험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60〉 주요 검진 내용

검진 분야	검진내용
①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거주지, 종교, 독거, 주거유형
② 경제적 특성	사회보장, 경제활동, 경제적 지원, 주관적 경제상태
③ 보건학적 특성	거동상태, 약 복용, 질병, 음주여부
④ 사회관계적 특성	가족여부, 가족과의 연락, 친구와의 연락, 이웃과의 연락,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⑤ 우울증평가(SGDS)	현재 생활 만족, 기분, 불안, 기억력, 기력 등
⑥ 자살위험성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한 지인의 유무, 자살시도력

4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검수 및 확인

- 설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 자료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유효 자료에 대해 통계처리 함.

2) 자료 처리

- 검진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평균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 빈도분석을 제외한 그 외의 통계분석은 각 문항의 무응답을 결측값으로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문항별 응답자 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5 | 응답자 현황

1) 일반적 특성

- 성별**
 -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마음건강검진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76.1%(2,696명), ‘남성’ 22.8%(807명)로 나타남<표 61>.

〈표 61〉 응답자 성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807	22.8
	여성	2,696	76.1
	무응답	41	1.1
	전체	3,544	100.0

- 연령별**
 - 검진응답자의 연령별을 살펴보면 ‘75~79세’가 26.4%(936명), ‘80~84세’ 23.6%(837명), ‘70~74세’ 20.1%(710명), ‘85세 이상’ 17.8%(631명), ‘65~69세’ 8.8%(31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78.3±6.6세’로 나타남<표 62>.

〈표 62〉 응답자 연령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연령별	65~69세	313	8.8
	70~74세	710	20.1
	75~79세	936	26.4
	80~84세	837	23.6
	85세 이상	631	17.8
	무응답	117	3.3
	전체	3,544	100.0

● 거주지역

- 검진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주문진읍’ 17.1%(605명), ‘포남동’ 11.6%(412명), ‘강남동’ 10.2%(362명), ‘성덕동’ 10.0%(355명), ‘강동면’ 8.9%(3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63>.

〈표 63〉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주지역	주문진읍	605	17.1
	성산면	65	1.8
	왕산면	63	1.8
	구정면	89	2.5
	강동면	314	8.9
	옥계면	93	2.6
	사천면	27	0.8
	연곡면	73	2.1
	홍제동	211	6.0
	중앙동	169	4.8
	옥천동	142	4.0
	교동 ¹⁾	234	6.6
	포남동 ²⁾	412	11.6
	초당동	69	1.9
	송정동	25	0.7
	내곡동	124	3.5
	강남동	362	10.2
	성덕동	355	10.0
	경포동	71	2.0
	무응답	41	1.2
	합계	3,544	100.0

1) 교동 : 교1동, 교2동 / 2) 포남동 : 포남1동, 포남2동

● 종교

- 검진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34.5%(1,222명) ‘불교’ 29.5%(1,047명), ‘기독교’ 16.9%(600명), ‘천주교’ 4.4%(155명), ‘기타’ 0.9%(31명) 순으로 나타남<표 64>.

〈표 64〉 응답자 종교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종교	기독교	600	16.9
	불교	1,047	29.5
	천주교	155	4.4
	무교	1,222	34.5
	기타	31	0.9
	무응답	489	13.8
	합계	3,544	100.0

● 주거유형

- 검진응답자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자가’ 64.9%(2,301명), ‘월세’ 19.2%(681명), ‘기타’ 8.2%(292명), ‘전세’ 5.4%(192명) 순으로 나타남<표 65>.

〈표 65〉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유형	자가	2,301	64.9
	전세	192	5.4
	월세	681	19.2
	기타	292	8.3
	무응답	78	2.2
	합계	3,544	100.0

● 독거여부

- 검진응답자의 독거여부를 살펴보면 ‘독거’ 73.8%(2,615명), ‘동거’ 25.7%(910명)로 나타남<표 66>.

〈표 66〉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여부	독거	2,615	73.8
	동거	910	25.7
	무응답	19	0.5
	합계	3,544	100.0

● 독거기간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기간을 살펴보면 ‘5~15년 미만’ 32.2%(842명), ‘25년 이상’ 28.3%(741명), ‘15~25년 미만’ 23.4%(613명), ‘5년 미만’ 13.8%(36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독거기간은 ‘18.0±13.4년’으로 나타남<표 67>.

〈표 67〉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기간	5년 미만	360	13.8
	5년~15년 미만	842	32.2
	15년~25년 미만	613	23.4
	25년 이상	741	28.3
	무응답	59	2.3
	전체	2,615	100.0

● 독거사유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사유를 살펴보면 ‘사별’ 84.8%(2,217명), ‘이혼’ 6.2%(163명), ‘별거’ 3.5%(91명), ‘기타’ 2.5%(65명), ‘미혼’ 1.3%(35명) 순으로 나타남<표 68>.

〈표 68〉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사유	사별	2,217	84.8
	이혼	163	6.2
	미혼	35	1.3
	별거	91	3.5
	기타	65	2.5
	무응답	44	1.7
	합계	2,615	100.0

2) 경제적 특성

● 사회보장

- 검진응답자의 사회보장을 살펴보면 ‘일반’ 73.4%(2,601명), ‘기초생활수급자’ 14.2%(504명), ‘차상위 계층’ 9.2%(326명)순으로 나타남<표 69>.

〈표 69〉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504	14.2
	차상위계층	326	9.2
	일반	2,601	73.4
	무응답	113	3.2
	합계	3,544	100.0

● 경제활동

- 검진응답자의 경제활동여부를 살펴보면 ‘안한다’ 88.6%(3,142명), ‘한다’ 9.3%(329명)로 나타남<표 70>.

〈표 70〉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활동	한다	329	9.3
	안한다	3,142	88.6
	무응답	73	2.1
	합계	3,544	100.0

● 경제적 지원(1) : 경제적 지원여부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지원여부를 살펴보면 ‘지원처가 없다’ 56.4%(2,000명), ‘지원처가 있다’ 39.6%(1,402명)로 나타남<표 71>.

〈표 71〉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1)	지원처가 있다	1,402	39.6
	지원처가 없다	2,000	56.4
	무응답	142	4.0
	합계	3,544	100.0

● 경제적 지원(2) : 정기적 지원 & 비정기적 지원

-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검진응답자를 살펴보면 ‘비정기적 지원’ 54.4%(763명), ‘정기적 지원’ 24.3%(340명)로 나타남<표 72>.

〈표 72〉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2)	정기적 지원	340	24.3
	비정기적 지원	763	54.4
	무응답	299	21.3
	합계	1,402	100.0

● 주관적 경제상태

- 검진응답자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보통’ 51.4%(1,823명), ‘가난하다’ 34.6%(1,228명), ‘매우 가난하다’ 6.6%(235명), ‘부유하다’ 4.1%(144명), ‘매우 부유하다’ 0.5%(16명) 순으로 나타남 <표 73>.

〈표 73〉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235	6.6
	가난하다	1,228	34.6
	보통	1,823	51.4
	부유하다	144	4.1
	매우 부유하다	16	0.5
	무응답	98	2.8
	합계	3,544	100.0

3)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검진응답자의 거동상태를 살펴보면 ‘정상’ 94.0%(3,330명), ‘불편’ 3.3%(118명), ‘불능’ 0.2%(6명)로 나타남<표 74>.

〈표 74〉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동상태	정상 ¹⁾	3,330	94.0
	불편 ²⁾	118	3.3
	불능 ³⁾	6	0.2
	무응답	90	2.5
	합계	3,544	100.0

1) 정상 : 도움 없이 혼자 방을 나올 수 있다.

2) 불편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이 있어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3) 불능 : 들 것에 실리거나 업혀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 3개월 이상 약 복용

- 검진응답자의 ‘3개월 이상 약 복용’ 여부를 살펴보면 ‘있음’ 75.7%(2,682명), ‘없음’ 10.3% (366명)로 나타남<표 75>.

〈표 75〉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3개월 이상 약 복용	있음	2,682	75.7
	없음	366	10.3
	무응답	496	14.0
	합계	3,544	100.0

● 앓고 있는 질병

- 검진응답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살펴보면 ‘고혈압’ 69.6%(2,215명), ‘만성통증’ 48.9%(1,554명), ‘기타’ 38.2%(1,216명), ‘당뇨병’ 23.2%(738명), ‘심장질환’ 12.6%(40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76>.

〈표 76〉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앓고 있는 질병	암	94	3.0
	만성통증	1,554	48.9
	뇌혈관질환	214	6.7
	고혈압	2,215	69.6
	당뇨병	738	23.2
	심장질환	401	12.6
	간질환	22	0.7
	신장질환	50	1.6
	호흡기질환	158	5.0
	우울증	90	2.8
	기타	1,216	38.2
	합계	6,752	212.3

※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3,181명중 2,217명이 중복응답

● 문제성 음주 : 소주 1병 or 맥주 4병 이상

- 검진응답자의 문제성 음주 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79.9%(2,832명), ‘주 1회’ 5.7%(201명), ‘월 1회 미만’ 4.9%(175명), ‘월 1회’ 4.3%(154명), ‘거의 매일’ 2.0%(70명) 순으로 나타남 <표 77>.

〈표 77〉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2,832	79.9
	월 1회 미만	175	4.9
	월 1회	154	4.3
	주 1회	201	5.7
	거의 매일	70	2.0
	무응답	112	3.2
	합계	3,544	100.0

4)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검진응답자의 가족여부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87.2%(3,089명),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54.7%(1,937명), ‘배우자’ 14.8%(524명), ‘없음’ 4.4%(157명), ‘기타’ 0.4%(13명) 순으로 나타남<표 78>.

〈표 78〉 응답자 가족여부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여부	없음	157	4.4
	배우자	524	14.8
	자녀	3,089	87.2
	형제/자매	1,937	54.7
	기타	13	0.4
	무응답	104	2.9
	합계	5,824	164.3

※ 검진응답자 중 1,979명이 다중응답

● 가족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42.8%(1,516명), ‘월 1~2회’ 25.6%(908명), ‘분기 1~2회’ 12.4%(441명), ‘없음’ 9.2%(325명), ‘연 1~2회’ 8.1%(287명) 순으로 나타남<표 79>.

〈표 79〉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연락	없음	325	9.2
	연 1~2회	287	8.1
	분기 1~2회	441	12.4
	월 1~2회	908	25.6
	주 1회 이상	1,516	42.8
	무응답	67	1.9
	합계	3,544	100.0

● 친구연락

- 검진응답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33.0%(1,169명), ‘없음’ 31.6%(1,121명), ‘월 1~2회’ 23.7%(841명), ‘분기 1~2회’ 6.8%(240명) ‘연 1~2회’ 2.8%(99명) 순으로 나타남<표 80>.

〈표 80〉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친구연락	없음	1,121	31.6
	연 1~2회	99	2.8
	분기 1~2회	240	6.8
	월 1~2회	841	23.7
	주 1회 이상	1,169	33.0
	무응답	74	2.1
	합계	3,544	100.0

● 이웃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55.7%(1,972명), ‘월 1~2회’ 22.7%(804명), ‘없음’ 11.9%(421명), ‘분기 1~2회’ 4.4%(157명), ‘연 1~2회’ 3.3%(118명) 순으로 나타남<표 81>.

〈표 81〉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이웃연락	없음	421	11.9
	연 1~2회	118	3.3
	분기 1~2회	157	4.4
	월 1~2회	804	22.7
	주 1회 이상	1,972	55.7
	무응답	72	2.0
	합계	3,544	100.0

● 경로당 이용

- 검진응답자의 경로당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안함’ 53.8%(1,905명), ‘자주(월 3회 이하)’ 22.5%(797명), ‘가끔(월 2회 이하)’ 20.5%(725명) 순으로 나타남<표 82>.

〈표 82〉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로당 이용	안함	1,905	53.8
	가끔(월 2회 이하)	725	20.5
	자주(월 3회 이상)	797	22.5
	무응답	117	3.2
	합계	3,544	100.0

● 사회서비스 이용(1) : 사회서비스 이용여부

- 검진응답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이용 안함’ 60.8%(2,155명), ‘이용’ 30.8%(1,090명)로 나타남<표 83>.

〈표 83〉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1,090	30.8
	이용안함	2,155	60.8
	무응답	299	8.4
	합계	3,544	100.0

● 사회서비스 이용(2) :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종류

- 검진응답자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서서비스’ 66.7%(727명), ‘가사서비스’ 14.9%(162명), ‘기타’ 8.3%(90명), ‘간병서비스’ 3.0%(33명), ‘결연서비스’ 1.1%(12명) 순으로 나타남<표 84>.

〈표 84〉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2)	가사서비스	162	14.9
	정서서비스	727	66.7
	결연서비스	12	1.1
	간병서비스	33	3.0
	기타	90	8.3
	무응답	117	10.7
	합계	1,141	104.7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검진응답자 중 40명이 다중응답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1 | 우울점수(SGDS)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또는 로버스트검정(welch)을 실시하였고 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5.50)이 ‘남성’(5.3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85>, <그림 15>.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4.91 -> ‘85세 이상’ 6.2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85>, <그림 15>.
 - 연령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80~84세’, ‘8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 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구정면’(12.85)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5>, <그림 16>.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구정면’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성덕동’이 ‘주문진읍’, ‘성산면’, ‘왕산면’, ‘강동면’, ‘홍제동’, ‘교동’, ‘포남동’, ‘초당동’, ‘강남동’, ‘경포동’보다, ‘주문진읍’과 ‘옥천동’은 ‘강동면’, ‘포남동’, ‘초당동’, ‘강남동’, ‘경포동’보다, 그리고 ‘포남동’이 ‘강남동’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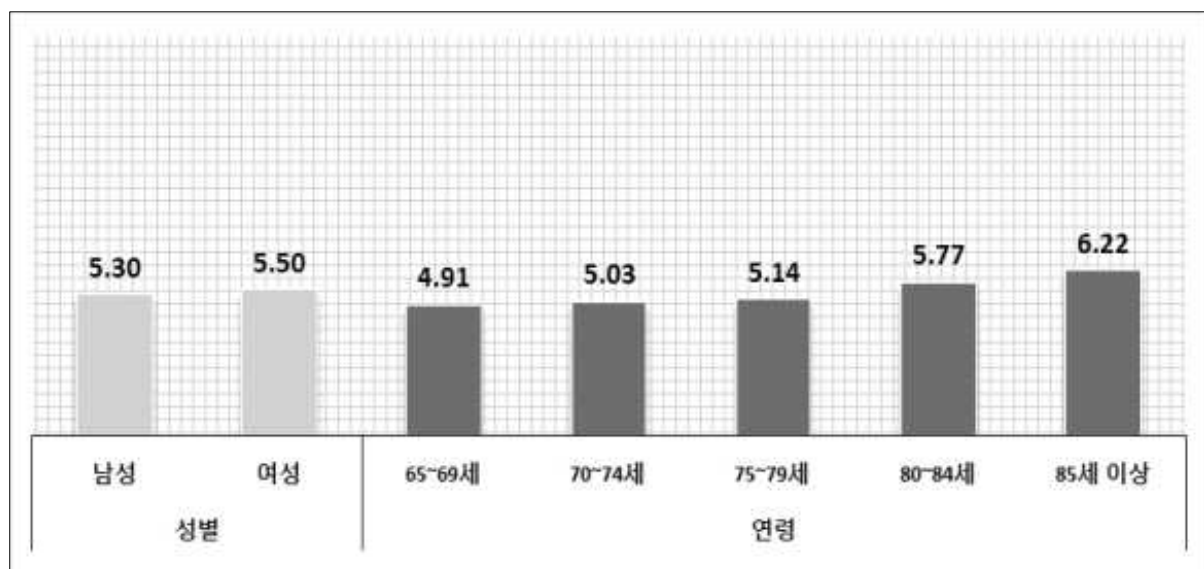
〈표 85〉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781	5.30	4.09	1.564	-
	여성	2,599	5.50	3.90		
	전체	3,380	5.45	3.95		
연령별	65~69세(A)	307	4.91	4.39	(12.252)***	A,B,C < D,E
	70~74세(B)	677	5.03	4.06		
	75~79세(C)	902	5.14	3.75		
	80~84세(D)	811	5.77	3.93		
	85세 이상(E)	603	6.22	3.72		
	전체	3,300	5.45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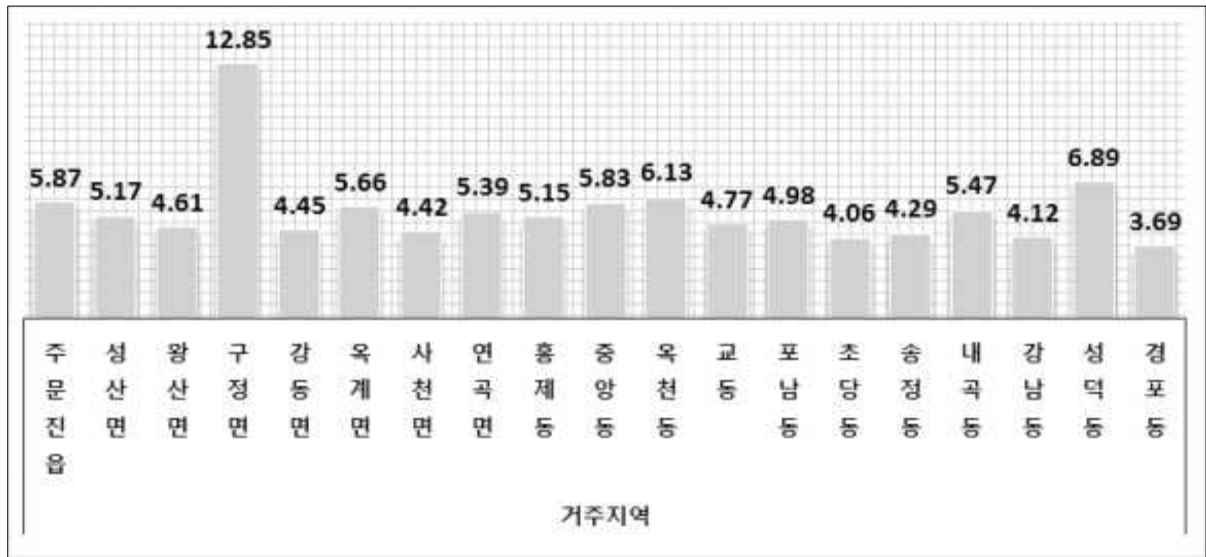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거주 지역	주문진읍(A)	588	5.87	4.08	28.953***	(A~C), (E~S) < D
	성산면(B)	63	5.17	3.04		
	왕산면(C)	56	4.61	3.64		
	구정면(D)	84	12.85	2.35		
	강동면(E)	297	4.45	4.20		
	옥계면(F)	92	5.66	2.98		(A~C),E,I, (L~M), < R Q,S
	사천면(G)	26	4.42	3.82		
	연곡면(H)	72	5.39	3.40		
	홍제동(I)	210	5.15	3.90		
	중앙동(J)	162	5.83	4.08		
	옥천동(K)	135	6.13	3.87		E,N,M, Q,S < A,K
	교동(L)	229	4.77	3.85		
	포남동(N)	407	4.98	3.16		
	초당동(M)	62	4.06	3.00		
	송정동(O)	21	4.29	3.10		
	내곡동(P)	115	5.47	3.84		Q < N
	강남동(Q)	347	4.12	2.71		
	성덕동(R)	339	6.89	4.13		
	경포동(S)	67	3.69	3.05		
	전체	3,372	5.46	3.94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5〉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 성별/연령별



〈그림 1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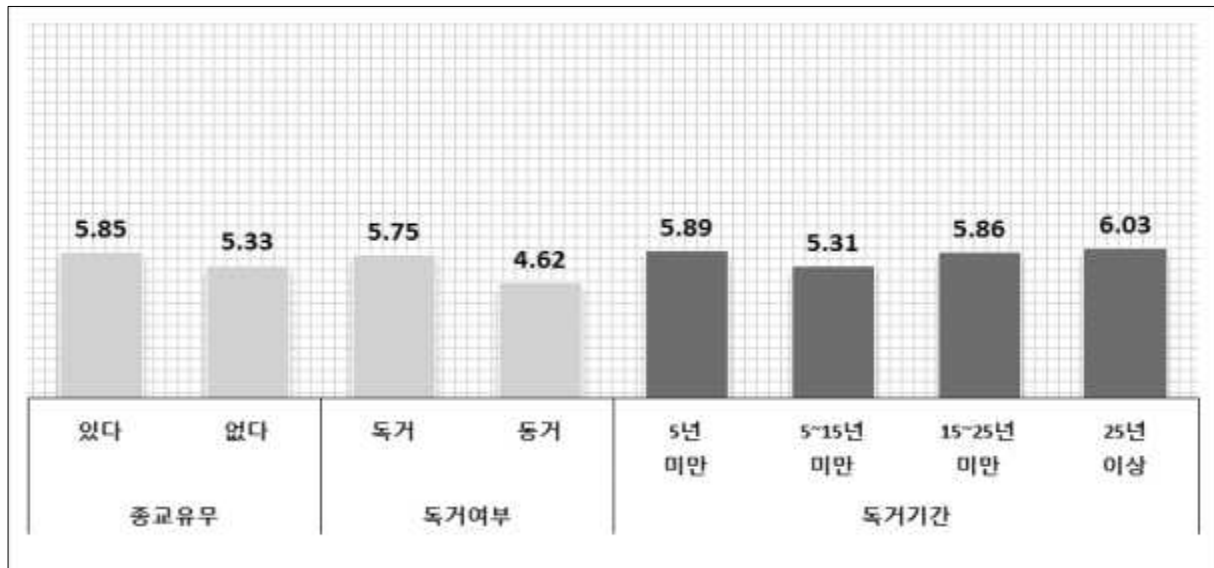
- 종교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5.85)가 없는 경우(5.3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6>, <그림 17>.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독거’(5.75)가 ‘동거’(4.6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6>, <그림 17>.
- 독거인 검진응답자 중 독거기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5.89 → ‘25년 이상’ 6.0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86>, <그림 17>.
- 독거기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독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25년 이상’이 ‘5~15년 미만’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종교유무	있다	1,173	5.85	4.07	12.056**	-
	없다	1,766	5.33	3.95		
	전체	2,939	5.54	4.01		
독거 여부	독거	2,512	5.75	3.92	54.643***	-
	동거	881	4.62	3.87		
	전체	3,393	5.45	3.94		
독거 기간	5년 미만(A)	347	5.89	4.16	4.926**	B < D
	5~15년 미만(B)	810	5.31	3.81		
	15~25년 미만(C)	587	5.86	3.99		
	25년 이상(D)	712	6.03	3.86		
	전체	2,456	5.73	3.93		

* : p<.05, ** : p<.01, *** : p<.001

〈그림 1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7.10)가 다른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7>, <그림 18>.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순으로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경제활동을 ‘안한다’(5.55)가 ‘한다’(4.3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7>, <그림 18>.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5.78)가 ‘있다’(4.9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7>, <그림 1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매우 부유하다’ 2.73 -> ‘매우 가난하다’ 8.6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87>, <그림 1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매우 가난하다’가 다른 상태보다, ‘가난하다’가 ‘보통이다’,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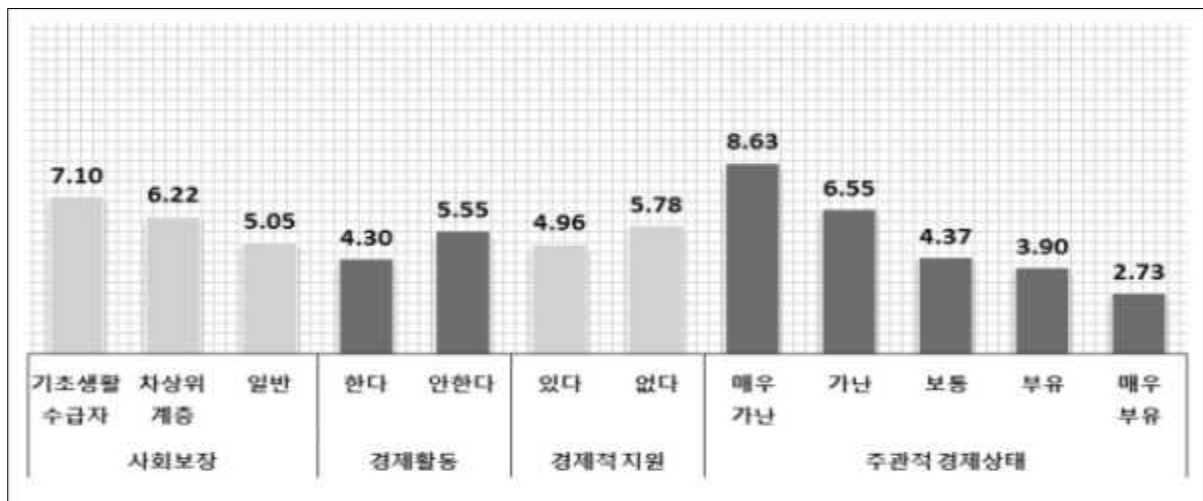
〈표 8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사회 보장	기초생활수급자(A)	482	7.10	4.06	(59.354)***	C < B < A
	차상위계층(B)	309	6.22	3.98		
	일반(C)	2,511	5.05	3.84		
	전체	3,302	5.46	3.96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경제 활동	한다	316	4.30	3.71	29.211***	-
	안한다	3,025	5.55	3.94		
	전체	3,341	5.43	3.93		
경제적 지원	있다	1,351	4.96	3.67	34.550***	-
	없다	1,927	5.78	4.06		
	전체	3,278	5.44	3.93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가난하다(A)	227	8.63	4.01	(106.195)***	C,D,E < B < A
	가난하다(B)	1,178	6.55	3.87		
	보통이다(C)	1,761	4.37	3.53		
	부유하다(D)	139	3.90	3.32		
	매우 부유하다(E)	15	2.73	3.65		
	전체	3,320	5.41	3.93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거동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거동상태가 ‘어려움’인 경우(8.34)가 ‘정상’인 경우(5.3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8>, <그림 19>.
- 3개월 이내 약 복용 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있다’(5.54)가 ‘없다’(4.3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8>, <그림 19>.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1개’ 4.80 -> ‘4개 이상’ 7.0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88>, <그림 19>.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문제성 음주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음주횟수가 ‘거의 매일’(5.49), ‘주 1회’(5.49), ‘전혀 없다’(5.49)인 경우가 다른 음주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88>,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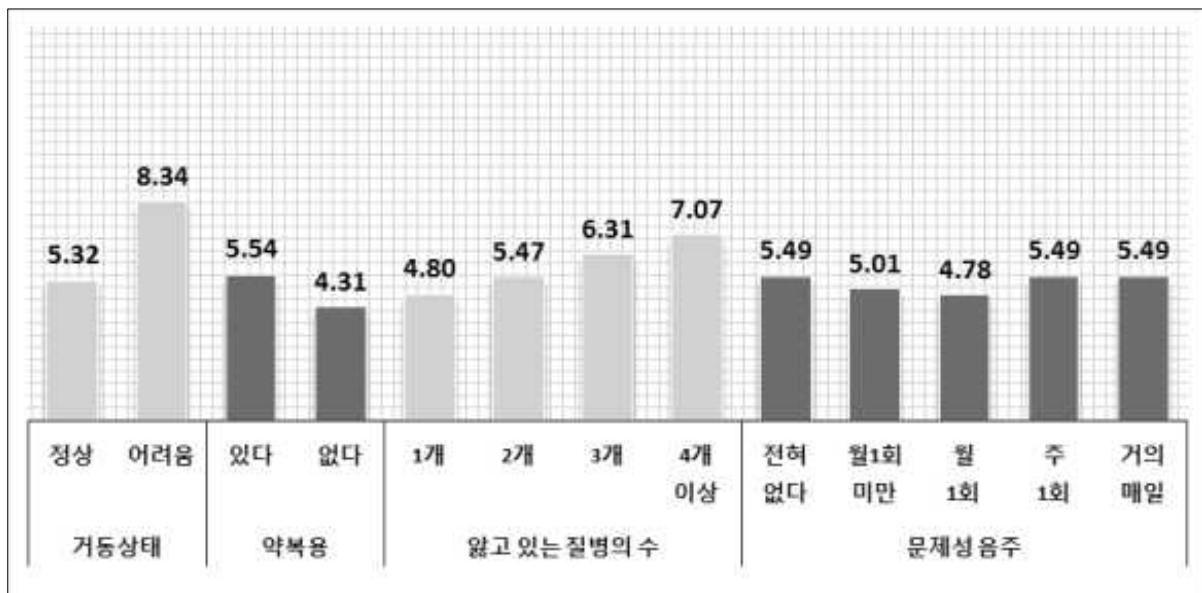
〈표 8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거동 상태 ¹⁾	정상	3,206	5.32	3.90	35.302***	-
	어려움	113	8.34	3.53		
	전체	3,325	5.42	3.93		
약 복용	있다	2,585	5.54	3.98	30.428***	-
	없다	356	4.31	3.82		
	전체	2,941	5.39	3.98		
알고 있는 질병 수	1개(A)	934	4.80	3.80	34.954***	A < B < C < D
	2개(B)	1,149	5.47	3.89		
	3개(C)	694	6.31	3.85		
	4개 이상(D)	283	7.07	4.12		
	전체	3,060	5.60	3.94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2,734	5.49	3.93	1.656	-
	월 1회 미만	167	5.01	3.69		
	월 1회	144	4.78	3.84		
	주 1회	194	5.49	4.06		
	거의 매일	67	5.49	4.24		
	전체	3,306	5.44	3.93		

1) 정상' -> '정상' / '불편', '불능' -> '어려움'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1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없음’(6.70)이 ‘있음’(5.3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89>, <그림 20>.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60 -> ‘없음’ 7.0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89>, <그림 20>.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 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이 다른 연락빈도보다, ‘연 1~2회’, ‘분기 1~2회’,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23 -> ‘없음’ 6.8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89>, <그림 20>.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 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이 ‘연 1~2회’를 제외한 다른 연락빈도보다, ‘분기 1~2회’,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그리고 ‘연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83 -> ‘없음’ 6.9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89>, <그림 20>.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 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이 ‘분기 1~2회’를 제외한 다른 연락빈도보다, ‘분기 1~2회’,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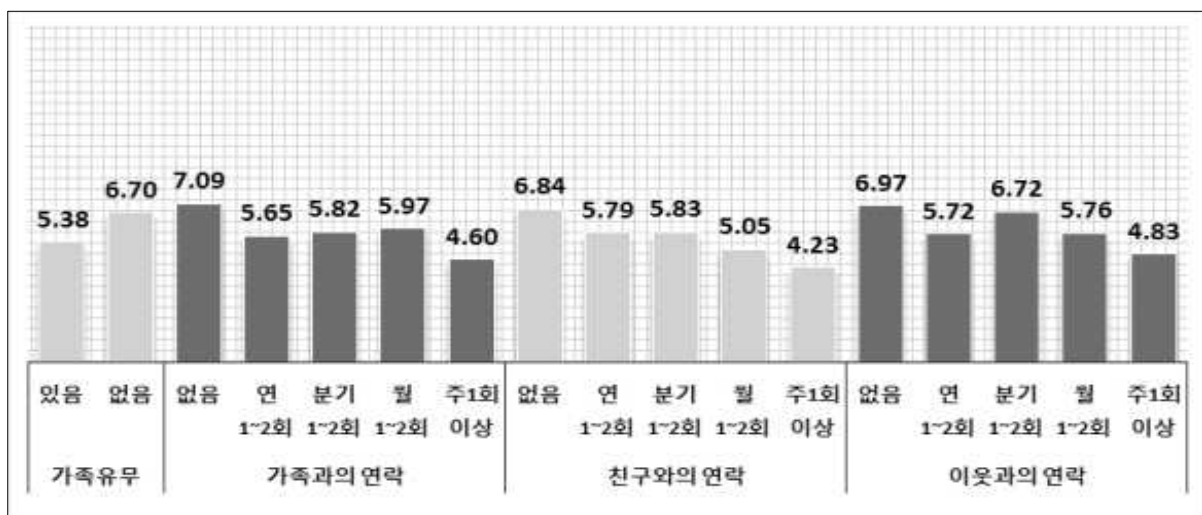
〈표 8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가족 유무	있음	3,159	5.38	3.91	(12.839)***	-
	없음	152	6.70	4.46		
	전체	3,311	5.44	3.95		
가족 연락	없음(A)	313	7.09	4.43	(34.673)***	E < (B~D) < A
	연 1~2회(B)	280	5.65	3.54		
	분기 1~2회(C)	415	5.82	4.03		
	월 1~2회(D)	866	5.97	3.99		
	주 1회 이상(E)	1,474	4.60	3.63		
	전체	3,348	5.43	3.93		
친구 연락	없음(A)	1,085	6.84	3.95	(69.877)***	E < C, D < A
	연 1~2회(B)	96	5.79	3.86		
	분기 1~2회(C)	226	5.83	3.73		
	월 1~2회(D)	798	5.05	3.92		E < B
	주 1회 이상(E)	1,137	4.23	3.51		
	전체	3,342	5.43	3.93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이웃 연락	없음(A)	406	6.97	4.11	(31.445)***	B,D,E < A
	연 1~2회(B)	116	5.72	3.26		
	분기 1~2회(C)	149	6.72	4.08		
	월 1~2회(D)	757	5.76	3.88		E < C,D
	주 1회 이상(E)	1,915	4.83	3.79		
	전체	3,343	5.42	3.92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4.20 → ‘안함’ 5.8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0>, <그림 2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안함’과 ‘가끔’이 ‘자주’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5.16 → ‘2개 이상’ 8.5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0>, <그림 21>.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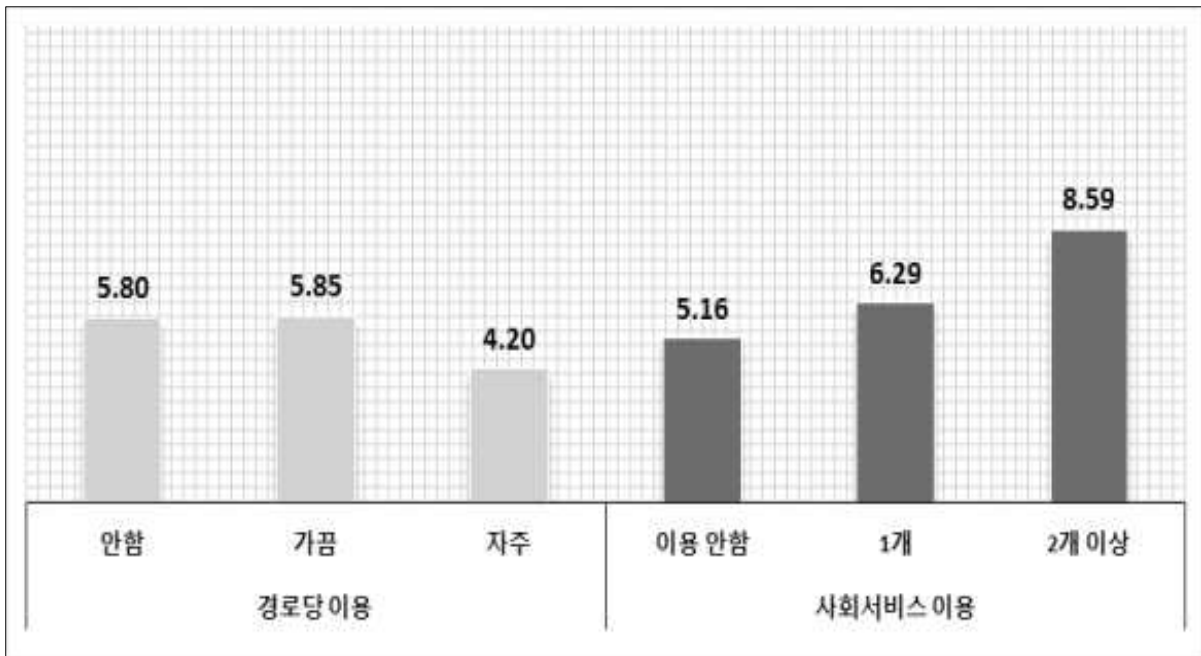
〈표 9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경로당 이용	안함(A)	1,834	5.80	3.91	(57.239)***	C < A,B
	가끔(B)	697	5.85	4.11		
	자주(C)	772	4.20	3.57		
	전체	3,303	5.44	3.94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사회 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A)	2,085	5.16	3.85	(35.162)***	A < B < C
	1개(B)	890	6.29	4.08		
	2개 이상(C)	37	8.59	4.07		
	전체	3,012	5.54	3.97		

* : p<.05, ** : p<.01, *** : p<.001

〈그림 21〉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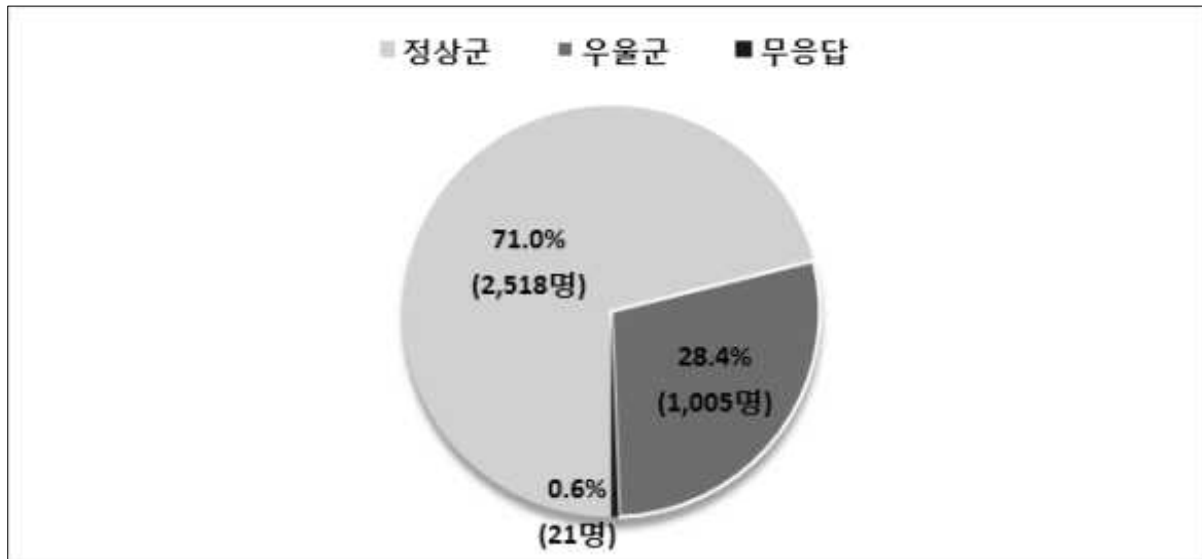
2 | 우울군 분포 현황

- 조맹제 등의 연구에 따르면 SGDS 점수의 총합이 8점 이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 강릉시 검진응답자의 SGDS 점수를 7점을 기준으로 정상군(0~7점), 우울군(8~15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상군’ 비율이 71.0%(2,518명), ‘우울군’ 비율이 28.4%(1,005명)로 나타남<표 91>, <그림 22>.

〈표 91〉 강릉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우울군	정상군	2,518	71.0
	우울군	1,005	28.4
	무응답	21	0.6
	전체	3,544	100.0

〈그림 22〉 강릉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성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우울군 비율(29.1%)이 ‘남성’의 우울군 비율(27.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92>.
- 연령별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 연령대의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25.6% → ‘85세 이상’ 34.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2>.
- 거주지역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구정면’의 우울군 비율(94.4%)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92>.
- 종교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32.7%)가 없는 경우(27.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92>.

〈표 9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성별	남성	587 (72.9)	218 (27.1)	805 (100.0)	1.222	.286
	여성	1,899 (70.9)	779 (29.1)	2,678 (100.0)		
	전체	2,486 (71.4)	997 (28.6)	3,483 (100.0)		
연령별	65~69세	233 (74.4)	80 (25.6)	313 (100.0)	18.403	.001**
	70~74세	516 (73.3)	188 (26.7)	704 (100.0)		
	75~79세	696 (74.6)	237 (25.4)	933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연령별	80~84세	582 (70.0)	249 (30.0)	831 (100.0)		
	85세 이상	410 (65.6)	215 (34.4)	625 (100.0)		
	전체	2,437 (71.6)	969 (28.4)	3,406 (100.0)		
거주지역	주문진읍	404 (66.8)	201 (33.2)	605 (100.0)	359.889	.000***
	성산면	50 (78.1)	14 (21.9)	64 (100.0)		
	왕산면	46 (75.4)	15 (24.6)	61 (100.0)		
	구정면	5 (5.6)	84 (94.4)	89 (100.0)		
	강동면	236 (76.4)	73 (23.6)	309 (100.0)		
	옥계면	62 (67.4)	30 (32.6)	92 (100.0)		
	사천면	21 (77.8)	6 (22.2)	27 (100.0)		
	연곡면	56 (76.7)	17 (23.3)	73 (100.0)		
	홍제동	154 (73.0)	57 (27.0)	211 (100.0)		
	중앙동	111 (66.1)	57 (33.9)	168 (100.0)		
	옥천동	90 (63.8)	51 (36.2)	141 (100.0)		
	교동	183 (78.2)	51 (21.8)	234 (100.0)		
	포남동	323 (78.6)	88 (21.4)	411 (100.0)		
	초당동	59 (86.8)	9 (13.2)	68 (100.0)		
	송정동	18 (75.0)	6 (25.0)	24 (100.0)		
	내곡동	81 (65.9)	42 (34.1)	123 (100.0)		
	강남동	330 (91.4)	31 (8.6)	361 (100.0)		
	성덕동	193 (55.0)	158 (45.0)	351 (100.0)		
	경포동	61 (87.1)	9 (12.9)	70 (100.0)		
	전체	2,483 (71.3)	999 (28.7)	3,482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817 (67.3)	397 (32.7)	1,214 (100.0)	10.816	.001**
	없다	1,328 (72.8)	495 (27.2)	1,823 (100.0)		
	전체	2,145 (70.6)	892 (29.4)	3,03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독거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0.6%)이 ‘동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2.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93>.
- 독거기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32.5% → ‘25년 이상’ 33.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3>.

〈표 9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독거여부	독거	1,803 (69.4)	796 (30.6)	2,599 (100.0)	20.922	.000***
	동거	700 (77.3)	205 (22.7)	905 (100.0)		
	전체	2,503 (71.4)	1,001 (28.6)	3,504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241 (67.5)	116 (32.5)	357 (100.0)	14.921	.002**
	5~15년 미만	625 (74.5)	214 (25.5)	839 (100.0)		
	15~25년 미만	410 (67.4)	198 (32.6)	608 (100.0)		
	25년 이상	490 (66.5)	247 (33.5)	737 (100.0)		
	전체	1,766 (69.5)	775 (30.5)	2,541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우울군 비율(45.0%)이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94>.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우울군 비율(29.5%)이 ‘한다’의 우울군 비율(18.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94>.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의 우울군 비율(32.2%)이 ‘경제적 지원처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3.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94>.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매우 부유하다’ 12.5% -> ‘매우 가난하다’ 62.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4>.

〈표 94〉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276 (55.0)	226 (45.0)	502 (100.0)	99.910	.000***
	차상위계층	201 (62.6)	120 (37.4)	321 (100.0)		
	일반	1,955 (75.5)	633 (24.5)	2,588 (100.0)		
	전체	2,432 (71.3)	979 (28.7)	3,411 (100.0)		
경제활동	한다	269 (82.0)	59 (18.0)	328 (100.0)	19.344	.000***
	안한다	2,201 (70.5)	921 (29.5)	3,122 (100.0)		
	전체	2,470 (71.6)	980 (28.4)	3,450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1,071 (77.0)	320 (23.0)	1,391 (100.0)	33.893	.000***
	없다	1,351 (67.8)	641 (32.2)	1,992 (100.0)		
	전체	2,422 (71.6)	961 (28.4)	3,383 (100.0)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88 (37.9)	144 (62.1)	232 (100.0)	298.497	.000***
	가난하다	753 (61.7)	468 (38.3)	1,221 (100.0)		
	보통	1,485 (82.0)	327 (18.0)	1,812 (100.0)		
	부유하다	121 (84.0)	23 (16.0)	144 (100.0)		
	매우 부유하다	14 (87.5)	2 (12.5)	16 (100.0)		
	전체	2,461 (71.9)	964 (28.1)	3,425 (100.0)		

* : p<.05, ** : p<.01, *** : p<.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거동상태에 따른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어려움’인 경우(62.6%)가 ‘정상’인 경우(27.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95>.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9.7%)이 복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18.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95>.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23.0% -> ‘4개 이상’ 45.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5>.
- 문제성 음주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음주정도가 ‘거의 매일’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1.4%)이 다른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표 95>.

〈표 95〉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거동상태 ¹⁾	정상	2,415 (73.0)	895 (27.0)	3,310 (100.0)	73.894	.000***
	어려움	46 (37.4)	77 (62.6)	123 (100.0)		
	전체	2,461 (71.7)	972 (28.3)	3,433 (100.0)		
약 복용	있다	1,874 (70.3)	791 (29.7)	2,665 (100.0)	21.292	.000***
	없다	299 (81.9)	66 (18.1)	365 (100.0)		
	전체	2,173 (71.7)	857 (28.3)	3,030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740 (77.0)	221 (23.0)	961 (100.0)	71.725	.000***
	2개	866 (72.5)	328 (27.5)	1,194 (100.0)		
	3개	453 (63.6)	259 (36.4)	712 (100.0)		
	4개 이상	161 (54.9)	132 (45.1)	293 (100.0)		
	전체	2,220 (70.3)	940 (29.7)	3,160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997 (71.0)	816 (29.0)	2,813 (100.0)	5.449	.244
	월 1회 미만	135 (77.6)	39 (22.4)	174 (100.0)		
	월 1회	117 (76.0)	37 (24.0)	154 (100.0)		
	주 1회	146 (72.6)	55 (27.4)	201 (100.0)		
	거의 매일	48 (68.6)	22 (31.4)	70 (100.0)		
	전체	2,443 (71.6)	969 (28.4)	3,412 (100.0)		

1) '정상' -> '정상' / '불편', '불능' -> '어려움'

* : $p < .05$, ** : $p < .01$, *** : $p < .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가족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없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41.0%)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7.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96>.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0.7% -> '없음' 44.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6>.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17.0% -> '없음' 43.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6>.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2.9% -> '없음' 43.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6>.

〈표 9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2,358 (72.3)	905 (27.7)	3,263 (100.0)	12.949	.001**
	없다	92 (59.0)	64 (41.0)	156 (100.0)		
	전체	2,450 (71.7)	969 (28.3)	3,419 (100.0)		
가족연락	없음	179 (55.2)	145 (44.8)	324 (100.0)	99.098	.000***
	연 1~2회	200 (70.2)	85 (29.8)	285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가족연락	분기 1~2회	295 (67.5)	142 (32.5)	437 (100.0)		
	월 1~2회	607 (67.4)	294 (32.6)	901 (100.0)		
	주 1회 이상	1,198 (79.3)	312 (20.7)	1,510 (100.0)		
	전체	2,479 (71.7)	978 (28.3)	3,457 (100.0)		
친구연락	없음	628 (56.3)	487 (43.7)	1,115 (100.0)	212.836	.000***
	연 1~2회	69 (70.4)	29 (29.6)	98 (100.0)		
	분기 1~2회	169 (71.0)	69 (29.0)	238 (100.0)		
	월 1~2회	638 (76.5)	196 (23.5)	834 (100.0)		
	주 1회 이상	968 (83.0)	198 (17.0)	1,166 (100.0)		
	전체	2,472 (71.6)	979 (28.4)	3,451 (100.0)		
이웃연락	없음	236 (56.1)	185 (43.9)	421 (100.0)	88.094	.000***
	연 1~2회	79 (67.5)	38 (32.5)	117 (100.0)		
	분기 1~2회	98 (62.4)	59 (37.6)	157 (100.0)		
	월 1~2회	551 (69.7)	240 (30.3)	791 (100.0)		
	주 1회 이상	1,515 (77.1)	451 (22.9)	1,966 (100.0)		
	전체	2,479 (71.8)	973 (28.2)	3,452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17.6% -> ‘안함’ 32.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7>.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26.1% -> ‘2개 이상’ 55.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97>.

〈표 97〉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1,279 (67.5)	615 (32.5)	1,894 (100.0)	61.283	.000***
	가끔	506 (70.3)	214 (29.7)	720 (100.0)		
	자주	654 (82.4)	140 (17.6)	794 (100.0)		
	전체	2,439 (71.6)	969 (28.4)	3,408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1,584 (73.9)	559 (26.1)	2,143 (100.0)	43.390	.000***
	1개	594 (64.0)	334 (36.0)	928 (100.0)		
	2개 이상	18 (45.0)	22 (55.0)	40 (100.0)		
	전체	2,196 (70.6)	915 (29.4)	3,111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 검진응답자의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 ‘있다’ 7.0%(249명), ‘없다’ 93.0%(3,294명)로 나타남<표 98>.

〈표 98〉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	있다	249	7.0
	없다	3,294	93.0
	무응답	1	0.0*
	전체	3,544	100.0

0.0*=0.02%

- 검진응답자의 현재 자살 계획의 유무에 대해 살펴봤을 때 ‘있다’ 1.5%(52명), ‘없다’ 98.3%(3,485명)로 나타남<표 99>.

〈표 99〉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현재 자살 계획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계획	있다	52	1.5
	없다	3,485	98.3
	무응답	7	0.2
	전체	3,544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문제’ 26.9%(67명), ‘경제적 어려움’ 19.3%(48명), ‘외로움’ 16.5%(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100>.

〈표 100〉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의 이유	건강문제	67	26.9
	경제적 어려움	48	19.3
	외로움	41	16.5
	가정불화	12	4.8
	친구/동료와의 불화	1	0.4
	기타	20	8.0
	무응답	120	48.2
	전체	309	124.1

※ 자살생각이 있는 응답자 249명 중 49명 중복응답

- 검진응답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자살한 사람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5.2%(185명), ‘없다’ 94.6%(3,352명)로 나타남<표 101>.

〈표 10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까운 사람의 자살	있다	185	5.2
	없다	3,352	94.6
	무응답	7	0.2
	전체	3,544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4.0% (143명), ‘없다’ 95.3%(3,377명)로 나타남<표 102>.

〈표 102〉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귀하께서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있다	143	4.0
	없다	3,377	95.3
	무응답	24	0.7
	전체	3,544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 중 자살시도한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45.4%(65명), ‘2회’ 21.0%(30명), ‘3회 이상’ 11.2%(16명)순으로 나타남<표 103>.

〈표 103〉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과거에 자살시도한 횟수”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횟수	1회	65	45.4
	2회	30	21.0
	3회 이상	16	11.2
	무응답	32	22.4
	전체	143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 시도했을 때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약물복용’ 32.3% (21명), ‘익수’ 18.9%(27명), ‘살충제’ 16.8%(24명), ‘목매’ 13.3%(19명), ‘투신’ 9.1%(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104>.

〈표 104〉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했을 때의 방법”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했을 때의 방법	목매	19	13.3
	살충제	24	16.8
	투신	13	9.1
	가스	5	3.5
	자해	2	1.4
	익수	27	18.9
	약물복용	44	30.8
	기타	10	7.0
	무응답	18	12.6
	전체	162	113.3

※ 자살시도자 중 143명 중 17명 중복응답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자살위험군을 선별할 때 중요시 되는 문항인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와 ‘과거 자살시도의 유무’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9.0%)이 여성(6.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05>.
- 연령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85세 이상’ 5.9% -> ‘65~69세’ 8.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05>.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옥천동’(19.0%)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05>.

- 종교유무에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7.3%)가 없는 경우(7.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05>.

〈표 1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73 (9.0)	734 (91.0)	807 (100.0)	6.148	.015*
	여성	175 (6.5)	2,520 (93.5)	2,695 (100.0)		
	전체	248 (7.1)	3,254 (92.9)	3,502 (100.0)		
연령별	65~69세	25 (8.0)	288 (92.0)	313 (100.0)	10.991	.027*
	70~74세	68 (9.6)	641 (90.4)	709 (100.0)		
	75~79세	54 (5.8)	882 (94.2)	936 (100.0)		
	80~84세	60 (7.2)	777 (92.8)	837 (100.0)		
	85세 이상	37 (5.9)	594 (94.1)	631 (100.0)		
	전체	244 (7.1)	3,182 (92.9)	3,426 (100.0)		
거주지역	주문진읍	60 (9.9)	545 (90.1)	605 (100.0)	95.453	.000***
	성산면	3 (4.6)	62 (95.4)	65 (100.0)		
	왕산면	1 (1.6)	62 (98.4)	63 (100.0)		
	구정면	0 (0.0)	89 (100.0)	89 (100.0)		
	강동면	11 (3.5)	302 (96.5)	313 (100.0)		
	옥계면	7 (7.5)	86 (92.5)	93 (100.0)		
	사천면	1 (3.7)	26 (96.3)	27 (100.0)		
	연곡면	2 (2.7)	71 (97.3)	73 (100.0)		
	홍제동	11 (5.2)	200 (94.8)	211 (100.0)		
	중앙동	18 (10.7)	151 (89.3)	169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옥천동	27 (19.0)	115 (81.0)	142 (100.0)		
	교동	20 (8.5)	214 (91.5)	234 (100.0)		
	포남동	14 (3.4)	398 (96.6)	412 (100.0)		
	초당동	4 (5.8)	65 (94.2)	69 (100.0)		
	송정동	0 (0.0)	25 (100.0)	25 (100.0)		
	내곡동	15 (12.1)	109 (87.9)	124 (100.0)		
	강남동	13 (3.6)	349 (96.4)	362 (100.0)		
	성덕동	38 (10.7)	317 (89.3)	355 (100.0)		
	경포동	1 (1.4)	70 (98.6)	71 (100.0)		
	전체	246 (7.0)	3,256 (93.0)	3,502 (100.0)		
종교유무	있다	89 (7.3)	1,132 (92.7)	1,221 (100.0)	0.070	.830
	없다	129 (7.0)	1,704 (93.0)	1,833 (100.0)		
	전체	218 (7.1)	2,836 (92.9)	3,054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일 때(7.3%)가 ‘동거’일 때(6.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06>.
- 독거기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독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5.8% -> ‘25년 이상’ 9.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06>.

〈표 10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독거여부	독거	192 (7.3)	2,422 (92.7)	2,614 (100.0)	1.202	.293
	동거	57 (6.3)	853 (93.7)	910 (100.0)		
	전체	249 (7.1)	3,275 (92.9)	3,524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독거기간	5년 미만	21 (5.8)	339 (94.2)	360 (100.0)	6.765	.080
	5~15년 미만	56 (6.7)	785 (93.3)	841 (100.0)		
	15~25년 미만	42 (6.9)	571 (93.1)	613 (100.0)		
	25년 이상	70 (9.4)	671 (90.6)	741 (100.0)		
	전체	189 (7.4)	2,366 (92.6)	2,555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13.2%)가 다른 사회보장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07>.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경우(7.0%)가 ‘한다’의 경우(6.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표 107>.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7.9%)가 ‘있다’의 경우(5.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07>.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매우 부유하다’ 0.0% → ‘매우 가난하다’ 22.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07>.

〈표 107〉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61 (12.1)	443 (87.9)	504 (100.0)	53.604	.000***
	차상위계층	43 (13.2)	282 (86.8)	325 (100.0)		
	일반	134 (5.2)	2,467 (94.8)	2,601 (100.0)		
	전체	238 (6.9)	3,192 (93.1)	3,430 (100.0)		
경제활동	한다	21 (6.4)	307 (93.6)	328 (100.0)	0.165	.819
	안한다	220 (7.0)	2,922 (93.0)	3,142 (100.0)		
	전체	241 (6.9)	3,229 (93.1)	3,470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제적 지원	있다	76 (5.4)	1,325 (94.6)	1,401 (100.0)	7.594	.006**
	없다	157 (7.9)	1,843 (92.2)	2,000 (100.0)		
	전체	233 (6.9)	3,168 (93.1)	3,401 (100.0)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53 (22.6)	182 (77.4)	235 (100.0)	124.421	.000***
	가난하다	105 (8.6)	1,123 (91.4)	1,228 (100.0)		
	보통	69 (3.8)	1,753 (96.2)	1,822 (100.0)		
	부유하다	9 (6.3)	135 (93.8)	144 (100.0)		
	매우 부유하다	0 (0.0)	16 (100.0)	16 (100.0)		
	전체	236 (6.9)	3,209 (93.1)	3,445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거동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어려움’인 경우 (13.7%)가 ‘정상’인 경우(6.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08>.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한 경우(7.7%)가 없다고 한 경우(4.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08>.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4.8% → ‘4개 이상’ 13.5%) 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08>.
- 문제성 음주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문제성 음주정도가 ‘주 1회’인 경우(11.4%)가 다른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08>.

〈표 108〉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¹⁾	정상	225 (6.8)	3,104 (93.2)	3,329 (100.0)	8.863	.003**
	어려움	17 (13.7)	107 (86.3)	124 (100.0)		
	전체	242 (7.0)	3,211 (93.0)	3,453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약 복용	있다	206 (7.7)	2,475 (92.3)	2,681 (100.0)	3.617	.069
	없다	18 (4.9)	348 (95.1)	366 (100.0)		
	전체	224 (7.4)	2,823 (92.6)	3,047 (100.0)		
알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46 (4.8)	918 (95.2)	964 (100.0)	33.093	.000***
	2개	80 (6.7)	1,122 (93.3)	1,202 (100.0)		
	3개	71 (9.9)	647 (90.1)	718 (100.0)		
	4개 이상	40 (13.5)	256 (86.5)	296 (100.0)		
	전체	237 (7.5)	2,943 (92.5)	3,180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90 (6.7)	2,641 (93.3)	2,831 (100.0)	8.889	.064
	월 1회 미만	12 (6.9)	163 (93.1)	175 (100.0)		
	월 1회	7 (4.5)	147 (95.5)	154 (100.0)		
	주 1회	23 (11.4)	178 (88.6)	201 (100.0)		
	거의 매일	7 (10.0)	63 (90.0)	70 (100.0)		
	전체	239 (7.0)	3,192 (93.0)	3,431 (100.0)		

1) '정상' -> '정상' / '불편', '불능' -> '어려움'

* : $p < .05$, ** : $p < .01$, *** : $p < .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가족유무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다'의 경우(10.2%)가 '있다'의 경우(6.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09>.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5.7% -> '없음' 13.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09>.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5.4% -> '없음' 10.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09>.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5.1% -> '없음' 13.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09>.

〈표 109〉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228 (6.9)	3,054 (93.1)	3,282 (100.0)	2.392	.149
	없다	16 (10.2)	141 (89.8)	157 (100.0)		
	전체	244 (7.1)	3,195 (92.9)	3,439 (100.0)		
가족연락	없음	45 (13.8)	280 (86.2)	325 (100.0)	27.797	.000***
	연 1~2회	22 (7.7)	265 (92.3)	287 (100.0)		
	분기 1~2회	28 (6.3)	413 (93.7)	441 (100.0)		
	월 1~2회	64 (7.1)	843 (92.9)	907 (100.0)		
	주 1회 이상	86 (5.7)	1,430 (94.3)	1,516 (100.0)		
	전체	245 (7.0)	3,231 (93.0)	3,476 (100.0)		
친구연락	없음	115 (10.3)	1,005 (89.7)	1,120 (100.0)	26.575	.000***
	연 1~2회	4 (4.0)	95 (96.0)	99 (100.0)		
	분기 1~2회	17 (7.1)	223 (92.9)	240 (100.0)		
	월 1~2회	47 (5.6)	794 (94.4)	841 (100.0)		
	주 1회 이상	63 (5.4)	1,106 (94.6)	1,169 (100.0)		
	전체	246 (7.1)	3,223 (92.9)	3,469 (100.0)		
이웃연락	없음	58 (13.8)	363 (86.2)	421 (100.0)	42.235	.000***
	연 1~2회	7 (5.9)	111 (94.1)	118 (100.0)		
	분기 1~2회	13 (8.3)	144 (91.7)	157 (100.0)		
	월 1~2회	65 (8.1)	739 (91.9)	804 (100.0)		
	주 1회 이상	101 (5.1)	1,870 (94.9)	1,971 (100.0)		
	전체	244 (7.0)	3,227 (93.0)	3,471 (100.0)		

* : p<.05, ** : p<.01, *** : p<.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5.6% -> ‘안함’ 8.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0>.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5.9% -> ‘2개 이상’ 27.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0>.

〈표 110〉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158 (8.3)	1,746 (91.7)	1,904 (100.0)	12.503	.002**
	가끔	35 (4.8)	690 (95.2)	725 (100.0)		
	자주	45 (5.6)	752 (94.4)	797 (100.0)		
	전체	238 (6.9)	3,188 (93.1)	3,426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127 (5.9)	2,027 (94.1)	2,154 (100.0)	34.676	.000***
	1개	83 (8.9)	850 (91.1)	933 (100.0)		
	2개 이상	11 (27.5)	29 (72.5)	40 (100.0)		
	전체	221 (7.1)	2,906 (92.9)	3,12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5.7%)이 여성(3.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11>.
- 연령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별가 낮아질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85세 이상’ 2.1% -> ‘65~69세’ 6.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1>.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옥천동’(16.3%)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11>.

〈표 1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45 (5.7)	751 (94.3)	796 (100.0)	6.512	.014*
	여성	97 (3.6)	2,586 (96.4)	2,683 (100.0)		
	전체	142 (4.1)	3,337 (95.9)	3,479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연령별	65~69세	21 (6.9)	284 (93.1)	305 (100.0)	26.720	.000***
	70~74세	47 (6.7)	659 (93.3)	706 (100.0)		
	75~79세	29 (3.1)	902 (96.9)	931 (100.0)		
	80~84세	31 (3.7)	801 (96.3)	832 (100.0)		
	85세 이상	13 (2.1)	617 (97.9)	630 (100.0)		
	전체	141 (4.1)	3,263 (95.9)	3,404 (100.0)		
거주지역	주문진읍	24 (4.0)	576 (96.0)	600 (100.0)	101.923	.000***
	성산면	1 (1.6)	63 (98.4)	64 (100.0)		
	왕산면	1 (1.6)	62 (98.4)	63 (100.0)		
	구정면	2 (2.2)	87 (97.8)	89 (100.0)		
	강동면	7 (2.2)	305 (97.8)	312 (100.0)		
	옥계면	1 (1.1)	92 (98.9)	93 (100.0)		
	사천면	1 (3.7)	26 (96.3)	27 (100.0)		
	연곡면	2 (2.8)	70 (97.2)	72 (100.0)		
	홍제동	16 (7.6)	194 (92.4)	210 (100.0)		
	중앙동	11 (6.5)	157 (93.5)	168 (100.0)		
	옥천동	23 (16.3)	118 (83.7)	141 (100.0)		
	교동	7 (3.0)	225 (97.0)	232 (100.0)		
	포남동	10 (2.4)	400 (97.6)	410 (100.0)		
	초당동	3 (4.3)	66 (95.7)	69 (100.0)		
	송정동	0 (0.0)	25 (100.0)	25 (100.0)		
	내곡동	7 (5.7)	116 (94.3)	123 (100.0)		
	강남동	1 (0.3)	357 (99.7)	358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성덕동	26 (7.4)	326 (92.6)	352 (100.0)		
	경포동	0 (0.0)	71 (100.0)	71 (100.0)		
	전체	143 (4.1)	3,336 (95.9)	3,479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종교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4.4%)가 없는 경우(4.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12>.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경우(4.5%)가 동거인 경우(2.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12>.
- 독거기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자살 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1.7% -> ‘25년 이상’ 5.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2>.

〈표 1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53 (4.4)	1,162 (95.6)	1,215 (100.0)	0.030	.855
	없다	77 (4.2)	1,742 (95.8)	1,819 (100.0)		
	전체	130 (4.3)	2,904 (95.7)	3,034 (100.0)		
독거여부	독거	118 (4.5)	2,487 (95.5)	2,605 (100.0)	5.174	.024*
	동거	25 (2.8)	872 (97.2)	897 (100.0)		
	전체	143 (4.1)	3,359 (95.9)	3,502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6 (1.7)	353 (98.3)	359 (100.0)	11.586	.009**
	5~15년 미만	32 (3.8)	804 (96.2)	836 (100.0)		
	15~25년 미만	34 (5.6)	578 (94.4)	612 (100.0)		
	25년 이상	42 (5.7)	698 (94.3)	740 (100.0)		
	전체	114 (4.5)	2,433 (95.5)	2,54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8.4%)가 다른 사회보장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13>.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경우(5.2%)가 ‘한다’의 경우(3.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13>.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4.5%)가 ‘있다’의 경우(3.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13>.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 수록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매우 부유하다’ 0.0% -> ‘매우 가난하다’ 9.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3>.

〈표 113〉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42 (8.4)	456 (91.6)	498 (100.0)	38.416	.000***
	차상위계층	21 (6.5)	302 (93.5)	323 (100.0)		
	일반	75 (2.9)	2,511 (97.1)	2,586 (100.0)		
	전체	138 (4.1)	3,269 (95.9)	3,407 (100.0)		
경제활동	한다	17 (5.2)	308 (94.8)	325 (100.0)	1.259	.240
	안한다	123 (3.9)	2,999 (96.1)	3,122 (100.0)		
	전체	140 (4.1)	3,307 (95.9)	3,447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46 (3.3)	1,351 (96.7)	1,397 (100.0)	3.315	.075
	없다	90 (4.5)	1,891 (95.5)	1,981 (100.0)		
	전체	136 (4.0)	3,242 (96.0)	3,378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23 (9.8)	211 (90.2)	234 (100.0)	42.012	.000***
	가난하다	67 (5.5)	1,149 (94.5)	1,216 (100.0)		
	보통	42 (2.3)	1,770 (97.7)	1,812 (100.0)		
	부유하다	5 (3.5)	139 (96.5)	144 (100.0)		
	매우 부유하다	0 (0.0)	16 (100.0)	16 (100.0)		
	전체	137 (4.0)	3,285 (96.0)	3,422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 거동상태에 따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어려움’인 경우 (4.1%)가 ‘정상’인 경우(4.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14>.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있다’의 경우(4.4%)가 ‘없다’의 경우(3.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14>.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라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증가(‘1개’ 2.8% → ‘4개 이상’ 9.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4>.
- 문제성 음주에 따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주 1회’ (8.0%)일 때가 다른 음주횟수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14>.

〈표 114〉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¹⁾	정상	134 (4.0)	3,175 (96.0)	3,309 (100.0)	0.000	1.000
	어려움	5 (4.1)	118 (95.9)	123 (100.0)		
	전체	139 (4.1)	3,293 (95.9)	3,432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약 복용	있다	117 (4.4)	2,543 (95.6)	2,660 (100.0)	0.989	.407
	없다	12 (3.3)	354 (96.7)	366 (100.0)		
	전체	129 (4.3)	2,897 (95.7)	3,026 (100.0)		
알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27 (2.8)	928 (97.2)	955 (100.0)	31.412	.000***
	2개	40 (3.4)	1,153 (96.6)	1,193 (100.0)		
	3개	36 (5.0)	679 (95.0)	715 (100.0)		
	4개 이상	29 (9.9)	265 (90.1)	294 (100.0)		
	전체	132 (4.2)	3,025 (95.8)	3,157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07 (3.8)	2,705 (96.2)	2,812 (100.0)	9.054	.060
	월 1회 미만	6 (3.4)	169 (96.6)	175 (100.0)		
	월 1회	5 (3.3)	147 (96.7)	152 (100.0)		
	주 1회	16 (8.0)	183 (92.0)	199 (100.0)		
	거의 매일	3 (4.3)	67 (95.7)	70 (100.0)		
	전체	137 (4.0)	3,271 (96.0)	3,408 (100.0)		

1) '정상' → '정상' / '불편', '불능' → '어려움'

* : p<.05, ** : p<.01, *** : p<.001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가족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가족이 없는 경우(10.8%)가 있는 경우(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15>.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7% → '없음' 10.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5>.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3.5% → '없음' 5.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5>.

- 이웃과의 연락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3.4% -> ‘없음’ 8.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5>.

〈표 115〉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122 (3.7)	3,137 (96.3)	3,259 (100.0)	19.259	.000***
	없다	17 (10.8)	140 (89.2)	157 (100.0)		
	전체	139 (4.1)	3,277 (95.9)	3,416 (100.0)		
가족연락	없음	35 (10.8)	288 (89.2)	323 (100.0)	45.952	.000***
	연 1~2회	13 (4.6)	272 (95.4)	285 (100.0)		
	분기 1~2회	15 (3.4)	426 (96.6)	441 (100.0)		
	월 1~2회	35 (3.9)	870 (96.1)	905 (100.0)		
	주 1회 이상	41 (2.7)	1,458 (97.3)	1,499 (100.0)		
	전체	139 (4.0)	3,314 (96.0)	3,453 (100.0)		
친구연락	없음	60 (5.4)	1,053 (94.6)	1,113 (100.0)	15.928	.003***
	연 1~2회	7 (7.1)	91 (92.9)	98 (100.0)		
	분기 1~2회	2 (0.8)	237 (99.2)	239 (100.0)		
	월 1~2회	28 (3.3)	812 (96.7)	840 (100.0)		
	주 1회 이상	41 (3.5)	1,115 (96.5)	1,156 (100.0)		
	전체	138 (4.0)	3,308 (96.0)	3,446 (100.0)		
이웃연락	없음	35 (8.5)	377 (91.5)	412 (100.0)	25.340	.000***
	연 1~2회	3 (2.5)	115 (97.5)	118 (100.0)		
	분기 1~2회	4 (2.6)	152 (97.4)	156 (100.0)		
	월 1~2회	30 (3.7)	772 (96.3)	802 (100.0)		
	주 1회 이상	66 (3.4)	1,894 (96.6)	1,960 (100.0)		
	전체	138 (4.0)	3,310 (96.0)	3,448 (100.0)		

* : p<.05, ** : p<.01, *** : p<.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1.9% -> ‘없음’ 5.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16>.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2개 이상인 경우(7.5%)가 다른 이용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16>.

〈표 11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99 (5.2)	1,798 (94.8)	1,897 (100.0)	16.838	.000***
	가끔	24 (3.3)	698 (96.7)	722 (100.0)		
	자주	15 (1.9)	769 (98.1)	784 (100.0)		
	전체	138 (4.1)	3,265 (95.9)	3,403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82 (3.8)	2,055 (96.2)	2,137 (100.0)	3.411	.182
	1개	47 (5.1)	883 (94.9)	930 (100.0)		
	2개 이상	3 (7.5)	37 (92.5)	40 (100.0)		
	전체	132 (4.2)	2,975 (95.8)	3,10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3 |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1)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여부, 경제적 지원여부, 주관적 경제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 친구와의 연락빈도가 우울군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7>.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의 1.527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는 경우가 지원처가 있는 경우보다 1.458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매우 부유인 경우를 기준으로 매우 가난인 경우가 6.587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1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3개인 경우가 1.781배, 4개 이상인 경우가 2.436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없음인 경우가 주 1회 이상인 경우보다 1.617배, 분기 1~2회인 경우가 1.806배, 월 1~2회인 경우 1.483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7〉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¹⁾	
				χ^2	p
경제활동(1) : 없다	.423	.019	1.527	8.543	.382
경제적 지원여부(1) : 지원처가 없다.	.377	.000	1.458		
주관적 경제상태		.000			
주관적 경제상태(1) : 매우 가난	1.885	.017	6.587		
주관적 경제상태(2) : 가난	1.025	.186	2.786		
주관적 경제상태(3) : 보통	.196	.801	1.216		
주관적 경제상태(4) : 부유	.139	.864	1.15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159	.154	1.173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577	.000	1.781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890	.000	2.436		
친구와의 연락빈도		.000			
친구와의 연락빈도(1) : 없음	1.097	.000	2.995		
친구와의 연락빈도(2) : 연 1~2회	.254	.355	1.289		
친구와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591	.001	1.806		
친구와의 연락빈도(4) : 월 1~2회	.394	.002	1.483		

1) 모형의 적합도 검정 : 유의확률의 값이 > 0.05 여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 p<.05, **: p<.01, ***: p<.001

2)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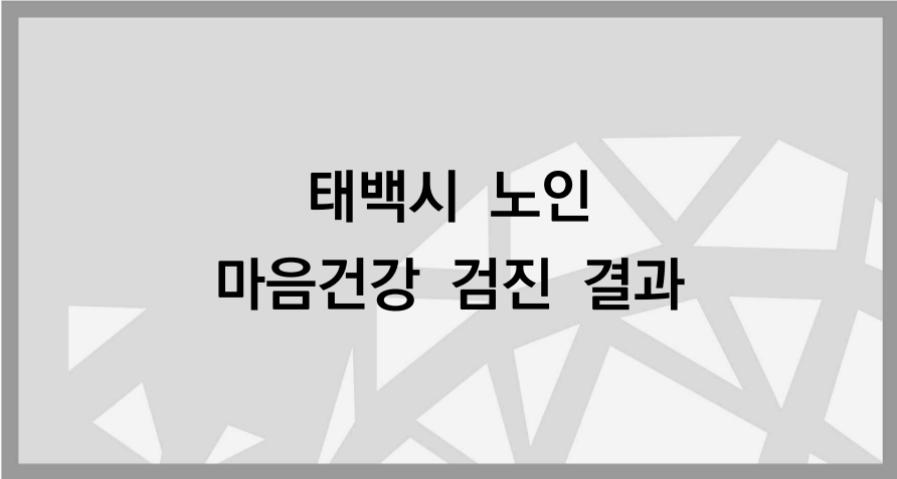
-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사회보장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 가족과의 연락빈도가 자살 고위험군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18>.
- 성별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상태가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보다 0.627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상태가 일반인 경우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1.245배, 차상위계층 1.479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1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3개인 경우가 1.493배, 4개 이상인 경우 2.240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주 1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없음인 경우가 1.538배, 연 1~2회인 경우 1.532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18〉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χ^2	p
성별(1) : 여성	-.466	.000	.627	5.466	.707
사회보장상태		.005			
사회보장상태(1) : 기초생활수급자	.219	.037	1.245		
사회보장상태(2) : 차상위계층	.392	.003	1.479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107	.339	1.113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401	.001	1.493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807	.000	2.240		
가족과의 연락빈도		.000			
가족과의 연락빈도(1) : 없음	.431	.003	1.538		
가족과의 연락빈도(2) : 연 1~2회	.426	.002	1.532		
가족과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185	.204	1.203		
가족과의 연락빈도(4) : 월 1~2회	-.002	.983	.998		

*: p<.05, **: p<.01, ***: p<.001



**태백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태백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 검진개요

1 | 검진 범위

- 지역적 범위 : 태백시
- 대상자 범위 : 65세 이상 노인
- 내용적 범위 : 일반적인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 우울증 평가, 자살위험성

2 | 검진 대상 및 방법

1) 검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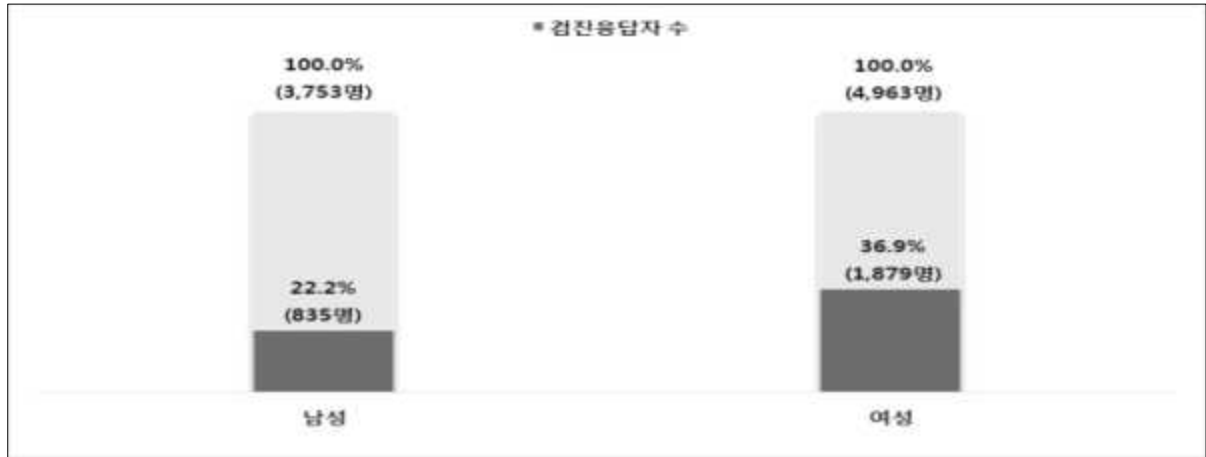
- 태백시 성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지별 65세이상 노인 인구수와 검진응답자수는 아래와 같음.

〈표 119〉 태백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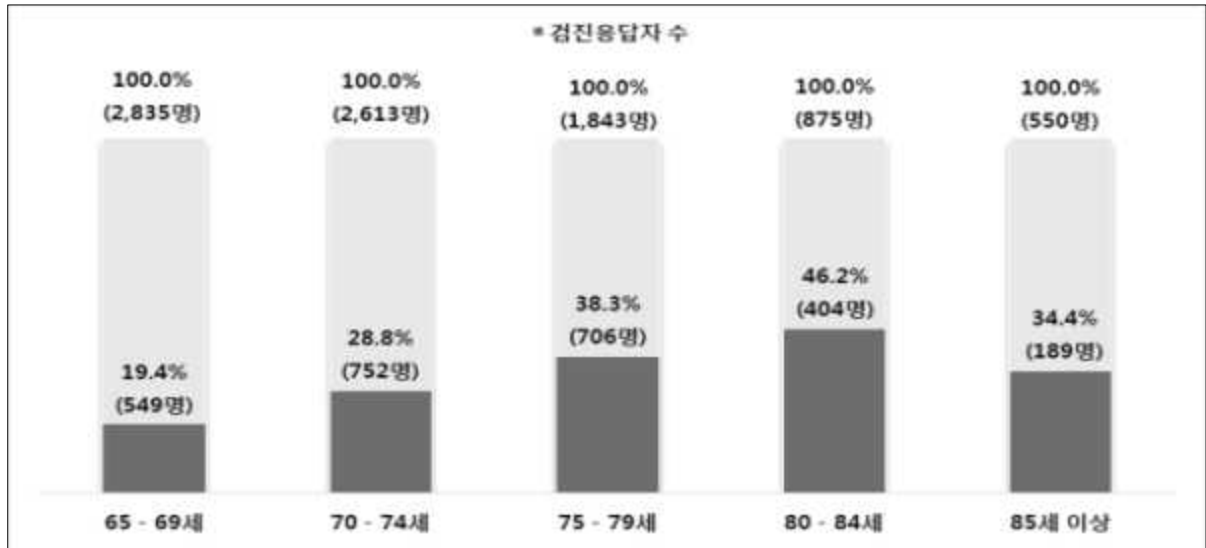
구분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명)	검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성별	남성	3,753	835	22.2	
	여성	4,963	1,829	36.9	
	무응답	-	15	-	
연령별	65 - 69세	2,835	549	19.4	
	70 - 74세	2,613	752	28.8	
	75 - 79세	1,843	706	38.3	
	80 - 84세	875	404	46.2	
	85세 이상	550	189	34.4	
	무응답	-	79	-	
거주지역	황지동	1,208	776	64.2	
	황연동	1,079	126	11.7	
	삼수동	1,393	410	29.4	
	상장동	1,640	223	13.6	
	문곡소도동	791	204	25.8	
	장성동	884	493	55.8	
	구문소동	924	133	14.4	
	철암동	797	305	38.3	
	무응답	-	9	-	
합계		8,716	2,679	59.1	

※ 출처 : 통계청(2014) - 2014년 12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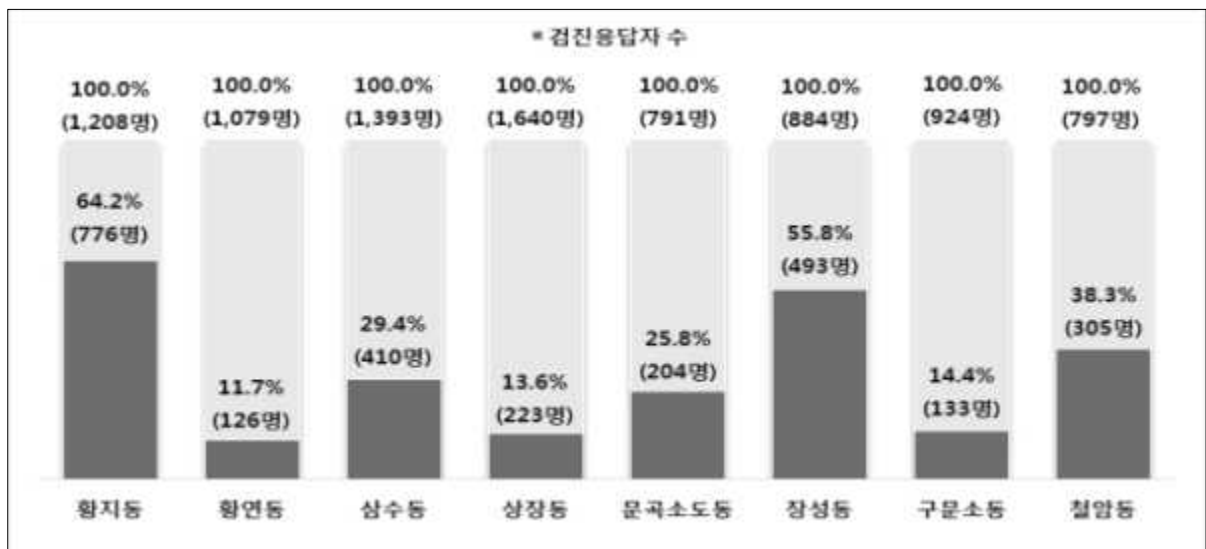
〈그림 23〉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그림 24〉 태백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연령별



〈그림 25〉 태백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거주지역



2) 검진방법

- 검진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검진요원들이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검진 실시

3 | 검진 내용

- 검진의 주요 내용은 특성에 따른 응답자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우울증평가(SGDS), 자살 위험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20〉 주요 검진 내용

검진 분야	검진내용
①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거주지, 종교, 독거, 주거유형
② 경제적 특성	사회보장, 경제활동, 경제적 지원, 주관적 경제상태
③ 보건학적 특성	거동상태, 약 복용, 질병, 음주여부
④ 사회관계적 특성	가족여부, 가족과의 연락, 친구와의 연락, 이웃과의 연락, 경로당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⑤ 우울증평가(SGDS)	현재 생활 만족, 기분, 불안, 기억력, 기력 등
⑥ 자살위험성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한 지인의 유무, 자살시도력

4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검수 및 확인

- 설문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 자료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유효 자료에 대해 통계처리 함.

2) 자료 처리

- 검진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평균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빈도분석을 제외한 그 외의 통계분석은 각 문항의 무응답을 결측값으로 두고 자료를 분석 하였기에 문항별 응답자 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5 | 응답자 현황

1) 일반적 특성

- 성별
 -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마음건강검진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68.3%(1,829명), ‘남성’ 31.2%(835명)로 나타남<표 121>.



〈표 121〉 응답자 성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835	31.2
	여성	1,829	68.3
	무응답	15	0.5
	전체	2,679	100.0

● 연령별

- 검진응답자의 연령별을 살펴보면 ‘70~74세’가 28.1%(752명), ‘75~79세’ 26.3%(706명), ‘65~69세’ 20.5%(549명), ‘80~84세’ 15.1%(404명), ‘85세 이상’ 7.1%(18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75.1±6.0세’로 나타남<표 122>.

〈표 122〉 응답자 연령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연령별	65~69세	549	20.5
	70~74세	752	28.1
	75~79세	706	26.3
	80~84세	404	15.1
	85세 이상	189	7.1
	무응답	79	2.9
	전체	2,679	100.0

● 거주지역

- 검진응답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황지동 29.0%(776명), 장성동 18.4%(493명), 삼수동 15.3%(410명), 철암동 11.4%(305명), 상장동 8.3%(223명)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123>.

〈표 123〉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주지역	황지동	776	29.0
	황연동	126	4.7
	삼수동	410	15.3
	상장동	223	8.3
	문곡소도동	204	7.6
	장성동	493	18.4
	구문소동	133	5.0
	철암동	305	11.4
	무응답	9	0.3
	합계	2,679	100.0

● 종교

- 검진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54.2%(1,452명) ‘불교’ 22.4%(599명), ‘기독교’ 13.7%(366명), ‘천주교’ 2.0%(54명), ‘기타’ 0.4%(12명) 순으로 나타남<표 124>.

〈표 124〉 응답자 종교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종교	기독교	366	13.7
	불교	599	22.4
	천주교	54	2.0
	무교	1,452	54.2
	기타	12	0.4
	무응답	196	7.3
	합계	2,679	100.0

● 주거유형

- 검진응답자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자가’가 69.4%(1,860명), ‘월세’ 13.6%(365명), ‘기타’ 10.3%(276명), ‘전세’ 3.6%(96명) 순으로 나타남<표 125>.

〈표 125〉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유형	자가	1,860	69.4
	전세	96	3.6
	월세	365	13.6
	기타	276	10.3
	무응답	82	3.1
	합계	2,679	100.0

● 독거여부

- 검진응답자의 독거여부를 살펴보면 ‘독거’ 71.9%(1,927명), ‘동거’ 27.1%(728명)로 나타남<표 126>.

〈표 126〉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여부	독거	1,927	71.9
	동거	728	27.1
	무응답	24	0.9
	합계	2,679	100.0

● 독거기간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기간을 살펴보면 ‘5~15년 미만’ 31.3%(604명), ‘25년 이상’ 28.2%(544명), ‘15년~25년 미만’ 24.0%(462명), ‘5년 미만’ 13.7%(26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독거기간은 ‘18.0±12.9년’으로 나타남<표 127>.

〈표 127〉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기간	5년 미만	264	13.7
	5년~15년 미만	604	31.3
	15년~25년 미만	462	24.0
	25년 이상	544	28.2
	무응답	53	2.8
	전체	1,927	100.0



● 독거사유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사유를 살펴보면 ‘사별’ 83.4%(1,607명), ‘이혼’ 8.5%(163명), ‘별거’ 3.7%(72명), ‘미혼’ 1.4%(26명), ‘기타’ 1.1%(22명) 순으로 나타남<표 128>.

〈표 128〉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사유	사별	1,607	83.4
	이혼	163	8.5
	미혼	26	1.4
	별거	72	3.7
	기타	22	1.1
	무응답	37	1.9
	합계	1,927	100.0

2) 경제적 특성

● 사회보장

- 검진응답자의 사회보장을 살펴보면 ‘일반’ 71.6%(1,919명), ‘기초생활수급자’ 16.3%(435명), ‘차상위 계층’ 9.7%(260명) 순으로 나타남<표 129>.

〈표 129〉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435	16.3
	차상위계층	260	9.7
	일반	1,919	71.6
	무응답	65	2.4
	합계	2,679	100.0

● 경제활동

- 검진응답자의 경제활동여부를 살펴보면 ‘안한다’ 69.4%(1,859명), ‘한다’ 28.4%(761명)로 나타남<표 130>.

〈표 130〉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활동	한다	761	28.4
	안한다	1,859	69.4
	무응답	59	2.2
	합계	2,679	100.0

● 경제적 지원(1)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지원여부를 살펴보면 ‘지원처가 있다’ 55.1%(1,477명), ‘지원처가 없다’ 41.6%(1,114명)로 나타남<표 131>.

〈표 131〉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1)	지원처가 있다	1,477	55.1
	지원처가 없다	1,114	41.6
	무응답	88	3.3
	합계	2,679	100.0

● 경제적 지원(2) : 정기적 지원 & 비정기적 지원

-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검진응답자들을 살펴보면 ‘비정기적 지원’ 49.8%(735명), ‘정기적 지원’ 43.9%(649명)로 나타남<표 132>.

〈표 132〉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2)	정기적 지원	649	43.9
	비정기적 지원	735	49.8
	무응답	93	6.3
	합계	1,477	100.0

● 주관적 경제상태

- 검진응답자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보통’ 55.7%(1,493명), ‘가난하다’ 35.5%(950명), ‘매우 가난하다’ 3.5%(95명), ‘부유하다’ 3.0%(79명), ‘매우 부유하다’ 0.1%(2명) 순으로 나타남<표 133>.

〈표 133〉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95	3.5
	가난하다	950	35.5
	보통	1,493	55.7
	부유하다	79	3.0
	매우 부유하다	2	0.1
	무응답	60	2.2
	합계	2,679	100.0

3)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검진응답자의 거동상태를 살펴보면 ‘정상’ 93.2%(2,498명), ‘불편’ 4.0%(106명), ‘불능’ 1.1%(30명)로 나타남<표 134>.

〈표 134〉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동상태	정상 ¹⁾	2,498	93.2
	불편 ²⁾	106	4.0
	불능 ³⁾	30	1.1
	무응답	45	1.7
	합계	2,679	100.0

1) 정상 : 도움 없이 혼자 방을 나올 수 있다.

2) 불편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이 있어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3) 불능 : 들 것에 실리거나 업혀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 3개월 이상 약 복용

- 검진응답자의 '3개월 이상 약 복용' 여부를 살펴보면 '있음' 72.7%(1,946명), '없음' 13.3%(357명)로 나타남<표 135>.

〈표 135〉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3개월 이상 약 복용	있음	1,946	72.7
	없음	357	13.3
	무응답	376	14.0
	합계	2,679	100.0

● 앓고 있는 질병

- 검진응답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살펴보면 '고혈압' 65.9%(1,531명), '기타' 40.3%(936명), '만성통증' 34.1%(791명), '당뇨병' 26.8%(623명), '뇌혈관질환' 11.0%(2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136>.

〈표 136〉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앓고 있는 질병	암	50	2.2
	만성통증	791	34.1
	뇌혈관질환	255	11.0
	고혈압	1,531	65.9
	당뇨병	623	26.8
	심장질환	210	9.0
	간질환	19	0.8
	신장질환	29	1.2
	호흡기질환	106	4.6
	우울증	46	2.0
	기타	936	40.3
	합계	4,596	197.8

※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2,323명중 1,455명이 중복응답

● 문제성 음주 : 소주 1병 or 맥주 4병 이상

- 검진응답자의 문제성 음주 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79.7%(2,135명), '주 1회' 8.0%(215명), '월 1회' 5.1%(137명), '월 1회 미만' 3.4%(92명), '거의 매일' 2.3%(61명) 순으로 나타남<표 137>.

〈표 137〉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2,135	79.7
	월 1회 미만	92	3.4
	월 1회	137	5.1
	주 1회	215	8.0
	거의 매일	61	2.3
	무응답	39	1.5
	합계	2,679	100.0

4)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검진응답자의 가족여부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91.3%(2,446명),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64.8%(1,736명), 배우자 12.5%(334명), 없음 2.0%(54명), 기타 0.8%(22명) 순으로 나타남<표 138>.

〈표 138〉 응답자 가족여부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여부	없음	54	2.0
	배우자	334	12.5
	자녀	2,446	91.3
	형제/자매	1,736	64.8
	기타	22	0.8
	무응답	76	2.8
	합계	4,668	174.2

※ 검진응답자 중 1,747명이 다중응답

● 가족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70.9%(1,900명), ‘월 1~2회’ 16.0%(429명), ‘없음’ 6.1%(163명), ‘분기 1~2회’ 3.6%(97명), ‘연 1~2회’ 2.5%(68명) 순으로 나타남<표 139>.

〈표 139〉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연락	없음	163	6.1
	연 1~2회	68	2.5
	분기 1~2회	97	3.6
	월 1~2회	429	16.0
	주 1회 이상	1,900	70.9
	무응답	22	0.9
	합계	2,679	100.0

● 친구연락

- 검진응답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69.9%(1,873명), ‘없음’ 15.6%(417명), ‘월 1~2회’ 9.6%(258명), ‘분기 1~2회’ 2.8%(74명), ‘연 1~2회’ 1.3%(34명) 순으로 나타남<표 140>.

〈표 140〉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친구연락	없음	417	15.6
	연 1~2회	34	1.3
	분기 1~2회	74	2.8
	월 1~2회	258	9.6
	주 1회 이상	1,873	69.9
	무응답	23	0.8
	합계	2,679	100.0

● 이웃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82.6%(2,214명), ‘월 1~2회’ 8.2%(219명), ‘없음’ 6.2%(166명), ‘분기 1~2회’ 1.4%(37명), ‘연 1~2회’ 0.6%(17명) 순으로 나타남<표 141>.

〈표 141〉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이웃연락	없음	166	6.2
	연 1~2회	17	0.6
	분기 1~2회	37	1.4
	월 1~2회	219	8.2
	주 1회 이상	2,214	82.6
	무응답	27	1.0
	합계	2,679	100.0

● 경로당 이용

- 검진응답자의 경로당 이용정도를 살펴보면 ‘안함’ 59.5%(1,595명), ‘자주(월 3회 이하)’ 26.2%(701명), ‘가끔(월 2회 이하)’ 12.7%(341명) 순으로 나타남<표 142>.

〈표 142〉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로당 이용	안함	1,595	59.5
	가끔(월 2회 이하)	341	12.7
	자주(월 3회 이상)	701	26.2
	무응답	42	1.6
	합계	2,679	100.0

● 사회서비스 이용(1)

- 검진응답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이용안함’ 68.0%(1,822명), ‘이용’ 28.7%(768명)로 나타남<표 143>.

〈표 143〉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768	28.7
	이용안함	1,822	68.0
	무응답	89	3.3
	합계	2,679	100.0

● 사회서비스 이용(2) : 서비스 종류

- 검진응답자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서서비스’ 41.7%(333명), ‘가사서비스’ 39.1%(312명), ‘기타’ 12.3%(98명), ‘결연서비스’ 3.1%(25명), ‘간병서비스’ 2.1%(17명) 순으로 나타남<표 144>.

〈표 144〉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2)	가사서비스	312	39.1
	정서서비스	333	41.7
	결연서비스	25	3.1
	간병서비스	17	2.1
	기타	98	12.3
	무응답	65	8.1
	합계	850	106.5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검진응답자 중 49명이 다중응답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1 | 우울점수(SGDS)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또는 로버스트검정(welch)을 실시하였고 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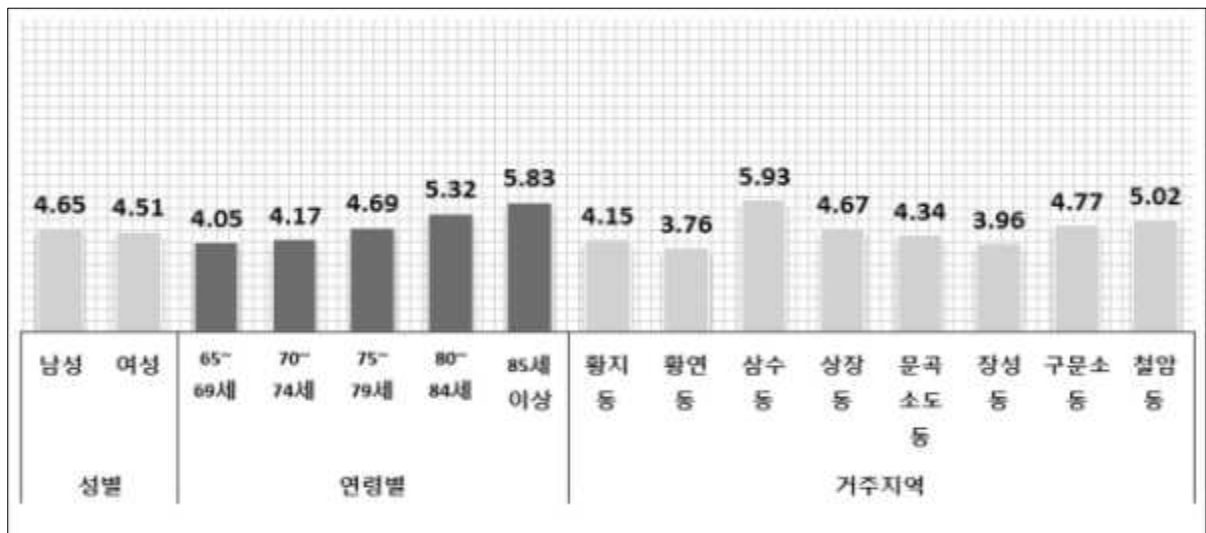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남성’(4.65)이 ‘여성’(4.5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45>, <그림 26>.
- 연령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4.05 -> ‘85세 이상’ 5.8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45>, <그림 26>.
 - 연령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85세 이상’이 ‘65~69세’, ‘70~74세’, ‘75~79세’보다, ‘80~84세’가 ‘65~69세’, ‘70~74세’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삼수동’(5.93)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45>, <그림 26>.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삼수동’이 구문소동, 철암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철암동’이 ‘장성동’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5〉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818	4.65	4.08	(0.677)	-
	여성	1,790	4.51	3.86		
	전체	2,608	4.55	3.93		
연령별	65~69세(A)	539	4.05	3.93	12.808***	A,B,C < E
	70~74세(B)	742	4.17	3.80		
	75~79세(C)	686	4.69	3.99		
	80~84세(D)	393	5.32	3.93		A,B < D
	85세 이상(E)	183	5.83	3.88		
	전체	2,543	4.58	3.94		
거주 지역	황지동(A)	765	4.15	3.47	(11.719)***	A,B,(D~F) < C
	황연동(B)	123	3.76	4.18		
	삼수동(C)	399	5.93	3.88		
	상장동(D)	207	4.67	4.31		
	문곡소도동(E)	199	4.34	4.06		F < H
	장성동(F)	484	3.96	3.60		
	구문소동(G)	133	4.77	4.30		
	철암동(H)	303	5.02	4.51		
	전체	2,613	4.56	3.93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 종교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4.72)가 있는 경우(4.3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46>, <그림 27>.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동거’(4.85)가 독거(4.4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46>, <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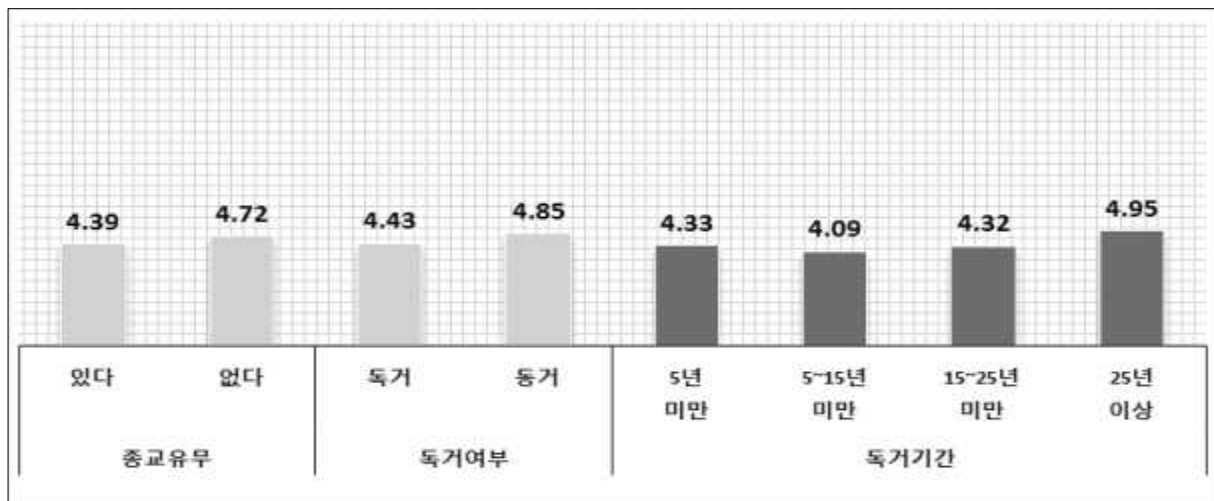
- 독거인 검진응답자 중 독거기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4.33 -> '25년 이상' 4.9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46>, <그림 27>.
- 독거기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독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25년 이상'이 '5~15년 미만'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종교 유무	있다	1,012	4.39	3.99	4.319*	-
	없다	1,421	4.72	3.89		
	전체	2,433	4.58	3.93		
독거 여부	독거	1,892	4.43	3.82	(5.522)*	-
	동거	709	4.85	4.18		
	전체	2,601	4.54	3.93		
독거 기간	5년 미만(A)	258	4.33	3.96	(4.833)**	B < D
	5~15년 미만(B)	597	4.09	3.76		
	15~25년 미만(C)	454	4.32	3.62		
	25년 이상(D)	533	4.95	3.99		
	전체	1,842	4.43	3.84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6.21)가 다른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47>, <그림 28>.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보다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안한다’(5.09)가 ‘한다’(3.3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47>, <그림 28>.
 - 경제적지원 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5.18)가 ‘있다’(4.1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47>, <그림 2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1.56 -> ‘가난’ 6.1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47>, <그림 2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가난’이 다른 상태보다 가장 높고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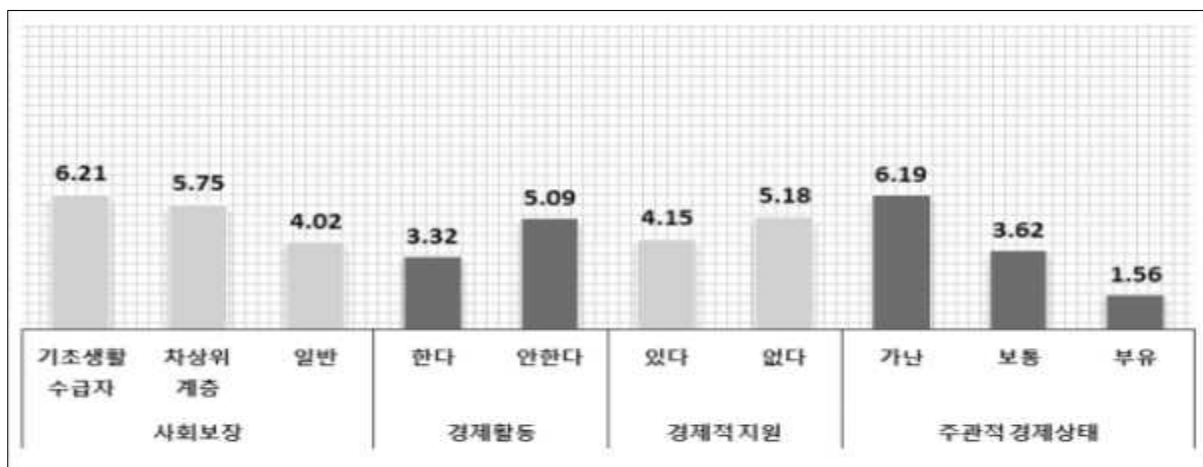
〈표 14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사회 보장	기초생활수급자(A)	422	6.21	4.10	(63.138)***	C < A,B
	차상위계층(B)	256	5.75	4.39		
	일반(C)	1,883	4.02	3.69		
	전체	2,561	4.55	3.94		
경제 활동	한다	749	3.32	3.34	(131.013)***	-
	안한다	1,817	5.09	4.05		
	전체	2,566	4.58	3.94		
경제적 지원	있다	1,460	4.15	3.79	(42.533)***	-
	없다	1,078	5.18	4.05		
	전체	2,538	4.59	3.94		
주관적 경제 상태 ¹⁾	가난(A)	1,018	6.19	4.09	(204.649)***	C < B < A
	보통(B)	1,470	3.62	3.46		
	부유(C)	81	1.56	2.12		
	전체	2,569	4.57	3.93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2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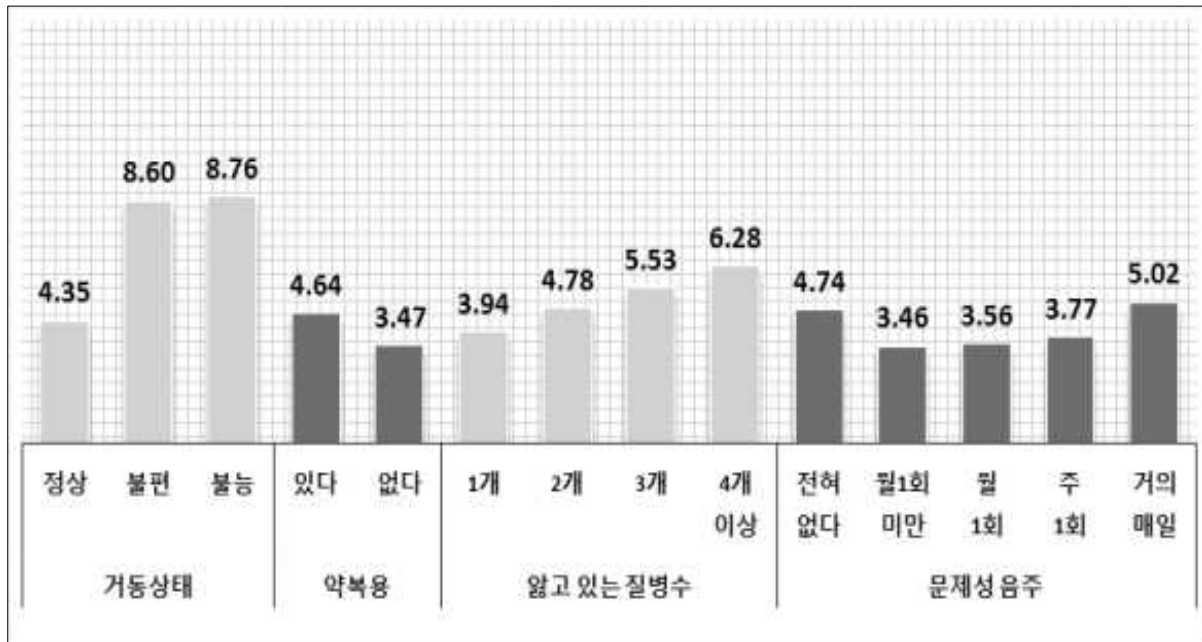
- 거동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4.35 -> ‘불능’ 8.7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48>, <그림 33>.
 - 거동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거동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그중 ‘불편’, ‘불능’이 ‘정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개월 이내 약 복용 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있다’(4.64)가 ‘없다’(3.4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48>, <그림 29>.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1개’ 3.94 -> ‘4개 이상’ 6.2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48>, <그림 29>.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4개 이상’과 ‘3개’가 다른 정도보다, ‘2개’가 ‘1개’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제성 음주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증가할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전혀 없다’ 4.74 -> ‘거의 매일’ 5.0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48>, <그림 29>.
 - 문제성 음주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문제성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전혀 없다’가 ‘거의 매일’을 제외한 다른 정도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거동 상태	정상(A)	2,451	4.35	3.80	77.946***	A < B,C
	불편(B)	101	8.60	4.18		
	불능(C)	29	8.76	4.02		
	전체	2,581	4.56	3.93		
약 복용	있다	1,907	4.64	3.94	(32.207)***	-
	없다	352	3.47	3.48		
	전체	2,259	4.45	3.89		
앓고 있는 질병 수	1개(A)	852	3.94	3.68	(25.003)***	A < B < C,D
	2개(B)	811	4.78	3.87		
	3개(C)	452	5.53	4.14		
	4개 이상(D)	159	6.28	4.35		
	전체	2,274	4.72	3.96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A)	2,087	4.74	3.99	(8.930)***	B,C,D < A
	월 1회 미만(B)	91	3.46	3.41		
	월 1회(C)	137	3.56	3.65		
	주 1회(D)	211	3.77	3.29		
	거의 매일(E)	61	5.02	4.36		
	전체	2,587	4.56	3.93		

* : p<.05, ** : p<.01, *** : p<.001

〈그림 2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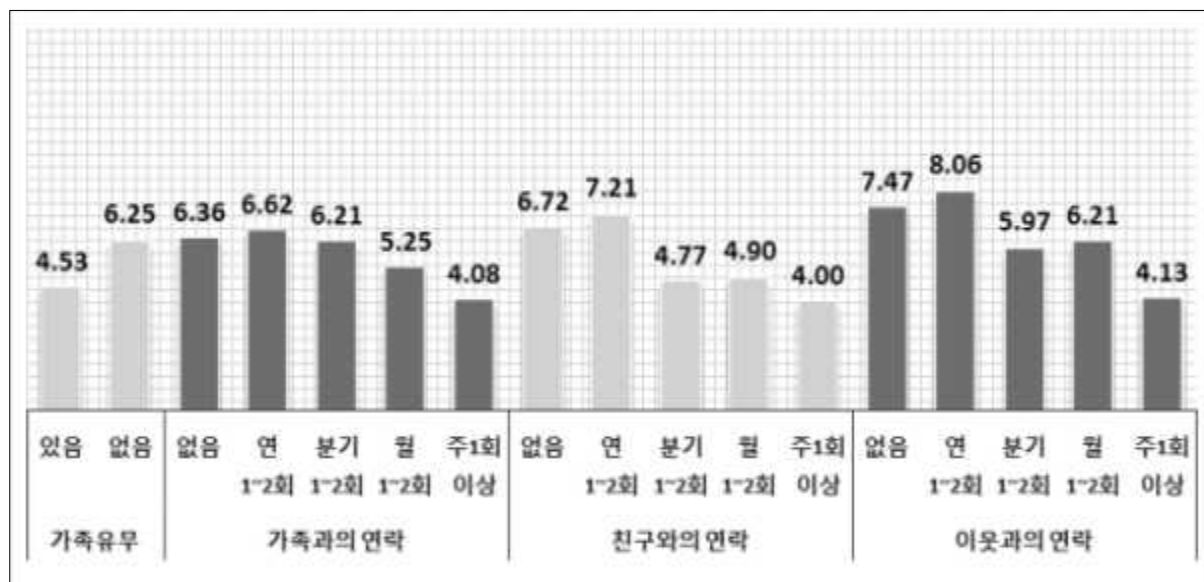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없음’(6.25)이 ‘있음’(4.5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49>, <그림 30>.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08 -> ‘없음’ 6.3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49>, <그림 30>.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모든 연락빈도가 ‘주 1회 이상’보다, ‘없음’이 ‘월 1~2회’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00 -> ‘없음’ 6.7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49>, <그림 30>.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모든 연락빈도가 ‘주 1회 이상’보다 높은 것과 ‘없음’이 ‘월 1~2회’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13 -> ‘없음’ 7.4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49>, <그림 30>.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이 ‘월 1~2회’와 ‘주 1회 이상’ 보다 높고, 다음으로 ‘월 1~2회’, ‘주 1회 이상’ 순으로 나타난 것과 ‘연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가족 유무	있음	2,499	4.53	3.91	9.806**	-
	없음	52	6.25	4.01		
	전체	2,551	4.57	3.92		
가족 연락	없음(A)	159	6.36	4.16	(24.880)***	E < (A~D)
	연 1~2회(B)	66	6.62	4.60		
	분기 1~2회(C)	96	6.21	4.25		
	월 1~2회(D)	421	5.25	3.82		D < A
	주 1회 이상(E)	1,862	4.08	3.78		
	전체	2,604	4.55	3.93		
친구 연락	없음(A)	398	6.72	4.28	(38.929)***	C,D,E, < A,B
	연 1~2회(B)	33	7.21	4.22		
	분기 1~2회(C)	73	4.77	3.43		
	월 1~2회(D)	253	4.90	3.71		E < D
	주 1회 이상(E)	1,845	4.00	3.71		
	전체	2,602	4.56	3.93		
이웃 연락	없음(A)	159	7.47	4.42	(37.259)***	E < D < A
	연 1~2회(B)	16	8.06	4.07		
	분기 1~2회(C)	36	5.97	3.93		
	월 1~2회(D)	214	6.21	3.83		E < B
	주 1회 이상(E)	2,175	4.13	3.75		
	전체	2,600	4.55	3.93		

* : p<.05, ** : p<.01, *** : p<.001

〈그림 3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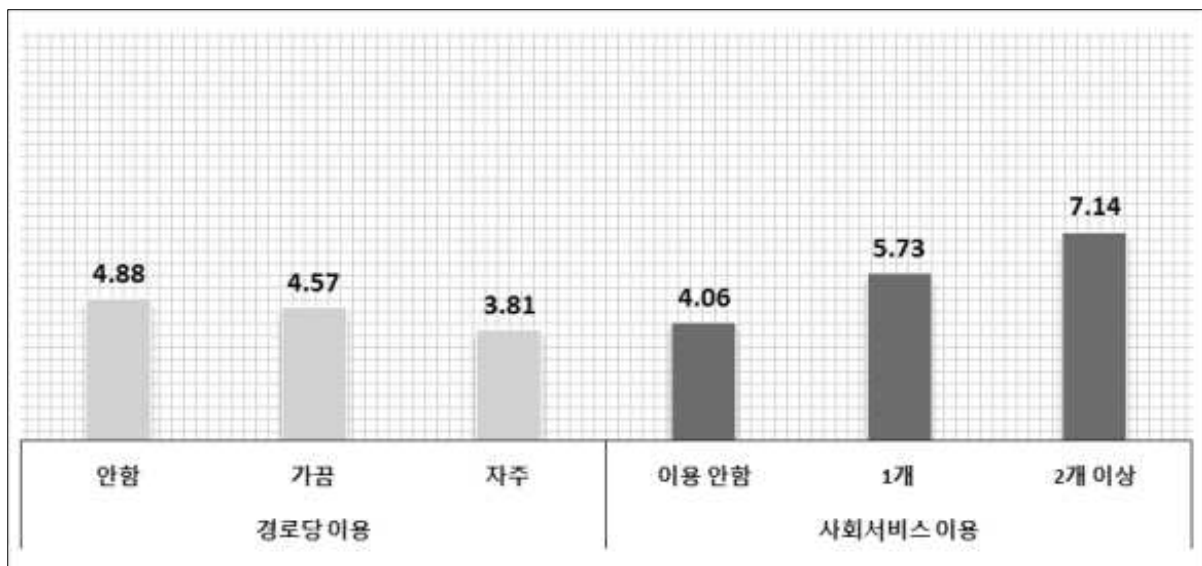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3.81 -> ‘안함’ 4.8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0>, <그림 3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자주’가 ‘안함’과 ‘가끔’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4.06 -> ‘2개 이상’ 7.1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0>, <그림 31>.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그 결과 ‘2개 이상’이 가장 높고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15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경로당 이용	안함(A)	1,560	4.88	4.09	(19.284)***	A,B < C
	가끔(B)	330	4.57	3.61		
	자주(C)	696	3.81	3.63		
	전체	2,586	4.55	3.94		
사회 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A)	1,784	4.06	3.71	(49.768)***	A < B < C
	1개(B)	640	5.73	4.08		
	2개 이상(C)	49	7.14	4.50		
	전체	2,473	4.55	3.91		

* : p<.05, ** : p<.01, *** : p<.001

〈그림 31〉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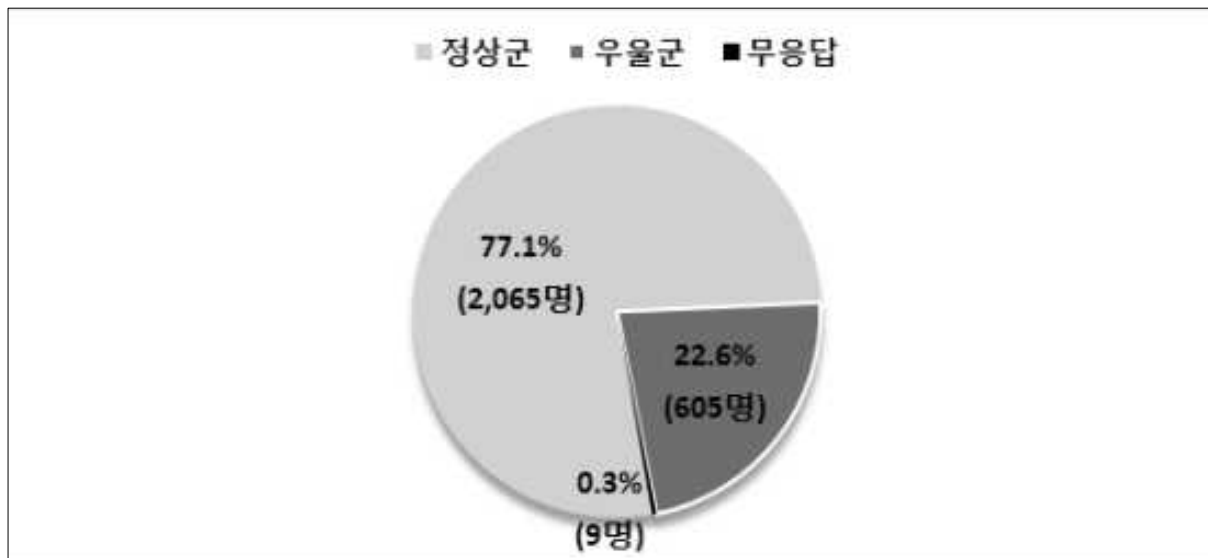
2 | 우울군 분포 현황

- 조맹제 등의 연구에 따르면 SGDS 점수의 총합이 8점 이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음.
- 태백시 검진응답자의 SGDS 점수 7점을 기준으로 정상군(0~7점), 우울군(8~15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상군’ 비율이 77.1%(2,065명), ‘우울군’ 비율이 22.6%(605명)로 나타남<표 151>.

〈표 151〉 태백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우울군	정상군	2,065	77.1
	우울군	605	22.6
	무응답	9	0.3
	전체	2,679	100.0

〈그림 32〉 태백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성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우울군 비율(24.9%)이 ‘여성’의 우울군 비율(21.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52>.
- 연령별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 연령대의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19.5% -> 85세 이상 29.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2>.
- 거주지역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삼수동’의 우울군 비율(31.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52>.

〈표 1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성별	남성	625 (75.1)	207 (24.9)	832 (100.0)	3.604	.064
	여성	1,430 (78.4)	393 (21.6)	1,823 (100.0)		
	전체	2,055 (77.4)	600 (22.6)	2,655 (100.0)		
연령별	65~69세	441 (80.5)	107 (19.5)	548 (100.0)	20.569	.000***
	70~74세	600 (80.0)	150 (20.0)	750 (100.0)		
	75~79세	538 (76.7)	163 (23.3)	701 (100.0)		
	80~84세	286 (70.8)	118 (29.2)	404 (100.0)		
	85세 이상	133 (70.7)	55 (29.3)	188 (100.0)		
	전체	1,998 (77.1)	593 (22.9)	2,591 (100.0)		
거주지역	황지동	645 (83.2)	130 (16.8)	775 (100.0)	7.482	.112
	황연동	97 (77.6)	28 (22.4)	125 (100.0)		
	삼수동	277 (68.2)	129 (31.8)	406 (100.0)		
	상장동	167 (75.6)	54 (24.4)	221 (100.0)		
	문곡소도동	158 (77.5)	46 (22.5)	204 (100.0)		
	장성동	398 (80.9)	94 (19.1)	492 (100.0)		
	구문소동	97 (72.9)	36 (27.1)	133 (100.0)		
	철암동	217 (71.1)	88 (28.9)	305 (100.0)		
	전체	2,056 (77.3)	605 (22.7)	2,661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종교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23.4%)가 있는 경우(21.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53>.

- 독거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동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6.8%)이 ‘독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1.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53>.
- 독거기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25년 이상’일 때의 우울군 비율(25.2%)이 다른 독거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53>.

〈표 15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803 (78.1)	225 (21.9)	1,028 (100.0)	0.827	.382
	없다	1,107 (76.6)	339 (23.4)	1,446 (100.0)		
	전체	1,910 (77.2)	564 (22.8)	2,474 (100.0)		
독거여부	독거	1,514 (78.8)	408 (21.2)	1,922 (100.0)	9.165	.003**
	동거	531 (73.2)	194 (26.8)	725 (100.0)		
	전체	2,045 (77.3)	602 (22.7)	2,647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204 (77.3)	60 (22.7)	264 (100.0)	8.089	.044*
	5~15년 미만	487 (80.9)	115 (19.1)	602 (100.0)		
	15~25년 미만	372 (80.7)	89 (19.3)	461 (100.0)		
	25년 이상	406 (74.8)	137 (25.2)	543 (100.0)		
	전체	1,469 (78.6)	401 (21.4)	1,870 (100.0)		

* : p<.05, ** : p<.01, *** : p<.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우울군 비율(35.5%)이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54>.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우울군 비율(27.3%)이 ‘한다’의 우울군 비율(12.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54>.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7.5%)이 ‘경제적 지원처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19.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54>.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군의 비율이 증가(‘부유’ 2.5% -> ‘가난’ 35.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4>.

〈표 154〉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278 (64.5)	153 (35.5)	431 (100.0)	81.123	.000***
	차상위계층	170 (65.6)	89 (34.4)	259 (100.0)		
	일반	1,565 (81.7)	351 (18.3)	1,916 (100.0)		
	전체	2,013 (77.2)	593 (22.8)	2,606 (100.0)		
경제활동	한다	664 (87.5)	95 (12.5)	759 (100.0)	66.493	.000***
	안한다	1,347 (72.7)	506 (27.3)	1,853 (100.0)		
	전체	2,011 (77.0)	601 (23.0)	2,612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1,185 (80.3)	290 (19.7)	1,475 (100.0)	22.082	.000***
	없다	803 (72.5)	305 (27.5)	1,108 (100.0)		
	전체	1,988 (77.0)	595 (23.0)	2,583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673 (64.8)	366 (35.2)	1,039 (100.0)	188.512	.000***
	보통	1,264 (84.7)	228 (15.3)	1,492 (100.0)		
	부유	79 (97.5)	2 (2.5)	81 (100.0)		
	전체	2,016 (77.2)	596 (22.8)	2,612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거동상태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20.6% -> ‘불능’ 56.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5>.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3.4%)이 복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13.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55>.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18.6% -> '4개 이상' 37.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5>.
- 문제성 음주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전혀 없다' 24.3% -> '거의 매일' 27.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5>.

〈표 155〉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1,979 (79.4)	512 (20.6)	2,491 (100.0)	136.664	.000***
	불편	36 (34.3)	69 (65.7)	105 (100.0)		
	불능	13 (43.3)	17 (56.7)	30 (100.0)		
	전체	2,028 (77.2)	598 (22.8)	2,626 (100.0)		
약 복용	있다	1,487 (76.6)	453 (23.4)	1,940 (100.0)	17.168	.000***
	없다	308 (86.5)	48 (13.5)	356 (100.0)		
	전체	1,795 (78.2)	501 (21.8)	2,296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703 (81.4)	161 (18.6)	864 (100.0)	39.612	.000***
	2개	633 (76.5)	194 (23.5)	827 (100.0)		
	3개	321 (69.5)	141 (30.5)	462 (100.0)		
	4개 이상	102 (63.0)	60 (37.0)	162 (100.0)		
	전체	1,759 (76.0)	556 (24.0)	2,315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610 (75.7)	517 (24.3)	2,127 (100.0)	20.990	.000***
	월1회 미만	79 (85.9)	13 (14.1)	92 (100.0)		
	월1회	114 (83.2)	23 (16.8)	137 (100.0)		
	주1회	186 (86.5)	29 (13.5)	215 (100.0)		
	거의 매일	44 (72.1)	17 (27.9)	61 (100.0)		
	전체	2,033 (77.2)	599 (22.8)	2,632 (100.0)		

* : p<.05, ** : p<.01, *** : p<.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가족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없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9.6%)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2.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56>.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19.3% -> ‘없음’ 37.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6>.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17.7% -> ‘없음’ 43.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6>.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19.2% -> ‘없음’ 49.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6>.

〈표 15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1,972 (77.5)	571 (22.5)	2,543 (100.0)	8.693	.007**
	없다	32 (60.4)	21 (39.6)	53 (100.0)		
	전체	2,004 (77.2)	592 (22.8)	2,596 (100.0)		
가족연락	없음	101 (62.3)	61 (37.7)	162 (100.0)	60.126	.000***
	연 1~2회	38 (55.9)	30 (44.1)	68 (100.0)		
	분기 1~2회	64 (66.7)	32 (33.3)	96 (100.0)		
	월 1~2회	315 (73.8)	112 (26.2)	427 (100.0)		
	주 1회 이상	1,530 (80.7)	366 (19.3)	1,896 (100.0)		
	전체	2,048 (77.3)	601 (22.7)	2,649 (100.0)		
친구연락	없음	236 (56.9)	179 (43.1)	415 (100.0)	134.865	.000***
	연 1~2회	19 (55.9)	15 (44.1)	34 (100.0)		
	분기 1~2회	60 (81.1)	14 (18.9)	74 (100.0)		
	월 1~2회	194 (75.2)	64 (24.8)	258 (100.0)		
	주 1회 이상	1,536 (82.3)	331 (17.7)	1,867 (100.0)		
	전체	2,045 (77.2)	603 (22.8)	2,648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이웃연락	없음	83 (50.3)	82 (49.7)	165 (100.0)	118.089	.000***
	연 1~2회	6 (35.3)	11 (64.7)	17 (100.0)		
	분기 1~2회	26 (70.3)	11 (29.7)	37 (100.0)		
	월 1~2회	144 (66.1)	74 (33.9)	218 (100.0)		
	주 1회 이상	1,785 (80.8)	423 (19.2)	2,208 (100.0)		
	전체	2,044 (77.3)	601 (22.7)	2,645 (100.0)		

* : p<.05, ** : p<.01, *** : p<.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살펴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16.7% -> ‘안함’ 26.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7>.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18.4% -> ‘2개 이상’ 46.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57>.

〈표 157〉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1,175 (73.9)	414 (26.1)	1,589 (100.0)	26.569	.000***
	가끔	274 (80.6)	66 (19.4)	340 (100.0)		
	자주	583 (83.3)	117 (16.7)	700 (100.0)		
	전체	2,032 (77.3)	597 (22.7)	2,629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안함	1,482 (81.6)	334 (18.4)	1,816 (100.0)	73.715	.000***
	1개	438 (67.2)	214 (32.8)	652 (100.0)		
	2개 이상	26 (53.1)	23 (46.9)	49 (100.0)		
	전체	1,946 (77.3)	571 (22.7)	2,517 (100.0)		

* : p<.05, ** : p<.01, *** : p<.001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1 |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 검진응답자의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 ‘있다’ 6.4%(172명), ‘없다’ 93.5%(2,506명)로 나타남<표 158>.

〈표 158〉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	있다	172	6.4
	없다	2,506	93.5
	무응답	1	0.0
	전체	2,679	100.0

- 검진응답자의 현재 자살 계획의 유무에 대해 살펴봤을 때 ‘있다’ 0.9%(25명), ‘없다’ 98.9%(2,649명)로 나타남<표 159>.

〈표 159〉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현재 자살 계획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계획	있다	25	0.9
	없다	2,649	98.9
	무응답	5	0.2
	전체	2,679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문제’가 27.3%(47명), ‘경제적 어려움’ 16.9%(29명), ‘외로움’ 12.8%(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160>.

〈표 160〉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의 이유	건강문제	47	27.3
	경제적 어려움	29	16.9
	외로움	22	12.8
	가정불화	2	1.2
	친구/동료와의 불화	0	0.0
	기타	11	6.4
	무응답	103	59.9
	전체	214	124.4

※ 문항 응답자 172명 중 30명 중복응답

- 검진응답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자살한 사람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3.7%(100명), ‘없다’ 96.0%(2,573명)로 나타남<표 161>.

〈표 16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가까운 사람의 자살	있다	100	3.7
	없다	2,573	96.0
	무응답	6	0.3
	전체	2,679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5.7% (154명), ‘없다’ 94.0%(2,517명)로 나타남<표 162>.

〈표 162〉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귀하께서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있다	154	5.7
	없다	2,517	94.0
	무응답	8	0.3
	전체	2,679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 중 자살시도한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42.2%(65명), ‘2회’ 22.1%(34명), ‘3회 이상’ 7.1%(11명) 순으로 나타남<표 163>.

〈표 163〉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과거에 자살시도한 횟수”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횟수	1회	65	42.2
	2회	34	22.1
	3회 이상	11	7.1
	무응답	44	28.6
	전체	154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 시도했을 때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약물복용이 38.9% (72명), 목매이 14.1%(26명), 익수 10.3%(19명), 살충제 9.2%(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164>.

〈표 164〉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했을 때의 방법”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했을 때의 방법	목매	26	14.1
	살충제	17	9.2
	투신	16	8.6
	가스	2	1.1
	자해	7	3.8
	익수	19	10.3
	약물복용	72	38.9
	기타	11	5.9
	무응답	15	8.1
	전체	185	100.0

※ 자살시도자 중 154명 중 26명 중복응답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자살위험군을 선별할 때 중요시 되는 문항인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와 ‘과거 자살시도의 유무’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함.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6.7%)이 여성(6.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65>.

- 연령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80~84세’인 경우(6.9%)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65>.

〈표 16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56 (6.7)	778 (93.3)	834 (100.0)	.277	.598
	여성	113 (6.2)	1,716 (93.8)	1,829 (100.0)		
	전체	169 (6.3)	2,494 (93.7)	2,663 (100.0)		
연령별	65~69세	37 (6.7)	512 (93.3)	549 (100.0)	1.513	.824
	70~74세	51 (6.8)	700 (93.2)	751 (100.0)		
	75~79세	40 (5.7)	666 (94.3)	706 (100.0)		
	80~84세	28 (6.9)	376 (93.1)	404 (100.0)		
	85세 이상	10 (5.3)	179 (94.7)	189 (100.0)		
	전체	166 (6.4)	2,433 (93.6)	2,599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문곡소도동’(8.3%)과 ‘구문소동’(8.3%)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66>.
- 종교유무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7.1%)가 있는 경우(5.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66>.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동거’인 경우(7.6%)가 ‘독거’인 경우(6.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66>.
- 독거기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5.3% -> ‘25년 이상’ 8.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66>.

〈표 16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황지동	40 (5.2)	736 (94.8)	776 (100.0)	7.055	.423
	황연동	8 (6.3)	118 (93.7)	126 (100.0)		
	삼수동	32 (7.8)	378 (92.2)	410 (100.0)		
	상장동	17 (7.6)	206 (92.4)	223 (100.0)		
	문곡소도동	17 (8.3)	187 (91.7)	204 (100.0)		
	장성동	26 (5.3)	466 (94.7)	492 (100.0)		
	구문소동	11 (8.3)	122 (91.7)	133 (100.0)		
	철암동	21 (6.9)	284 (93.1)	305 (100.0)		
	전체	172 (6.4)	2,497 (93.6)	2,669 (100.0)		
종교유무	있다	60 (5.8)	971 (94.2)	1,031 (100.0)	1.607	.218
	없다	103 (7.1)	1,348 (92.9)	1,451 (100.0)		
	전체	163 (6.6)	2,319 (93.4)	2,482 (100.0)		
독거여부	독거	115 (6.0)	1,811 (94.0)	1,926 (100.0)	2.211	.137
	동거	55 (7.6)	673 (92.4)	728 (100.0)		
	전체	170 (6.4)	2,484 (93.6)	2,654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14 (5.3)	250 (94.7)	264 (100.0)	9.234	.026*
	5~15년 미만	27 (4.5)	577 (95.5)	604 (100.0)		
	15~25년 미만	24 (5.2)	438 (94.8)	462 (100.0)		
	25년 이상	46 (8.5)	497 (91.5)	543 (100.0)		
	전체	111 (5.9)	1,762 (94.1)	1,873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11.0%)가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67>.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경우(7.1%)가 ‘한다’의 경우(4.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67>.
- 경제적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8.6%)가 ‘있다’의 경우(4.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67>.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울 수록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1.2% -> ‘가난’ 10.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67>.

〈표 167〉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48 (11.0)	387 (89.0)	435 (100.0)	26.669	.000***
	차상위계층	25 (9.6)	235 (90.4)	260 (100.0)		
	일반	95 (5.0)	1,823 (95.0)	1,918 (100.0)		
	전체	168 (6.4)	2,445 (93.6)	2,613 (100.0)		
경제활동	한다	34 (4.5)	726 (95.5)	760 (100.0)	6.271	.012*
	안한다	132 (7.1)	1,727 (92.9)	1,859 (100.0)		
	전체	166 (6.3)	2,453 (93.7)	2,619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70 (4.7)	1,406 (95.3)	1,476 (100.0)	15.892	.000***
	없다	96 (8.6)	1,018 (91.4)	1,114 (100.0)		
	전체	166 (6.4)	2,424 (93.6)	2,590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110 (10.5)	935 (89.5)	1,045 (100.0)	80.167	.000***
	보통	55 (3.7)	1,437 (96.3)	1,492 (100.0)		
	부유	1 (1.2)	80 (98.8)	81 (100.0)		
	전체	166 (6.3)	2,452 (93.7)	2,618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거동상태에 따라 살펴볼 때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5.9% -> ‘불능’ 16.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68>.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한 경우 (6.0%)가 없다고 한 경우(3.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68>.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4.8% -> ‘4개 이상’ 11.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68>.
- 문제성 음주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거의 매일’인 경우 (11.5%)가 다른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68>.

〈표 168〉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147 (5.9)	2,350 (94.1)	2,497 (100.0)	25.959	.000***
	불편	18 (17.0)	88 (83.0)	106 (100.0)		
	불능	5 (16.7)	25 (83.3)	30 (100.0)		
	전체	170 (6.5)	2,463 (93.5)	2,633 (100.0)		
약 복용	있다	116 (6.0)	1,829 (94.0)	1,945 (100.0)	2.362	.124
	없다	14 (3.9)	343 (96.1)	357 (100.0)		
	전체	130 (5.6)	2,172 (94.4)	2,302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42 (4.8)	826 (95.2)	868 (100.0)	46.521	.000***
	2개	35 (4.2)	793 (95.8)	828 (100.0)		
	3개	59 (12.7)	404 (87.3)	463 (100.0)		
	4개 이상	19 (11.7)	144 (88.3)	163 (100.0)		
	전체	155 (6.7)	2,167 (93.3)	2,322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35 (6.3)	1,999 (93.7)	2,134 (100.0)	3.254	.513
	월 1회 미만	6 (6.5)	86 (93.5)	92 (100.0)		
	월 1회	9 (6.6)	128 (93.4)	137 (100.0)		
	주 1회	11 (5.1)	204 (94.9)	215 (100.0)		
	거의 매일	7 (11.5)	54 (88.5)	61 (100.0)		
	전체	168 (6.4)	2,471 (93.6)	2,639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가족유무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다’의 경우(13.5%)가 ‘있다’의 경우(6.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69>.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4.9% -> ‘없음’ 16.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69>.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4.9% -> ‘없음’ 12.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69>.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5.2% -> ‘없음’ 14.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69>.

〈표 169〉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160 (6.3)	2,390 (93.7)	2,550 (100.0)	4.383	.046*
	없다	7 (13.5)	45 (86.5)	52 (100.0)		
	전체	167 (6.4)	2,435 (93.6)	2,602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연락	없음	27 (16.7)	135 (83.3)	162 (100.0)	67.674	.000***
	연 1~2회	12 (17.6)	56 (82.4)	68 (100.0)		
	분기 1~2회	16 (16.5)	81 (83.5)	97 (100.0)		
	월 1~2회	21 (4.9)	408 (95.1)	429 (100.0)		
	주 1회 이상	94 (4.9)	1,806 (95.1)	1,900 (100.0)		
	전체	170 (6.4)	2,486 (93.6)	2,656 (100.0)		
친구연락	없음	52 (12.5)	364 (87.5)	416 (100.0)	40.579	.000***
	연 1~2회	6 (17.6)	28 (82.4)	34 (100.0)		
	분기 1~2회	6 (8.1)	68 (91.9)	74 (100.0)		
	월 1~2회	16 (6.2)	242 (93.8)	258 (100.0)		
	주 1회 이상	91 (4.9)	1,782 (95.1)	1,873 (100.0)		
	전체	171 (6.4)	2,484 (93.6)	2,655 (100.0)		
이웃연락	없음	24 (14.5)	141 (85.5)	165 (100.0)	44.318	.000***
	연 1~2회	4 (23.5)	13 (76.5)	17 (100.0)		
	분기 1~2회	7 (18.9)	30 (81.1)	37 (100.0)		
	월 1~2회	20 (9.1)	199 (90.9)	219 (100.0)		
	주 1회 이상	115 (5.2)	2,099 (94.8)	2,214 (100.0)		
	전체	170 (6.4)	2,482 (93.6)	2,652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3.6% → ‘안함’ 7.3%)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170>.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4.9% -> ‘2개 이상’ 14.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70>.

〈표 170〉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117 (7.3)	1,478 (92.7)	1,595 (100.0)	12.270	.002**
	가끔	25 (7.3)	316 (92.7)	341 (100.0)		
	자주	25 (3.6)	675 (96.4)	700 (100.0)		
	전체	167 (6.3)	2,469 (93.7)	2,636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89 (4.9)	1,732 (95.1)	1,821 (100.0)	23.758	.000***
	1개	63 (9.6)	591 (90.4)	654 (100.0)		
	2개 이상	7 (14.3)	42 (85.7)	49 (100.0)		
	전체	159 (6.3)	2,365 (93.7)	2,524 (100.0)		

* : p<.05, ** : p<.01, *** : p<.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여성(5.9%)이 남성(5.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71>.
- 연령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85세 이상’ 3.7% -> ‘65~69세’ 8.0%)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71>.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삼수동(8.3%)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71>.

〈표 17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44 (5.3)	790 (94.7)	834 (100.0)	.450	.502
	여성	108 (5.9)	1,714 (94.1)	1,822 (100.0)		
	전체	152 (5.7)	2,504 (94.3)	2,656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연령별	65~69세	44 (8.0)	504 (92.0)	548 (100.0)	7.647	.105
	70~74세	43 (5.7)	705 (94.3)	748 (100.0)		
	75~79세	36 (5.1)	668 (94.9)	704 (100.0)		
	80~84세	20 (5.0)	383 (95.0)	403 (100.0)		
	85세 이상	7 (3.7)	182 (96.3)	189 (100.0)		
	전체	150 (5.8)	2,442 (94.2)	2,592 (100.0)		
거주지역	황지동	54 (7.0)	719 (93.0)	773 (100.0)	15.130	.034*
	황연동	9 (7.2)	116 (92.8)	125 (100.0)		
	삼수동	34 (8.3)	376 (91.7)	410 (100.0)		
	상장동	7 (3.1)	216 (96.9)	223 (100.0)		
	문곡소도동	10 (4.9)	194 (95.1)	204 (100.0)		
	장성동	22 (4.5)	470 (95.5)	492 (100.0)		
	구문소동	4 (3.0)	129 (97.0)	133 (100.0)		
	철암동	13 (4.3)	289 (95.7)	302 (100.0)		
	전체	153 (5.7)	2,509 (94.3)	2,662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종교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6.6%)가 없는 경우(5.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72>.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경우(6.6%)가 동거인 경우(3.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72>.
- 독거기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9.1%)가 다른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72>.

〈표 17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68 (6.6)	961 (93.4)	1,029 (100.0)	1.795	.193
	없다	77 (5.3)	1,369 (94.7)	1,446 (100.0)		
	전체	145 (5.9)	2,330 (94.1)	2,475 (100.0)		
독거여부	독거	127 (6.6)	1,792 (93.4)	1,919 (100.0)	8.995	.003***
	동거	26 (3.6)	702 (96.4)	728 (100.0)		
	전체	153 (5.8)	2,494 (94.2)	2,647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20 (7.6)	244 (92.4)	264 (100.0)	8.687	.034*
	5~15년 미만	31 (5.1)	571 (94.9)	602 (100.0)		
	15~25년 미만	25 (5.4)	435 (94.6)	460 (100.0)		
	25년 이상	49 (9.1)	491 (90.9)	540 (100.0)		
	전체	125 (6.7)	1,741 (93.3)	1,866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9.5%)가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73>.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한다’의 경우(6.7%)가 ‘안한다’의 경우(5.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73>.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8.1%)가 ‘있다’의 경우(4.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73>.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주관적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1.3% -> ‘가난’ 8.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73>.

〈표 173〉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41 (9.5)	392 (90.5)	433 (100.0)	12.815	.002**
	차상위계층	17 (6.6)	242 (93.4)	259 (100.0)		
	일반	96 (5.0)	1,818 (95.0)	1,914 (100.0)		
	전체	154 (5.9)	2,452 (94.1)	2,606 (100.0)		
경제활동	한다	51 (6.7)	707 (93.3)	758 (100.0)	1.334	.248
	안한다	103 (5.6)	1,751 (94.4)	1,854 (100.0)		
	전체	154 (5.9)	2,458 (94.1)	2,612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63 (4.3)	1,408 (95.7)	1,471 (100.0)	16.454	.000***
	없다	90 (8.1)	1,023 (91.9)	1,113 (100.0)		
	전체	153 (5.9)	2,431 (94.1)	2,584 (100.0)		
주관적 경제상태1)	가난	89 (8.5)	956 (91.5)	1,045 (100.0)	23.526	.000***
	보통	63 (4.2)	1,423 (95.8)	1,486 (100.0)		
	부유	1 (1.3)	79 (98.8)	80 (100.0)		
	전체	153 (5.9)	2,458 (94.1)	2,611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거동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정상'인 경우 (6.0%)가 다른 거동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74>.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있다'의 경우(6.3%)가 '없다'의 경우(5.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74>.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증가('1개' 4.6% -> '4개 이상' 10.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74>.

- 문제성 음주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월 1회 미만(8.8%)일 때가 다른 음주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74>.

〈표 174〉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149 (6.0)	2,342 (94.0)	2,491 (100.0)	2.162	.339
	불편	5 (4.8)	100 (95.2)	105 (100.0)		
	불능	0 (0.0)	30 (100.0)	30 (100.0)		
	전체	154 (5.9)	2,472 (94.1)	2,626 (100.0)		
약 복용	있다	122 (6.3)	1,817 (93.7)	1,939 (100.0)	0.802	.371
	없다	18 (5.1)	338 (94.9)	356 (100.0)		
	전체	140 (6.1)	2,155 (93.9)	2,295 (100.0)		
알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40 (4.6)	825 (95.4)	865 (100.0)	14.376	.003***
	2개	43 (5.2)	783 (94.8)	826 (100.0)		
	3개	39 (8.4)	423 (91.6)	462 (100.0)		
	4개 이상	17 (10.4)	146 (89.6)	163 (100.0)		
	전체	139 (6.0)	2,177 (94.0)	2,316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28 (6.0)	2,001 (94.0)	2,129 (100.0)	4.173	.418
	월 1회 미만	8 (8.8)	83 (91.2)	91 (100.0)		
	월 1회	7 (5.1)	129 (94.9)	136 (100.0)		
	주 1회	8 (3.7)	207 (96.3)	215 (100.0)		
	거의 매일	2 (3.3)	59 (96.7)	61 (100.0)		
	전체	153 (5.8)	2,479 (94.2)	2,632 (100.0)		

* : p<.05, ** : p<.01, *** : p<.001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가족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족이 없는 경우(11.5%)가 있는 경우(5.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75>.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4% -> ‘없음’ 12.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75>.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연 1~2회’인 경우(17.6%)가 다른 연락빈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75>.
- 이웃과의 연락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5.3% -> ‘없음’ 8.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175>.

〈표 175〉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145 (5.7)	2,398 (94.3)	2,543 (100.0)	3.168	.121
	없다	6 (11.5)	46 (88.5)	52 (100.0)		
	전체	151 (5.8)	2,444 (94.2)	2,595 (100.0)		
가족연락	없음	20 (12.3)	142 (87.7)	162 (100.0)	30.559	.000***
	연 1~2회	8 (11.8)	60 (88.2)	68 (100.0)		
	분기 1~2회	11 (11.5)	85 (88.5)	96 (100.0)		
	월 1~2회	30 (7.0)	397 (93.0)	427 (100.0)		
	주 1회 이상	84 (4.4)	1,812 (95.6)	1,896 (100.0)		
	전체	153 (5.8)	2,496 (94.2)	2,649 (100.0)		
친구연락	없음	28 (6.7)	387 (93.3)	415 (100.0)	10.131	.038*
	연 1~2회	6 (17.6)	28 (82.4)	34 (100.0)		
	분기 1~2회	4 (5.5)	69 (94.5)	73 (100.0)		
	월 1~2회	13 (5.0)	245 (95.0)	258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친구연락	주 1회 이상	102 (5.5)	1,766 (94.5)	1,868 (100.0)		
	전체	153 (5.8)	2,495 (94.2)	2,648 (100.0)		
이웃연락	없음	14 (8.5)	150 (91.5)	164 (100.0)	6.420	.170
	연 1~2회	2 (11.8)	15 (88.2)	17 (100.0)		
	분기 1~2회	4 (10.8)	33 (89.2)	37 (100.0)		
	월 1~2회	15 (6.9)	202 (93.1)	217 (100.0)		
	주 1회 이상	118 (5.3)	2,092 (94.7)	2,210 (100.0)		
	전체	153 (5.8)	2,492 (94.2)	2,645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정도가 ‘가끔’인 경우(8.3%)가 다른 이용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76>.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2개 이상’인 경우(8.2%)가 다른 이용정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176>.

〈표 17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97 (6.1)	1,494 (93.9)	1,591 (100.0)	8.101	.017*
	가끔	28 (8.3)	311 (91.7)	339 (100.0)		
	자주	28 (4.0)	671 (96.0)	699 (100.0)		
	전체	153 (5.8)	2,476 (94.2)	2,629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안함	98 (5.4)	1,720 (94.6)	1,818 (100.0)	2.464	.292
	1개	45 (6.9)	608 (93.1)	653 (100.0)		
	2개 이상	4 (8.2)	45 (91.8)	49 (100.0)		
	전체	147 (5.8)	2,373 (94.2)	2,520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3 |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1)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주관적 경제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 친구와의 연락빈도가 우울군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77>.
- 연령은 우울군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문항이지만, 연령대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부유인 경우를 기준으로 가난인 경우가 32.240배, 보통인 경우 12.033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1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3개인 경우가 1.666배, 4개 이상인 경우가 1.832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주 1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없음인 경우가 3.035배, 연 1~2회인 경우 2.379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7〉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¹⁾	
				χ^2	p
연령별		.000		2.894	.941
연령별(1) : 70~74세	-.189	.231	.827		
연령별(2) : 75~79세	.026	.868	1.026		
연령별(3) : 80~84세	.302	.081	1.353		
연령별(4) : 85세 이상	.098	.664	1.103		
주관적 경제상태²⁾		.000			
주관적 경제상태(1) : 가난	3.473	.001	32.240		
주관적 경제상태(2) : 보통	2.488	.014	12.033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01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166	.197	1.181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511	.000	1.666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605	.003	1.832		
친구와의 연락빈도		.000			
친구와의 연락빈도(1) : 없음	1.110	.000	3.035		
친구와의 연락빈도(2) : 연 1~2회	1.218	.001	3.379		
친구와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035	.916	.966		
친구와의 연락빈도(4) : 월 1~2회	.381	.025	1.464		

1) 모형의 적합도 검정 : 유의확률의 값이 > 0.05 여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2)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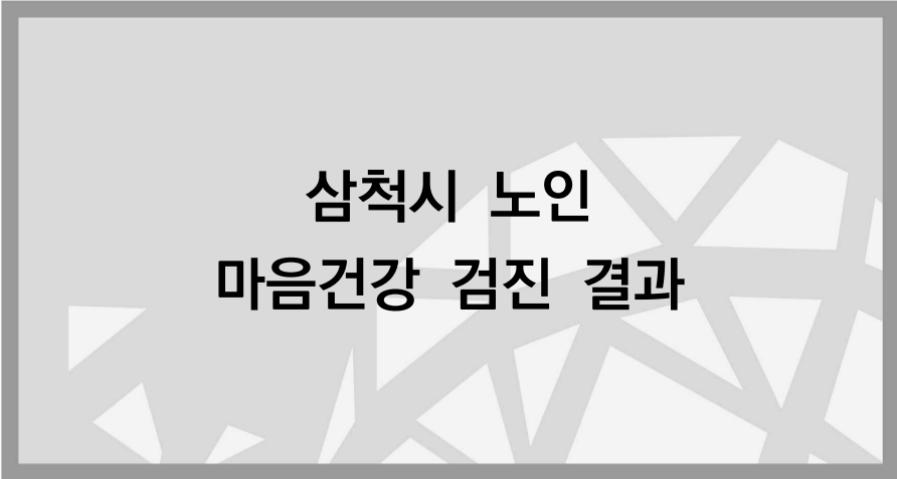
2)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앓고 있는 질병의 수, 가족과의 연락빈도가 자살 고위험군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178>.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3개인 경우가 1개인 경우보다 1.906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주 1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없음인 경우가 2.034배, 연 1~2회인 경우 2.524배, 분기 1~2회인 경우 2.588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178〉 태백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χ^2	p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01		1.947	.925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444	.130	.641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645	.018	1.906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459	.197	1.582		
가족과의 연락빈도		.000			
가족과의 연락빈도(1) : 없음	.710	.037	2.034		
가족과의 연락빈도(2) : 연 1~2회	.926	.026	2.524		
가족과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951	.020	2.588		
가족과의 연락빈도(4) : 월 1~2회	-.196	.526	.822		

*: p<.05, **: p<.01, ***: p<.001



**삼척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삼척시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 검진개요

1 | 검진 범위

- 지역적 범위 : 삼척시
- 대상자 범위 : 65세 이상 노인
- 내용적 범위 : 일반적인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 우울증 평가, 자살위험성

2 | 검진 대상 및 방법

1) 검진 대상

- 삼척시 성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지별 65세이상 노인 인구수와 검진응답자수는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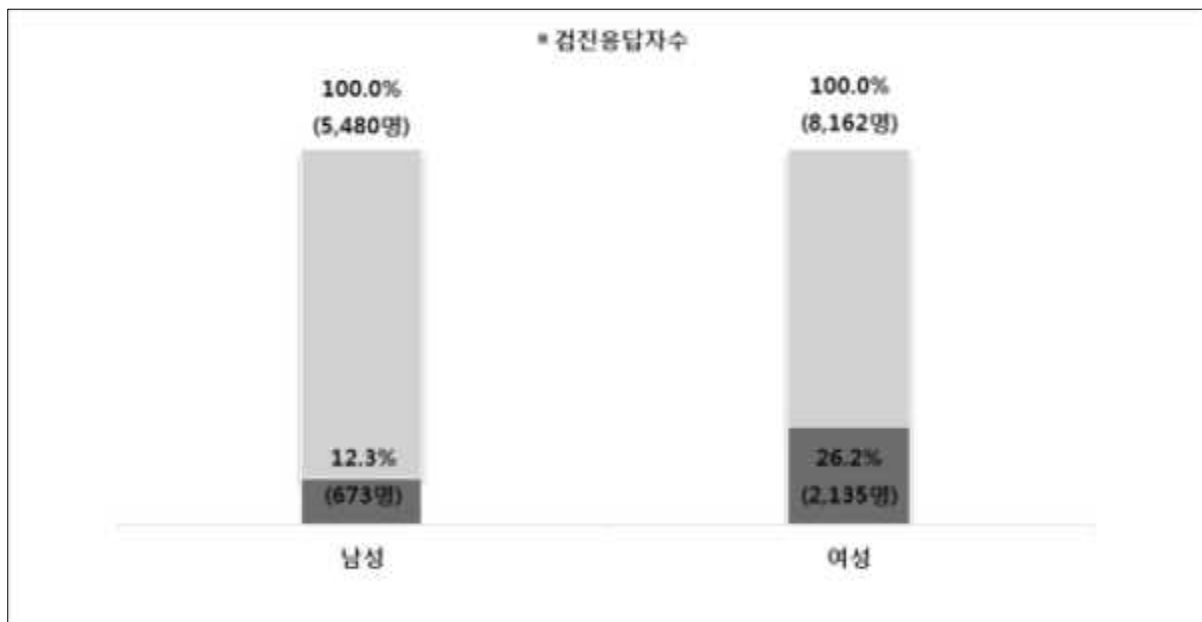
〈표 179〉 삼척시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구분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명)	검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성별	남성	5,480	673	12.3	
	여성	8,162	2,135	26.2	
	무응답	-	13	-	
연령별	65 - 69세	3,776	415	11.0	
	70 - 74세	3,763	626	16.6	
	75 - 79세	3,018	745	24.7	
	80 - 84세	1,879	600	31.9	
	85세 이상	1,206	412	34.2	
	무응답	-	23	-	
거주지역	도계읍	2,379	768	32.3	
	원덕읍	1,165	134	11.5	
	가곡면	259	56	21.6	
	근덕면	1,985	604	30.4	
	노곡면	320	24	7.5	
	미로면	689	103	14.9	
	신기면	271	3	1.1	
	하장면	389	30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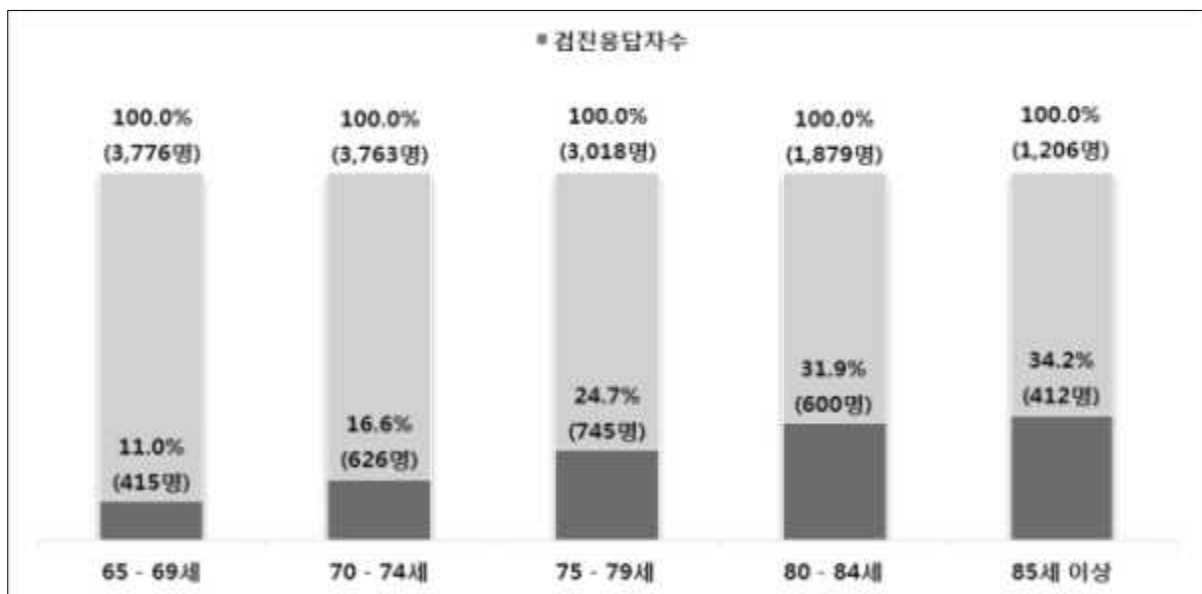
구분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명)	검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거주지역	남양동	1,895	283	14.9	
	성내동	1,577	352	22.3	
	교동	1,159	147	12.9	
	정라동	1,554	276	17.8	
	무응답	-	41	-	
합계		13,642	2,821	20.7	

※ 출처 : 통계청(2014) - 2014년 12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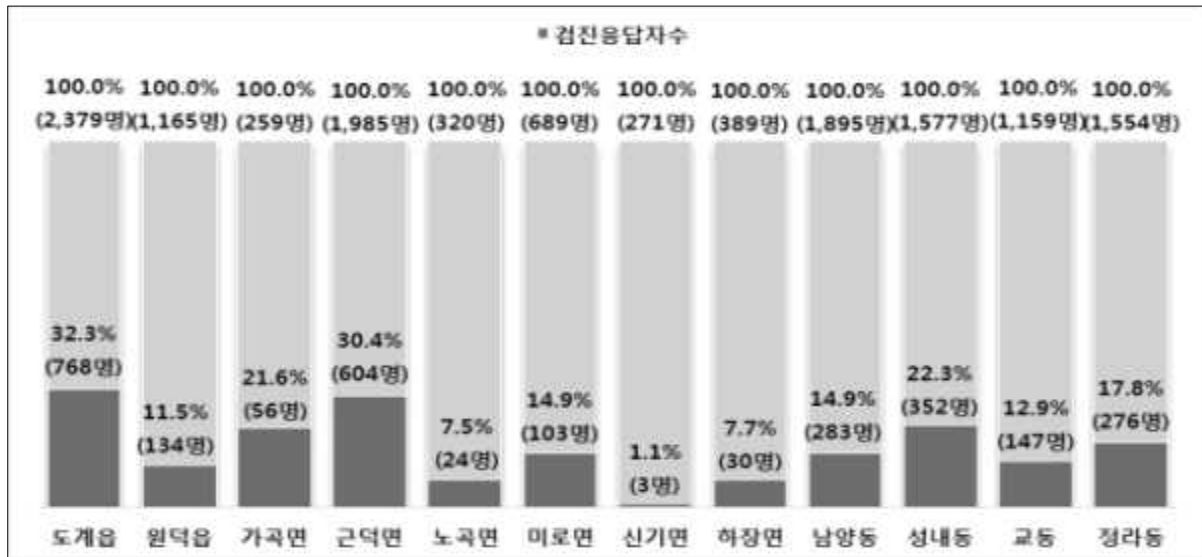
〈그림 33〉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그림 34〉 삼척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연령별



〈그림 35〉 삼척시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거주지역



2) 검진방법

- 검진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검진요원들이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검진 실시

3 | 검진 내용

- 검진의 주요 내용은 특성에 따른 응답자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우울증평가(SGDS), 자살 위험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80〉 주요 검진 내용

검진 분야	검진내용
①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거주지, 종교, 독거, 주거유형
② 경제적 특성	사회보장, 경제활동, 경제적 지원, 주관적 경제상태
③ 보건학적 특성	거동상태, 약 복용, 질병, 음주여부
④ 사회관계적 특성	가족여부, 가족과의 연락, 친구와의 연락, 이웃과의 연락,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⑤ 우울증평가(SGDS)	현재 생활 만족, 기분, 불안, 기억력, 기력 등
⑥ 자살위험성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한 지인의 유무, 자살시도력

4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검수 및 확인

- 설문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 자료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유효 자료에 대해 통계처리 함.

2) 자료처리

- 검진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평균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 빈도분석을 제외한 그 외의 통계분석은 각 문항의 무응답을 결측값으로 두고 자료를 분석하였기에 문항별 응답자 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5 | 응답자 현황

1) 일반적 특성

● 성별

-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마음건강검진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23.9%(673명), ‘여성’ 75.7%(2,135명)로 나타남<표 181>.

〈표 181〉 응답자 성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673	23.9
	여성	2,135	75.7
	무응답	13	0.4
	전체	2,821	100.0

● 연령별

- 검진응답자의 연령별을 살펴보면 ‘75~79세’가 26.4%(745명), ‘70~74세’ 22.2%(626명), ‘80~84세’ 21.3%(600명), ‘65~69세’ 14.7%(415명), ‘85세 이상’ 14.6%(41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77.1±6.7세’로 나타남<표 182>.

〈표 182〉 응답자 연령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연령별	65~69세	415	14.7
	70~74세	626	22.2
	75~79세	745	26.4
	80~84세	600	21.3
	85세 이상	412	14.6
	무응답	23	0.8
	전체	2,821	100.0

● 거주지역

- 검진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도계읍’ 27.2%(768명), ‘근덕면’ 21.4%(604명), ‘성내동’ 12.5%(352명), ‘남양동’ 10.0%(283명), ‘정라동’ 9.8%(276명)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183>.

〈표 183〉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주지역	도계읍	768	27.2
	원덕읍	134	4.7
	가곡면	56	2.0
	근덕면	604	21.4
	노곡면	24	0.8
	미로면	103	3.7
	신기면	3	0.1
	하장면	30	1.1
	남양동	283	10.0
	성내동	352	12.5
	교 동	147	5.2
	정라동	276	9.8
	무응답	41	1.5
	합계	2,821	100.0

● 종교

- 검진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43.0%(1,214명) ‘불교’ 22.4%(631명), ‘기독교’ 10.7%(302명), ‘천주교’ 2.7%(76명), ‘기타’ 1.1%(30명) 순으로 나타남<표 184>.

〈표 184〉 응답자 종교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종교	기독교	302	10.7
	불교	631	22.4
	천주교	76	2.7
	무교	1,214	43.0
	기타	30	1.1
	무응답	568	20.1
	합계	2,821	100.0

● 주거유형

- 검진응답자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자가’가 63.8%(1,801명), ‘기타’ 16.9%(477명), ‘월세’ 14.0%(395명), ‘전세’ 3.3%(94명) 순으로 나타남<표 185>.

〈표 185〉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유형	자가	1,801	63.8
	전세	94	3.3
	월세	395	14.0
	기타	477	16.9
	무응답	54	1.9
	합계	2,821	100.0

● 독거여부

- 검진 대상자의 독거여부를 살펴보면 ‘독거’ 70.5%(1,989명), ‘동거’ 29.4%(830명)로 나타남<표 186>.

〈표 186〉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여부	독거	1,989	70.5
	동거	830	29.4
	무응답	2	0.1
	합계	2,821	100.0

● 독거기간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기간을 살펴보면 ‘25년 이상’ 31.0%(616명), ‘5년~15년 미만’ 28.8%(572명), ‘15년~25년 미만’ 22.9%(455명), ‘5년 미만’ 12.8%(25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독거기간은 ‘19.3±13.9년’으로 나타남<표 187>.

〈표 187〉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기간	5년 미만	255	12.8
	5년~15년 미만	572	28.8
	15년~25년 미만	455	22.9
	25년 이상	616	31.0
	무응답	91	4.5
	전체	1,989	100.0

● 독거사유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사유를 살펴보면 ‘사별’ 88.7%(1,763명), ‘이혼’ 4.3%(86명), ‘별거’ 2.4%(48명), ‘기타’ 2.2%(44명), ‘미혼’ 1.4%(28명) 순으로 나타남<표 188>.

〈표 188〉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사유	사별	1,763	88.7
	이혼	86	4.3
	미혼	28	1.4
	별거	48	2.4
	기타	44	2.2
	무응답	20	1.0
	합계	1,989	100.0

2) 경제적 특성

● 사회보장

- 검진응답자의 사회보장을 살펴보면 ‘일반’ 74.0%(2,087명), ‘기초생활수급자’ 19.8%(559명), ‘차상위 계층’ 4.2%(119명) 순으로 나타남<표 189>.

〈표 189〉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559	19.8
	차상위계층	119	4.2
	일반	2,087	74.0
	무응답	56	2.0
	합계	2,821	100.0

● 경제활동

- 검진응답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안한다’ 84.6%(2,386명), ‘한다’ 15.0%(423명)로 나타남<표 190>.

〈표 190〉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활동	한다	423	15.0
	안한다	2,386	84.6
	무응답	12	0.4
	합계	2,821	100.0

● 경제적 지원(1) : 경제적 지원여부

- 검진응답자의 사회보장을 살펴보면 ‘지원처가 없다’ 64.5%(1,821명), ‘지원처가 있다’ 33.3%(939명)로 나타남<표 191>.

〈표 191〉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1)	지원처가 있다	939	33.3
	지원처가 없다	1,821	64.5
	무응답	61	2.2
	합계	2,821	100.0

● 경제적 지원(2) : 정기적 지원 & 비정기적 지원

-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검진응답자의 사회보장을 살펴보면 ‘정기적 지원’ 47.9%(450명), ‘비정기적 지원’ 42.0%(394명)로 나타남<표 192>.

〈표 192〉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2)	정기적 지원	450	47.9
	비정기적 지원	394	42.0
	무응답	95	10.1
	합계	939	100.0

● 주관적 경제상태

- 검진응답자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가난하다’ 44.7%(1,261명), ‘보통’ 42.3%(1,193명), ‘매우 가난하다’ 10.8%(304명), ‘부유하다’ 1.3%(37명), ‘매우 부유하다’ 0.0%(1명) 순으로 나타남<표 193>.



〈표 193〉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304	10.8
	가난하다	1,261	44.7
	보통	1,193	42.3
	부유하다	37	1.3
	매우 부유하다	1	0.0*
	무응답	25	0.9
	합계	2,821	100.0

0.0* : 0.04%

3)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검진응답자의 거동상태를 살펴보면 ‘정상’ 93.3%(2,632명), ‘불편’ 4.9%(139명), ‘불능’ 1.1%(32명)로 나타남<표 194>.

〈표 194〉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동상태	정상 ¹⁾	2,632	93.3
	불편 ²⁾	139	4.9
	불능 ³⁾	32	1.1
	무응답	18	0.6
	합계	2,821	100.0

1) 정상 : 도움 없이 혼자 방을 나올 수 있다.

2) 불편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족이 있어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3) 불능 : 들 것에 실리거나 업혀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 3개월 이상 약 복용

- 검진응답자의 ‘3개월 이상 약 복용’ 여부를 살펴보면 ‘있음’ 88.3%(2,490명), ‘없음’ 10.7%(301명)로 나타남<표 195>.

〈표 195〉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3개월 이상 약 복용	있음	2,490	88.3
	없음	301	10.7
	무응답	30	1.1
	합계	2,821	100.0

● 앓고 있는 질병

- 검진응답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살펴보면 ‘고혈압’ 71.6%(1,786명), ‘만성통증’ 39.8%(992명), ‘기타’ 35.1%(876명), ‘당뇨병’ 21.9%(547명), ‘우울증’ 3.1%(78명)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196>.

〈표 196〉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앓고 있는 질병	암	41	1.6
	만성통증	992	39.8
	뇌혈관질환	142	5.7
	고혈압	1,786	71.6
	당뇨병	547	21.9
	심장질환	299	12.0
	간질환	26	1.0
	신장질환	38	1.5
	호흡기질환	141	5.7
	우울증	78	3.1
	기타	876	35.1
합계		4,966	199.1

※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2,333명중 1,627명이 중복응답

● 문제성 음주 : 소주 1병 or 맥주 4병 이상

- 검진응답자의 문제성 음주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76.3%(2,152명), ‘주 1회’ 7.7%(203명), ‘월 1회 미만’ 7.2%(203명), ‘월 1회’ 4.3%(120명), ‘거의 매일’ 3.0%(84명) 순으로 나타남<표 197>.

〈표 197〉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2,152	76.3
	월 1회 미만	203	7.2
	월 1회	120	4.3
	주 1회	218	7.7
	거의 매일	84	3.0
	무응답	44	1.6
합계		2,821	100.0

4)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검진응답자의 가족여부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88.9%(2,507명),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46.6%(1,315명), ‘배우자’ 21.6%(608명), ‘없음’ 4.7%(133명), ‘기타’ 0.9%(24명) 순으로 나타남 <표 198>.

〈표 198〉 응답자 가족여부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여부	없음	133	4.7
	배우자	608	21.6
	자녀	2,507	88.9
	형제/자매	1,315	46.6
	기타	24	0.9
	무응답	26	0.9
합계		4,613	163.5

※ 검진응답자 중 1,465명이 다중응답

● 가족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51.4%(1,451명), ‘월 1~2회’ 19.0%(536명), ‘연 1~2회’ 13.2%(372명), ‘없음’ 8.6%(244명), ‘분기 1~2회’ 7.3%(205명) 순으로 나타남 <표 199>.

〈표 199〉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연락	없음	244	8.6
	연 1~2회	372	13.2
	분기 1~2회	205	7.3
	월 1~2회	536	19.0
	주 1회 이상	1,451	51.4
	무응답	13	0.5
	합계	2,821	100.0

● 친구연락

- 검진응답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55.5%(1,565명), ‘없음’ 33.2%(936명), ‘월 1~2회’ 7.5%(212명), ‘분기 1~2회’ 1.8%(52명) ‘연 1~2회’ 1.4%(38명) 순으로 나타남 <표 200>.

〈표 200〉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친구연락	없음	936	33.2
	연 1~2회	38	1.4
	분기 1~2회	52	1.8
	월 1~2회	212	7.5
	주 1회 이상	1,565	55.5
	무응답	18	0.6
	합계	2,821	100.0

● 이웃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81.5%(2,300명), ‘없음’ 11.0%(309명), ‘월 1~2회’ 5.5%(154명), ‘연 1~2회’ 0.7%(21명), ‘분기 1~2회’ 0.6%(16명) 순으로 나타남 <표 201>.

〈표 201〉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이웃연락	없음	309	11.0
	연 1~2회	21	0.7
	분기 1~2회	16	0.6
	월 1~2회	154	5.5
	주 1회 이상	2,300	81.5
	무응답	21	0.7
	합계	2,821	100.0

● 경로당 이용

- 검진응답자의 경로당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안함’ 44.0%(1,240명), ‘자주(월 3회 이상)’ 37.5%(1,058명), ‘가끔(월 2회 이하)’ 17.4%(491명) 순으로 나타남<표 202>.

〈표 202〉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로당 이용	안함	1,240	44.0
	가끔(월 2회 이하)	491	17.4
	자주(월 3회 이상)	1,058	37.5
	무응답	32	1.1
	합계	2,821	100.0

● 사회서비스 이용(1) : 사회서비스 이용여부

- 검진응답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이용안함’ 79.0%(2,230명), ‘이용’ 18.9%(532명)로 나타남<표 203>.

〈표 203〉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532	18.9
	이용안함	2,230	79.0
	무응답	59	2.1
	합계	2,821	100.0

● 사회서비스 이용(2) :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종류

- 검진응답자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사서비스’ 55.1%(293명), ‘기타’ 30.3%(161명), ‘정서서비스’ 21.4%(114명), ‘간병서비스’ 9.6%(51명), ‘결연서비스’ 1.7%(9명) 순으로 나타남<표 204>.

〈표 204〉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2)	가사서비스	293	55.1
	정서서비스	114	21.4
	결연서비스	9	1.7
	간병서비스	51	9.6
	기타	161	30.3
	무응답	50	9.4
	합계	678	127.4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검진응답자 중 111명이 다중응답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1 | 우울점수(SGDS)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또는 로버스트검정(welch)을 실시하였고 검정결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6.01)이 ‘남성’(5.5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05>, <그림 36>.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4.70 -> ‘85세 이상’ 7.2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05>, <그림 36>.
 - 연령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8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보다, 75~79세와 80~84세가 65~69세보다, 그리고 80~84세가 70~74세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원덕읍’(7.99)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05>, <그림 36>.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원덕읍’이 ‘가곡면’, ‘노곡면’, ‘하장면’, ‘정라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도계읍’, ‘가곡면’, ‘근덕면’, ‘성내동’, ‘정라동’이 ‘미로면’, ‘남양동’, ‘교동’보다, 그리고 ‘하장면’과 ‘남양동’이 ‘교동’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5>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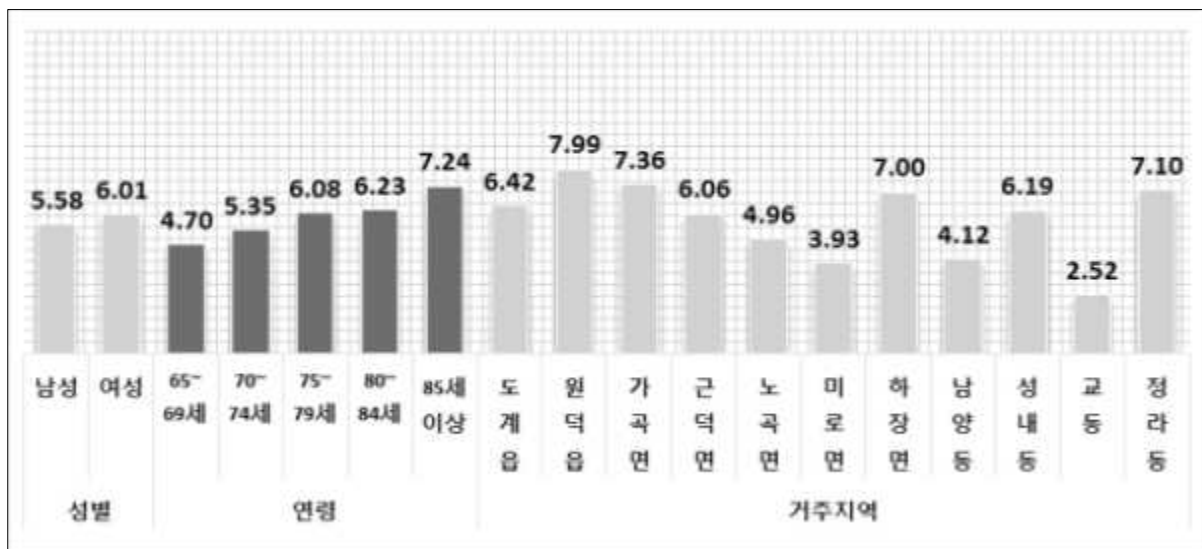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663	5.58	4.75	4.297*	-
	여성	2,084	6.01	4.58		
	전체	2,747	5.91	4.63		
연령별	65~69세(A)	404	4.70	4.43	18.841***	(A~D) < E
	70~74세(B)	620	5.35	4.68		A < C,D
	75~79세(C)	727	6.08	4.62		
	80~84세(D)	587	6.23	4.46		B < D
	85세 이상(E)	398	7.24	4.53		
	전체	2,736	5.91	4.6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거주 지역 ¹⁾	도계읍(A)	761	6.42	4.44	(27.404)***	A,D,F,(H~J) < B
	원덕읍(B)	133	7.99	4.56		
	가곡면(C)	56	7.36	3.84		
	근덕면(D)	588	6.06	4.92		
	노곡면(E)	24	4.96	4.02		F,H,J < A,C,D,I,K
	미로면(F)	98	3.93	4.10		
	하장면(G)	30	7.00	4.58		
	남양동(H)	279	4.12	4.03		
	성내동(I)	345	6.19	4.51		J < G,H
	교동(J)	146	2.52	3.54		
	정라동(K)	258	7.10	4.40		
	전체	2,718	5.93	4.62		

1) '신기면'은 응답자 수가 적어(n<10) 제외하고 분석 실시

* : p<.05, ** : p<.01, *** : p<.001

〈그림 3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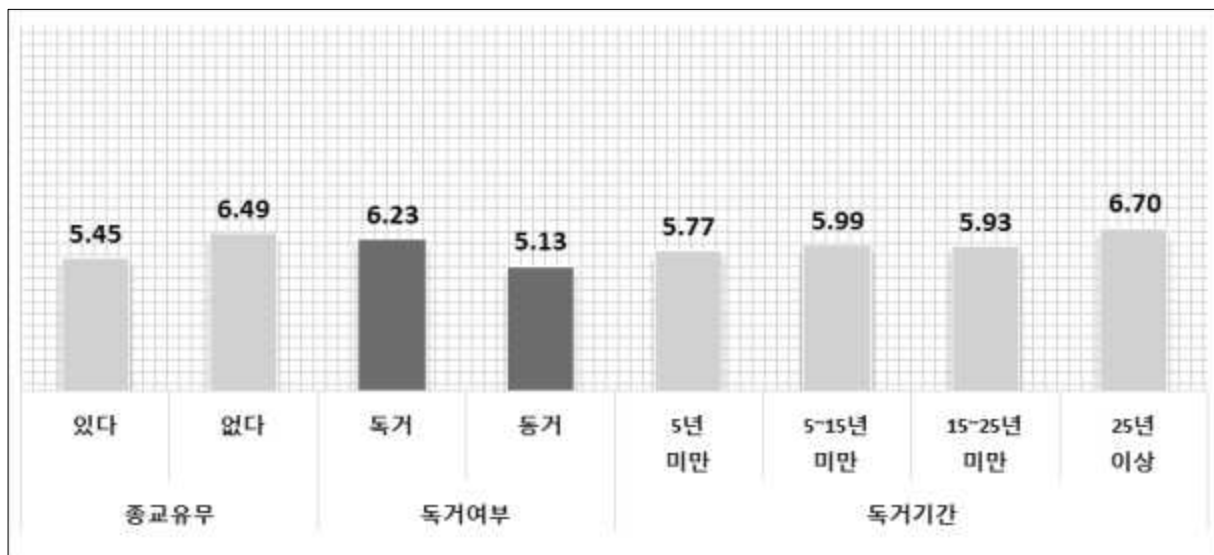
- 종교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6.49)가 있는 경우(5.4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06>, <그림 37>.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독거'(6.23)가 '동거'(5.1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06>, <그림 37>.
- 독거인 검진응답자 중 독거기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5.77 -> '25년 이상' 6.7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06>, <그림 37>.
- 독거기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25년 이상'이 '5년 미만'인 경우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종교 유무	있다	1,025	5.45	4.48	28.350	-
	없다	1,185	6.49	4.63		
	전체	2,210	6.01	4.59		
독거 여부	독거	1,943	6.23	4.56	33.336***	-
	동거	814	5.13	4.66		
	전체	2,757	5.91	4.62		
독거 기간	5년 미만(A)	255	5.77	4.51	4.143**	A < D
	5~15년 미만(B)	556	5.99	4.55		
	15~25년 미만(C)	445	5.93	4.67		
	25년 이상(D)	601	6.70	4.36		
	전체	1,857	6.18	4.52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8.12)가 다른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07>, <그림 38>.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안한다’(6.20)가 ‘한다’(4.2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207>, <그림 38>.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6.52)가 ‘있다’(4.7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07>, <그림 3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2.30 → ‘가난’ 7.6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07>, <그림 3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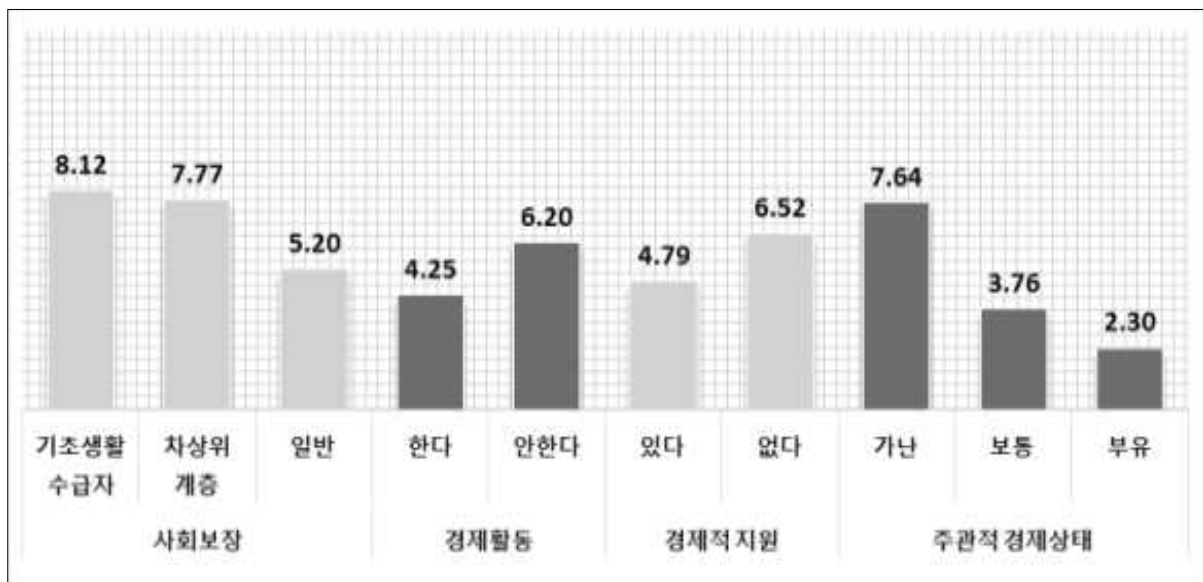
<표 20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사회 보장	기초생활수급자(A)	542	8.12	4.78	(94.863)***	C < A,B
	차상위계층(B)	119	7.77	4.39		
	일반(C)	2,045	5.20	4.37		
	전체	2,706	5.90	4.62		
경제 활동	한다	416	4.25	4.11	(75.526)***	-
	안한다	2,331	6.20	4.64		
	전체	2,747	5.90	4.62		
경제적 지원	있다	926	4.79	4.21	(94.215)***	-
	없다	1,774	6.52	4.72		
	전체	2,700	5.92	4.62		
주관적 경제 상태 ¹⁾	가난(A)	1,526	7.64	4.52	(314.613)***	C < B < A
	보통(B)	1,172	3.76	3.77		
	부유(C)	37	2.30	3.00		
	전체	2,735	5.90	4.63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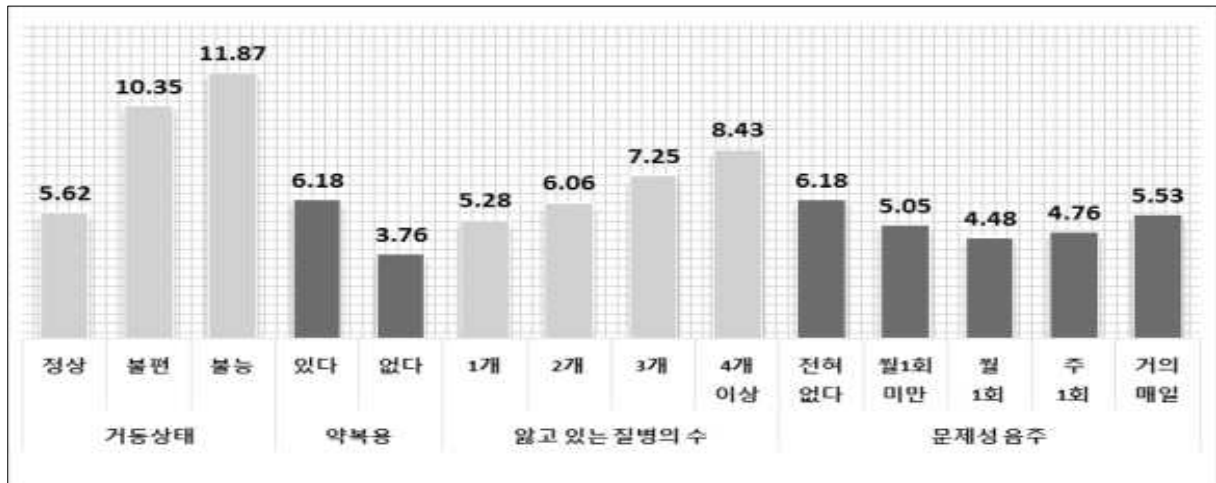
- 거동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 ('정상' 5.62 -> '불능' 11.8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08>, <그림 39>.
 - 거동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불편'과 '불능'이 '정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개월 이내 약 복용 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있다'(6.18)가 '없다'(3.7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08>, <그림 39>.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1개' 5.28 -> '4개 이상' 8.43)하는 추세가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4개 이상'이 다른 질병의 수보다, '3개'가 '1개', '2개'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제성 음주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 ('거의 매일' 5.53 -> '전혀 없다' 6.1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08>, <그림 39>.
 - 문제성 음주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전혀 없다'가 '거의 매일'을 제외한 다른 음주정도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거동 상태	정상(A)	2,575	5.62	4.48	99.695***	A < B,C
	불편(B)	135	10.35	4.26		
	불능(C)	31	11.87	3.81		
	전체	2,741	5.93	4.62		
약 복용	있다	2,436	6.18	4.62	(92.468)***	-
	없다	296	3.76	4.00		
	전체	2,732	5.91	4.62		
앓고 있는 질병 수	1개(A)	851	5.28	4.47	33.601***	A,B < C < D
	2개(B)	953	6.06	4.55		
	3개(C)	472	7.25	4.49		
	4개 이상(D)	163	8.43	4.80		
	전체	2439	6.18	4.62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A)	2,107	6.18	4.64	(10.936)***	B,C,D < A
	월 1회 미만(B)	194	5.05	4.49		
	월 1회(C)	119	4.48	4.14		
	주 1회(D)	216	4.76	4.32		
	거의 매일(E)	81	5.53	4.41		
	전체	2,717	5.89	4.61		

* : p<.05, ** : p<.01, *** : p<.001

〈그림 3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없음’(8.07)이 ‘있음’(5.8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09>, <그림 40>.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1회 이상’ 4.78 -> ‘없음’ 8.4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09>, <그림 40>.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이 다른 연락빈도보다, ‘연 1~2회’와 ‘분기 1~2회’ 그리고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1회 이상’ 4.72 -> ‘없음’ 7.9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09>, <그림 40>.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이 ‘분기 1~2회’, ‘월 1~2회’, ‘주 1회 이상’보다,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5.38 -> ‘없음’ 9.1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09>, <그림 40>.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없음’이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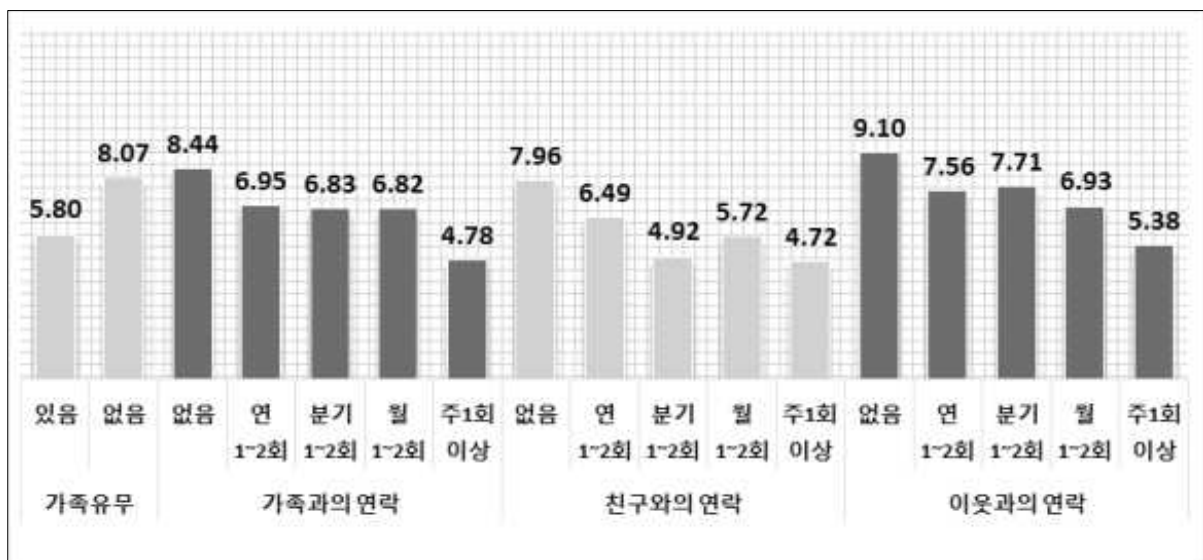
〈표 20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가족 유무	있음	2,615	5.80	4.59	(66..748)***	-
	없음	123	8.07	4.61		
	전체	2,738	5.90	4.6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가족 연락	없음(A)	233	8.44	4.62	(53.815)***	E < B,C,D < A
	연 1~2회(B)	363	6.95	4.62		
	분기 1~2회(C)	199	6.83	4.51		
	월 1~2회(D)	520	6.82	4.71		
	주 1회 이상(E)	1,432	4.78	4.27		
	전체	2,747	5.91	4.62		
친구 연락	없음(A)	917	7.96	4.52	(76.962)***	C,D,E < A
	연 1~2회(B)	35	6.49	4.55		
	분기 1~2회(C)	48	4.92	4.20		
	월 1~2회(D)	205	5.72	4.56		E < D
	주 1회 이상(E)	1,536	4.72	4.26		
	전체	2,741	5.90	4.62		
이웃 연락	없음(A)	304	9.10	4.78	50.108***	E < A
	연 1~2회(B)	18	7.56	5.14		
	분기 1~2회(C)	14	7.71	5.11		
	월 1~2회(D)	148	6.93	4.41		
	주 1회 이상(E)	2,256	5.38	4.40		
	전체	2,740	5.90	4.61		

* : p<.05, ** : p<.01, *** : p<.001

〈그림 4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4.69 → ‘안함’ 6.8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0>, <그림 4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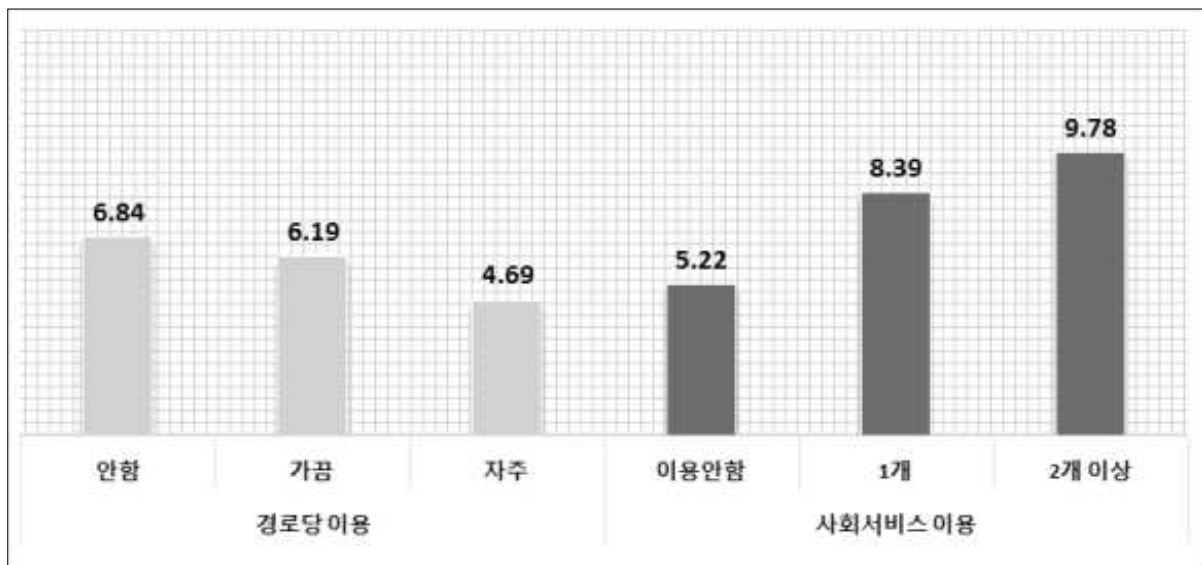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5.22 -> ‘2개 이상’ 9.7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0>, <그림 41>.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하는 사회서비스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21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경로당 이용	안함(A)	1,200	6.84	4.77	66.743***	C < B < A
	가끔(B)	479	6.19	4.45		
	자주(C)	1,048	4.69	4.23		
	전체	2,727	5.90	4.61		
사회 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A)	2,184	5.22	4.38	126.169***	A < B < C
	1개(B)	359	8.39	4.60		
	2개 이상(C)	108	9.78	4.10		
	전체	2,651	5.84	4.60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41〉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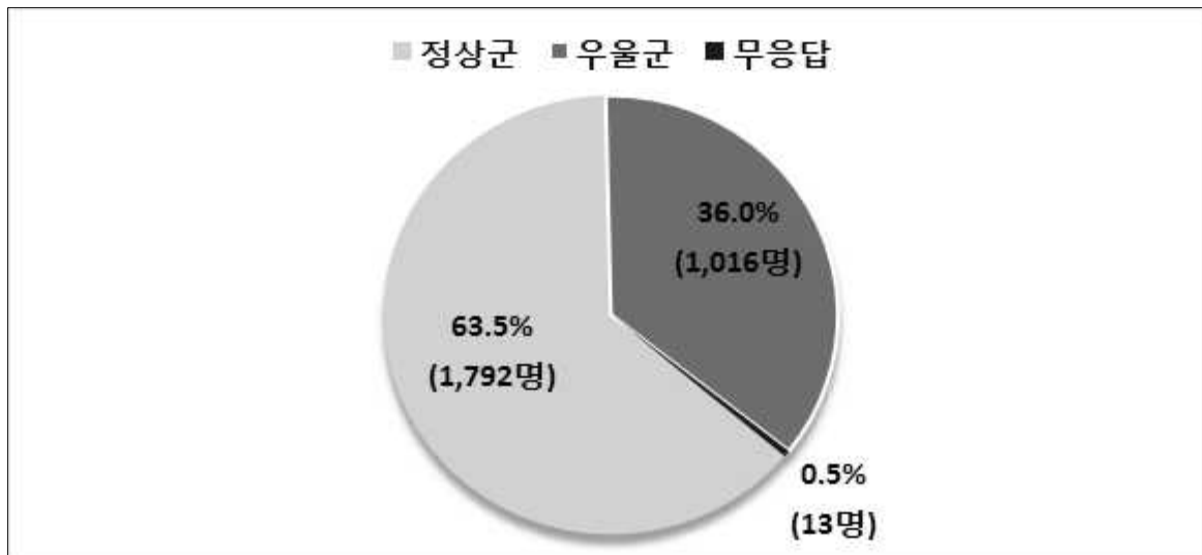
2 | 우울군 분포 현황

- 조맹제 등의 연구에 따르면 SGDS 점수의 총합이 8점 이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음.
- 삼척시 검진응답자의 SGDS 점수를 7점을 기준으로 정상군(0~7점), 우울군(8~15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상군’ 비율이 63.5%(1,792명), ‘우울군’ 비율이 36.0%(1,016명)로 나타남<표 211>, <그림 42>.

〈표 211〉 삼척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우울군	정상군	1,792	63.5
	우울군	1,016	36.0
	무응답	13	0.5
	전체	2,821	100.0

〈그림 42〉 삼척시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성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우울군 비율(36.8%)이 ‘남성’의 우울군 비율(34.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12>.
- 연령별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 연령대의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25.3% -> 85세 이상 47.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2>.
- 거주지역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가곡면’의 우울군 비율(53.6%)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2>.

〈표 2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항목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성별	남성	443 (66.0)	228 (34.0)	671 (100.0)	1.722	.197
	여성	1,343 (63.2)	781 (36.8)	2,124 (100.0)		
	전체	1,786 (63.9)	1,009 (36.1)	2,795 (100.0)		

항목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연령별	65~69세	307 (74.7)	104 (25.3)	411 (100.0)	55.801	.000***
	70~74세	434 (69.4)	191 (30.6)	625 (100.0)		
	75~79세	454 (61.3)	287 (38.7)	741 (100.0)		
	80~84세	367 (61.3)	232 (38.7)	599 (100.0)		
	85세 이상	215 (52.6)	194 (47.4)	409 (100.0)		
	전체	1,777 (63.8)	1,008 (36.2)	2,785 (100.0)		
거주지역	도계읍	460 (60.0)	307 (40.0)	767 (100.0)	141.362	.000***
	원덕읍	65 (48.5)	69 (51.5)	134 (100.0)		
	가곡면	26 (46.4)	30 (53.6)	56 (100.0)		
	근덕면	376 (62.7)	224 (37.3)	600 (100.0)		
	노곡면	19 (79.2)	5 (20.8)	24 (100.0)		
	미로면	80 (78.4)	22 (21.6)	102 (100.0)		
	하장면	14 (46.7)	16 (53.3)	30 (100.0)		
	남양동	229 (81.2)	53 (18.8)	282 (100.0)		
	성내동	232 (65.9)	120 (34.1)	352 (100.0)		
	교동	129 (87.8)	18 (12.2)	147 (100.0)		
	정라동	133 (49.1)	138 (50.9)	271 (100.0)		
	전체	1,763 (63.8)	1,002 (36.2)	2,765 (100.0)		

1) '신기면'은 응답자 수가 적어(n<10) 제외하고 분석 실시

* : p<.05, ** : p<.01, *** : p<.001

- 종교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의 우울군 비율(41.0%)이 있는 경우의 우울군 비율(31.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3>.

- 독거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9.2%)이 ‘동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9.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3>.
- 독거기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독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33.7% -> ‘25년 이상’ 42.6%)하는 추세는 나타남<표 213>.

〈표 2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항목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707 (68.2)	330 (31.8)	1,037 (100.0)	20.117	.000***
	없다	713 (59.0)	495 (41.0)	1,208 (100.0)		
	전체	1,420 (63.3)	825 (36.7)	2,245 (100.0)		
독거여부	독거	1,203 (60.8)	774 (39.2)	1,977 (100.0)	26.330	.000***
	동거	589 (71.0)	240 (29.0)	829 (100.0)		
	전체	1,792 (63.9)	1,014 (36.1)	2,806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169 (66.3)	86 (33.7)	255 (100.0)	7.166	.067
	5~15년 미만	352 (62.2)	214 (37.8)	566 (100.0)		
	15~25년 미만	284 (62.6)	170 (37.4)	454 (100.0)		
	25년 이상	351 (57.4)	261 (42.6)	612 (100.0)		
	전체	1,156 (61.3)	731 (38.7)	1,88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우울군 비율(54.2%)이 다른 사회 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4>.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우울군 비율(38.5%)이 ‘한다’의 우울군 비율(22.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4>.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41.6%)이 ‘경제적 지원처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5.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4>.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군의 비율은 증가(‘부유’ 5.3% -> ‘가난’ 51.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4>.

〈표 214〉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항목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254 (45.8)	300 (54.2)	554 (100.0)	118.342	.000***
	차상위계층	58 (48.7)	61 (51.3)	119 (100.0)		
	일반	1,445 (69.5)	634 (30.5)	2,079 (100.0)		
	전체	1,757 (63.8)	995 (36.2)	2,752 (100.0)		
경제활동	한다	327 (77.5)	95 (22.5)	422 (100.0)	39.713	.000***
	안한다	1,460 (61.5)	914 (38.5)	2,374 (100.0)		
	전체	1,787 (63.9)	1,009 (36.1)	2,796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693 (74.1)	242 (25.9)	935 (100.0)	65.853	.000***
	없다	1,059 (58.4)	754 (41.6)	1,813 (100.0)		
	전체	1,752 (63.8)	996 (36.2)	2,748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753 (48.4)	804 (51.6)	1,557 (100.0)	373.215	.000***
	가난	990 (83.3)	198 (16.7)	1,188 (100.0)		
	부유	36 (94.7)	2 (5.3)	38 (100.0)		
	전체	1,779 (63.9)	1,004 (36.1)	2,783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거동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33.7% -> ‘불능’ 87.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5>.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8.4%)이 복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18.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5>.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29.9% -> '4개 이상' 56.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5>.
- 문제성 음주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거의 매일' 34.9% -> '전혀 없다' 38.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5>.

〈표 215〉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항목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1,738 (66.3)	883 (33.7)	2,621 (100.0)	130.022	.000***
	불편	35 (25.4)	103 (74.6)	138 (100.0)		
	불능	4 (12.9)	27 (87.1)	31 (100.0)		
	전체	1,777 (63.7)	1,013 (36.3)	2,790 (100.0)		
약 복용	있다	1,527 (61.6)	952 (38.4)	2,479 (100.0)	45.520	.000***
	없다	245 (81.4)	56 (18.6)	301 (100.0)		
	전체	1,772 (63.7)	1,008 (36.3)	2,780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606 (70.1)	258 (29.9)	864 (100.0)	70.049	.000***
	2개	603 (62.0)	369 (38.0)	972 (100.0)		
	3개	248 (51.7)	232 (48.3)	480 (100.0)		
	4개 이상	72 (43.4)	94 (56.6)	166 (100.0)		
	전체	1,529 (61.6)	953 (38.4)	2,482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323 (61.7)	820 (38.3)	2,143 (100.0)	20.740	.000***
	월1회 미만	136 (68.0)	64 (32.0)	200 (100.0)		
	월1회	90 (75.0)	30 (25.0)	120 (100.0)		
	주1회	160 (73.4)	58 (26.6)	218 (100.0)		
	거의 매일	54 (65.1)	29 (34.9)	83 (100.0)		
	전체	1,763 (63.8)	1,001 (36.2)	2,764 (100.0)		

* : p<.05, ** : p<.01, *** : p<.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가족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없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53.5%)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5.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6>.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6.0% -> ‘없음’ 56.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6>.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4.7% -> ‘없음’ 55.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6>.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31.3% -> ‘없음’ 64.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6>.

〈표 21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항목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1,721 (64.8)	934 (35.2)	2,655 (100.0)	17.894	.000***
	없다	60 (46.5)	69 (53.5)	129 (100.0)		
	전체	1,781 (64.0)	1,003 (36.0)	2,784 (100.0)		
가족연락	없음	105 (43.9)	134 (56.1)	239 (100.0)	144.798	.000***
	연 1~2회	200 (54.1)	170 (45.9)	370 (100.0)		
	분기 1~2회	114 (55.9)	90 (44.1)	204 (100.0)		
	월 1~2회	293 (54.9)	241 (45.1)	534 (100.0)		
	주 1회 이상	1,071 (74.0)	377 (26.0)	1,448 (100.0)		
	전체	1,783 (63.8)	1,012 (36.2)	2,795 (100.0)		
친구연락	없음	417 (44.7)	515 (55.3)	932 (100.0)	237.933	.000***
	연 1~2회	24 (63.2)	14 (36.8)	38 (100.0)		
	분기 1~2회	38 (73.1)	14 (26.9)	52 (100.0)		
	월 1~2회	130 (62.8)	77 (37.2)	207 (100.0)		

항목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친구연락	주 1회 이상	1,175 (75.3)	386 (24.7)	1,561 (100.0)		
	전체	1,784 (63.9)	1,006 (36.1)	2,790 (100.0)		
이웃연락	없음	108 (35.2)	199 (64.8)	307 (100.0)	145.075	.000***
	연 1~2회	12 (57.1)	9 (42.9)	21 (100.0)		
	분기 1~2회	5 (31.3)	11 (68.8)	16 (100.0)		
	월 1~2회	84 (55.3)	68 (44.7)	152 (100.0)		
	주 1회 이상	1,573 (68.7)	718 (31.3)	2,291 (100.0)		
	전체	1,782 (63.9)	1,005 (36.1)	2,787 (100.0)		

* : p<.05, ** : p<.01, *** : p<.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25.1% -> ‘안함’ 44.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7>.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30.1% -> ‘2개 이상’ 72.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17>.

〈표 217〉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항목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691 (56.0)	544 (44.0)	1,235 (100.0)	92.559	.000***
	가끔	291 (60.1)	193 (39.9)	484 (100.0)		
	자주	792 (74.9)	265 (25.1)	1,057 (100.0)		
	전체	1,774 (63.9)	1,002 (36.1)	2,776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1,553 (69.9)	669 (30.1)	2,222 (100.0)	163.268	.000***
	1개	160 (43.6)	207 (56.4)	367 (100.0)		
	2개 이상	31 (27.9)	80 (72.1)	111 (100.0)		
	전체	1,744 (64.6)	956 (35.4)	2,700 (100.0)		

* : p<.05, ** : p<.01, *** : p<.001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 검진응답자의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 ‘있다’ 6.0%(169명), ‘없다’ 93.9%(2,649명)로 나타남<표 218>.

〈표 218〉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	있다	169	6.0
	없다	2,649	93.9
	무응답	3	0.1
	전체	2,821	100.0

- 검진응답자의 현재 자살 계획의 유무에 대해 살펴봤을 때 ‘있다’ 1.0%(29명), ‘없다’ 98.9%(2,789명)로 나타남<표 219>.

〈표 219〉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현재 자살계획이 있습니까?”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계획	있다	29	1.0
	없다	2,789	98.9
	무응답	3	0.1
	전체	2,821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문제’가 31.4%(53명), ‘경제적 어려움’ 19.5%(33명), 외로움 16.0%(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20>.

〈표 220〉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의 이유	건강문제	53	31.4
	경제적 어려움	33	19.5
	외로움	27	16.0
	가정불화	5	3.0
	친구/동료와의 불화	2	1.2
	기타	5	3.0
	무응답	84	49.7
	전체	209	123.7

※ 자살생각이 있는 응답자 169명 중 31명 중복응답

- 검진응답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자살한 사람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4.1%(117명), ‘없다’ 95.6%(2,696명)로 나타남<표 221>.

〈표 22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까운 사람의 자살	있다	117	4.1
	없다	2,696	95.6
	무응답	8	0.3
	전체	2,821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2.9% (81명), ‘없다’ 96.9%(2,733명)로 나타남<표 222>.

〈표 222〉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귀하께서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있다	81	2.9
	없다	2,733	96.9
	무응답	7	0.2
	전체	2,821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 중 자살시도한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48.1%(39명), 2회가 23.5%(19명), 3회 이상 17.3%(14명) 순으로 나타남<표 223>.

〈표 223〉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과거에 자살시도한 횟수”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횟수	1회	39	48.1
	2회	19	23.5
	3회 이상	14	17.3
	무응답	9	11.1
	전체	81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 시도했을 때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약물복용’이 37.0% (30명), ‘익수’가 16.0%(13명), ‘목맴’ 14.8%(12명), ‘살충제’ 12.3%(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24>.

〈표 224〉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했을 때의 방법”

항목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했을 때의 방법	목맴	12	14.8
	살충제	10	12.3
	투신	6	7.4
	가스	5	6.2
	자해	2	2.5
	익수	13	16.0
	약물복용	30	37.0
	기타	6	7.4
	무응답	5	6.2
	전체	89	109.9

※ 문항 응답자 81명 중 7명 중복응답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 시도 유무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자살위험군을 선별할 때 중요시 되는 문항인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와 ‘과거 자살시도의 유무’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8.2%)이 ‘여성’(5.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25>.
- 연령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65~69세’인 경우(8.5%)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25>.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노곡면(12.5%)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표 225>.
- 종교유무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6.8%)가 있는 경우(5.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25>.

〈표 22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55 (8.2)	618 (91.8)	673 (100.0)	7.211	.009**
	여성	114 (5.3)	2,018 (94.7)	2,132 (100.0)		
	전체	169 (6.0)	2,636 (94.0)	2,805 (100.0)		
연령별	65~69세	35 (8.5)	379 (91.5)	414 (100.0)	11.801	.019*
	70~74세	40 (6.4)	586 (93.6)	626 (100.0)		
	75~79세	40 (5.4)	704 (94.6)	744 (100.0)		
	80~84세	22 (3.7)	578 (96.3)	600 (100.0)		
	85세 이상	29 (7.1)	382 (92.9)	411 (100.0)		
	전체	166 (5.9)	2,629 (94.1)	2,795 (100.0)		
거주지역	도계읍	38 (4.9)	730 (95.1)	768 (100.0)		
	원덕읍	12 (9.0)	121 (91.0)	133 (100.0)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가곡면	1 (1.8)	55 (98.2)	56 (100.0)	25.864	.004**
	근덕면	39 (6.5)	565 (93.5)	604 (100.0)		
	노곡면	3 (12.5)	21 (87.5)	24 (100.0)		
	미로면	3 (2.9)	100 (97.1)	103 (100.0)		
	하장면	1 (3.3)	29 (96.7)	30 (100.0)		
	남양동	9 (3.2)	274 (96.8)	283 (100.0)		
	성내동	31 (8.9)	319 (91.1)	350 (100.0)		
	교동	5 (3.4)	142 (96.6)	147 (100.0)		
	정라동	26 (9.4)	250 (90.6)	276 (100.0)		
	전체	168 (6.1)	2,606 (93.9)	2,774 (100.0)		
종교유무	있다	52 (5.0)	985 (95.0)	1,037 (100.0)	3.313	.075
	없다	83 (6.8)	1,130 (93.2)	1,213 (100.0)		
	전체	135 (6.0)	2,115 (94.0)	2,250 (100.0)		

1) '신기면'은 응답자 수가 적어(n<10) 제외하고 분석 실시

* : p<.05, ** : p<.01, *** : p<.001

- 독거여부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6.6%)가 동거(4.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26>.
- 독거기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5년 미만'인 경우(9.1%)가 다른 독거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26>.

〈표 22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독거여부	독거	131 (6.6)	1,856 (93.4)	1,987 (100.0)	4.185	.045*
	동거	38 (4.6)	791 (95.4)	829 (100.0)		
	전체	169 (6.0)	2,647 (94.0)	2,816 (100.0)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독거기간	5년 미만	23 (9.1)	231 (90.9)	254 (100.0)	3.693	.297
	5~15년 미만	35 (6.1)	537 (93.9)	572 (100.0)		
	15~25년 미만	32 (7.0)	422 (93.0)	454 (100.0)		
	25년 이상	35 (5.7)	581 (94.3)	616 (100.0)		
	전체	125 (6.6)	1,771 (93.4)	1,896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15.1%)이 다른 사회보장상태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27>.
-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경우(6.3%)가 ‘한다’의 경우(4.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27>.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6.4%)가 ‘있다’의 경우(5.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27>.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0.0% → ‘가난’ 8.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27>.

〈표 227〉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61 (10.9)	498 (89.1)	559 (100.0)	52.770	.000***
	차상위계층	18 (15.1)	101 (84.9)	119 (100.0)		
	일반	88 (4.2)	1,996 (95.8)	2,084 (100.0)		
	전체	167 (6.0)	2,595 (94.0)	2,762 (100.0)		
경제활동	한다	18 (4.3)	405 (95.7)	423 (100.0)	2.749	.120
	안한다	151 (6.3)	2,232 (93.7)	2,383 (100.0)		
	전체	169 (6.0)	2,637 (94.0)	2,806 (100.0)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제적 지원	있다	48 (5.1)	889 (94.9)	937 (100.0)	1.73	.203
	없다	116 (6.4)	1,704 (93.6)	1,820 (100.0)		
	전체	164 (5.9)	2,593 (94.1)	2,757 (100.0)		
주관적 경제상태1)	가난	127 (8.1)	1,437 (91.9)	1,564 (100.0)	31.997	.000***
	보통	38 (3.2)	1,153 (96.8)	1,191 (100.0)		
	부유	0 (0.0)	38 (100.0)	38 (100.0)		
	전체	165 (5.9)	2,628 (94.1)	2,793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 < .05$, ** : $p < .01$, *** : $p < .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거동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불편'인 경우(12.9%)가 다른 거동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28>.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의 경우(6.3%)가 '없다'의 경우(3.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28>.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4.7% → '4개 이상' 15.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28>.
- 문제성 음주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음주정도가 '거의 매일'(7.1%)일 때가 다른 음주정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28>.

〈표 228〉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150 (5.7)	2,479 (94.3)	2,629 (100.0)	12.699	.002**
	불편	18 (12.9)	121 (87.1)	139 (100.0)		
	불능	1 (3.1)	31 (96.9)	32 (100.0)		
	전체	169 (6.0)	2,631 (94.0)	2,800 (100.0)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약 복용	있다	156 (6.3)	2,332 (93.7)	2,488 (100.0)	3.222	.073
	없다	11 (3.7)	289 (96.3)	300 (100.0)		
	전체	167 (6.0)	2,621 (94.0)	2,788 (100.0)		
알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41 (4.7)	825 (95.3)	866 (100.0)	26.985	.000***
	2개	55 (5.6)	922 (94.4)	977 (100.0)		
	3개	37 (7.7)	445 (92.3)	482 (100.0)		
	4개 이상	25 (15.0)	142 (85.0)	167 (100.0)		
	전체	158 (6.3)	2,334 (93.7)	2,492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30 (6.0)	2,021 (94.0)	2,151 (100.0)	1.543	.819
	월 1회 미만	9 (4.5)	192 (95.5)	201 (100.0)		
	월 1회	6 (5.0)	114 (95.0)	120 (100.0)		
	주 1회	15 (6.9)	203 (93.1)	218 (100.0)		
	거의 매일	6 (7.1)	78 (92.9)	84 (100.0)		
	전체	166 (6.0)	2,608 (94.0)	2,774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가족유무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다’의 경우(7.5%)가 ‘있다’의 경우(6.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29>.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3.7% -> ‘없음’ 11.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29>.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4.7% -> ‘없음’ 7.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29>.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5.0% -> ‘없음’ 11.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29>.

〈표 229〉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159 (6.0)	2,500 (94.0)	2,659 (100.0)	0.528	.468
	없다	10 (7.5)	123 (92.5)	133 (100.0)		
	전체	169 (6.1)	2,623 (93.9)	2,792 (100.0)		
가족연락	없음	28 (11.5)	216 (88.5)	244 (100.0)	44.991	.000***
	연 1~2회	39 (10.5)	333 (89.5)	372 (100.0)		
	분기 1~2회	20 (9.8)	185 (90.2)	205 (100.0)		
	월 1~2회	28 (5.2)	508 (94.8)	536 (100.0)		
	주 1회 이상	54 (3.7)	1,394 (96.3)	1,448 (100.0)		
	전체	169 (6.0)	2,636 (94.0)	2,805 (100.0)		
친구연락	없음	72 (7.7)	864 (92.3)	936 (100.0)	14.963	.005**
	연 1~2회	2 (5.3)	36 (94.7)	38 (100.0)		
	분기 1~2회	7 (13.5)	45 (86.5)	52 (100.0)		
	월 1~2회	14 (6.6)	198 (93.4)	212 (100.0)		
	주 1회 이상	73 (4.7)	1,490 (95.3)	1,563 (100.0)		
	전체	168 (6.0)	2,633 (94.0)	2,801 (100.0)		
이웃연락	없음	34 (11.0)	275 (89.0)	309 (100.0)	25.419	.000***
	연 1~2회	2 (9.5)	19 (90.5)	21 (100.0)		
	분기 1~2회	3 (18.8)	13 (81.3)	16 (100.0)		
	월 1~2회	14 (9.1)	140 (90.9)	154 (100.0)		
	주 1회 이상	115 (5.0)	2,183 (95.0)	2,298 (100.0)		
	전체	168 (6.0)	2,630 (94.0)	2,798 (100.0)		

* : p<.05, ** : p<.01, *** : p<.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4.1% -> ‘안함’ 7.7%)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230>.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5.1% -> ‘2개 이상’ 11.7%)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230>.

〈표 230〉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96 (7.7)	1,144 (92.3)	1,240 (100.0)	13.447	.001**
	가끔	30 (6.1)	461 (93.9)	491 (100.0)		
	자주	43 (4.1)	1,012 (95.9)	1,055 (100.0)		
	전체	169 (6.1)	2,617 (93.9)	2,786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113 (5.1)	2,115 (94.9)	2,228 (100.0)	11.528	.004**
	1개	28 (7.6)	342 (92.4)	370 (100.0)		
	2개 이상	13 (11.7)	98 (88.3)	111 (100.0)		
	전체	154 (5.7)	2,555 (94.3)	2,709 (100.0)		

* : p<.05, ** : p<.01, *** : p<.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여성(3.1%)이 남성(2.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 <표 231>.
- 연령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85세 이상’ 1.7% -> ‘65~69세’ 5.1%)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231>.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성내동’(8.9%)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1>.
- 종교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3.7%)가 없는 경우(2.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1>.

〈표 2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16 (2.4)	656 (97.6)	672 (100.0)	0.822	.429
	여성	65 (3.1)	2,064 (96.9)	2,129 (100.0)		
	전체	81 (2.9)	2,720 (97.1)	2,801 (100.0)		
연령별	65~69세	21 (5.1)	394 (94.9)	415 (100.0)	16.196	.003**
	70~74세	26 (4.2)	599 (95.8)	625 (100.0)		
	75~79세	15 (2.0)	729 (98.0)	744 (100.0)		
	80~84세	12 (2.0)	587 (98.0)	599 (100.0)		
	85세 이상	7 (1.7)	401 (98.3)	408 (100.0)		
	전체	81 (2.9)	2,710 (97.1)	2,791 (100.0)		
거주지역 ¹⁾	도계읍	9 (1.2)	758 (98.8)	767 (100.0)	77.502	.000***
	원덕읍	4 (3.0)	129 (97.0)	133 (100.0)		
	가곡면	0 (0.0)	56 (100.0)	56 (100.0)		
	근덕면	12 (2.0)	590 (98.0)	602 (100.0)		
	노곡면	0 (0.0)	24 (100.0)	24 (100.0)		
	미로면	0 (0.0)	103 (100.0)	103 (100.0)		
	하장면	0 (0.0)	30 (100.0)	30 (100.0)		
	남양동	5 (1.8)	278 (98.2)	283 (100.0)		
	성내동	31 (8.9)	319 (91.1)	350 (100.0)		
	교동	1 (0.7)	146 (99.3)	147 (100.0)		
	정라동	18 (6.5)	257 (93.5)	275 (100.0)		
	전체	80 (2.9)	2,690 (97.1)	2,770 (100.0)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38 (3.7)	999 (96.3)	1,037 (100.0)	1.051	.340
	없다	35 (2.9)	1,174 (97.1)	1,209 (100.0)		
	전체	73 (3.3)	2,173 (96.7)	2,246 (100.0)		

1) '신기면'은 응답자 수가 적어(n<10) 제외하고 분석 실시

* : p<.05, ** : p<.01, *** : p<.001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경우(3.6%)가 동거인 경우(1.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2>.
- 독거기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15~25년 미만'인 경우(4.2%)가 다른 독거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 <표 232>.

<표 2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2)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독거여부	독거	72 (3.6)	1,913 (96.4)	1,985 (100.0)	13.452	.000***
	동거	9 (1.1)	818 (98.9)	827 (100.0)		
	전체	81 (2.9)	2,731 (97.1)	2,812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6 (2.4)	248 (97.6)	254 (100.0)	1.717	.633
	5~15년 미만	20 (3.5)	551 (96.5)	571 (100.0)		
	15~25년 미만	19 (4.2)	435 (95.8)	454 (100.0)		
	25년 이상	24 (3.9)	591 (96.1)	615 (100.0)		
	전체	69 (3.6)	1,825 (96.4)	1,894 (100.0)		

* : p<.05, ** : p<.01, *** : p<.001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11.9%)이 다른 사회보장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3>.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경우(2.9%)가 ‘한다’의 경우(2.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33>.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있다’의 경우(3.0%)가 ‘없다’의 경우(2.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33>.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 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0.0% -> ‘가난’ 3.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33>.

〈표 233〉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26 (4.7)	531 (95.3)	557 (100.0)	46.947	.000***
	차상위계층	14 (11.9)	104 (88.1)	118 (100.0)		
	일반	40 (1.9)	2,043 (98.1)	2,083 (100.0)		
	전체	80 (2.9)	2,678 (97.1)	2,758 (100.0)		
경제활동	한다	10 (2.4)	413 (97.6)	423 (100.0)	0.377	.634
	안한다	69 (2.9)	2,310 (97.1)	2,379 (100.0)		
	전체	79 (2.8)	2,723 (97.2)	2,802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28 (3.0)	907 (97.0)	935 (100.0)	0.079	.810
	없다	51 (2.8)	1,767 (97.2)	1,818 (100.0)		
	전체	79 (2.9)	2,674 (97.1)	2,753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60 (3.8)	1,500 (96.2)	1,560 (100.0)	14.652	.004**
	보통	18 (1.5)	1,173 (98.5)	1,191 (100.0)		
	부유	0 (0.0)	38 (100.0)	38 (100.0)		
	전체	78 (2.8)	2,711 (97.2)	2,789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거동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정상’인 경우 (3.0%)가 다른 거동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34>.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3.0%)가 ‘없다’의 경우(2.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34>.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2.0% -> ‘4개 이상’ 5.4%)하는 추세는 나타남<표 234>.
- 문제성 음주정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의 매일’인 경우 (3.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34>.

〈표 234〉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79 (3.0)	2,546 (97.0)	2,625 (100.0)	2.123	.569
	불편	2 (1.4)	137 (98.6)	139 (100.0)		
	불능	0 (0.0)	32 (100.0)	32 (100.0)		
	전체	81 (2.9)	2,715 (97.1)	2,796 (100.0)		
약 복용	있다	71 (2.9)	2,413 (97.1)	2,484 (100.0)	0.019	.855
	없다	9 (3.0)	291 (97.0)	300 (100.0)		
	전체	80 (2.9)	2,704 (97.1)	2,784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17 (2.0)	848 (98.0)	865 (100.0)	6.774	.079
	2개	29 (3.0)	946 (97.0)	975 (100.0)		
	3개	16 (3.3)	465 (96.7)	481 (100.0)		
	4개 이상	9 (5.4)	158 (94.6)	167 (100.0)		
	전체	71 (2.9)	2,417 (97.1)	2,488 (100.0)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65 (3.0)	2,082 (97.0)	2,147 (100.0)	1.519	.823
	월 1회 미만	4 (2.0)	197 (98.0)	201 (100.0)		
	월 1회	2 (1.7)	118 (98.3)	120 (100.0)		
	주 1회	6 (2.8)	212 (97.2)	218 (100.0)		
	거의 매일	3 (3.6)	81 (96.4)	84 (100.0)		
	전체	80 (2.9)	2,690 (97.1)	2,770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가족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가족이 없는 경우(7.6%)가 있는 경우(2.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35>.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1.6% -> ‘없음’ 6.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35>.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연 1~2회’인 경우(5.3%)가 다른 연락빈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35>.
- 이웃과의 연락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4% -> ‘없음’ 5.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35>.

〈표 235〉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1)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71 (2.7)	2,585 (97.3)	2,656 (100.0)	10.714	.004**
	없다	10 (7.6)	122 (92.4)	132 (100.0)		
	전체	81 (2.9)	2,707 (97.1)	2,788 (100.0)		
가족연락	없음	15 (6.2)	228 (93.8)	243 (100.0)	33.602	.000***
	연 1~2회	22 (5.9)	349 (94.1)	371 (100.0)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연락	분기 1~2회	9 (4.4)	196 (95.6)	205 (100.0)		
	월 1~2회	11 (2.1)	525 (97.9)	536 (100.0)		
	주 1회 이상	23 (1.6)	1,423 (98.4)	1,446 (100.0)		
	전체	80 (2.9)	2,721 (97.1)	2,801 (100.0)		
친구연락	없음	29 (3.1)	905 (96.9)	934 (100.0)	1.956	.744
	연 1~2회	2 (5.3)	36 (94.7)	38 (100.0)		
	분기 1~2회	2 (3.8)	50 (96.2)	52 (100.0)		
	월 1~2회	4 (1.9)	208 (98.1)	212 (100.0)		
	주 1회 이상	43 (2.8)	1,517 (97.2)	1,560 (100.0)		
	전체	80 (2.9)	2,716 (97.1)	2,796 (100.0)		
이웃연락	없음	16 (5.2)	293 (94.8)	309 (100.0)	22.957	.001**
	연 1~2회	3 (14.3)	18 (85.7)	21 (100.0)		
	분기 1~2회	2 (12.5)	14 (87.5)	16 (100.0)		
	월 1~2회	4 (2.6)	150 (97.4)	154 (100.0)		
	주 1회 이상	55 (2.4)	2,238 (97.6)	2,293 (100.0)		
	전체	80 (2.9)	2,713 (97.1)	2,793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1.8% → ‘안함’ 4.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36>.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2.1% → ‘2개 이상’ 5.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36>.

〈표 23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2)

(단위 : 명, %)

항목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53 (4.3)	1,185 (95.7)	1,238 (100.0)	15.835	.000***
	가끔	8 (1.6)	482 (98.4)	490 (100.0)		
	자주	19 (1.8)	1,036 (98.2)	1,055 (100.0)		
	전체	80 (2.9)	2,703 (97.1)	2,783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47 (2.1)	2,179 (97.9)	2,226 (100.0)	18.353	.000***
	1개	21 (5.7)	348 (94.3)	369 (100.0)		
	2개 이상	6 (5.4)	105 (94.6)	111 (100.0)		
	전체	74 (2.7)	2,632 (97.3)	2,706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3 |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1)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주관적 경제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 친구와의 연락빈도가 우울군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37>.
- 연령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65~69세인 경우를 기준으로 75~79세인 경우가 1.703배, 80~84세인 경우 1.521배, 85세 이상 2.424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부유인 경우를 기준으로 가난인 경우가 13.580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1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2개인 경우가 1.438배, 3개인 경우 1.975배, 4개 이상인 경우 2.201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없음인 경우가 2.970배, 월 1~2회인 경우 1.912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7〉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¹⁾	
				χ^2	p
연령별		.000		8.543	.382
연령별(1) : 70~74세	.121	.474	1.128		
연령별(2) : 75~79세	.532	.001	1.703		
연령별(3) : 80~84세	.419	.012	1.521		
연령별(4) : 85세 이상	.886	.000	2.424		
주관적 경제상태²⁾		.000			
주관적 경제상태(1) : 가난	2.609	.001	13.580		
주관적 경제상태(2) : 보통	1.067	.159	2.906		
알고 있는 질병의 수		.000			
알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363	.001	1.438		
알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680	.000	1.975		
알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789	.000	2.201		
친구와의 연락빈도		.000			
친구와의 연락빈도(1) : 없음	1.089	.000	2.970		
친구와의 연락빈도(2) : 연 1~2회	.365	.351	1.441		
친구와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132	.743	1.141		
친구와의 연락빈도(4) : 월 1~2회	.648	.000	1.912		

1) 모형의 적합도 검정 : 유의확률의 값이 > 0.05 여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2)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p<.05, **: p<.01, ***: p<.001

2)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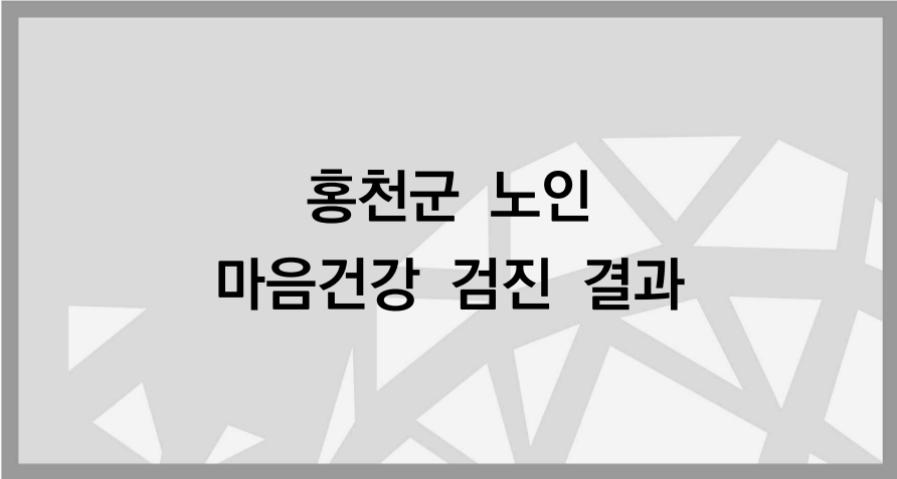
-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사회보장상태, 알고 있는 질병의 수, 가족과의 연락빈도가 자살 고위험군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38>.
- 연령별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65~69세인 경우를 기준으로 75~79세인 경우가 0.422배, 80~84세인 경우 0.262배, 85세 이상 0.298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상태가 일반일 경우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가 1.794배, 차상위계층 2.965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알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4개 이상인 경우가 1개인 경우 보다 2.062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의 연락빈도는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문항이지만,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7〉 삼척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χ^2	p
연령별		.000		8.543	.382
연령별(1) : 70~74세	-.494	.114	.610		
연령별(2) : 75~79세	-.862	.005	.422		
연령별(3) : 80~84세	-1.340	.000	.262		
연령별(4) : 85세 이상	-1.209	.001	.298		
사회보장상태		.002			
사회보장상태(1) : 기초생활수급자	.585	.012	1.794		
사회보장상태(2) : 차상위계층	1.087	.002	2.965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49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010	.970	1.010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003	.992	1.003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724	.028	2.062		
가족과의 연락빈도		.000			
가족과의 연락빈도(1) : 없음	.095	.771	1.100		
가족과의 연락빈도(2) : 연 1~2회	.269	.355	1.309		
가족과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564	.098	1.758		
가족과의 연락빈도(4) : 월 1~2회	-.095	.737	.909		

*: p<.05, **: p<.01, ***: p<.001



**홍천군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홍천군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 검진개요

1 | 검진 범위

- 지역적 범위 : 홍천군
- 대상자 범위 : 65세 이상 노인
- 내용적 범위 : 일반적인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 우울증 평가, 자살위험성

2 | 검진 대상 및 방법

1) 검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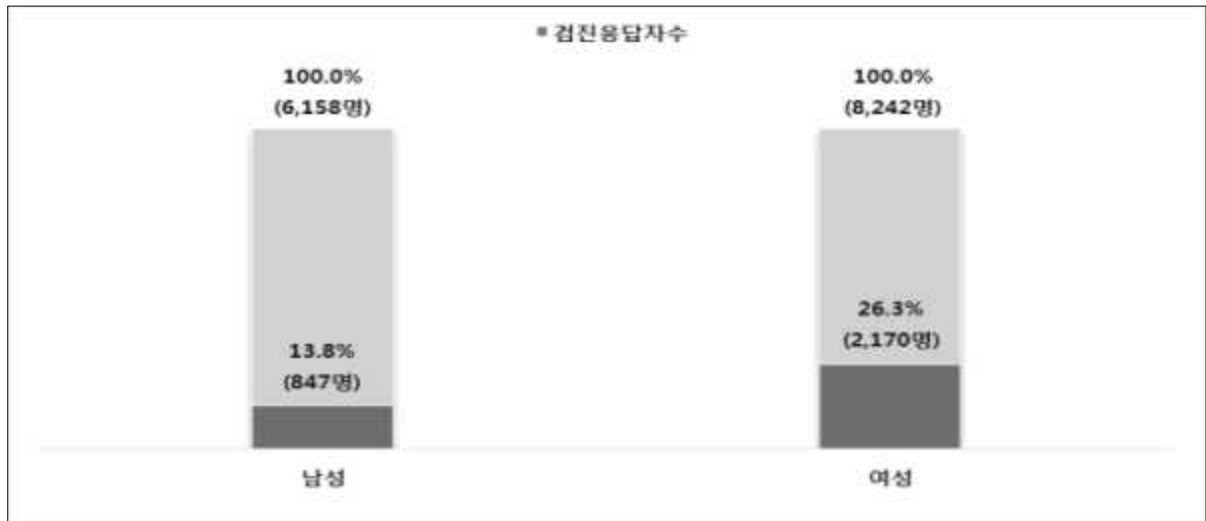
-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검진 실시
- 홍천군 성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지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검진응답자수는 아래와 같음.

〈표 239〉 홍천군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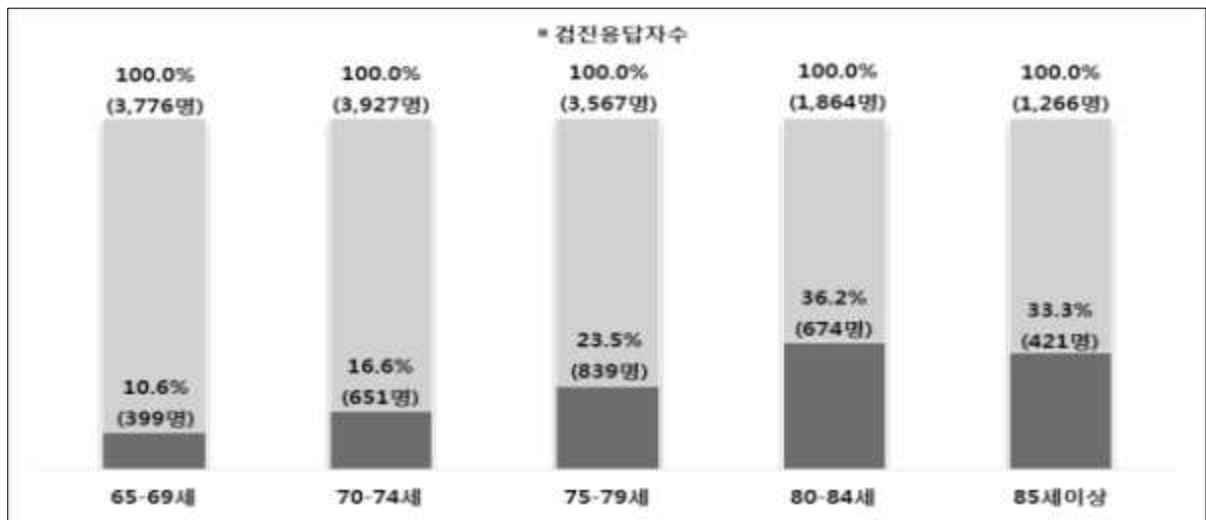
구분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명)	검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성별	남성	6,158	847	13.8	
	여성	8,242	2,170	26.3	
	무응답	-	-	-	
연령별	65 - 69세	3,776	399	10.6	
	70 - 74세	3,927	651	16.6	
	75 - 79세	3,567	839	23.5	
	80 - 84세	1,864	674	36.2	
	85세 이상	1,266	421	33.3	
	무응답	-	33	-	
거주지역	홍천읍	4,824	1,068	22.1	
	내면	814	231	28.4	
	내촌면	764	160	20.9	
	동면	1,166	177	15.2	
	두촌면	843	216	25.6	
	북방면	1,101	221	20.1	
	서면	1,071	170	15.9	
	서석면	1,016	178	17.5	
	남면	1,390	300	21.6	
	화촌면	1,411	289	20.5	
	무응답	-	7	-	
	합계	14,400	3,017	21.0	

※ 출처 : 통계청(2014) - 2014년 12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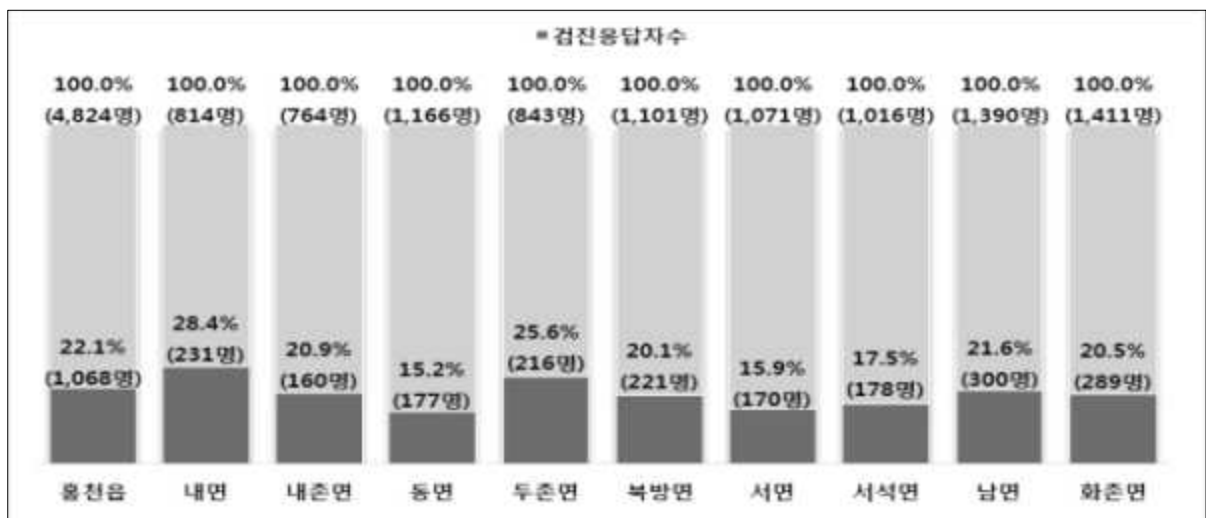
〈그림 43〉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그림 44〉 홍천군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연령별



〈그림 45〉 홍천군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거주지역



2) 검진방법

- 검진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검진요원들이 강릉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검진 실시

3 | 검진 내용

- 검진의 주요 내용은 특성에 따른 응답자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우울증평가(SGDS), 자살 위험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40〉 주요 검진 내용

검진 분야	검진내용
①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거주지, 종교, 독거, 주거유형
② 경제적 특성	사회보장, 경제활동, 경제적 지원, 주관적 경제상태
③ 보건학적 특성	거동상태, 약 복용, 질병, 음주여부
④ 사회관계적 특성	가족여부, 가족과의 연락, 친구와의 연락, 이웃과의 연락,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⑤ 우울증평가(SGDS)	현재 생활 만족, 기분, 불안, 기억력, 기력 등
⑥ 자살위험성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한 지인의 유무, 자살시도력

4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검수 및 확인

- 설문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 자료에 대한 재확인과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유효 자료에 대해 통계처리 함.

2) 자료처리

- 검진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평균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빈도분석을 제외한 그 외의 통계분석은 각 문항의 무응답을 결측값으로 두고 자료를 분석 하였기에 문항별 응답자 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5 | 응답자 현황

1) 일반적 특성

- 성별
 -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마음건강검진 응답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 71.9%(2,170명), ‘남성’ 28.1%(847명)로 나타남<표 241>.

〈표 241〉 응답자 성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847	28.1
	여성	2,170	71.9
	무응답	0	0.0
	전체	3,017	100.0

● 연령별

- 김진응답자의 연령별을 살펴보면 ‘75~79세’가 27.8%(839명), ‘80~84세’ 22.3%(674명), ‘70~74세’ 21.6%(651명), ‘85세 이상’ 14.0%(421명), ‘65~69세’ 13.2%(39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77.3±6.5세’로 나타남<표 242>.

〈표 242〉 응답자 연령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연령별	65~69세	399	13.2
	70~74세	651	21.6
	75~79세	839	27.8
	80~84세	674	22.3
	85세 이상	421	14.0
	무응답	33	1.1
	전체	3,017	100.0

● 거주지역

- 김진응답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홍천읍’ 35.4%(1,068명), ‘남면’ 9.9%(300명), ‘화촌면’ 9.6%(289명), ‘내면’ 7.7%(231명), ‘서석면’ 5.9%(17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43>.

〈표 243〉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주지역	홍천읍	1,068	35.4
	내면	231	7.7
	내촌면	160	5.3
	동면	177	5.9
	두촌면	216	7.2
	북방면	221	7.3
	서면	170	5.6
	서석면	178	5.9
	남면	300	9.9
	화촌면	289	9.6
	무응답	7	0.2
	합계	3,017	100.0

● 종교

- 김진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52.2%(1,576명) ‘기독교’ 19.6%(592명), ‘불교’ 17.0%(513명), ‘천주교’ 9.9%(300명), ‘기타’ 1.0%(30명) 순으로 나타남<표 244>.

〈표 244〉 응답자 종교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종교	기독교	592	19.6
	불교	513	17.0
	천주교	300	9.9
	무교	1,576	52.2
	기타	30	1.0
	무응답	6	0.2
	합계	3,017	100.0

● 주거유형

- 검진응답자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자가’가 69.4%(2,094명), ‘기타’ 16.5%(497명), ‘월세’ 8.5%(255명), ‘전세’ 5.2%(158명) 순으로 나타남<표 245>.

〈표 245〉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유형	자가	2,094	69.4
	전세	158	5.2
	월세	255	8.5
	기타	497	16.5
	무응답	13	0.4
	합계	3,017	100.0

● 독거여부

- 검진응답자의 독거여부를 살펴보면 ‘독거’ 76.5%(2,309명), ‘동거’ 23.5%(708명)로 나타남<표 246>.

〈표 246〉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여부	독거	2,309	76.5
	동거	708	23.5
	무응답	0	0.0
	합계	3,017	100.0

● 독거기간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기간을 살펴보면 ‘5~15년 미만’ 35.9%(828명), ‘15~25년 미만’ 22.5%(519명), ‘25년 이상’ 20.1%(464명), ‘5년 미만’ 21.4%(49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독거기간은 ‘14.9±12.5년’으로 나타남<표 247>.

〈표 247〉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기간	5년 미만	493	21.4
	5년~15년 미만	828	35.9
	15년~25년 미만	519	22.5
	25년 이상	464	20.1
	무응답	5	0.2
	전체	2,309	100.0

● 독거사유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사유를 살펴보면 ‘사별’ 79.3%(1,831명), ‘기타’ 8.6%(198명), ‘이혼’ 5.7%(131명), ‘별거’ 5.0%(115명), ‘미혼’ 1.4%(33명) 순으로 나타남<표 248>.

〈표 248〉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사유	사별	1,831	79.3
	이혼	131	5.7
	미혼	33	1.4
	별거	115	5.0
	기타	198	8.6
	무응답	1	0.0
	합계	2,309	100.0

2) 경제적 특성

● 사회보장

- 검진응답자의 사회보장을 살펴보면 ‘일반’ 73.2%(2,209명), ‘기초생활수급자’ 17.3%(523명), ‘차상위 계층’ 9.3%(282명)순으로 나타남<표 249>.

〈표 249〉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523	17.3
	차상위계층	282	9.3
	일반	2,209	73.2
	무응답	3	0.1
	합계	3,017	100.0

● 경제활동

- 검진응답자의 경제활동여부를 살펴보면 ‘안한다’ 82.7%(2,495명), ‘한다’ 17.3%(522명)로 나타남<표 250>.

〈표 250〉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활동	한다	522	17.3
	안한다	2,495	82.7
	무응답	0	0.0
	합계	3,017	100.0

● 경제적 지원(1) : 경제적 지원여부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지원여부를 살펴보면 ‘지원처가 있다’ 50.0%(1,507명), ‘지원처가 없다’ 49.9%(1,506명)로 나타남<표 251>.

〈표 251〉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1)	지원처가 있다	1,507	50.0
	지원처가 없다	1,506	49.9
	무응답	4	0.1
	합계	3,017	100.0

● 경제적 지원(2) : 정기적 지원 & 비정기적 지원

-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검진응답자를 살펴보면 ‘비정기적 지원’ 69.7%(1,050명), ‘정기적 지원’ 30.1%(454명)로 나타남<표 252>.

〈표 252〉 응답자의 경제적 지원(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2)	정기적 지원	454	30.1
	비정기적 지원	1,050	69.7
	무응답	3	0.2
	합계	1,507	100.0

● 주관적 경제상태

- 검진응답자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보통’ 55.4%(1,670명), ‘가난하다’ 35.7%(1,076명), ‘매우 가난하다’ 6.4%(193명), ‘부유하다’ 2.3%(70명), ‘매우 부유하다’ 0.2%(6명)순으로 나타남<표 253>.

〈표 253〉 응답자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193	6.4
	가난하다	1,076	35.7
	보통	1,670	55.4
	부유하다	70	2.3
	매우 부유하다	6	0.2
	무응답	2	0.1
	합계	3,017	100.0

3)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검진응답자의 거동상태를 살펴보면 ‘정상’ 95.7%(2,886명), ‘불편’ 3.5%(107명), ‘불능’ 0.8%(23명)로 나타남<표 254>.

〈표 254〉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동상태	정상 ¹⁾	2,886	95.7
	불편 ²⁾	107	3.5
	불능 ³⁾	23	0.8
	무응답	1	0.0
	합계	3,017	100.0

- 1) 정상 : 도움 없이 혼자 방을 나올 수 있다.
- 2) 불편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이 있어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 3) 불능 : 들 것에 실리거나 업혀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 3개월 이상 약 복용

- 검진응답자의 ‘3개월 이상 약 복용’ 여부를 살펴보면 ‘있음’ 84.0%(2,534명), ‘없음’ 16.0%(482명)로 나타남<표 255>.

〈표 255〉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3개월 이상 약 복용	있음	2,534	84.0
	없음	482	16.0
	무응답	1	0.0
	합계	3,017	100.0

● 앓고 있는 질병

- 검진응답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살펴보면 ‘고혈압’ 69.3%(1,753명), ‘기타’ 40.0%(1,012명), ‘만성통증’ 28.0%(707명), ‘당뇨병’ 23.1%(583명), ‘심장질환’ 13.6%(3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56>.

〈표 256〉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앓고 있는 질병	암	28	1.1
	만성통증	707	28.0
	뇌혈관질환	148	5.9
	고혈압	1,753	69.3
	당뇨병	583	23.1
	심장질환	345	13.6
	간질환	13	0.5
	신장질환	29	1.1
	호흡기질환	119	4.7
	우울증	66	2.6
	기타	1,012	40.0
	합계	4,803	190.0

※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2,528명중 1,534명이 중복응답

● 문제성 음주 : 소주 1병 or 맥주 4병 이상

- 검진응답자의 문제성 음주 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80.9%(2,442명), ‘주 1회’ 6.8%(205명), ‘월 1회 미만’ 6.0%(181명), ‘거의 매일’ 3.7%(113명), ‘월 1회’ 2.5%(76명) 순으로 나타남<표 257>.

〈표 257〉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2,442	80.9
	월 1회 미만	181	6.0
	월 1회	76	2.5
	주 1회	205	6.8
	거의 매일	113	3.7
	무응답	0	0.0
	합계	3,017	100.0

4)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검진응답자의 가족여부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93.7%(2,827명),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65.7%(1,983명), ‘배우자’ 18.3%(553명), ‘없음’ 2.3%(70명), ‘기타’ 0.7%(22명) 순으로 나타남<표 258>.

〈표 258〉 응답자 가족여부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여부	없음	70	2.3
	배우자	553	18.3
	자녀	2,827	93.7
	형제/자매	1,983	65.7
	기타	22	0.7
	무응답	1	0.0
	합계	5,456	180.8

※ 검진응답자 중 2,058명이 다중응답

● 가족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55.7%(1,680명), ‘월 1~2회’ 25.2%(761명), ‘분기 1~2회’ 7.7%(231명), ‘없음’ 6.6%(200명), ‘연 1~2회’ 4.8%(145명) 순으로 나타남<표 259>.

〈표 259〉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연락	없음	200	6.6
	연 1~2회	145	4.8
	분기 1~2회	231	7.7
	월 1~2회	761	25.2
	주 1회 이상	1,680	55.7
	무응답	0	0.0
	합계	3,017	100.0

● 친구연락

- 검진응답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52.4%(1,581명), ‘없음’ 30.3%(913명), ‘월 1~2회’ 11.9%(359명), ‘분기 1~2회’ 3.5%(107명) ‘연 1~2회’ 1.9%(57명) 순으로 나타남<표 260>.

〈표 260〉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친구연락	없음	913	30.3
	연 1~2회	57	1.9
	분기 1~2회	107	3.5
	월 1~2회	359	11.9
	주 1회 이상	1,581	52.4
	무응답	0	0.0
	합계	3,017	100.0

● 이웃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79.4%(2,397명), ‘없음’ 9.8%(296명), ‘월 1~2회’ 8.3%(251명), ‘분기 1~2회’ 1.5%(45명), ‘연 1~2회’ 0.9%(28명) 순으로 나타남<표 261>.

〈표 261〉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이웃연락	없음	296	9.8
	연 1~2회	28	0.9
	분기 1~2회	45	1.5
	월 1~2회	251	8.3
	주 1회 이상	2,397	79.4
	무응답	0	0.0
	합계	3,017	100.0

● 경로당 이용

- 검진응답자의 경로당 이용정도를 살펴보면 ‘안함’ 47.2%(1,423명), ‘자주(월 3회 이하)’ 42.0%(1,268명), ‘가끔(월 2회 이하)’ 10.8%(325명) 순으로 나타남<표 262>.

〈표 262〉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로당 이용	안함	1,423	47.2
	가끔(월 2회 이하)	325	10.8
	자주(월 3회 이상)	1,268	42.0
	무응답	1	0.0
	합계	3,017	100.0

● 사회서비스 이용(1) :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

- 검진응답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이용안함’ 87.6%(2,644명), ‘이용’ 12.4% (373명)로 나타남<표 263>.

〈표 263〉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373	12.4
	이용안함	2,644	87.6
	무응답	0	0.0
	합계	3,017	100.0

● 사회서비스 이용(2) :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종류

- 검진응답자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사서비스’ 37.5%(140명), ‘정서서비스’ 33.2%(124명), ‘기타’ 26.5%(99명), ‘간병서비스’ 10.5%(39명), ‘결연서비스’ 4.0%(15명) 순으로 나타남<표 264>.

〈표 264〉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2)	가사서비스	140	37.5
	정서서비스	124	33.2
	결연서비스	15	4.0
	간병서비스	39	10.5
	기타	99	26.5
	무응답	5	1.3
	합계	422	113.1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검진응답자 중 45명이 다중응답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1 | 우울점수(SGDS)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또는 로버스트검정(welch)을 실시하였고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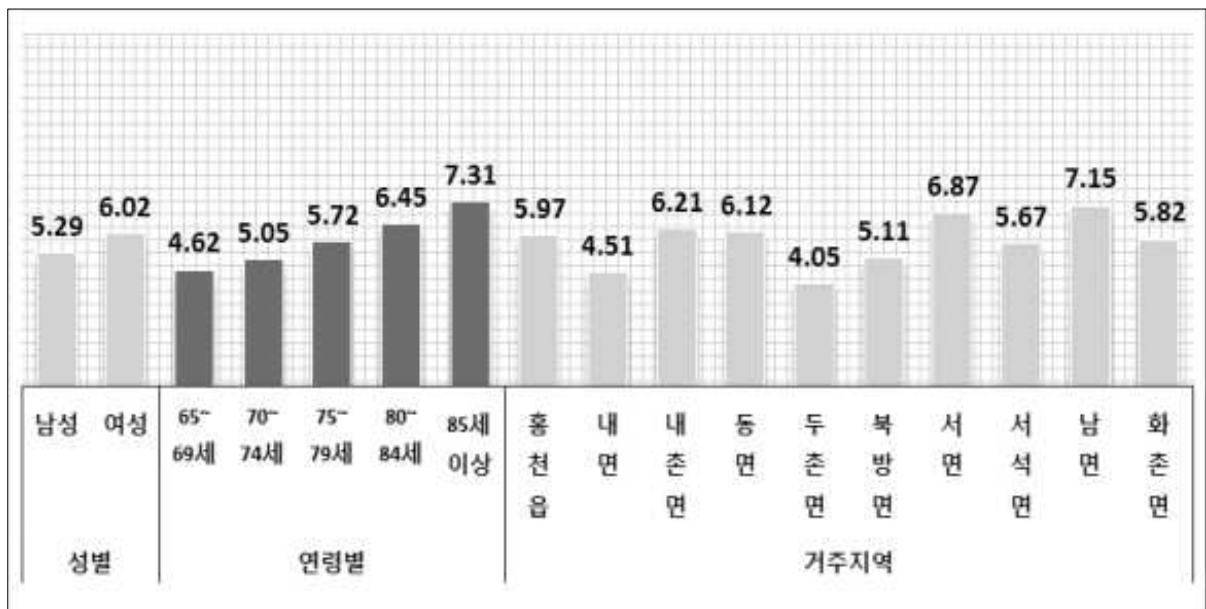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6.02)이 ‘남성’(5.2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5>, <그림 46>.
- 연령대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4.62 -> ‘85세 이상’ 7.3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65>, <그림 46>.
 - 연령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85세 이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80~84세’, ‘75~79세’, ‘70~74세’와 ‘65~69세’ 순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남면’(7.15)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5>, <그림 46>.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남면’이 ‘홍천읍’, ‘내면’, ‘두촌면’, ‘북방면’, ‘서석면’, ‘화촌면’보다, ‘홍천읍’, ‘내촌면’, ‘동면’, ‘서면’, ‘화촌면’이 ‘내면’과 ‘두촌면’보다, ‘동면’이 ‘북방면’보다 그리고 ‘서석면’은 ‘두촌면’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5〉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847	5.29	4.41	17.495***	-
	여성	2,169	6.02	4.31		
	전체	3,016	5.82	4.35		
연령별	65~69세(A)	398	4.62	4.54	(29.852)***	A,B < C < D < E
	70~74세(B)	651	5.05	4.30		
	75~79세(C)	839	5.72	4.32		
	80~84세(D)	674	6.45	4.08		
	85세 이상(E)	421	7.31	4.14		
	전체	2,983	5.81	4.35		
거주 지역	홍천읍(A)	1,067	5.97	4.63	(12.970)***	A,B,E,F, H,J < I
	내면(B)	231	4.51	4.03		
	내촌면(C)	160	6.21	4.83		B,E < A,C,D, G,J
	동면(D)	177	6.12	3.90		
	두촌면(E)	216	4.05	4.09		F < D
	북방면(F)	221	5.11	3.65		
	서면(G)	170	6.87	4.05		E < H
	서석면(H)	178	5.67	3.98		
	남면(I)	300	7.15	4.23		
	화촌면(J)	289	5.82	3.92		
	전체	3,009	5.82	4.35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4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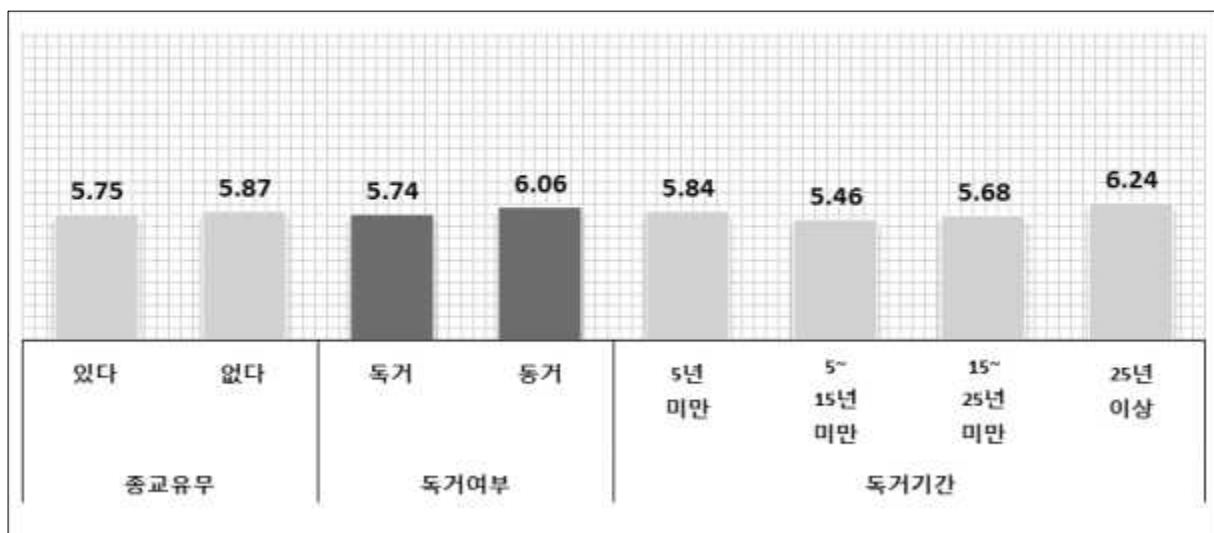
- 종교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5.87)가 있는 경우(5.7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66>, <그림 47>.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동거’(6.06)가 독거(5.7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66>, <그림 47>.
 - 독거인 검진응답자 중 독거기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25년 이상’(6.24)이 다른 독거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6>, <그림 47>.
- 독거기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25년 이상’이 ‘5년 미만’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종교	있다	1,434	5.75	4.38	11.371	-
	없다	1,576	5.87	4.31		
	전체	3,010	5.81	4.34		
독거 여부	독거	2,308	5.74	4.32	2.828	-
	동거	708	6.06	4.43		
	전체	3,016	5.82	4.35		
독거 기간	5년 미만(A)	493	5.84	4.25	3.408*	A < D
	5~15년 미만(B)	828	5.46	4.36		
	15~25년 미만(C)	518	5.68	4.22		
	25년 이상(D)	464	6.24	4.40		
	전체	2,303	5.75	4.32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4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7.50)가 다른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7>, <그림 48>.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순으로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경제활동을 ‘안한다’(6.14)가 ‘한다’(4.2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7>, <그림 48>.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6.34)가 ‘있다’(5.2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7>, <그림 4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2.68 → ‘가난’ 7.6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67>, <그림 4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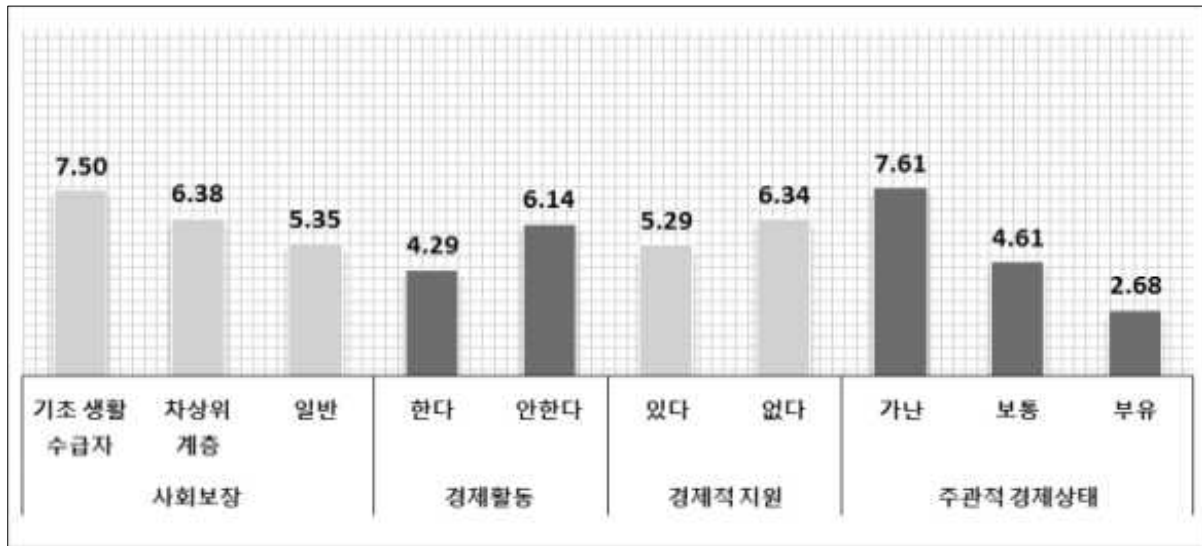
〈표 26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사회 보장	기초생활수급자(A)	523	7.50	4.39	56.490***	C < B < A
	차상위계층(B)	282	6.38	4.41		
	일반(C)	2,208	5.35	4.22		
	전체	3,013	5.82	4.35		
경제 활동	한다	522	4.29	4.04	(87.886)***	-
	안한다	2,494	6.14	4.34		
	전체	3,016	5.82	4.35		
경제적 지원	있다	1,507	5.29	4.12	(44.661)***	-
	없다	1,505	6.34	4.50		
	전체	3,012	5.82	4.35		
주관적 경제 상태 ¹⁾	가난(A)	1,269	7.61	4.32	(232.568)***	C < B < A
	보통(B)	1,669	4.61	3.91		
	부유(C)	76	2.68	2.76		
	전체	3,014	5.82	4.35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그림 4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거동상태에 따라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SGDS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5.64 -> ‘불능’ 10.7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68>, <그림 49>.
 - 거동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거동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그중 ‘불편’, ‘불능’이 ‘정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3개월 이내 약 복용 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있다’(6.03)가 ‘없다’(4.7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68>, <그림 49>.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1개’ 5.30 -> ‘4개 이상’ 8.01)하는 추세가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그중 ‘4개 이상’이 다른 정도보다, ‘3개’가 ‘1개’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문제성 음주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거의 매일’ 5.27 -> ‘전혀 없다’ 6.0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68>, <그림 49>.
 - 문제성 음주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거의 매일’이 ‘전혀 없다’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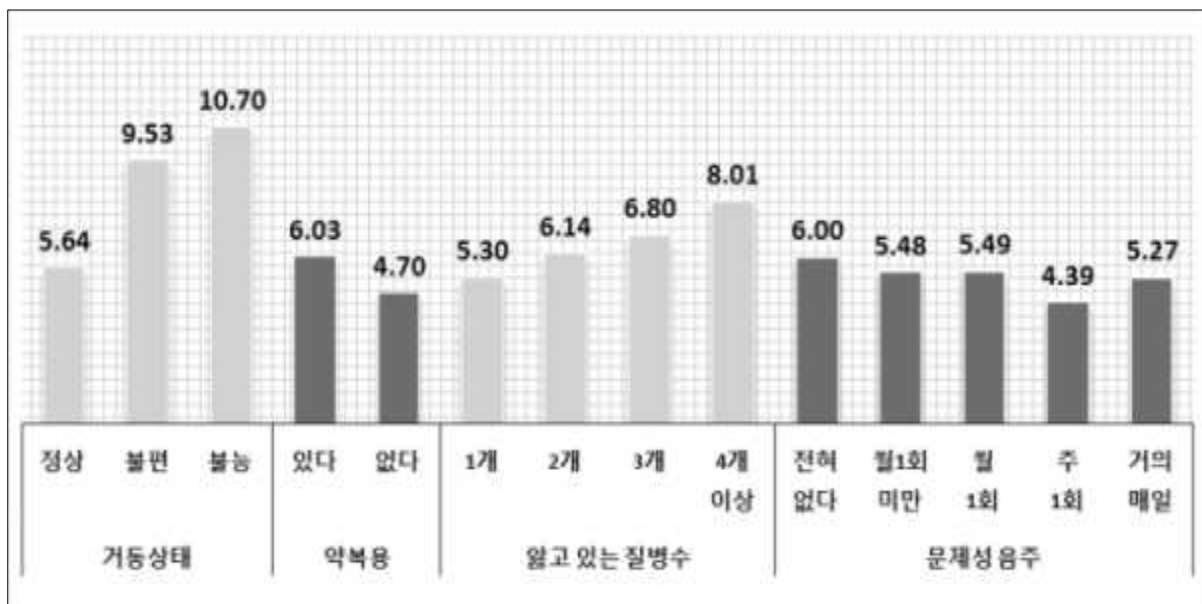
〈표 26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거동 상태	정상(A)	2,885	5.64	4.28	58.135***	A < B,C
	불편(B)	107	9.53	3.98		
	불능(C)	23	10.70	3.77		
	전체	3,015	5.82	4.35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약 복용	있다	2,532	6.03	4.33	38.503***	-
	없다	483	4.70	4.26		
	전체	3,015	5.82	4.35		
알고 있는 질병 수	1개(A)	994	5.30	4.24	24.559***	A,B,C < D
	2개(B)	957	6.14	4.25		
	3개(C)	434	6.80	4.33		A < C
	4개 이상(D)	142	8.01	4.54		
	전체	2,527	6.03	4.34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A)	2,441	6.00	4.32	7.496***	A < E
	월 1회 미만(B)	181	5.48	4.31		
	월 1회(C)	76	5.49	4.48		
	주 1회(D)	205	4.39	4.26		
	거의 매일(E)	113	5.27	4.51		
	전체	3,016	5.82	4.35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4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없음’(6.33)이 ‘있음’(5.8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69>, <그림 50>.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5.05 -> ‘없음’ 7.4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69>, <그림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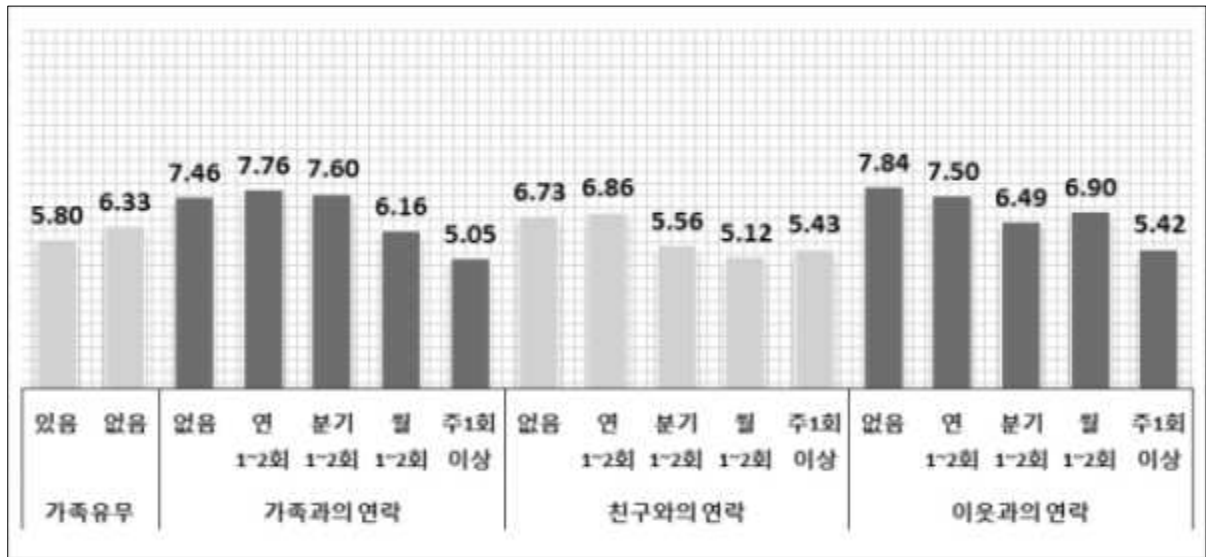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 ‘연 1~2회’, ‘분기 1~2회’가 ‘월 1~2회’, ‘주 1회 이상’보다,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5.43 → ‘없음’ 6.7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69>, <그림 50>.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이 ‘월 1~2회’,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5.42 → ‘없음’ 7.8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69>, <그림 50>.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연락 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과 ‘월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6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가족 유무	있음	2,945	5.80	4.35	1.000	-
	없음	70	6.33	4.33		
	전체	3,015	5.82	4.35		
가족 연락	없음(A)	200	7.46	4.75	(38.741)***	E < D < (A~C)
	연 1~2회(B)	145	7.76	4.47		
	분기 1~2회(C)	231	7.60	4.10		
	월 1~2회(D)	760	6.16	4.22		
	주 1회 이상(E)	1,680	5.05	4.18		
	전체	3,016	5.82	4.35		
친구 연락	없음(A)	913	6.73	4.51	(15.855)***	D,E < A
	연 1~2회(B)	57	6.86	4.43		
	분기 1~2회(C)	107	5.56	4.62		
	월 1~2회(D)	358	5.12	4.13		
	주 1회 이상(E)	1,581	5.43	4.19		
	전체	3,016	5.82	4.35		
이웃 연락	없음(A)	296	7.84	4.82	(22.874)***	E < A,D
	연 1~2회(B)	28	7.50	4.70		
	분기 1~2회(C)	45	6.49	5.23		
	월 1~2회(D)	251	6.90	4.29		
	주 1회 이상(E)	2,396	5.42	4.18		
	전체	3,016	5.82	4.35		

* : p<.05, ** : p<.01, *** : p<.001

〈그림 5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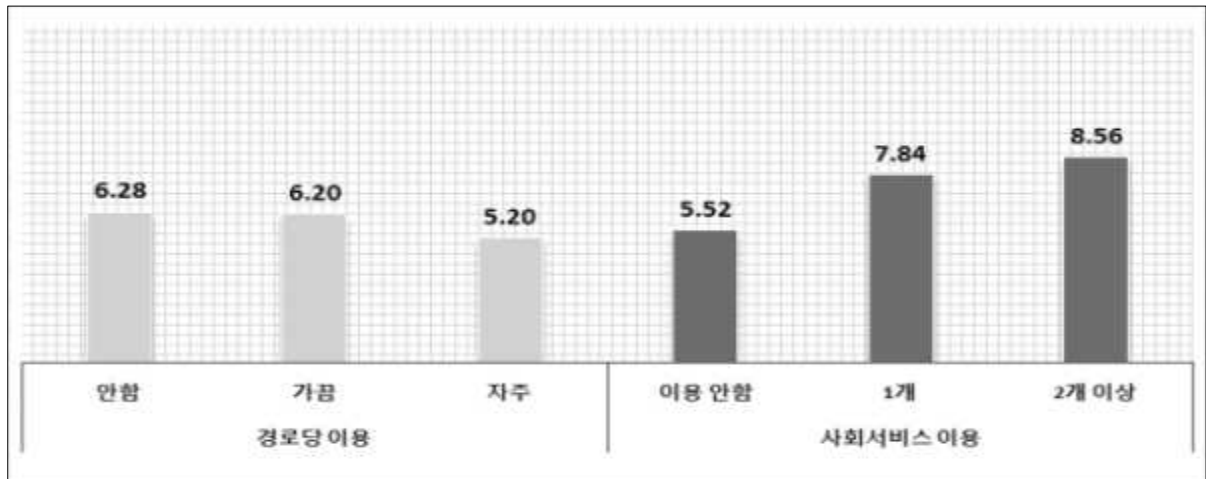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SGDS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월 3회 이상’ 5.20 → ‘안함’ 6.2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0>, <그림 5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안함’과 ‘가끔’이 ‘자주’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5.52 → ‘2개 이상’ 8.5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0>, <그림 51>.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1개’와 ‘2개 이상’이 ‘이용 안함’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경로당 이용	안함(A)	1,422	6.28	4.59	(22.910)***	C < A,B
	가끔(B)	325	6.20	4.16		
	자주(C)	1,268	5.20	4.04		
	전체	3,015	5.82	4.35		
사회 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A)	2,643	5.52	4.29	(51.812)***	A < B,C
	1개(B)	323	7.84	4.19		
	2개 이상(C)	45	8.56	3.80		
	전체	3,011	5.81	4.35		

* : p<.05, ** : p<.01, *** : p<.001

〈그림 51〉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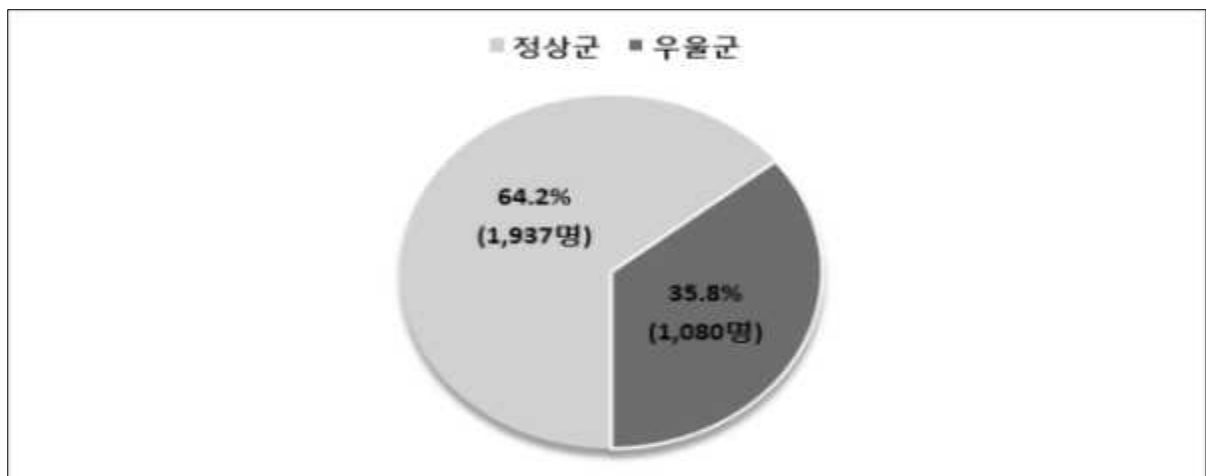
2 | 우울군 분포 현황

- 조맹제 등의 연구에 따르면 SGDS 점수의 총합이 8점 이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음.
- 홍천군 검진응답자의 SGDS 점수를 7점을 기준으로 정상군(0~7점), 우울군(8~15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상군’ 비율이 64.2%(1,937명), ‘우울군’ 비율이 35.8%(1,080명)로 나타남<표 271>, <그림 52>.

〈표 271〉 홍천군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우울군	정상군	1,937	64.2
	우울군	1,080	35.8
	무응답	0	0.0
	전체	3,017	100.0

〈그림 52〉 홍천군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성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우울군 비율(36.8%)이 ‘남성’의 우울군 비율(33.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72>.
- 연령별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 연령대의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28.3% → 85세 이상 48.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2>.

〈표 27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성별	남성	565 (66.7)	282 (33.3)	847 (100.0)	3.211	.073
	여성	1,372 (63.2)	798 (36.8)	2,170 (100.0)		
	전체	1,937 (64.2)	1,080 (35.8)	3,017 (100.0)		
연령별	65~69세	286 (71.7)	113 (28.3)	399 (100.0)	56.754	.000***
	70~74세	462 (71.0)	189 (29.0)	651 (100.0)		
	75~79세	548 (65.3)	291 (34.7)	839 (100.0)		
	80~84세	404 (59.9)	270 (40.1)	674 (100.0)		
	85세 이상	218 (51.8)	203 (48.2)	421 (100.0)		
	전체	1,918 (64.3)	1,066 (35.7)	2,984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거주지역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서면’의 우울군 비율(49.4%)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73>.
- 종교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37.1%)가 있는 경우(34.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73>.
- 독거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동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6.7%)이 독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5.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73>.
- 독거기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25년 이상’일 때의 우울군 비율(38.8%)이 다른 기간 일 때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73>.

〈표 27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거주지역	홍천읍	660 (61.8)	408 (38.2)	1,068 (100.0)	81.777	.000***
	내면	179 (77.5)	52 (22.5)	231 (100.0)		
	내촌면	95 (59.4)	65 (40.6)	160 (100.0)		
	동면	109 (61.6)	68 (38.4)	177 (100.0)		
	두촌면	171 (79.2)	45 (20.8)	216 (100.0)		
	북방면	158 (71.5)	63 (28.5)	221 (100.0)		
	서면	86 (50.6)	84 (49.4)	170 (100.0)		
	서석면	119 (66.9)	59 (33.1)	178 (100.0)		
	남면	160 (53.3)	140 (46.7)	300 (100.0)		
	화촌면	197 (68.2)	92 (31.8)	289 (100.0)		
	전체	1,934 (64.3)	1,076 (35.7)	3,010 (100.0)		
종교유무	있다	943 (65.7)	492 (34.3)	1,435 (100.0)	2.519	.119
	없다	992 (62.9)	584 (37.1)	1,576 (100.0)		
	전체	1,935 (64.3)	1,076 (35.7)	3,011 (100.0)		
독거여부	독거	1,489 (64.5)	820 (35.5)	2,309 (100.0)	0.345	.557
	동거	448 (63.3)	260 (36.7)	708 (100.0)		
	전체	1,937 (64.2)	1,080 (35.8)	3,017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305 (61.9)	188 (38.1)	493 (100.0)	6.149	.105
	5~15년 미만	553 (66.8)	275 (33.2)	828 (100.0)		
	15~25년 미만	343 (66.1)	176 (33.9)	519 (100.0)		
	25년 이상	284 (61.2)	180 (38.8)	464 (100.0)		
	전체	1,485 (64.5)	819 (35.5)	2,304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우울군 비율(49.7%)이 다른 사회보장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74>.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우울군 비율(38.4%)이 ‘한다’의 우울군 비율(23.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74>.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의 우울군 비율(40.7%)이 ‘경제적 지원처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0.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74>.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6.6% -> ‘가난’ 51.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4>.

〈표 274〉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263 (50.3)	260 (49.7)	523 (100.0)	63.185	.000***
	차상위계층	165 (58.5)	117 (41.5)	282 (100.0)		
	일반	1,506 (68.2)	703 (31.8)	2,209 (100.0)		
	전체	1,934 (64.2)	1,080 (35.8)	3,014 (100.0)		
경제활동	한다	400 (76.6)	122 (23.4)	522 (100.0)	42.403	.000***
	안한다	1,537 (61.6)	958 (38.4)	2,495 (100.0)		
	전체	1,937 (64.2)	1,080 (35.8)	3,017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1,041 (69.1)	466 (30.9)	1,507 (100.0)	31.352	.000***
	없다	893 (59.3)	613 (40.7)	1,506 (100.0)		
	전체	1,934 (64.2)	1,079 (35.8)	3,013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622 (49.0)	647 (51.0)	1,269 (100.0)	230.650	.000***
	보통	1,242 (74.4)	428 (25.6)	1,670 (100.0)		
	부유	71 (93.4)	5 (6.6)	76 (100.0)		
	전체	1,935 (64.2)	1,080 (35.8)	3,015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거동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우울군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34.3% -> 불능 78.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5>.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7.5%)이 복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6.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75>.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31.4% -> ‘4개 이상’ 54.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5>.
- 문제성 음주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거의 매일’ 27.4% -> ‘전혀 없음’ 36.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5>.

〈표 275〉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1,897 (65.7)	989 (34.3)	2,886 (100.0)	67.169	.000***
	불편	35 (32.7)	72 (67.3)	107 (100.0)		
	불능	5 (21.7)	18 (78.3)	23 (100.0)		
	전체	1,937 (64.2)	1,079 (35.8)	3,016 (100.0)		
약 복용	있다	1,583 (62.5)	950 (37.5)	2,533 (100.0)	19.495	.000***
	없다	353 (73.1)	130 (26.9)	483 (100.0)		
	전체	1,936 (64.2)	1,080 (35.8)	3,016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682 (68.6)	312 (31.4)	994 (100.0)	43.466	.000***
	2개	594 (62.1)	363 (37.9)	957 (100.0)		
	3개	239 (54.9)	196 (45.1)	435 (100.0)		
	4개 이상	65 (45.8)	77 (54.2)	142 (100.0)		
	전체	1,580 (62.5)	948 (37.5)	2,528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540 (63.1)	902 (36.9)	2,442 (100.0)	12.255	.016*
	월 1회 미만	118 (65.2)	63 (34.8)	181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문제성 음주	월 1회	47 (61.8)	29 (38.2)	76 (100.0)		
	주 1회	150 (73.2)	55 (26.8)	205 (100.0)		
	거의 매일	82 (72.6)	31 (27.4)	113 (100.0)		
	전체	1,937 (64.2)	1,080 (35.8)	3,017 (100.0)		

* : p<.05, ** : p<.01, *** : p<.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가족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있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5.8%)이 ‘없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5.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76>.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9.5% -> ‘없음’ 49.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6>.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32.6% -> ‘없음’ 44.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6>.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32.4% -> ‘없음’ 53.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6>.

〈표 27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1,892 (64.2)	1,054 (35.8)	2,946 (100.0)	0.000	.991
	없다	45 (64.3)	25 (35.7)	70 (100.0)		
	전체	1,937 (64.2)	1,079 (35.8)	3,016 (100.0)		
가족연락	없음	102 (51.0)	98 (49.0)	200 (100.0)	83.672	.000***
	연 1~2회	71 (49.0)	74 (51.0)	145 (100.0)		
	분기 1~2회	114 (49.4)	117 (50.6)	231 (100.0)		
	월 1~2회	466 (61.2)	295 (38.8)	761 (100.0)		
	주 1회 이상	1,184 (70.5)	496 (29.5)	1,680 (100.0)		
	전체	1,937 (64.2)	1,080 (35.8)	3,017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친구연락	없음	510 (55.9)	403 (44.1)	913 (100.0)	45.984	.000***
	연 1~2회	34 (59.6)	23 (40.4)	57 (100.0)		
	분기 1~2회	67 (62.6)	40 (37.4)	107 (100.0)		
	월 1~2회	260 (72.4)	99 (27.6)	359 (100.0)		
	주 1회 이상	1,066 (67.4)	515 (32.6)	1,581 (100.0)		
	전체	1,937 (64.2)	1,080 (35.8)	3,017 (100.0)		
이웃연락	없음	139 (47.0)	157 (53.0)	296 (100.0)	64.334	.000***
	연 1~2회	13 (46.4)	15 (53.6)	28 (100.0)		
	분기 1~2회	25 (55.6)	20 (44.4)	45 (100.0)		
	월 1~2회	139 (55.4)	112 (44.6)	251 (100.0)		
	주 1회 이상	1,621 (67.6)	776 (32.4)	2,397 (100.0)		
	전체	1,937 (64.2)	1,080 (35.8)	3,01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29.1% → 자주 41.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7>.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종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33.1% → ‘2개 이상’ 60.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77>.

〈표 277〉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839 (59.0)	584 (41.0)	1,423 (100.0)	43.273	.000***
	가끔	198 (60.9)	127 (39.1)	325 (100.0)		
	자주	899 (70.9)	369 (29.1)	1,268 (100.0)		
	전체	1,936 (64.2)	1,080 (35.8)	3,016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1,770 (66.9)	874 (33.1)	2,644 (100.0)	69.250	.000***
	1개	147 (45.5)	176 (54.5)	323 (100.0)		
	2개 이상	18 (40.0)	27 (60.0)	45 (100.0)		
	전체	1,935 (64.2)	1,077 (35.8)	3,012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 검진응답자의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 보면 ‘있다’ 5.7%(171명), ‘없다’ 94.3%(2,845명)로 나타남<표 278>.

〈표 278〉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	있다	171	5.7
	없다	2,845	94.3
	무응답	1	0.0
	전체	3,017	100.0

- 검진응답자의 현재 자살 계획의 유무에 대해 살펴봤을 때 ‘있다’ 0.5%(15명), ‘없다’ 99.4%(3,000명)로 나타남<표 279>.

〈표 279〉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현재 자살 계획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계획	있다	15	0.5
	없다	3,000	99.4
	무응답	2	0.1
	전체	3,017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문제’가 33.9%(58명), ‘경제적 어려움’ 36.8%(63명), ‘외로움’ 22.2%(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80>.

〈표 280〉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의 이유	건강문제	58	33.9
	경제적 어려움	63	36.8
	외로움	38	22.2
	가정불화	6	3.5
	친구/동료와의 불화	0	0.0
	기타	19	11.1
	무응답	54	31.6
	전체	238	139.2

※ 자살생각이 있는 응답자 171명 중 56명 중복응답

- 검진응답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자살한 사람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3.3%(101명), ‘없다’ 96.6%(2,913명)로 나타남<표 281>.

〈표 28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까운 사람의 자살	있다	101	3.3
	없다	2,913	96.6
	무응답	3	0.1
	전체	3,017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1.8%(53명), ‘없다’ 98.1%(2,961명)로 나타남<표 282>.

〈표 282〉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귀하께서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있다	53	1.8
	없다	2,961	98.1
	무응답	3	0.1
	전체	3,017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 중 자살시도한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52.8%(28명), ‘2회’ 26.4%(14명), ‘3회 이상’ 13.2%(7명) 순으로 나타남<표 283>.

〈표 283〉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과거에 자살시도한 횟수”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횟수	1회	28	52.8
	2회	14	26.4
	3회 이상	7	13.2
	무응답	4	7.6
	전체	53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 시도했을 때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약물복용’이 47.2%(25명), ‘목맴’이 18.9%(10명), ‘살충제’ 17.0%(9명), ‘익수’ 11.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284>.

〈표 284〉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했을 때의 방법”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했을 때의 방법	목매	10	18.9
	살충제	9	17.0
	투신	4	7.5
	가스	1	1.9
	자해	0	0.0
	익수	6	11.3
	약물복용	25	47.2
	기타	1	1.9
	무응답	3	5.7
	전체	59	111.3

※ 자살시도자 중 53명 중 6명 중복응답

2 |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자살위험군을 선별할 때 중요시 되는 문항인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와 ‘과거 자살시도의 유무’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7.1%)이 여성(5.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85>.
- 연령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85세 이상’인 경우(7.1%)가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85>.

〈표 28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60 (7.1)	786 (92.9)	846 (100.0)	4.448	.035*
	여성	111 (5.1)	2,059 (94.9)	2,170 (100.0)		
	전체	171 (5.7)	2,845 (94.3)	3,016 (100.0)		
연령별	65~69세	28 (7.0)	371 (93.0)	399 (100.0)	6.432	.169
	70~74세	32 (4.9)	619 (95.1)	651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연령별	75~79세	52 (6.2)	786 (93.8)	838 (100.0)		
	80~84세	29 (4.3)	645 (95.7)	674 (100.0)		
	85세 이상	30 (7.1)	391 (92.9)	421 (100.0)		
	전체	171 (5.7)	2,812 (94.3)	2,983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내면’(10.4%)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86>.
- 종교유무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는 경우(5.7%)와 있다는 경우(5.7%)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도 뚜렷한 차이가 없음<표 286>.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동거일 때(6.2%)가 독거일 때(5.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86>.
- 독거기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6.5%)가 다른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86>.

〈표 28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홍천읍	91 (8.5)	977 (91.5)	1,068 (100.0)	77.731	.000***
	내면	24 (10.4)	207 (89.6)	231 (100.0)		
	내촌면	11 (6.9)	149 (93.1)	160 (100.0)		
	동면	4 (2.3)	173 (97.7)	177 (100.0)		
	두촌면	3 (1.4)	212 (98.6)	215 (100.0)		
	북방면	5 (2.3)	216 (97.7)	221 (100.0)		
	서면	12 (7.1)	158 (92.9)	170 (100.0)		
	서석면	6 (3.4)	172 (96.6)	178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남면	8 (2.7)	292 (97.3)	300 (100.0)		
	화촌면	4 (1.4)	285 (98.6)	289 (100.0)		
	전체	168 (5.6)	2,841 (94.4)	3,009 (100.0)		
종교유무	있다	82 (5.7)	1,353 (94.3)	1,435 (100.0)	0.006	1.000
	없다	89 (5.7)	1,486 (94.3)	1,575 (100.0)		
	전체	171 (5.7)	2,839 (94.3)	3,010 (100.0)		
독거여부	독거	127 (5.5)	2,181 (94.5)	2,308 (100.0)	0.514	.474
	동거	44 (6.2)	664 (93.8)	708 (100.0)		
	전체	171 (5.7)	2,845 (94.3)	3,016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25 (5.1)	468 (94.9)	493 (100.0)	1.066	.785
	5~15년 미만	44 (5.3)	783 (94.7)	827 (100.0)		
	15~25년 미만	28 (5.4)	491 (94.6)	519 (100.0)		
	25년 이상	30 (6.5)	434 (93.5)	464 (100.0)		
	전체	127 (5.5)	2,176 (94.5)	2,303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9.9%)가 다른 사회보장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7>.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경우(5.7%)가 ‘한다’의 경우(5.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87>.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7.3%)가 ‘있다’의 경우(4.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7>.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1.3% -> ‘가난’ 9.6%)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287>.

〈표 287〉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52 (9.9)	471 (90.1)	523 (100.0)	21.700	.000***
	차상위계층	15 (5.3)	267 (94.7)	282 (100.0)		
	일반	104 (4.7)	2,104 (95.3)	2,208 (100.0)		
	전체	171 (5.7)	2,842 (94.3)	3,013 (100.0)		
경제활동	한다	29 (5.6)	493 (94.4)	522 (100.0)	0.015	.901
	안한다	142 (5.7)	2,352 (94.3)	2,494 (100.0)		
	전체	171 (5.7)	2,845 (94.3)	3,016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61 (4.0)	1,446 (96.0)	1,507 (100.0)	14.955	.000***
	없다	110 (7.3)	1,395 (92.7)	1,505 (100.0)		
	전체	171 (5.7)	2,841 (94.3)	3,012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122 (9.6)	1,146 (90.4)	1,268 (100.0)	64.078	.000***
	보통	48 (2.9)	1,622 (97.1)	1,670 (100.0)		
	부유	1 (1.3)	75 (98.7)	76 (100.0)		
	전체	171 (5.7)	2,843 (94.3)	3,014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거동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불편’인 경우(16.8%)가 다른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88>.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한 경우(6.0%)가 없다고 한 경우(3.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 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88>.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4.5% -> ‘4개 이상’ 11.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88>.
- 문제성 음주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문제성 음주정도가 ‘월 1회 미만’인 경우(6.6%)가 다른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88>.

〈표 288〉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151 (5.2)	2,734 (94.8)	2,885 (100.0)	26.114	.000***
	불편	18 (16.8)	89 (83.2)	107 (100.0)		
	불능	1 (4.3)	22 (95.7)	23 (100.0)		
	전체	170 (5.6)	2,845 (94.4)	3,015 (100.0)		
약 복용	있다	152 (6.0)	2,380 (94.0)	2,532 (100.0)	3.209	.073
	없다	19 (3.9)	464 (96.1)	483 (100.0)		
	전체	171 (5.7)	2,844 (94.3)	3,015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45 (4.5)	948 (95.5)	993 (100.0)	11.855	.008***
	2개	60 (6.3)	897 (93.7)	957 (100.0)		
	3개	31 (7.1)	404 (92.9)	435 (100.0)		
	4개 이상	16 (11.3)	126 (88.7)	142 (100.0)		
	전체	152 (6.0)	2,375 (94.0)	2,527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40 (5.7)	2,301 (94.3)	2,441 (100.0)	1.610	.807
	월 1회 미만	12 (6.6)	169 (93.4)	181 (100.0)		
	월 1회	4 (5.3)	72 (94.7)	76 (100.0)		
	주 1회	8 (3.9)	197 (96.1)	205 (100.0)		
	거의 매일	7 (6.2)	106 (93.8)	113 (100.0)		
	전체	171 (5.7)	2,845 (94.3)	3,016 (100.0)		

* : p<.05, ** : p<.01, *** : p<.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가족유무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다’의 경우(10.0%)가 ‘있다’의 경우(5.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89>.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3.9% → ‘없음’ 12.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89>.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4.0% → ‘없음’ 8.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89>.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3.9% → ‘없음’ 16.2%)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89>.

〈표 289〉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164 (5.6)	2,781 (94.4)	2,945 (100.0)	2.51	.115
	없다	7 (10.0)	63 (90.0)	70 (100.0)		
	전체	171 (5.7)	2,844 (94.3)	3,015 (100.0)		
가족연락	없음	25 (12.5)	175 (87.5)	200 (100.0)	34.436	.000***
	연 1~2회	15 (10.3)	130 (89.7)	145 (100.0)		
	분기 1~2회	16 (6.9)	215 (93.1)	231 (100.0)		
	월 1~2회	49 (6.4)	711 (93.6)	760 (100.0)		
	주 1회 이상	66 (3.9)	1,614 (96.1)	1,680 (100.0)		
	전체	171 (5.7)	2,845 (94.3)	3,016 (100.0)		
친구연락	없음	75 (8.2)	837 (91.8)	912 (100.0)	22.051	.000***
	연 1~2회	6 (10.5)	51 (89.5)	57 (100.0)		
	분기 1~2회	6 (5.6)	101 (94.4)	107 (100.0)		
	월 1~2회	21 (5.8)	338 (94.2)	359 (100.0)		
	주 1회 이상	63 (4.0)	1,518 (96.0)	1,581 (100.0)		
	전체	171 (5.7)	2,845 (94.3)	3,016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이웃연락	없음	48 (16.2)	248 (83.8)	296 (100.0)	84.554	.000***
	연 1~2회	3 (10.7)	25 (89.3)	28 (100.0)		
	분기 1~2회	3 (6.7)	42 (93.3)	45 (100.0)		
	월 1~2회	24 (9.6)	226 (90.4)	250 (100.0)		
	주 1회 이상	93 (3.9)	2,304 (96.1)	2,397 (100.0)		
	전체	171 (5.7)	2,845 (94.3)	3,016 (100.0)		

* : p<.05, ** : p<.01, *** : p<.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3.2% -> ‘안함’ 7.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0>.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수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2개 이상’ 0.0% -> ‘이용 안함’ 5.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0>.

〈표 290〉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107 (7.5)	1,315 (92.5)	1,422 (100.0)	24.416	.000***
	가끔	23 (7.1)	302 (92.9)	325 (100.0)		
	자주	41 (3.2)	1,227 (96.8)	1,268 (100.0)		
	전체	171 (5.7)	2,844 (94.3)	3,015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131 (5.0)	2,512 (95.0)	2,643 (100.0)	23.936	.000***
	1개	37 (11.5)	286 (88.5)	323 (100.0)		
	2개 이상	1 (2.2)	44 (97.8)	45 (100.0)		
	전체	169 (5.6)	2,842 (94.4)	3,011 (100.0)		

* : p<.05, ** : p<.01, *** : p<.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2.0%)이 여성(1.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1>.
- 연령별에 따라 ‘자살시도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85세 이상’ 1.0% -> ‘65~69세’ 3.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1>.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시도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내촌면(3.8%)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91>.

〈표 29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17 (2.0)	830 (98.0)	847 (100.0)	0.422	.516
	여성	36 (1.7)	2,131 (98.3)	2,167 (100.0)		
	전체	53 (1.8)	2,961 (98.2)	3,014 (100.0)		
연령별	65~69세	13 (3.3)	386 (96.7)	399 (100.0)	18.191	.001**
	70~74세	10 (1.5)	641 (98.5)	651 (100.0)		
	75~79세	23 (2.7)	815 (97.3)	838 (100.0)		
	80~84세	3 (0.4)	671 (99.6)	674 (100.0)		
	85세 이상	4 (1.0)	415 (99.0)	419 (100.0)		
	전체	53 (1.8)	2,928 (98.2)	2,981 (100.0)		
거주지역	홍천읍	30 (2.8)	1,038 (97.2)	1,068 (100.0)	27.924	.002**
	내면	3 (1.3)	227 (98.7)	230 (100.0)		
	내촌면	6 (3.8)	154 (96.3)	160 (100.0)		
	동면	0 (0.0)	177 (100.0)	177 (100.0)		
	두촌면	2 (0.9)	214 (99.1)	216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북방면	0 (0.0)	221 (100.0)	221 (100.0)		
	서면	2 (1.2)	168 (98.8)	170 (100.0)		
	서석면	2 (1.1)	176 (98.9)	178 (100.0)		
	남면	2 (0.7)	297 (99.3)	299 (100.0)		
	화촌면	5 (1.7)	283 (98.3)	288 (100.0)		
	전체	52 (1.7)	2,955 (98.3)	3,007 (100.0)		

* : p<.05, ** : p<.01, *** : p<.001

- 종교유무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2.2%)가 없는 경우(1.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2>.
- 독거여부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경우(1.8%)가 동거인 경우(1.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2>.
- 독거기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3.2%)가 다른 독거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2>.

〈표 29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의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32 (2.2)	1,401 (97.8)	1,433 (100.0)	3.509	.071
	없다	21 (1.3)	1,554 (98.7)	1,575 (100.0)		
	전체	53 (1.8)	2,955 (98.2)	3,008 (100.0)		
독거여부	독거	42 (1.8)	2,264 (98.2)	2,306 (100.0)	0.225	.636
	동거	11 (1.6)	697 (98.4)	708 (100.0)		
	전체	53 (1.8)	2,961 (98.2)	3,014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독거기간	5년 미만	7 (1.4)	485 (98.6)	492 (100.0)	6.613	.085
	5~15년 미만	13 (1.6)	815 (98.4)	828 (100.0)		
	15~25년 미만	7 (1.3)	512 (98.7)	519 (100.0)		
	25년 이상	15 (3.2)	447 (96.8)	462 (100.0)		
	전체	42 (1.8)	2,259 (98.2)	2,301 (100.0)		

* : p<.05, ** : p<.01, *** : p<.001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2.7%)가 다른 사회보장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3>.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한다’의 경우(2.7%)가 ‘안한다’의 경우(1.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3>.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2.2%)가 ‘있다’의 경우(1.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93>.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 수록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1.3% → ‘가난’ 2.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3>.

〈표 293〉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14 (2.7)	509 (97.3)	523 (100.0)	3.153	.207
	차상위계층	5 (1.8)	277 (98.2)	282 (100.0)		
	일반	34 (1.5)	2,172 (98.5)	2,206 (100.0)		
	전체	53 (1.8)	2,958 (98.2)	3,011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제활동	한다	14 (2.7)	508 (97.3)	522 (100.0)	3.117	.077
	안한다	39 (1.6)	2,453 (98.4)	2,492 (100.0)		
	전체	53 (1.8)	2,961 (98.2)	3,014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20 (1.3)	1,485 (98.7)	1,505 (100.0)	3.246	.072
	없다	33 (2.2)	1,472 (97.8)	1,505 (100.0)		
	전체	53 (1.8)	2,957 (98.2)	3,010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35 (2.8)	1,232 (97.2)	1,267 (100.0)	12.759	.002**
	보통	17 (1.0)	1,652 (99.0)	1,669 (100.0)		
	부유	1 (1.3)	75 (98.7)	76 (100.0)		
	전체	53 (1.8)	2,959 (98.2)	3,012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 < .05$, ** : $p < .01$, *** : $p < .001$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 거동상태에 따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불편'인 경우 (2.8%)가 다른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4>.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있다'의 경우(1.9%)가 '없다'의 경우(1.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4>.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라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증가('1개' 1.3% -> '4개 이상' 5.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4>.
- 문제성 음주정도에 따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문제성 음주정도가 '월 1회 미만'(3.9%)일 때가 다른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4>.

〈표 294〉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50 (1.7)	2,834 (98.3)	2,884 (100.0)	1.126	.339
	불편	3 (2.8)	103 (97.2)	106 (100.0)		
	불능	0 (0.0)	23 (100.0)	23 (100.0)		
	전체	53 (1.8)	2,960 (98.2)	3,013 (100.0)		
약 복용	있다	47 (1.9)	2,483 (98.1)	2,530 (100.0)	0.878	.349
	없다	6 (1.2)	477 (98.8)	483 (100.0)		
	전체	53 (1.8)	2,960 (98.2)	3,013 (100.0)		
알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13 (1.3)	980 (98.7)	993 (100.0)	12.857	.005**
	2개	17 (1.8)	938 (98.2)	955 (100.0)		
	3개	9 (2.1)	426 (97.9)	435 (100.0)		
	4개 이상	8 (5.6)	134 (94.4)	142 (100.0)		
	전체	47 (1.9)	2,478 (98.1)	2,525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39 (1.6)	2,400 (98.4)	2,439 (100.0)	5.897	.185
	월 1회 미만	7 (3.9)	174 (96.1)	181 (100.0)		
	월 1회	2 (2.6)	74 (97.4)	76 (100.0)		
	주 1회	4 (2.0)	201 (98.0)	205 (100.0)		
	거의 매일	1 (0.9)	112 (99.1)	113 (100.0)		
	전체	53 (1.8)	2,961 (98.2)	3,014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가족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가족이 없는 경우(4.3%)가 있는 경우(1.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5>.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1.3% -> ‘없음’ 2.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5>.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없음’인 경우(2.2%)가 다른 연락빈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5>.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1.5% -> ‘없음’ 3.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5>.

〈표 295〉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50 (1.7)	2,893 (98.3)	2,943 (100.0)	2.647	.124
	없다	3 (4.3)	67 (95.7)	70 (100.0)		
	전체	53 (1.8)	2,960 (98.2)	3,013 (100.0)		
가족연락	없음	4 (2.0)	196 (98.0)	200 (100.0)	14.978	.011*
	연 1~2회	8 (5.5)	137 (94.5)	145 (100.0)		
	분기 1~2회	4 (1.7)	226 (98.3)	230 (100.0)		
	월 1~2회	16 (2.1)	743 (97.9)	759 (100.0)		
	주 1회 이상	21 (1.3)	1,659 (98.8)	1,680 (100.0)		
	전체	53 (1.8)	2,961 (98.2)	3,014 (100.0)		
친구연락	없음	20 (2.2)	892 (97.8)	912 (100.0)	1.737	.063
	연 1~2회	1 (1.8)	56 (98.2)	57 (100.0)		
	분기 1~2회	1 (0.9)	106 (99.1)	107 (100.0)		
	월 1~2회	6 (1.7)	353 (98.3)	359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친구연락	주 1회 이상	25 (1.6)	1,554 (98.4)	1,579 (100.0)		
	전체	53 (1.8)	2,961 (98.2)	3,014 (100.0)		
이웃연락	없음	9 (3.0)	287 (97.0)	296 (100.0)	10.261	.063
	연 1~2회	0 (0.0)	28 (100.0)	28 (100.0)		
	분기 1~2회	3 (6.7)	42 (93.3)	45 (100.0)		
	월 1~2회	4 (1.6)	247 (98.4)	251 (100.0)		
	주 1회 이상	37 (1.5)	2,357 (98.5)	2,394 (100.0)		
	전체	53 (1.8)	2,961 (98.2)	3,014 (100.0)		

* : p<.05, ** : p<.01, *** : p<.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정도가 ‘가끔’인 경우(2.5%)가 다른 이용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296>.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1.4% -> ‘2개 이상’ 6.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296>.

〈표 29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30 (2.1)	1,392 (97.9)	1,422 (100.0)	4.355	.113
	가끔	8 (2.5)	317 (97.5)	325 (100.0)		
	자주	15 (1.2)	1,251 (98.8)	1,266 (100.0)		
	전체	53 (1.8)	2,960 (98.2)	3,013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38 (1.4)	2,603 (98.6)	2,641 (100.0)	14.971	.001**
	1개	12 (3.7)	311 (96.3)	323 (100.0)		
	2개 이상	3 (6.7)	42 (93.3)	45 (100.0)		
	전체	53 (1.8)	2,956 (98.2)	3,009 (100.0)		

* : p<.05, ** : p<.01, *** : p<.001

3 |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1)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주관적 경제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 친구와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우울군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37>.
- 연령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65~69세인 경우를 기준으로 80~84세인 경우 1.499배, 85세 이상 1.827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부유인 경우를 기준으로 가난인 경우가 9.226배, 보통인 경우 4.026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1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2개인 경우가 1.267배, 3개인 경우 1.594배, 4개 이상인 경우 2.433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월 1~2회인 경우가 주 1회 이상인 경우 보다 0.563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없음인 경우가 1.757배, 월 1~2회인 경우 1.990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7〉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¹⁾	
				χ^2	p
연령별		.000		8.543	.382
연령별(1) : 70~74세	.031	.858	1.031		
연령별(2) : 75~79세	.122	.450	1.130		
연령별(3) : 80~84세	.405	.015	1.499		
연령별(4) : 85세 이상	.603	.001	1.827		
주관적 경제상태²⁾		.000			
주관적 경제상태(1) : 가난	2.222	.000	9.226		
주관적 경제상태(2) : 보통	1.393	.004	4.026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236	.022	1.267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466	.000	1.594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889	.000	2.433		
친구와의 연락빈도		.008			
친구와의 연락빈도(1) : 없음	-.056	.607	.945		
친구와의 연락빈도(2) : 연 1~2회	-.087	.805	.917		
친구와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139	.593	1.149		
친구와의 연락빈도(4) : 월 1~2회	-.574	.000	.563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¹⁾	
				χ^2	p
이웃과의 연락빈도		.000			
이웃과의 연락빈도(1) : 없음	.564	.000	1.757		
이웃과의 연락빈도(2) : 연 1~2회	.590	.232	1.804		
이웃과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530	.160	1.699		
이웃과의 연락빈도(4) : 월 1~2회	.688	.000	1.990		

1) 모형의 적합도 검정 : 유의확률의 값이 > 0.05 여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2)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p<.05, **: p<.01, ***: p<.001

2)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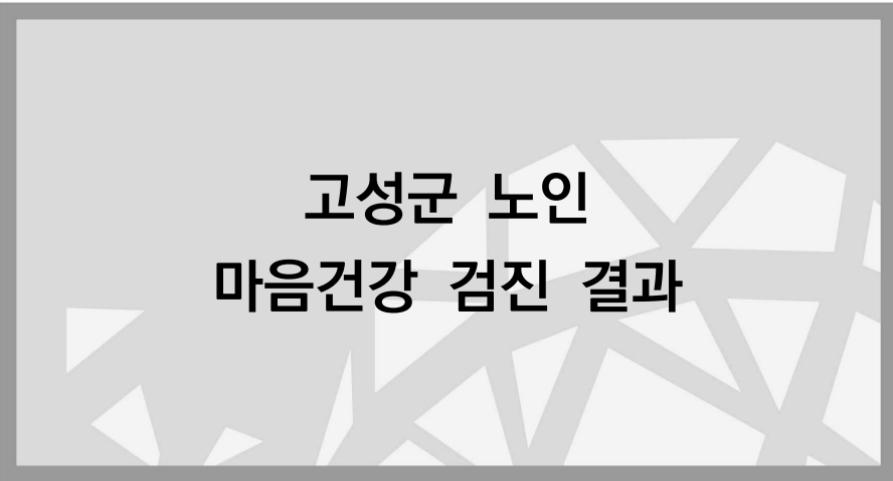
-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경제상태,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자살 고위험군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38>.
- 주관적 경제상태는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문항이지만,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없음인 경우가 3.195배, 월 1~2회인 경우 2.115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8〉 홍천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χ^2	p
주관적 경제상태¹⁾		.003			
주관적 경제상태(1) : 가난	-.416	.714	.660		
주관적 경제상태(2) : 보통	-1.112	.331	.329		
이웃과의 연락빈도		.000			
이웃과의 연락빈도(1) : 없음	1.162	.000	3.195	12.244	.141
이웃과의 연락빈도(2) : 연 1~2회	.793	.235	2.209		
이웃과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419	.523	1.521		
이웃과의 연락빈도(4) : 월 1~2회	.749	.007	2.115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p<.05, **: p<.01, ***: p<.001



**고성군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고성군 노인 마음건강 검진 결과

I | 검진개요

| 1 | 검진 범위

- 지역적 범위 : 고성군(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 응답자 범위 : 65세 이상 노인
- 내용적 범위 :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 우울증 평가, 자살위험성

| 2 | 검진 대상 및 방법

1) 검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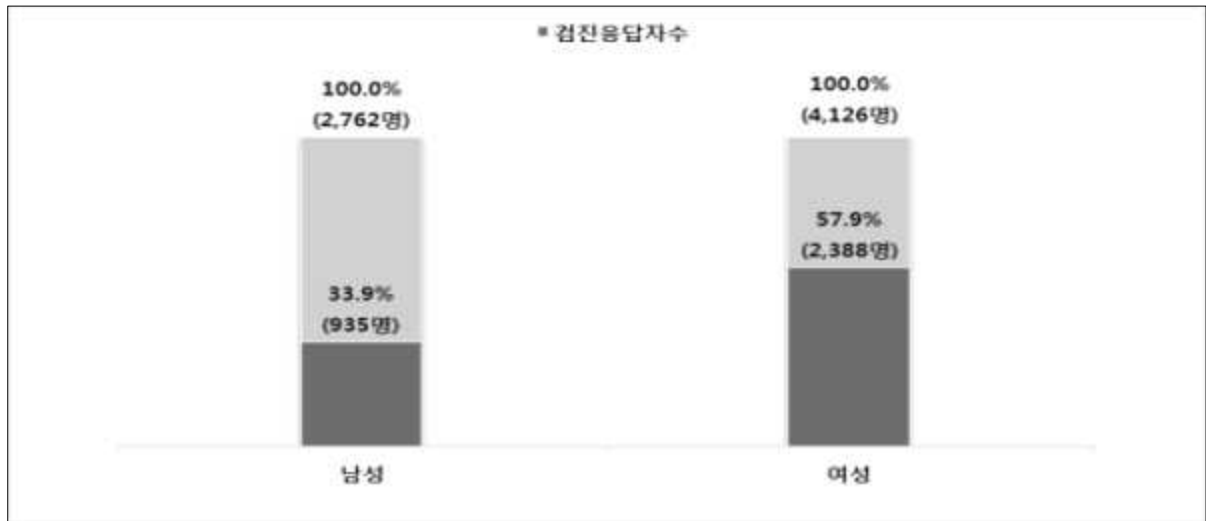
- 고성군 성별, 연령별 그리고 거주지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검진응답자수는 아래와 같음.

〈표 299〉 고성군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수 및 검진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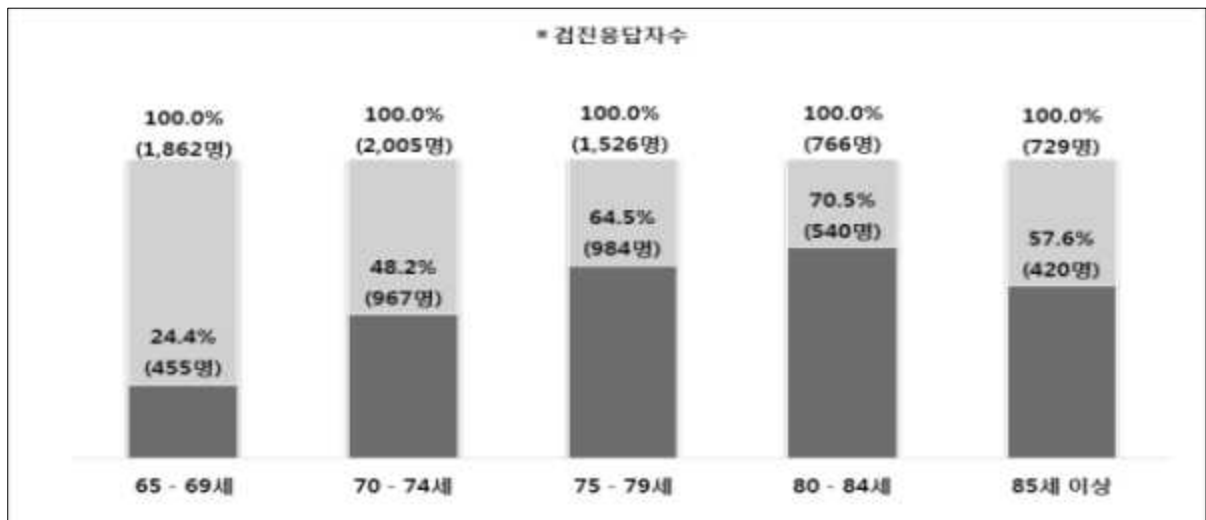
구분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명)	검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성별	남성	2,762	935	33.9	
	여성	4,126	2,388	57.9	
	무응답	-	61	-	
연령별	65 - 69세	1,862	455	24.4	
	70 - 74세	2,005	967	48.2	
	75 - 79세	1,526	984	64.5	
	80 - 84세	766	540	70.5	
	85세 이상	729	420	57.6	
	무응답	-	18	-	
거주지역	간성읍	1,302	615	47.2	
	거진읍	2,033	882	43.4	
	현내면	836	436	52.2	
	죽왕면	1,080	663	61.4	
	토성면	1,637	788	48.1	
합계		6,888	3,384	49.1	

※ 출처 : 통계청(2014) - 2014년 12월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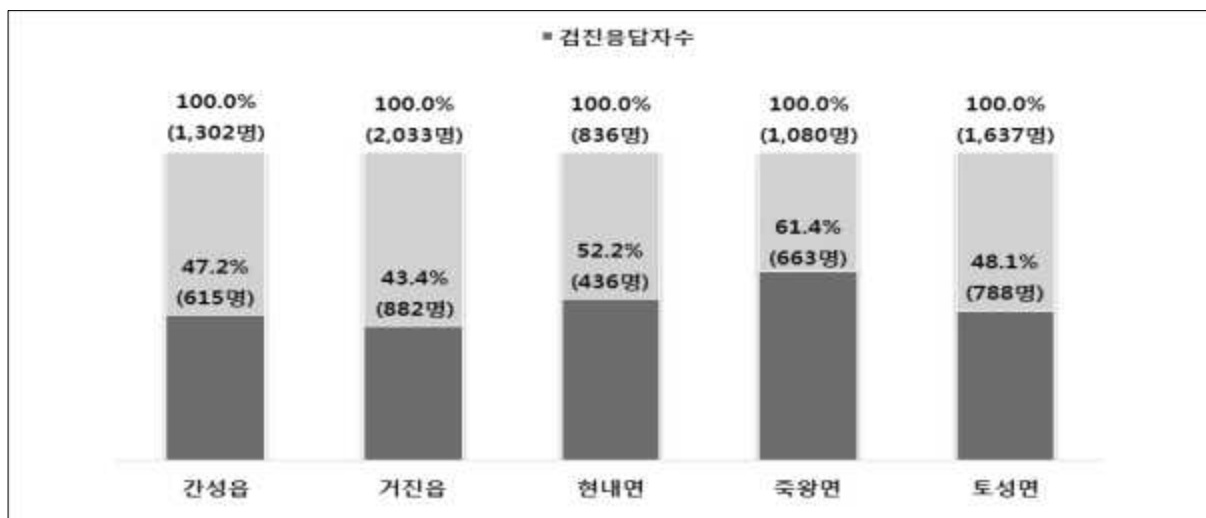
〈그림 53〉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검진응답자의 비율 : 성별



〈그림 54〉 고성군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연령별



〈그림 55〉 고성군 인구 및 검진응답자 수 비교 : 거주지역



2) 검진방법

- 검진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검진요원들이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검진 실시

3 | 검진 내용

- 검진의 주요 내용은 특성에 따른 응답자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실태, 우울증평가(SGDS), 자살 위험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00〉 주요 검진 내용

검진 분야	검진내용
① 일반적 특성	성별, 나이, 거주지, 종교, 독거, 주거유형
② 경제적 특성	사회보장, 경제활동, 경제적 지원, 주관적 경제상태
③ 보건학적 특성	거동상태, 약 복용, 질병, 음주여부
④ 사회관계적 특성	가족여부, 가족과의 연락, 친구와의 연락, 이웃과의 연락, 경로당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
⑤ 우울증평가(SGDS)	현재 생활 만족, 기분, 불안, 기억력, 기력 등
⑥ 자살위험성	자살사고, 자살계획, 자살한 지인의 유무, 자살시도력

4 |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1) 자료검수 및 확인

- 설문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진된 설문지 자료 중 부실 자료에 대한 재확인 및 보완을 거친 후 최종 유효 자료에 대해 통계처리 함.

2) 자료처리

- 검진된 자료는 Coding, Editing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20.0(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평균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 ※ 빈도분석을 제외한 그 외의 통계분석은 각 문항의 무응답을 결측값으로 두고 자료를 분석 하였기에 문항별 응답자 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5 | 응답자 현황

1) 일반적 특성

- 성별
 -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 마음건강검진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성’ 70.6%(2,388명), ‘남성’ 27.6%(935명)로 나타남<표 301>.

〈표 301〉 응답자 성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성	935	27.6
	여성	2,388	70.6
	무응답	61	1.8
	전체	3,384	100.0

● 연령별

-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 마음건강 실태검진 응답자들의 연령별을 살펴보면 ‘75~79세’가 29.1%(984명), ‘70~74세’ 28.6%(967명), ‘80~84세’ 16.0%(540명), ‘65~69세’ 13.0%(455명), ‘85세 이상’ 12.4%(42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76.4±6.4세’로 나타남<표 302>.

〈표 302〉 응답자 연령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연령별	65~69세	455	13.4
	70~74세	967	28.6
	75~79세	984	29.1
	80~84세	540	16.0
	85세 이상	420	12.4
	무응답	18	0.5
	전체	3,384	100.0

● 거주지역

- 검진응답자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거진읍 26.1%(882명), 토성면 23.3%(788명), 죽왕면 19.6%(663명), 간성읍 18.1%(615명), 현내면 12.9%(436명) 순으로 나타남<표 303>.

〈표 303〉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주지역	간성읍	615	18.1
	거진읍	882	26.1
	현내면	436	12.9
	죽왕면	663	19.6
	토성면	788	23.3
	합계	3,384	100.0

● 종교

- 검진응답자의 종교를 살펴보면 ‘무교’가 46.7%(1,529명) ‘불교’ 18.1%(613명), ‘기독교’ 16.1%(544명), ‘천주교’ 3.8%(127명), ‘기타’ 0.7%(25명) 순으로 나타남<표 304>.

〈표 304〉 응답자 종교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종교	기독교	544	16.1
	불교	613	18.1
	천주교	127	3.8
	무교	1,579	46.7
	기타	25	0.7
	무응답	496	14.6
	합계	3,384	100.0

● 주거유형

- 검진응답자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자가’가 86.7%(2,934명), ‘기타’ 6.8%(229명), ‘월세’ 4.4%(150명), ‘전세’ 0.8%(26명) 순으로 나타남<표 305>.

〈표 305〉 응답자 주거유형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거유형	자가	2,934	86.7
	전세	26	0.8
	월세	150	4.4
	기타	229	6.8
	무응답	45	1.3
	합계	3,384	100.0

● 독거여부

- 검진응답자의 독거여부를 살펴보면 ‘동거’ 51.1%(1,728명), ‘독거’ 48.2%(1,631명)로 나타남<표 306>.

〈표 306〉 응답자 독거여부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여부	독거	1,631	48.2
	동거	1,728	51.1
	무응답	25	0.7
	합계	3,384	100.0

● 독거기간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기간을 살펴보면, ‘5년~15년 미만’ 28.0%(457명), ‘25년 이상’ 26.2%(428명), ‘15년~25년 미만’ 23.5%(384명), ‘5년 미만’ 15.6%(255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독거기간은 ‘17.7±13.0년’으로 나타남<표 307>.

〈표 307〉 응답자 독거기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기간	5년 미만	255	15.6
	5년~15년 미만	457	28.0
	15년~25년 미만	384	23.5
	25년 이상	428	26.2
	무응답	107	6.7
	전체	1,631	100.0

● 독거사유

- 독거 중인 검진응답자의 독거사유를 살펴보면, ‘사별’이 74.1%(1,209명), ‘이혼’ 3.1%(50명), ‘기타’ 2.8%(45명), ‘별거’ 1.8%(29명), ‘미혼’ 0.5%(8명) 순으로 나타남<표 308>.

〈표 308〉 응답자 독거사유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독거사유	사별	1,209	74.1
	이혼	50	3.1
	미혼	8	0.5
	별거	29	1.8
	기타	45	2.8
	무응답	290	17.7
	합계	1,631	100.0



2) 경제적 특성

● 사회보장

- 검진응답자의 사회보장을 살펴보면, ‘일반’ 79.7%(2,697명), ‘기초생활수급자’ 7.3%(247명), ‘차상위 계층’ 2.4%(81명)순으로 나타남<표 309>.

〈표 309〉 응답자 사회보장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247	7.3
	차상위계층	81	2.4
	일반	2,697	79.7
	무응답	359	10.6
	합계	3,384	100.0

● 경제활동

- 검진응답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안한다’ 63.9%(2,161명), ‘한다’ 34.4%(1,163명)로 나타남 <표 310>.

〈표 310〉 응답자 경제활동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활동	한다	1,163	34.4
	안한다	2,161	63.9
	무응답	60	1.7
	합계	3,384	100.0

● 경제적 지원(1) : 경제적 지원여부

- 검진응답자의 경제적 지원여부를 살펴보면, ‘지원처가 있다’ 56.0%(1,896명), ‘지원처가 없다’ 41.0%(1,386명)로 나타남<표 311>.

〈표 311〉 응답자 경제적 지원(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1)	지원처가 있다	1,896	56.0
	지원처가 없다	1,386	41.0
	무응답	102	3.0
	합계	3,384	100.0

● 경제적 지원(2) : 정기적 지원 & 비정기적 지원

-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검진응답자를 살펴보면, ‘비정기적 지원’ 70.9%(1,344명), ‘정기적 지원’ 25.6%(485명)로 나타남<표 312>.

〈표 312〉 응답자 경제적 지원(2)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제적 지원(2)	정기적 지원	485	25.6
	비정기적 지원	1,344	70.9
	무응답	67	3.5
	합계	1,896	100.0

● 주관적 경제상태

- 검진응답자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보통’ 55.0%(1,860명), ‘가난하다’ 29.9%(1,011명), ‘매우 가난하다’ 7.7%(261명), ‘부유하다’ 2.9%(97명), ‘매우 부유하다’ 0.0%(0명) 순으로 나타남 <표 313>.

〈표 313〉 응답자 주관적인 경제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가난하다	261	7.7
	가난하다	1,011	29.9
	보통	1,860	55.0
	부유하다	97	2.9
	매우 부유하다	0	0.0
	무응답	155	4.5
	합계	3,384	100.0

3) 보건학적 특성

● 거동상태

- 검진응답자의 거동상태를 살펴보면, ‘정상’ 94.7%(3,204명), ‘불편’ 3.2%(107명), ‘불능’ 0.4%(12명) 순으로 나타남<표 314>.

〈표 314〉 응답자 거동상태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거동상태	정상 ¹⁾	3,204	94.7
	불편 ²⁾	107	3.2
	불능 ³⁾	12	0.4
	무응답	61	1.7
	합계	3,384	100.0

1) 정상 : 도움 없이 혼자 방을 나올 수 있다.

2) 불편 :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이 있어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3) 불능 : 들 것에 실리거나 업혀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 3개월 이상 약 복용

- 검진응답자의 ‘3개월 이상 약 복용’ 여부를 살펴보면, ‘있음’ 87.0%(2,943명), ‘없음’ 12.5%(422명)로 나타남<표 315>.

〈표 315〉 응답자 3개월 이상 약 복용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3개월 이상 약 복용	있음	2,943	87.0
	없음	422	12.5
	무응답	19	0.5
	합계	3,384	100.0



● 앓고 있는 질병

- 검진응답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살펴보면, ‘고혈압’ 72.2%(2,148명), ‘기타’ 36.2%(1,077명), ‘만성통증’ 31.5%(936명), ‘당뇨병’ 19.7%(585명), ‘우울증’ 12.0%(3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16>.

〈표 316〉 응답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앓고 있는 질병	암	68	2.3
	만성통증	936	31.5
	뇌혈관질환	175	5.9
	고혈압	2,148	72.2
	당뇨병	585	19.7
	심장질환	232	7.8
	간질환	27	0.9
	신장질환	52	1.7
	호흡기질환	127	4.3
	우울증	356	12.0
	기타	1,077	36.2
	합계	5,783	194.5

※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2,974명중 1,801명 다중응답

● 문제성 음주 : 소주 1병 or 맥주 4병 이상

- 검진응답자의 문제성 음주 정도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84.9%(2,872명), ‘거의 매일’ 4.1%(140명), ‘주 1회’ 3.5%(120명), ‘월 1회’ 2.7%(93명), ‘월 1회 미만’ 2.6%(88명) 순으로 나타남 <표 317>.

〈표 317〉 응답자 문제성 음주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2,872	84.9
	월 1회 미만	88	2.6
	월 1회	93	2.7
	주 1회	120	3.5
	거의 매일	140	4.1
	무응답	71	2.2
	합계	3,384	100.0

4) 사회관계적 특성

● 가족여부

- 검진응답자의 가족여부를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경우 90.9%(3,077명),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36.1%(1,222명), ‘배우자’ 26.7%(905명), ‘없음’ 1.1%(36명), ‘기타’ 0.5%(16명) 순으로 나타남 <표 318>.

〈표 318〉 응답자 가족여부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여부	없음	36	1.1
	배우자	905	26.7
	자녀	3,077	90.9
	형제/자매	1,222	36.1
	기타	16	0.5
	무응답	148	4.4
	합계	5,404	159.7

※ 검진응답자 중 1,806명 다중응답

● 가족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71.8%(2,431명), ‘월 1~2회’ 15.0%(508명), ‘연 1~2회’ 5.0%(169명), ‘분기 1~2회’ 3.7%(126명), ‘없음’ 2.5%(86명) 순으로 나타남<표 319>.

〈표 319〉 응답자 가족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족연락	없음	86	2.5
	연 1~2회	169	5.0
	분기 1~2회	126	3.7
	월 1~2회	508	15.0
	주 1회 이상	2,431	71.8
	무응답	64	2.0
	합계	3,384	100.0

● 친구연락

- 검진응답자의 친구와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49.6%(1,677명), ‘없음’ 33.0%(1,116명), ‘월 1~2회’ 8.2%(278명), ‘분기 1~2회’ 2.0%(67명) ‘연 1~2회’ 1.5%(50명) 순으로 나타남<표 320>.

〈표 320〉 응답자 친구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친구연락	없음	1,116	33.0
	연 1~2회	50	1.5
	분기 1~2회	67	2.0
	월 1~2회	278	8.2
	주 1회 이상	1,677	49.6
	무응답	196	5.7
	합계	3,384	100.0

● 이웃연락

- 검진응답자의 가족과 연락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 81.4%(2,756명), ‘월 1~2회’ 7.5%(249명), ‘없음’ 3.2%(107명), ‘분기 1~2회’ 1.2%(39명), ‘연 1~2회’ 0.6%(19명) 순으로 나타남<표 321>.

〈표 321〉 응답자 이웃연락 빈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이웃연락	없음	107	3.2
	연 1~2회	19	0.6
	분기 1~2회	39	1.2
	월 1~2회	249	7.4
	주 1회 이상	2,756	81.4
	무응답	214	6.2
	합계	3,384	100.0

● 경로당 이용

- 검진응답자의 경로당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안함’ 48.0%(1,625명), ‘자주(월 3회 이하)’ 30.5%(1,033명), ‘가끔(월 2회 이하)’ 13.8%(468명) 순으로 나타남<표 322>.

〈표 322〉 응답자 경로당 이용정도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경로당 이용	안함	1,625	48.0
	가끔(월 2회 이하)	468	13.8
	자주(월 3회 이상)	1,033	30.5
	무응답	258	7.7
	합계	3,384	100.0

● 사회서비스 이용(1) : 사회서비스 이용 여부

- 검진응답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이용안함’ 76.0%(2,572명), ‘이용’ 15.6%(529명)로 나타남<표 323>.

〈표 323〉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1) 분포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529	15.6
	이용안함	2,572	76.0
	무응답	283	8.4
	합계	3,384	100.0

● 사회서비스 이용(2) : 서비스 종류

- 검진응답자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서서비스’ 49.0%(259명), ‘가사서비스’ 38.8%(205명), ‘기타’ 17.4%(92명), ‘간병서비스’ 3.8%(20명), ‘결연서비스’ 1.1%(6명) 순으로 나타남<표 324>.

〈표 324〉 응답자 사회서비스 이용(2) 분포

문항	구분	응답 수(명)	비율(%)
사회서비스 이용(2)	가사서비스	205	38.8
	정서서비스	259	49.0
	결연서비스	6	1.1
	간병서비스	20	3.8
	기타	92	17.4
	무응답	17	3.2
	합계	599	113.2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검진응답자 중 70명 다중응답

II 마음건강 검진 : 우울증

1 | 우울점수(SGDS)

- 검진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경제적 특성, 보건학적 특성,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SGDS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또는 로버스트검정(welch)을 실시하였고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음.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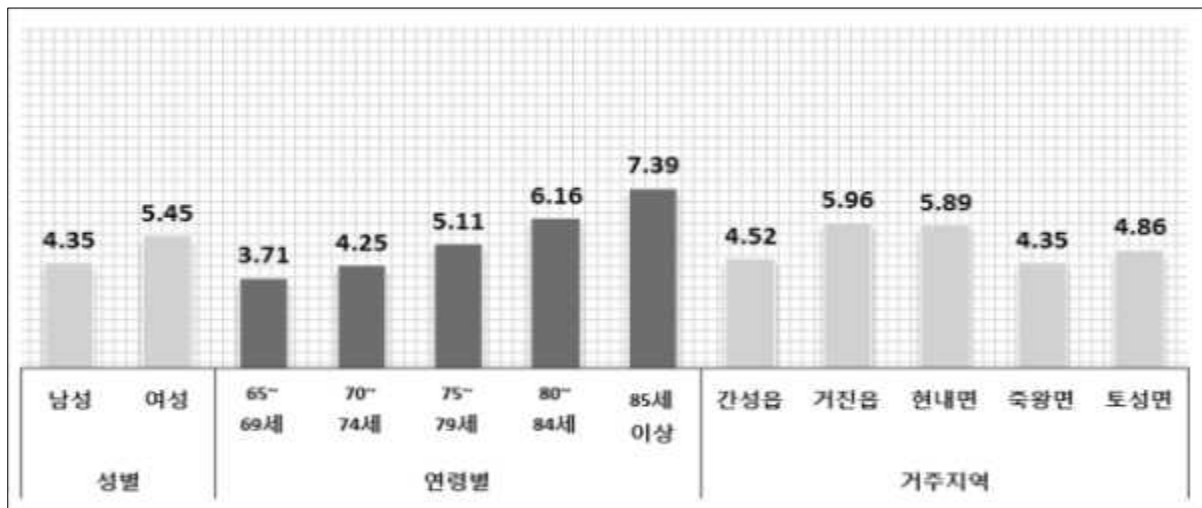
- 성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여성’(5.45)이 ‘남성’(4.3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5>, <그림 56>.
- 연령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3.71 -> ‘85세 이상’ 7.3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5>, <그림 56>.
 - 연령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85세 이상’이 다른 연령대보다, ‘80~84세’가 ‘75~79세’, ‘70~74세’, ‘65~69세’보다, ‘75~79세’가 ‘70~74세’, ‘65~69세’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거진읍’(5.96)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5>, <그림 56>.
 - 거주지역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거진읍’과 ‘현내면’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5〉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성	910	4.35	4.21	(43.806)***	-
	여성	2,316	5.45	4.32		
	전체	3,226	5.14	4.31		
연령별	65~69세(A)	446	3.71	3.88	(61.680)***	A,B < C < D < E
	70~74세(B)	931	4.25	4.09		
	75~79세(C)	962	5.11	4.26		
	80~84세(D)	524	6.16	4.30		
	85세 이상(E)	404	7.39	4.25		
	전체	3,267	5.12	4.32		
거주 지역	간성읍(A)	587	4.52	4.17	(20.761)***	A,D,E < B,C
	거진읍(B)	855	5.96	4.51		
	현내면(C)	428	5.89	4.41		
	죽왕면(D)	644	4.35	3.86		
	토성면(E)	771	4.86	4.30		
	전체	3,285	5.12	4.32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5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1)



- 종교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5.12)가 없는 경우(4.8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 <표 326>, <그림 57>.
- 독거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독거’(5.92)가 ‘동거’(4.3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6>, <그림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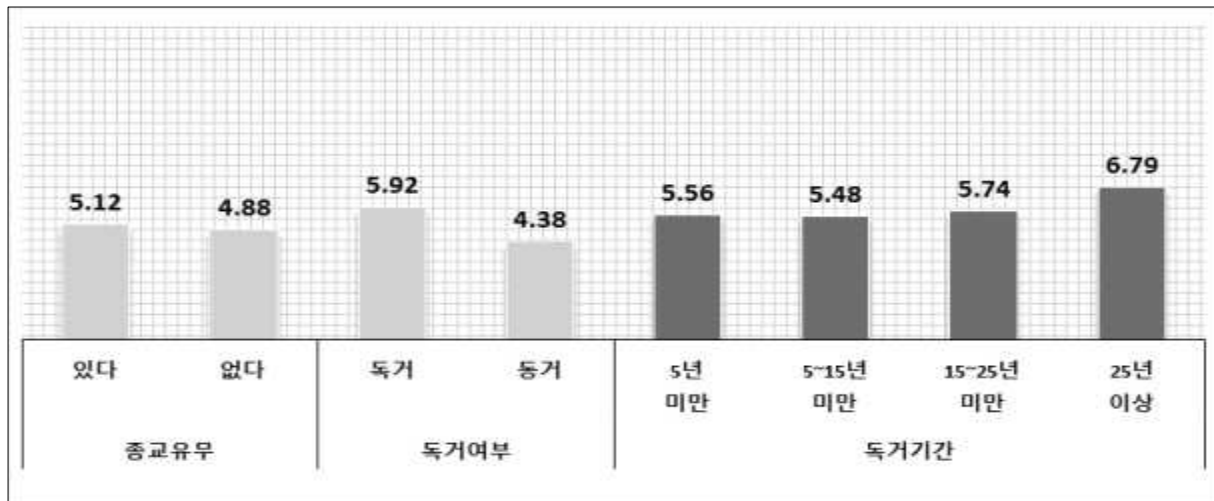
- 독거인 검진응답자 중 독거기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5.56 -> '25년 이상' 6.7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6>, <그림 57>.
- 독거기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독거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25년 이상'이 다른 독거기간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6〉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종교 유무	있다	1,271	5.12	4.31	40.879	-
	없다	1,529	4.88	4.19		
	전체	2,800	4.99	4.25		
독거 여부	독거	1,580	5.92	4.34	(106.562)***	-
	동거	1,680	4.38	4.17		
	전체	3,260	5.13	4.32		
독거 기간	5년 미만(A)	242	5.56	4.23	8.060***	A,B,C < D
	5~15년 미만(B)	444	5.48	4.33		
	15~25년 미만(C)	373	5.74	4.18		
	25년 이상(D)	416	6.79	4.36		
	전체	1,475	5.93	4.31		

* : $p<.05$, ** : $p<.01$, *** : $p<.001$

〈그림 5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일반적인 특성(2)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차상위계층'(8.39)이 다른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7>, <그림 58>.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보다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남.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활동을 ‘안한다’(5.70)가 ‘한다’(4.0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7>, <그림 58>.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5.51)가 ‘있다’(4.8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7>, <그림 5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2.05 -> ‘가난’ 7.0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7>, <그림 58>.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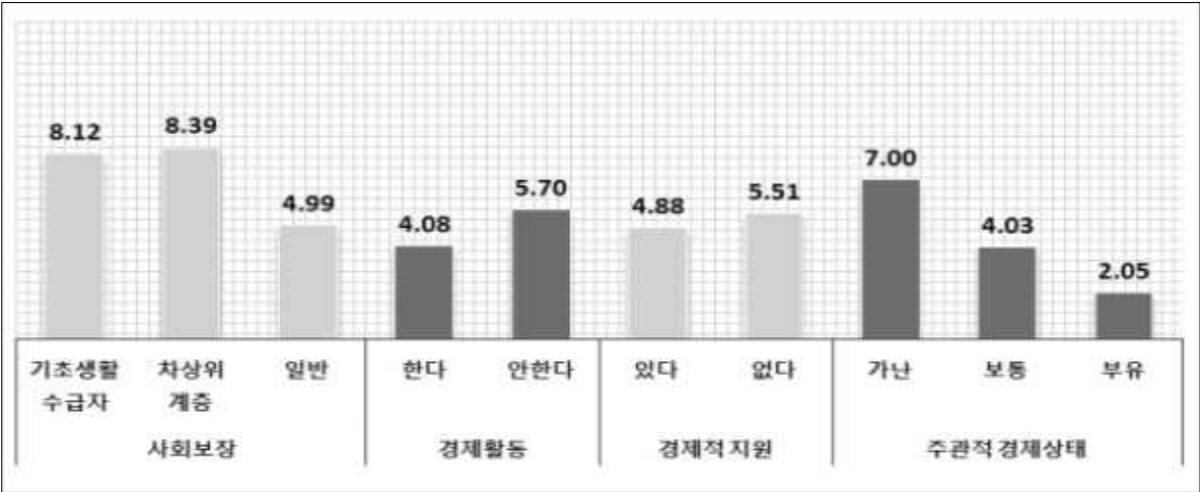
〈표 327〉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사회 보장	기초생활수급자(A)	237	8.12	4.21	79.942***	C < A,B
	차상위계층(B)	79	8.39	4.47		
	일반(C)	2,620	4.99	4.25		
	전체	2,936	5.33	4.37		
경제 활동	한다	1,132	4.08	3.87	(116.524)***	-
	안한다	2,098	5.70	4.44		
	전체	3,230	5.13	4.32		
경제적 지원	있다	1,850	4.88	4.12	16.165***	-
	없다	1,338	5.51	4.55		
	전체	3,188	5.14	4.31		
주관적 경제 상태	가난(A)	1,242	7.00	4.37	232.066***	C < B < A
	보통(B)	1,807	4.03	3.86		
	부유(C)	93	2.05	2.92		
	전체	3,142	5.15	4.33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그림 5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경제적 특성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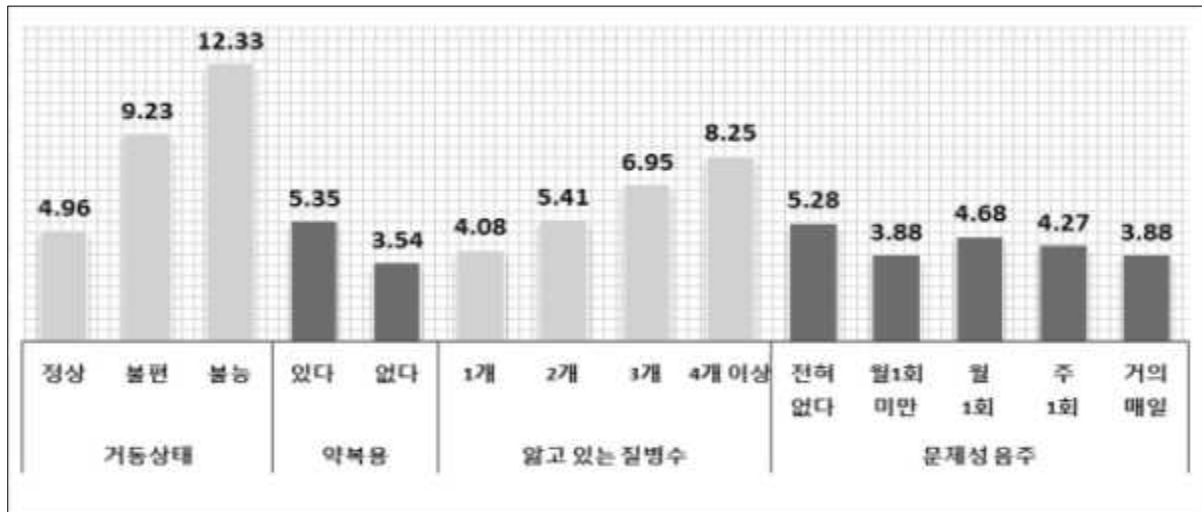
- 거동상태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 ('정상' 4.96 -> '불능' 12.3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8>, <그림 59>.
 - 거동상태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거동상태가 어려울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3개월 이내 약 복용 여부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있다'(5.35)가 '없다'(3.5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28>, <그림 59>.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1개' 4.08 -> '4개 이상' 8.2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8>, <그림 59>.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질병의 수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문제성 음주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 ('거의 매일' 3.88 -> '전혀 없다' 5.2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8>, <그림 59>.
 - 문제성 음주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전혀 없다'가 '거의 매일'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8〉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거동 상태	정상(A)	3,109	4.96	4.25	(107.868)***	A < B < C
	불편(B)	105	9.23	3.83		
	불능(C)	12	12.33	2.53		
	전체	3,226	5.13	4.32		
약 복용	있다	2,858	5.35	4.33	(74.782)***	-
	없다	408	3.54	3.92		
	전체	3,266	5.13	4.32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A)	1,132	4.08	3.96	(91.912)***	A < B < C < D
	2개(B)	1,030	5.41	4.16		
	3개(C)	516	6.95	4.30		
	4개 이상(D)	210	8.25	4.45		
	전체	2,888	5.37	4.33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A)	2,787	5.28	4.34	(6.966)***	E < A
	월 1회 미만(B)	84	3.88	4.13		
	월 1회(C)	90	4.68	4.10		
	주 1회(D)	119	4.27	4.17		
	거의 매일(E)	138	3.88	3.88		
	전체	3,218	5.13	4.32		

* : p<.05, ** : p<.01, *** : p<.001

〈그림 5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보건학적 특성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점수(SGDS) 평균 비교

- 가족유무에 따른 SGDS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없음’(6.43)이 ‘있음’(5.1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29>, <그림 60>.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49 -> ‘없음’ 7.1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9>, <그림 60>.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모든 연락빈도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30 -> ‘없음’ 6.2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9>, <그림 60>.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모든 연락빈도가 ‘주 1회 이상’보다, ‘연 1~2회’가 ‘분기 1~2회’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4.79 -> ‘없음’ 7.8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29>, <그림 60>.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없음’, ‘연 1~2회’, ‘분기 1~2회’가 ‘주 1회 이상’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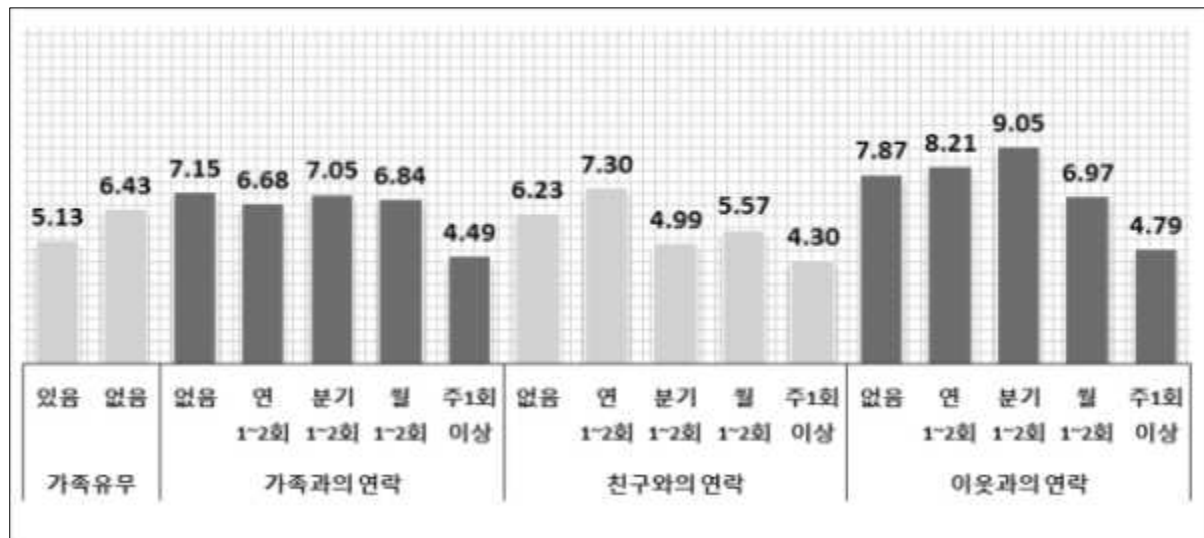
〈표 329〉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가족 유무	있음	3,111	5.13	4.32	3.113	-
	없음	35	6.43	4.69		
	전체	3,146	5.15	4.33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가족 연락	없음(A)	84	7.15	4.50	(47.723)***	E < (A~D)
	연 1~2회(B)	165	6.68	4.21		
	분기 1~2회(C)	122	7.05	4.71		
	월 1~2회(D)	495	6.84	4.36		
	주 1회 이상(E)	2,358	4.49	4.10		
	전체	3,224	5.13	4.31		
친구 연락	없음(A)	1,081	6.23	4.36	(36.766)***	E < (A~D)
	연 1~2회(B)	50	7.30	4.44		
	분기 1~2회(C)	67	4.99	3.82		
	월 1~2회(D)	272	5.57	4.14		C < B
	주 1회 이상(E)	1,627	4.30	4.16		
	전체	3,097	5.15	4.33		
이웃 연락	없음(A)	102	7.87	4.51	37.507***	E < (A~C)
	연 1~2회(B)	19	8.21	3.94		
	분기 1~2회(C)	39	9.05	4.39		
	월 1~2회(D)	245	6.97	4.24		
	주 1회 이상(E)	2,673	4.79	4.22		
	전체	3,078	5.14	4.33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6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4.26 → ‘안함’ 5.5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0>, <그림 6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정도가 적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그중 ‘안함’이 다른 이용정보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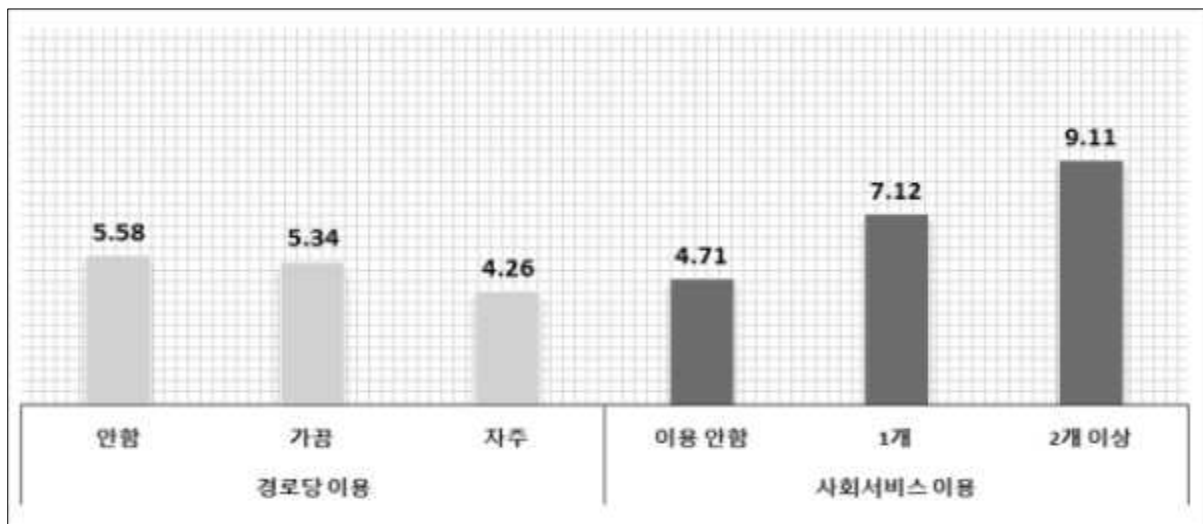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SGDS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상대적으로 증가(‘없음’ 4.71 → ‘2개 이상’ 9.1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0>, <그림 61>.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SGDS 평균점수가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사후검정을 실시. 그 결과 이용하는 사회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 330〉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문항	구분	응답자 수 (명)	SGDS		F(welch)	사후검정
			평균	표준편차		
경로당 이용	안함(A)	1,570	5.58	4.51	(32.925)***	B, C < A
	가끔(B)	461	5.34	4.31		
	자주(C)	1,005	4.26	3.88		
	전체	3,036	5.11	4.32		
사회 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A)	2,502	4.71	4.17	(84.135)***	A < B < C
	1개(B)	432	7.12	4.49		
	2개 이상(C)	63	9.11	4.14		
	전체	2,997	5.15	4.34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61〉 검진응답자의 SGDS 평균 비교 : 사회관계적 특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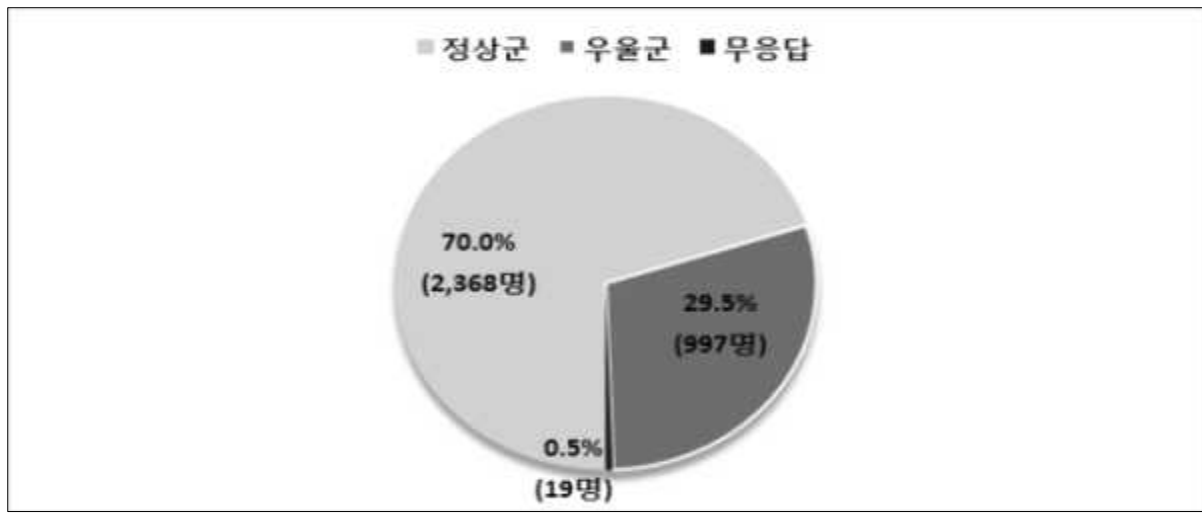
2 | 우울군 분포 현황

- 조맹제 등의 연구에 따르면 SGDS 점수의 총합이 8점 이상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받도록 권유하고 있다.
- 고성군 검진응답자의 SGDS 점수를 7점을 기준으로 정상군(0~7점), 우울군(8~15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상군’ 비율이 70.0%(2,368명), ‘우울군’ 비율이 29.5%(997명)로 나타남<표 331>, <그림 62>.

〈표 331〉 고성군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우울군	정상군	2,368	70.0
	우울군	997	29.5
	무응답	19	0.5
	전체	3,384	100.0

〈그림 62〉 고성군 검진응답자 우울군 분포 현황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성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우울군 비율(32.3%)이 ‘남성’의 우울군 비율(23.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2>.
- 연령별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각 연령대의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18.7% -> ‘85세 이상’ 47.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2>.
- 거주지역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거진읍’의 우울군 비율(37.9%)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2>.
- 종교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의 우울군 비율(28.8%)이 종교가 없는 경우의 우울군 비율(28.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32>.

〈표 3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성별	남성	718 (77.0)	214 (23.0)	932 (100.0)	28.166	.000***
	여성	1,605 (67.7)	767 (32.3)	2,372 (100.0)		
	전체	2,323 (70.3)	981 (29.7)	3,304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연령별	65~69세	369 (81.3)	85 (18.7)	454 (100.0)	122.853	.000***
	70~74세	737 (76.9)	222 (23.1)	959 (100.0)		
	75~79세	691 (70.4)	291 (29.6)	982 (100.0)		
	80~84세	341 (63.3)	198 (36.7)	539 (100.0)		
	85세 이상	216 (52.3)	197 (47.7)	413 (100.0)		
	전체	2,354 (70.3)	993 (29.7)	3,347 (100.0)		
거주지역	간성읍	469 (76.5)	144 (23.5)	613 (100.0)	67.922	.000***
	거진읍	544 (62.1)	332 (37.9)	876 (100.0)		
	현내면	275 (63.2)	160 (36.8)	435 (100.0)		
	죽왕면	508 (77.2)	150 (22.8)	658 (100.0)		
	토성면	572 (73.1)	211 (26.9)	783 (100.0)		
	전체	2,368 (70.4)	997 (29.6)	3,365 (100.0)		
종교 유무	있다	927 (71.2)	375 (28.8)	1,302 (100.0)	0.192	.678
	없다	1,128 (71.9)	440 (28.1)	1,568 (100.0)		
	전체	2,055 (71.6)	815 (28.4)	2,870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독거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6.8%)이 ‘동거’인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3.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3>.
- 독거기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길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5년 미만’ 35.8% -> ‘25년 이상’ 45.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3>.

〈표 3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독거여부	독거	1,025 (63.2)	598 (36.8)	1,623 (100.0)	75.812	.000***
	동거	1,321 (76.9)	396 (23.1)	1,717 (100.0)		
	전체	2,346 (70.2)	994 (29.8)	3,340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163 (64.2)	91 (35.8)	254 (100.0)	19.742	.000***
	5~15년 미만	310 (68.6)	142 (31.4)	452 (100.0)		
	15~25년 미만	247 (64.3)	137 (35.7)	384 (100.0)		
	25년 이상	232 (54.5)	194 (45.5)	426 (100.0)		
	전체	952 (62.8)	564 (37.2)	1,516 (100.0)		

* : p<.05, ** : p<.01, *** : p<.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의 우울군 비율(61.3%)이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4>.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우울군 비율(34.9%)이 ‘한다’의 우울군 비율(20.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4>.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의 우울군 비율(33.4%)이 ‘경제적 지원처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7.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4>.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우울군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8.2% -> ‘가난’ 46.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4>.

〈표 334〉 경제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101 (41.2)	144 (58.8)	245 (100.0)	132.923	.000***
	차상위계층	31 (38.8)	49 (61.3)	80 (100.0)		
	일반	1,935 (72.0)	752 (28.0)	2,687 (100.0)		
	전체	2,067 (68.6)	945 (31.4)	3,012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경제활동	한다	926 (79.9)	233 (20.1)	1,159 (100.0)	79.220	.000***
	안한다	1,397 (65.1)	750 (34.9)	2,147 (100.0)		
	전체	2,323 (70.3)	983 (29.7)	3,306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1,373 (72.8)	513 (27.2)	1,886 (100.0)	14.435	.000***
	없다	919 (66.6)	460 (33.4)	1,379 (100.0)		
	전체	2,292 (70.2)	973 (29.8)	3,265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677 (53.3)	592 (46.7)	1,269 (100.0)	289.506	.000***
	보통	1,489 (80.6)	358 (19.4)	1,847 (100.0)		
	부유	89 (91.8)	8 (8.2)	97 (100.0)		
	전체	2,255 (70.2)	958 (29.8)	3,213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 < .05$, ** : $p < .01$, *** : $p < .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거동상태에 따라 우울군의 비율을 살펴보면 거동하기가 어려울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28.2% -> '불능' 100.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5>.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31.5%)이 복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17.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5>.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20.5% -> '4개 이상' 56.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5>.
- 문제성 음주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음주횟수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거의 매일' 20.0% -> '전혀 없다' 30.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5>.

〈표 335〉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2,289 (71.8)	899 (28.2)	3,188 (100.0)	90.524	.000***
	불편	38 (36.2)	67 (63.8)	105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거동상태	불능	0 (0.0)	12 (100.0)	12 (100.0)		
	전체	2,327 (70.4)	978 (29.6)	3,305 (100.0)		
약 복용	있다	2,005 (68.5)	921 (31.5)	2,926 (100.0)	36.157	.000***
	없다	348 (82.9)	72 (17.1)	420 (100.0)		
	전체	2,353 (70.3)	993 (29.7)	3,346 (100.0)		
알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925 (79.5)	239 (20.5)	1,164 (100.0)	185.611	.000***
	2개	723 (68.9)	327 (31.1)	1,050 (100.0)		
	3개	279 (52.8)	249 (47.2)	528 (100.0)		
	4개 이상	94 (43.7)	121 (56.3)	215 (100.0)		
	전체	2,021 (68.3)	936 (31.7)	2,957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974 (69.1)	881 (30.9)	2,855 (100.0)	17.232	.002**
	월 1회 미만	71 (80.7)	17 (19.3)	88 (100.0)		
	월 1회	66 (71.0)	27 (29.0)	93 (100.0)		
	주 1회	95 (79.2)	25 (20.8)	120 (100.0)		
	거의 매일	112 (80.0)	28 (20.0)	140 (100.0)		
	전체	2,318 (70.3)	978 (29.7)	3,296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 현황

- 가족유무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없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48.6%)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의 우울군 비율(29.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6>.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3.7% -> ‘없음’ 54.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6>.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2.5% -> ‘없음’ 39.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6>.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6.7% -> ‘없음’ 56.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6>.

〈표 33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2,244 (70.5)	940 (29.5)	3,184 (100.0)	6.013	.024*
	없다	18 (51.4)	17 (48.6)	35 (100.0)		
	전체	2,262 (70.3)	957 (29.7)	3,219 (100.0)		
가족연락	없음	39 (45.9)	46 (54.1)	85 (100.0)	159.187	.000***
	연 1~2회	91 (53.8)	78 (46.2)	169 (100.0)		
	분기 1~2회	63 (50.0)	63 (50.0)	126 (100.0)		
	월 1~2회	285 (56.4)	220 (43.6)	505 (100.0)		
	주 1회 이상	1,844 (76.3)	573 (23.7)	2,417 (100.0)		
	전체	2,322 (70.3)	980 (29.7)	3,302 (100.0)		
친구연락	없음	668 (60.3)	439 (39.7)	1,107 (100.0)	105.528	.000***
	연 1~2회	25 (50.0)	25 (50.0)	50 (100.0)		
	분기 1~2회	49 (73.1)	18 (26.9)	67 (100.0)		
	월 1~2회	185 (66.5)	93 (33.5)	278 (100.0)		
	주 1회 이상	1,293 (77.5)	375 (22.5)	1,668 (100.0)		
	전체	2,220 (70.0)	950 (30.0)	3,170 (100.0)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이웃연락	없음	46 (43.4)	60 (56.6)	106 (100.0)	110.548	.000***
	연 1~2회	7 (36.8)	12 (63.2)	19 (100.0)		
	분기 1~2회	14 (35.9)	25 (64.1)	39 (100.0)		
	월 1~2회	135 (54.4)	113 (45.6)	248 (100.0)		
	주 1회 이상	2,009 (73.3)	731 (26.7)	2,740 (100.0)		
	전체	2,211 (70.1)	941 (29.9)	3,152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20.7% → ‘안함’ 34.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7>.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른 우울군 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우울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26.0% → ‘2개 이상’ 66.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37>.

〈표 337〉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우울군(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정상군	우울군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1,052 (65.3)	560 (34.7)	1,612 (100.0)	60.057	.000***
	가끔	323 (69.0)	145 (31.0)	468 (100.0)		
	자주	816 (79.3)	213 (20.7)	1,029 (100.0)		
	전체	2,191 (70.5)	918 (29.5)	3,109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1,896 (74.0)	666 (26.0)	2,562 (100.0)	131.603	.000***
	1개	227 (51.7)	212 (48.3)	439 (100.0)		
	2개 이상	22 (33.3)	44 (66.7)	66 (100.0)		
	전체	2,145 (69.9)	922 (30.1)	3,06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III

마음건강 검진 : 자살위험성

1 |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 현황

- 검진응답자의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 ‘있다’ 6.6%(224명), ‘없다’ 92.5%(3,130명)로 나타남<표 338>.

〈표 338〉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	있다	224	6.6
	없다	3,130	92.5
	무응답	30	0.9
	전체	3,384	100.0

- 검진응답자의 현재 자살 계획의 유무에 대해 살펴봤을 때 ‘있다’ 2.3%(78명), ‘없다’ 96.8%(3,274명)로 나타남<표 339>.

〈표 339〉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현재 자살 계획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계획	있다	78	2.3
	없다	3,274	96.8
	무응답	32	0.9
	전체	3,384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문제’가 6.7%(15명), ‘경제적 어려움’ 5.8%(13명), ‘외로움’ 4.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40>.

〈표 340〉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생각의 이유	건강문제	15	6.7
	경제적 어려움	13	5.8
	외로움	9	4.0
	가정불화	7	3.1
	친구/동료와의 불화	1	0.4
	기타	7	3.1
	무응답	188	83.9
	전체	240	107.1

※ 자살생각이 있는 응답자 224명 중 16명 중복응답

- 검진응답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 자살한 사람의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5.1%(171명), ‘없다’ 94.0%(3,182명)로 나타남<표 341>.

〈표 341〉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가까운 사람의 자살	있다	171	5.1
	없다	3,182	94.0
	무응답	31	0.9
	전체	3,384	100.0

- 검진응답자들 중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다’ 2.8% (94명), ‘없다’ 95.9%(3,244명)로 나타남<표 342>.

〈표 342〉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귀하께서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있다	94	2.8
	없다	3,244	95.9
	무응답	46	1.3
	전체	3,384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 중 자살시도한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42.6%(40명), ‘2회’ 13.8%(13명), ‘3회 이상’ 12.8%(12명) 순으로 나타남<표 343>.

〈표 343〉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과거에 자살시도한 횟수”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횟수	1회	40	42.6
	2회	13	13.8
	3회 이상	12	12.8
	무응답	29	30.8
	전체	94	100.0

- 과거 자살시도한 적이 있는 응답자 중 시도했을 때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약물복용’ 38.3% (36명), ‘살충제’ 19.1%(18명), ‘기타’ 19.1%(18명), ‘익수’ 14.9%(14명), 목매 9.6%(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표 344>.

〈표 344〉 자살위험성 문항 응답분포 - “자살시도했을 때의 방법”

문항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자살시도 했을 때의 방법	목매	9	9.6
	살충제	18	19.1
	투신	3	3.2
	가스	1	1.1
	자해	1	1.1
	익수	14	14.9
	약물복용	36	38.3
	기타	18	19.1
	무응답	0	0.0
	전체	100	106.4

※ 자살시도자 중 94명 중 6명 중복응답

2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위험성

: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자살위험군을 선별할 때 중요시 되는 문항인 ‘1개월 이내 자살생각의 유무’와 ‘과거 자살시도의 유무’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8.5%)이 ‘여성’(6.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45>.
- 연령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65~69세’ 4.4% -> ‘85세 이상’ 10.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45>.

〈표 34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79 (8.5)	850 (91.5)	929 (100.0)	6.148	.017*
	여성	144 (6.1)	2,220 (93.9)	2,364 (100.0)		
	전체	223 (6.8)	3,070 (93.2)	3,293 (100.0)		
연령별	65~69세	20 (4.4)	433 (95.6)	453 (100.0)	17.556	.002**
	70~74세	56 (5.9)	901 (94.1)	957 (100.0)		
	75~79세	61 (6.2)	916 (93.8)	977 (100.0)		
	80~84세	42 (7.9)	490 (92.1)	532 (100.0)		
	85세 이상	45 (10.8)	372 (89.2)	417 (100.0)		
	전체	224 (6.7)	3,112 (93.3)	3,336 (100.0)		

* : p<.05, ** : p<.01, *** : p<.001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토성면’(8.7%)이 다른 거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46>.
- 종교유무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경우(6.3%)가 종교가 있는 경우(6.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46>.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일 때(8.2%)가 ‘동거’일 때(5.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46>.
- 독거기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9.5%)가 다른 독거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46>.

〈표 34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간성읍	29 (4.8)	581 (95.2)	610 (100.0)	9.542	.049*
	거진읍	54 (6.2)	816 (93.8)	870 (100.0)		
	현내면	32 (7.5)	397 (92.5)	429 (100.0)		
	죽왕면	41 (6.2)	619 (93.8)	660 (100.0)		
	토성면	68 (8.7)	717 (91.3)	785 (100.0)		
	전체	224 (6.7)	3,130 (93.3)	3,354 (100.0)		
종교유무	있다	80 (6.2)	1,214 (93.8)	1,294 (100.0)	0.018	.938
	없다	99 (6.3)	1,471 (93.7)	1,570 (100.0)		
	전체	179 (6.3)	2,685 (93.8)	2,864 (100.0)		
독거여부	독거	132 (8.2)	1,477 (91.8)	1,609 (100.0)	12.31	.000***
	동거	89 (5.2)	1,631 (94.8)	1,720 (100.0)		
	전체	221 (6.6)	3,108 (93.4)	3,329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20 (7.9)	233 (92.1)	253 (100.0)	1.306	.728
	5~15년 미만	35 (7.7)	419 (92.3)	454 (100.0)		
	15~25년 미만	35 (9.4)	338 (90.6)	373 (100.0)		
	25년 이상	40 (9.5)	382 (90.5)	422 (100.0)		
	전체	130 (8.7)	1,372 (91.3)	1,502 (100.0)		

* : p<.05, ** : p<.01, *** : p<.001

2) 경제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13.8%)가 다른 사회보장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47>.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경우(8.0%)가 ‘한다’의 경우(4.3%)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47>.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8.7%)가 ‘있다’의 경우(5.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47>.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3.1% -> ‘가난’ 11.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47>.

〈표 347〉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33 (13.8)	207 (86.3)	240 (100.0)	19.193	.000***
	차상위계층	8 (10.0)	72 (90.0)	80 (100.0)		
	일반	171 (6.4)	2,504 (93.6)	2,675 (100.0)		
	전체	212 (7.1)	2,783 (92.9)	2,995 (100.0)		
경제활동	한다	50 (4.3)	1,106 (95.7)	1,156 (100.0)	16.146	.000***
	안한다	171 (8.0)	1,968 (92.0)	2,139 (100.0)		
	전체	221 (6.7)	3,074 (93.3)	3,295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95 (5.1)	1,780 (94.9)	1,875 (100.0)	17.017	.000***
	없다	120 (8.7)	1,259 (91.3)	1,379 (100.0)		
	전체	215 (6.6)	3,039 (93.4)	3,254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145 (11.6)	1,109 (88.4)	1,254 (100.0)	77.178	.000***
	보통	67 (3.6)	1,781 (96.4)	1,848 (100.0)		
	부유	3 (3.1)	94 (96.9)	97 (100.0)		
	전체	215 (6.7)	2,984 (93.3)	3,199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3)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거동상태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어려울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정상’ 6.3% → ‘불능’ 41.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48>.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약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한 경우 (7.1%)가 ‘없다’고 한 경우(3.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48>.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1개’ 4.0% → ‘4개 이상’ 22.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48>.
- 문제성 음주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없음’ 6.1% → ‘거의 매일’ 10.0%)하는 추세는 나타남<표 348>.

〈표 348〉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199 (6.3)	2,978 (93.7)	3,177 (100.0)	28.791	.000***
	불편	12 (11.5)	92 (88.5)	104 (100.0)		
	불능	5 (41.7)	7 (58.3)	12 (100.0)		
	전체	216 (6.6)	3,077 (93.4)	3,293 (100.0)		
약 복용	있다	207 (7.1)	2,706 (92.9)	2,913 (100.0)	6.49	.009**
	없다	16 (3.8)	406 (96.2)	422 (100.0)		
	전체	223 (6.7)	3,112 (93.3)	3,335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47 (4.0)	1,116 (96.0)	1,163 (100.0)	91.817	.000***
	2개	69 (6.6)	976 (93.4)	1,045 (100.0)		
	3개	48 (9.2)	475 (90.8)	523 (100.0)		
	4개 이상	47 (22.1)	166 (77.9)	213 (100.0)		
	전체	211 (7.2)	2,733 (92.8)	2,944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174 (6.1)	2,669 (93.9)	2,843 (100.0)	8.075	.089
	월 1회 미만	9 (10.2)	79 (89.8)	88 (100.0)		
	월 1회	5 (5.4)	87 (94.6)	92 (100.0)		
	주 1회	12 (10.0)	108 (90.0)	120 (100.0)		
	거의 매일	14 (10.0)	126 (90.0)	140 (100.0)		
	전체	214 (6.5)	3,069 (93.5)	3,283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4)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 자살생각

- 가족유무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가족이 ‘없다’의 경우(13.9%)가 ‘있다’의 경우(6.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49>.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5.1% -> ‘없음’ 14.1%)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49>.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4.6% -> ‘없음’ 8.6%)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49>.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증가(‘주 1회 이상’ 5.8% -> ‘없음’ 17.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49>.

〈표 349〉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216 (6.8)	2,954 (93.2)	3,170 (100.0)	2.776	.098
	없다	5 (13.9)	31 (86.1)	36 (100.0)		
	전체	221 (6.9)	2,985 (93.1)	3,206 (100.0)		
가족연락	없음	12 (14.1)	73 (85.9)	85 (100.0)	42.566	.000***
	연 1~2회	22 (13.3)	143 (86.7)	165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연락	분기 1~2회	15 (11.9)	111 (88.1)	126 (100.0)		
	월 1~2회	50 (9.9)	453 (90.1)	503 (100.0)		
	주 1회 이상	123 (5.1)	2,288 (94.9)	2,411 (100.0)		
	전체	222 (6.7)	3,068 (93.3)	3,290 (100.0)		
친구연락	없음	94 (8.6)	1,004 (91.4)	1,098 (100.0)	33.614	.000***
	연 1~2회	10 (20.0)	40 (80.0)	50 (100.0)		
	분기 1~2회	6 (9.0)	61 (91.0)	67 (100.0)		
	월 1~2회	22 (8.0)	254 (92.0)	276 (100.0)		
	주 1회 이상	77 (4.6)	1,595 (95.4)	1,672 (100.0)		
	전체	209 (6.6)	2,954 (93.4)	3,163 (100.0)		
이웃연락	없음	18 (17.0)	88 (83.0)	106 (100.0)	51.827	.000***
	연 1~2회	2 (11.1)	16 (88.9)	18 (100.0)		
	분기 1~2회	11 (28.2)	28 (71.8)	39 (100.0)		
	월 1~2회	21 (8.5)	226 (91.5)	247 (100.0)		
	주 1회 이상	159 (5.8)	2,571 (94.2)	2,730 (100.0)		
	전체	211 (6.7)	2,929 (93.3)	3,140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른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정도가 적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4.4% -> ‘안함’ 8.1%)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350>.
- 사회서비스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 수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5.5% -> ‘2개 이상’ 22.7%)하는 추세가 나타남 <표 350>.

〈표 350〉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131 (8.1)	1,485 (91.9)	1,616 (100.0)	13.847	.001**
	가끔	32 (6.9)	434 (93.1)	466 (100.0)		
	자주	45 (4.4)	979 (95.6)	1,024 (100.0)		
	전체	208 (6.7)	2,898 (93.3)	3,106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141 (5.5)	2,414 (94.5)	2,555 (100.0)	40.863	.000***
	1개	43 (9.9)	393 (90.1)	436 (100.0)		
	2개 이상	15 (22.7)	51 (77.3)	66 (100.0)		
	전체	199 (6.5)	2,858 (93.5)	3,057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성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남성(3.5%)이 여성(2.6%)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51>.
- 연령별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85세 이상’ 1.7% -> ‘65~69세’ 4.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1>.

〈표 3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성별	남성	32 (3.5)	892 (96.5)	924 (100.0)	1.634	.202
	여성	62 (2.6)	2,291 (97.4)	2,353 (100.0)		
	전체	94 (2.9)	3,183 (97.1)	3,277 (100.0)		
연령별	65~69세	22 (4.9)	426 (95.1)	448 (100.0)	11.224	.024*
	70~74세	23 (2.4)	936 (97.6)	959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연령별	75~79세	31 (3.2)	938 (96.8)	969 (100.0)		
	80~84세	11 (2.1)	520 (97.9)	531 (100.0)		
	85세 이상	7 (1.7)	406 (98.3)	413 (100.0)		
	전체	94 (2.8)	3,226 (97.2)	3,320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 거주지역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토성면’(4.0%)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52>.
- 종교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종교가 있는 경우(2.9%)가 없는 경우(2.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52>.
- 독거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인’ 경우(3.8%)가 동거인 경우(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2>.
- 독거기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독거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5.1%)가 다른 독거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52>.

〈표 35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주지역	간성읍	16 (2.6)	591 (97.4)	607 (100.0)	7.838	.098
	거진읍	26 (3.0)	842 (97.0)	868 (100.0)		
	현내면	6 (1.4)	423 (98.6)	429 (100.0)		
	죽왕면	15 (2.3)	640 (97.7)	655 (100.0)		
	토성면	31 (4.0)	748 (96.0)	779 (100.0)		
	전체	94 (2.8)	3,244 (97.2)	3,338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종교유무	있다	37 (2.9)	1,250 (97.1)	1,287 (100.0)	0.180	.730
	없다	41 (2.6)	1,527 (97.4)	1,568 (100.0)		
	전체	78 (2.7)	2,777 (97.3)	2,855 (100.0)		
독거여부	독거	61 (3.8)	1,544 (96.2)	1,605 (100.0)	10.498	.002**
	동거	33 (1.9)	1,676 (98.1)	1,709 (100.0)		
	전체	94 (2.8)	3,220 (97.2)	3,314 (100.0)		
독거기간	5년 미만	7 (2.8)	247 (97.2)	254 (100.0)	4.907	.179
	5~15년 미만	19 (4.2)	433 (95.8)	452 (100.0)		
	15~25년 미만	9 (2.4)	369 (97.6)	378 (100.0)		
	25년 이상	21 (5.1)	394 (94.9)	415 (100.0)		
	전체	56 (3.7)	1,443 (96.3)	1,499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6) 경제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사회보장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9.9%)이 다른 사회보장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53>.
-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안한다’의 경우(3.1%)가 ‘한다’의 경우(2.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53>.
-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3.7%)가 ‘있다’의 경우(2.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53>.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태가 어려울 수록 ‘자살시도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부유’ 1.0% -> ‘가난’ 4.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3>.

〈표 353〉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사회보장	기초생활수급자	17 (7.1)	223 (92.9)	240 (100.0)	32.513	.000***
	차상위계층	8 (9.9)	73 (90.1)	81 (100.0)		
	일반	61 (2.3)	2,597 (97.7)	2,658 (100.0)		
	전체	86 (2.9)	2,893 (97.1)	2,979 (100.0)		
경제활동	한다	23 (2.0)	1,123 (98.0)	1,146 (100.0)	3.337	.072
	안한다	66 (3.1)	2,067 (96.9)	2,133 (100.0)		
	전체	89 (2.7)	3,190 (97.3)	3,279 (100.0)		
경제적 지원	있다	40 (2.1)	1,830 (97.9)	1,870 (100.0)	7.284	.009**
	없다	51 (3.7)	1,318 (96.3)	1,369 (100.0)		
	전체	91 (2.8)	3,148 (97.2)	3,239 (100.0)		
주관적 경제상태 ¹⁾	가난	60 (4.8)	1,193 (95.2)	1,253 (100.0)	40.699	.000***
	보통	29 (1.6)	1,806 (98.4)	1,835 (100.0)		
	부유	1 (1.0)	96 (99.0)	97 (100.0)		
	전체	90 (2.8)	3,095 (97.2)	3,185 (100.0)		

1)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 p<.05, ** : p<.01, *** : p<.001

7)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 시도 유무'

- 거동상태에 따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거동상태가 '불능'인 경우 (8.3%)가 다른 거동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54>.
- 약 복용 여부에 따른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없다'의 경우(3.0%)가 '없다'의 경우(1.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확률(p)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없음<표 354>.

- 앓고 있는 질병 수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질병의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증가(‘1개’ 1.6% -> ‘4개 이상’ 5.3%)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4>.
- 문제성 음주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유의확률(p)이 0.05보다 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음주횟수가 많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전혀 없다’ 2.3% -> ‘거의 매일’ 5.0%)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4>.

〈표 354〉 보건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거동상태	정상	85 (2.7)	3,075 (97.3)	3,160 (100.0)	2.993	.112
	불편	5 (4.8)	100 (95.2)	105 (100.0)		
	불능	1 (8.3)	11 (91.7)	12 (100.0)		
	전체	91 (2.8)	3,186 (97.2)	3,277 (100.0)		
약 복용	있다	86 (3.0)	2,814 (97.0)	2,900 (100.0)	2.254	.154
	없다	7 (1.7)	412 (98.3)	419 (100.0)		
	전체	93 (2.8)	3,226 (97.2)	3,319 (1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	1개	19 (1.6)	1,139 (98.4)	1,158 (100.0)	30.591	.000***
	2개	24 (2.3)	1,015 (97.7)	1,039 (100.0)		
	3개	32 (6.1)	494 (93.9)	526 (100.0)		
	4개 이상	11 (5.3)	197 (94.7)	208 (100.0)		
	전체	86 (2.9)	2,845 (97.1)	2,931 (100.0)		
문제성 음주	전혀 없다	66 (2.3)	2,765 (97.7)	2,831 (100.0)	7.086	.091
	월 1회 미만	3 (3.4)	84 (96.6)	87 (100.0)		
	월 1회	2 (2.2)	88 (97.8)	90 (100.0)		
	주 1회	6 (5.0)	114 (95.0)	120 (100.0)		
	거의 매일	7 (5.0)	133 (95.0)	140 (100.0)		
	전체	84 (2.6)	3,184 (97.4)	3,268 (100.0)		

* : $p < .05$, ** : $p < .01$, *** : $p < .001$

8)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과거 자살시도 유무’

- 가족유무에 따른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가족이 없는 경우(11.1%)가 있는 경우(2.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55>.
- 가족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 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0% -> ‘없음’ 10.8%)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5>.
- 친구와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 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1% -> ‘없음’ 3.4%)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5>.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연락빈도가 낮을 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주 1회 이상’ 2.4% -> ‘없음’ 8.5%)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5>.

〈표 355〉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시도 유무(1)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가족유무	있다	88 (2.8)	3,069 (97.2)	3,157 (100.0)	8.813	.019*
	없다	4 (11.1)	32 (88.9)	36 (100.0)		
	전체	92 (2.9)	3,101 (97.1)	3,193 (100.0)		
가족연락	없음	9 (10.8)	74 (89.2)	83 (100.0)	33.949	.000***
	연 1~2회	8 (4.8)	157 (95.2)	165 (100.0)		
	분기 1~2회	4 (3.3)	119 (96.7)	123 (100.0)		
	월 1~2회	23 (4.6)	476 (95.4)	499 (100.0)		
	주 1회 이상	48 (2.0)	2,356 (98.0)	2,404 (100.0)		
	전체	92 (2.8)	3,182 (97.2)	3,274 (100.0)		
친구연락	없음	37 (3.4)	1,059 (96.6)	1,096 (100.0)	12.711	.011*
	연 1~2회	4 (8.2)	45 (91.8)	49 (100.0)		
	분기 1~2회	2 (3.0)	65 (97.0)	67 (100.0)		
	월 1~2회	13 (4.7)	262 (95.3)	275 (100.0)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친구연락	주 1회 이상	35 (2.1)	1,626 (97.9)	1,661 (100.0)		
	전체	91 (2.9)	3,057 (97.1)	3,148 (100.0)		
이웃연락	없음	9 (8.5)	97 (91.5)	106 (100.0)	30.119	.000***
	연 1~2회	0 (0.0)	18 (100.0)	18 (100.0)		
	분기 1~2회	4 (10.8)	33 (89.2)	37 (100.0)		
	월 1~2회	14 (5.7)	232 (94.3)	246 (100.0)		
	주 1회 이상	64 (2.4)	2,656 (97.6)	2,720 (100.0)		
	전체	91 (2.9)	3,036 (97.1)	3,127 (100.0)		

* : p<.05, ** : p<.01, *** : p<.001

- 경로당 이용정도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경로당 이용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자주’ 2.0% -> ‘없음’ 3.9%)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6>.
- 사회서비스 이용에 따라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이용하는 서비스의 수가 많을수록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이용 안함’ 5.5% -> ‘2개 이상’ 22.7%)하는 추세가 나타남<표 356>.

〈표 356〉 사회관계적 특성에 따른 자살 시도 유무(2)

(단위 : 명, %)

문항	구분	있다	없다	전체	χ^2	p
경로당 이용	안함	63 (3.9)	1,540 (96.1)	1,603 (100.0)	13.605	.001**
	가끔	6 (1.3)	458 (98.7)	464 (100.0)		
	자주	20 (2.0)	1,002 (98.0)	1,022 (100.0)		
	전체	89 (2.9)	3,000 (97.1)	3,089 (100.0)		
사회서비스 이용	이용 안함	141 (5.5)	2,414 (94.5)	2,555 (100.0)	44.701	.000***
	1개	43 (9.9)	393 (90.1)	436 (100.0)		
	2개 이상	15 (22.7)	51 (77.3)	66 (100.0)		
	전체	199 (6.5)	2,858 (93.5)	3,057 (100.0)		

* : p<.05, ** : p<.01, *** : p<.001

3 |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과 자살 고위험군

1)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우울군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주관적 경제상태, 앓고 있는 질병의 수, 이웃과의 연락빈도가 우울군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57>.
- 연령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65~69세인 경우를 기준으로 75~79세인 경우가 1.515배, 80~84세인 경우 1.810배, 85세 이상 2.726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부유인 경우를 기준으로 가난인 경우가 7.024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1개인 경우를 기준으로 2개인 경우가 1.635배, 3개인 경우 3.353배, 4개 이상인 경우 5.316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웃과의 연락빈도에 따른 우울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없음인 경우가 3.331배, 연 1~2회인 경우 3.284배, 분기 1~2회 3.973배, 월 1~2회인 경우 1.723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7〉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¹⁾	
				χ^2	p
연령별		.000		8.543	.382
연령별(1) : 70~74세	.147	.390	1.158		
연령별(2) : 75~79세	.416	.012	1.515		
연령별(3) : 80~84세	.594	.001	1.810		
연령별(4) : 85세 이상	1.003	.000	2.726		
주관적 경제상태²⁾		.000			
주관적 경제상태(1) : 가난	1.949	.000	7.024		
주관적 경제상태(2) : 보통	.748	.057	2.113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492	.000	1.635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1.210	.000	3.353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1.671	.000	5.316		
이웃과의 연락빈도		.000			
이웃과의 연락빈도(1) : 없음	1.203	.000	3.331		
이웃과의 연락빈도(2) : 연 1~2회	1.189	.022	3.284		
이웃과의 연락빈도(3) : 분기 1~2회	1.380	.000	3.973		
이웃과의 연락빈도(4) : 월 1~2회	.544	.001	1.723		

1) 모형의 적합도 검정 : 유의확률의 값이 > 0.05 여야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는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2)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 '가난' / '보통이다' -> '보통' /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 '부유'

*: p<.05, **: p<.01, ***: p<.001

2)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을 예측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우울군 여부, 자살 생각의 유무, 자살시도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앓고 있는 질병의 수가 자살 고위험군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58>.
- 성별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사회보장상태가 여자인 경우가 남자인 경우보다 0.316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앓고 있는 질병의 수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위험도를 살펴보면 4개 이상인 경우가 1개인 경우보다 3.885배의 위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8〉 고성군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 고위험군 예측 회귀모형 결과

문항	B	유의확률	Exp(B)	Hosmer와 Lemeshow 검정	
				χ^2	p
성별(1) : 여성	-1.151	.000	.316	8.543	.382
앓고 있는 질병의 수		.000			
앓고 있는 질병의 수(1) : 2개	.310	.215	1.364		
앓고 있는 질병의 수(2) : 3개	.386	.145	1.471		
앓고 있는 질병의 수(3) : 4개 이상	1.357	.000	3.885		

*: $p < .05$, **: $p < .01$, ***: $p < .001$

어르신 마음건강 검진표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고자 본 검진을 실시합니다.

본 검진은 강원도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마음건강 증진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본 검진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실시 되며,
귀하의 모든 응답내용은 동법 제24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는 본 검진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_____.
 “동의합니다.” 자필 기재

1. 검진 내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 검진 결과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제공

2015년 월 일

_____ (인 또는 서명)

나는 본 검진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_____.
 “동의합니다.” 자필 기재

1. 검진 내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 검진 결과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제공

2015년 월 일

_____ (인 또는 서명)

- 나는 본 검진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_____.
 “동의합니다.” 자필 기재
1. 검진 내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 검진 결과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제공
- 2015년 월 일
- _____ (인 또는 서명)

나는 본 검진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_____.
 “동의합니다.” 자필 기재

1. 검진 내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 검진 결과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제공

2015년 월 일

_____ (인 또는 서명)

나는 본 검진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_____.
 “동의합니다.” 자필 기재

1. 검진 내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 검진 결과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서비스 제공

2015년 월 일

_____ (인 또는 서명)

❖ 검진 대상자

성명		성별		나이	만 세	종교	
주소	읍/면/동 리			연락처			

- 검진지역 : 시/군
 • 검진요원 : 서명

◆ 기본 사항

주거 상태	독거여부	① 실제 독거가구 ② 동거가구(동거인 :)	
	소유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독거인 경우만 답변	독거기간	_____년	
	주요 독거사유	① 사별 ② 이혼 ③ 미혼 ④ 별거 ⑤ 기타()	
경제 상태	사회보장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 ③ 일반	
	경제활동	① 한다. ② 안한다.	
	경제적 지원 (정부지원 제외)	① 경제적 지원처가 있다. (☞ ① 정기적 지원 ② 비정기적 지원) ② 경제적 지원처가 없다.	
	나는	① 매우 가난하다 ② 가난하다 ③ 보통 ④ 부유하다 ⑤ 매우 부유하다	
건강 상태	거동여부	① 도움 없이 혼자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부축이 있어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③ 들 것에 실리거나 업혀야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3개월 이상 먹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있다면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암 <input type="checkbox"/> 만성통증(요통, 신경통, 관절염 등) <input type="checkbox"/> 뇌혈관질환(중풍 등) <input type="checkbox"/>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심장질환 <input type="checkbox"/> 간질환 <input type="checkbox"/> 신장질환(투석 등)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질환(천식 등) <input type="checkbox"/> 우울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음주 관련	한 번에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① 전혀 없다 ② 월 1회 미만 ③ 월 1회 ④ 주 1회 ⑤ 거의 매일	
사회 관계	가족여부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배우자 ③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④ 형제/자매 ⑤ 기타()	
	연락 빈도	가족	① 없음 ② 연 1~2회 ③ 분기 1~2회 ④ 월 1~2회 ⑤ 주 1회 이상
		친구	① 없음 ② 연 1~2회 ③ 분기 1~2회 ④ 월 1~2회 ⑤ 주 1회 이상
		이웃	① 없음 ② 연 1~2회 ③ 분기 1~2회 ④ 월 1~2회 ⑤ 주 1회 이상
경로당 이용		① 안함 ② 가끔(월 2회 이하) ③ 자주(월 3회 이상)	*농촌은 농한기 기준
사회 서비스 이용	이용여부	① 이용하고 있다. ②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면 이용사항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가사서비스(청소, 도시락, 빨래 등) <input type="checkbox"/> 정서서비스(말벗, 안부전화 등) <input type="checkbox"/> 결연서비스(물품지원,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간병서비스(이미용, 목욕, 병원 동행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어르신 마음건강 검진 1

√ 지난 일주일간 나는	예	아니오
01_ 현재의 상황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02_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03_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04_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05_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06_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07_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이십니까?		
08_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09_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10_ 비슷한 나이 다른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11_ 현재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12_ 지금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13_ 기력이 좋으신 편이십니까?		
14_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15_ 자신이 다른 사람들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총 점	점	

◆ 어르신 마음건강 검진 2

문항		
01_ 최근 1개월 이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02_ 현재 자살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03_ 자살생각이 있다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문제(신체, 정신적 질환 및 장애) ② 경제적 어려움 ③ 외로움 ④ 가정불화 ⑤ 친구/동료와의 불화 ⑥ 기타()		
04_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05_ 귀하께서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다면, 횟수는? _____회,		
방법은? ① 목매 ② 살충제(농약) ③ 투신(건물/다리) ④ 가스(연탄/번개탄) ⑤ 자해(칼) ⑥ 익수(물) ⑦ 약물복용(수면제/기타 약물) ⑧ 기타()		

-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사자 기타 의견란	
<p>* 대상 어르신의 특이사항, 기타 연계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기재</p>	

2015년 강원도 생명사랑 사업 「마음나눔 공동체」
마음건강 검진 분석 보고서
(강릉, 태백, 삼척, 홍천, 고성)

❖ 사업주관 : 강원도 보건정책과

❖ 사업수행기관

-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강릉시보건소
- 태백시정신건강증진센터, 태백시보건소
- 삼척시정신건강증진센터, 삼척시보건소
- 홍천군정신건강증진센터, 홍천군보건소
- 고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고성군보건소

❖ 지원기관 :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그리고, 마음건강 검진에 최선을 다해주신 검진요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발 행 인 : 이 강 욱

발 행 처 :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4277.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306-5
유창프라자 3층

문 의 처 : 033) 251-1970, 2293

홈페이지 : www.gwmh.or.kr

본 저작물은 강원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소유이므로
사전 승인없이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